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 부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 교수)
- ▶ 위촉연구원 : 김태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손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조사결과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간 사 ■ ■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학업성취 경쟁에 쏠려 있으며 교육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대학에 가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학교 부적응, 이로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래 없이 높은 교육열로 인해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여기며 방치하는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을 체화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본 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소외집단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어떠한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3개년에 걸친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사회가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어떠한 삶의 경로로 이행하고 있는 지 일정 부분 밝혀냈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공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할 문제로 보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는 조사대상자 접근 자체가 어렵고 대상의 변동성이 커 조사를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3년간의 중단조사를 실시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학교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한국리서치 등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경험 실태 및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업 중단 이후의 실태와 이행경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자료를 통해 학업중단 현황 및 국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3개년에 걸친 패널조사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3개년 변화 추이를 보면,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 267명(54.0%), 중·고등학교 재학 중 68명(13.8%), 중·고등학교 졸업 상태 19명(3.8%), 대학진학 135명(27.3%)이었다. 3년간 복교율은 34.4%, 재중단율은 20.0%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공부 경험 및 직업기술 훈련 경험은 점차 낮아졌으며,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률은 점차 늘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와 경로별 특성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후 3년째에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로 추정되었다. 자아존중감, 학업중단사유,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중단 후 성인 멘토를 만나는 기관, 청소년의 교육기대수준 등이 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결과 충동성은 일반청소년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높아져 일반청소년보다 높아졌다. 사회적 낙인감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일반청소년과 비슷해졌다. 양 집단 모두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학대가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친구 비행 성향 역시 양 집단 모두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식습관은 3차년도에는 양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고, 비행관련경험은 중비행의 경우 양 집단 모두 감소하였다. 이 중 중비행 감소의 경우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향후 진로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의 진로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영역에서 모두 16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섯 개의 영역은 첫째,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영역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영역 셋째, 더 많은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 구축 영역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생활지도 영역 다섯째, 학업중단 예방 영역 여섯째, 정책기반 강화 영역 등이며, 각 영역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경험 실태 및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3차년도 패널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이들의 학업 중단 후 이행경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또한 2013년부터 3개년 동안 구축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과 비교패널인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들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국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관련 문헌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 전문가 자문

- 설문지 수정·보완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보호관찰 관련 현장전문가(보호관찰관)와 정부부처 정책담당자들과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음.

○ 양적연구

- 2015년 6월~8월에 3차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음.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활용하였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청소년의 경우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음.

○ 협동연구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구축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이탈과정에 대한 연구의 질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수행하였음.

○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 2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관련 담당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음.

3. 주요결과

○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3개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494명 기준)

- **학업상태** : 3차년도 학업상태를 보면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 267명(54.0%), 중·고등학교 재학 중 68명(13.8%), 중·고등학교 졸업 상태 19명(3.8%), 대학진학 135명(27.3%)임. 중·고등학교 중단 상태에 있는 267명 중 150명은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17명(전체의 23.7%)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복교 및 재중단** : 3년간 복교율은 34.4%, 재중단율은 20.0%로 나타났으며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에 걸리는 시간은 9.7개월, 복교 후 재중단에 걸리는 시간은 6개월로 나타남. 종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교하는 비율은 20% 내외임.
- **대안교육** : 중단 후 3차년도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3.6%(1차 7.0%, 2차 4.0%)로 대단히 낮은 수치였으며, 그 중 72.2%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부 경험률은 17.6%(1차 62.1%, 2차 60.3%)로 감소하였음. 주요 검정고시 공부 방법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거나 '혼자서'이었음.
- **직업훈련** : 직업기술 훈련 경험률은 11.3%(1차 17.6%, 2차 16.0%)로 감소하였음. 직업훈련을 받는 기관은 공공기관(37.5%), 자부담 사설학원(32.1%), 정부부담 사설학원(16.1%) 순이며 훈련 참여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음.
- **일 경험** : 지난 1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률은 59.9%(1차 43.7%, 2차 55.7%)로 점차 증가하였음.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8.1%(1차 22.5%, 2차 34.4%)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주당 근로일수(1차 4.89일, 4.92일, 3차 4.97일)와 일일 근로시간(1차

7.46시간, 2차 8.11시간, 3차 8.47시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음.

- **무업 경험**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경험률은 43.1%(1차 63.2%, 2차 54.3%)로 점차 감소하였음. ‘노는 것이 좋아서’(38.5%),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2.1%), ‘만사가 귀찮아서’(13/1%),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10.8%)가 주요 이유였음.
- **취미·동아리 활동 참여** : 14.8%(1차 16.4%, 2차 15.0%)로 낮은 참여율을 보임. 그러나 지난 1년간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률은 24.3%로 10%p 가량 높게 나타나 인터넷 카페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와 경로별 특성

- 패널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336,550명 중 중단 후 3년째에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로 추정됨.
-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3년 후 경로를 추정해 볼 때 학업형이 169,621명, 직업형 109,042명, 무업형이 37,357명, 비행형이 20,193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3개년 간 변화 비교

- **개인적 특성**(심리·정서)
 - 충동성은 일반청소년이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높아져 일반청소년보다 높아졌음. 사회적 낙인감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감이 일반청소년보다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일반청소년과 비슷해짐.
- **환경적 특성**
 - 양 집단 모두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학대가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친한 친구 수에 있어서는 일반청소년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2년 동안 감소하다 3년차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친구 비행 성향은 양 집단 모두 감소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친구비행 성향이 일반청소년보다 3년간 더 높게 보고되었음.
- **일상생활 실태**
 - 평일 학습이나 훈련에 쓰는 시간 양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3년 동안 양 집단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결식, 인스턴트식품 섭취 등 식습관이 1차년도에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현격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3차년도에는 양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임.
- 아르바이트 경험은 양 집단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동아리나 인터넷 참여 경험은 일반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많았음.

- 비행관련 경험

- 집단따돌림 경험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 집단 모두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자나 메신저로 음란물을 받은 경험은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일반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더 많았음.
- 일반청소년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음주율 역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이에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1차년도부터 일반청소년에 비해 현격히 높기는 했지만 3년 동안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와 같은 중비행의 경우 양 집단 모두 감소하였으나 보호관찰 청소년은 현격히 감소하였음. 공공기물 파손의 경우, 양 집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진로관련 경험

- 일반청소년의 진로정보 획득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3차년도에는 양 집단이 비슷한 활동수준을 보였음.
- 향후 진로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진로를 결정하였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양 집단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함. 진로달성 예측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진로계획 달성에 회의적이었음.

-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과 만족도는 양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일반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해 3차년도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만족도보다 더 낮았음.
- 학력에 대한 태도(학력주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변화도 없었음. 미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일반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더 낙관적이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없었음.

4. 정책제언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 과제 1.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 안내
- 과제 2. 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고용센터와의 연계 강화
- 과제 3. 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과제 4.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과제 5. 비행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과제 6.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공적 보호와 교육지원
- 과제 7.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 더 많은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 구축

- 과제 8.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참여율 평가
- 과제 9. 지역사회 기관의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지원
- 과제 10. 커리어넷 기능보완을 통해 청소년이 취득가능한 자격증 정보 통합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생활지도

- 과제 11.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과제 12.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생활지도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 학업중단 예방

- 과제 13.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학교적응 및 대안 프로그램 지원
- 과제 14.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정책기반 강화

- 과제 15.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계 구축
- 과제 16.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8
II. 학업중단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11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 통계적 소재 및 이행경로 추정	13
2. 관련 정책 현황 분석	37
III. 패널조사 방법	49
1. 패널구축 및 조사설계	51
2.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53
3. 조사과정	61
4. 패널실사	74
5. 자료검증 및 처리	83
6. 패널유지 현황 및 이탈패널 분석	89
IV.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93
1. 응답자 특성	95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97
3. 소결	171

V. 학업중단 청소년 심층 분석	175
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와 관련변인	177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양상 비교	250
VI. 결론 및 정책제언	313
1. 결 론	315
2. 정책제언	323
참고문헌	335
부 록	341
Abstract	439

표 목차

〈표 Ⅰ-1〉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경로별 최종목표 표본수	6
〈표 Ⅱ-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980~2013년도)	14
〈표 Ⅱ-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복귀현황(2010~2013년)	16
〈표 Ⅱ-3〉 2013학년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 현황	17
〈표 Ⅱ-4〉 시도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율(2011~2013년)의 변화	19
〈표 Ⅱ-5〉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의 변화(2012~2013학년도)	21
〈표 Ⅱ-6〉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22
〈표 Ⅱ-7〉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현황	23
〈표 Ⅱ-8〉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24
〈표 Ⅱ-9〉 1995~2006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학생 수	25
〈표 Ⅱ-10〉 2013학년도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26
〈표 Ⅱ-11〉 학교 밖 청소년 규모	27
〈표 Ⅱ-12〉 2013년 학령인구 기준 내국인 순 출국자수 및 외국인 순 입국자수	28
〈표 Ⅱ-13〉 2013학년도 재학생 기준 순 출국 학생 수(추정)	29
〈표 Ⅱ-14〉 통계를 통한 학업중단자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파악	30
〈표 Ⅱ-15〉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34
〈표 Ⅱ-16〉 통계적으로 소재가 파악된 학업중단 청소년 이행경로별 인구	37
〈표 Ⅱ-17〉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자치단체)	39
〈표 Ⅱ-18〉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 (기초자치단체)	40
〈표 Ⅱ-19〉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책 방향 분석	42
〈표 Ⅱ-20〉 범부처 학업중단 관련 예방 사업	44
〈표 Ⅱ-21〉 범부처 학업중단 관련 지원 대책	46

〈표 II-22〉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발굴체계 현황	47
〈표 III-1〉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구축 현황	51
〈표 III-2〉 패널 특성별 구축 현황	52
〈표 III-3〉 1-3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54
〈표 III-4〉 3차 조사 대상자 현황	63
〈표 III-5〉 비교패널 조사 대상자 유형	63
〈표 III-6〉 예비조사 점검 사항	64
〈표 III-7〉 패널 정보 업데이트 개요	69
〈표 III-8〉 패널 정보 업데이트 결과	70
〈표 III-9〉 현재 주로 하는 일	70
〈표 III-10〉 패널 정보 업데이트 미완료 사유	71
〈표 III-11〉 지역별 면접원 교육 일정	72
〈표 III-12〉 패널 상태에 따른 접촉 및 진행 방법	74
〈표 III-13〉 인포시트 포함 내용	76
〈표 III-14〉 비교패널 조사 준비 자료 내역	78
〈표 III-15〉 면접원 관리 방안	82
〈표 III-16〉 전화 검증 항목	84
〈표 III-17〉 비교패널 재조사 결과	86
〈표 III-18〉 문항별 재조사 빈도 및 비율(상위 10순위 기준)	87
〈표 III-19〉 자료수집방법별 패널 이탈율	90
〈표 III-20〉 세부 비성공 사유별 현황	90
〈표 III-21〉 학업중단 기간('15.9월기준)	91
〈표 IV-1〉 1차, 2차년도 및 3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95
〈표 IV-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6
〈표 IV-3〉 중단/복교상태	97

〈표 IV-4〉 졸업자격 취득 여부	98
〈표 IV-5〉 복교 경험	99
〈표 IV-6〉 복교 학교 형태	100
〈표 IV-7〉 복교 시기	101
〈표 IV-8〉 복교 이유	102
〈표 IV-9〉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103
〈표 IV-10〉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104
〈표 IV-11〉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105
〈표 IV-12〉 재중단 경험	106
〈표 IV-13〉 재중단 학교 유형	107
〈표 IV-14〉 학업 재중단 시기	108
〈표 IV-15〉 학업 재중단 이유	110
〈표 IV-16〉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	111
〈표 IV-17〉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112
〈표 IV-18〉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113
〈표 IV-19〉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114
〈표 IV-20〉 중단 후 경험실태	115
〈표 IV-21〉 대안학교 유형	116
〈표 IV-22〉 검정고시 공부 방법	117
〈표 IV-23〉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118
〈표 IV-24〉 검정고시 합격 여부	118
〈표 IV-25〉 직업훈련 프로그램	119
〈표 IV-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120
〈표 IV-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121
〈표 IV-28〉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122

〈표 IV-29〉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123
〈표 IV-30〉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놀았던 이유	124
〈표 IV-31〉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125
〈표 IV-32〉 가출 시 거주 장소	126
〈표 IV-33〉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	127
〈표 IV-34〉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	128
〈표 IV-35〉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129
〈표 IV-36〉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	130
〈표 IV-37〉 아르바이트 경험	131
〈표 IV-38〉 아르바이트 업종	132
〈표 IV-39〉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	133
〈표 IV-40〉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134
〈표 IV-41〉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135
〈표 IV-42〉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136
〈표 IV-43〉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137
〈표 IV-44〉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	138
〈표 IV-45〉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139
〈표 IV-46〉 진로정보탐색	140
〈표 IV-47〉 진로 장애	141
〈표 IV-48〉 향후 진로 계획	142
〈표 IV-49〉 진로 계획 달성 예측	143
〈표 IV-50〉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144
〈표 IV-51〉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145
〈표 IV-52〉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46
〈표 IV-53〉 우울, 충동성	147

〈표 IV-54〉 게임 중독	148
〈표 IV-55〉 SNS 관련 피해 · 가해 경험	149
〈표 IV-56〉 스마트폰 중독	150
〈표 IV-57〉 부모의 지원	151
〈표 IV-58〉 부모의 방임 · 학대	152
〈표 IV-59〉 친한 친구 수	153
〈표 IV-60〉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154
〈표 IV-61〉 지역사회	155
〈표 IV-62〉 하루 생활시간-수면	156
〈표 IV-63〉 하루 생활시간	159
〈표 IV-64〉 취침 시각	161
〈표 IV-65〉 식생활	162
〈표 IV-66〉 학력에 대한 생각	163
〈표 IV-67〉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164
〈표 IV-68〉 사회적 낙인감	165
〈표 IV-69〉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166
〈표 IV-70〉 문제행동 피해경험	167
〈표 IV-71〉 비행경험	168
〈표 IV-72〉 장래 희망	170
〈표 V-1〉 학업중단 후 경험사건의 분류(월 기준)	180
〈표 V-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와 비율	183
〈표 V-3〉 변수의 구성	191
〈표 V-4〉 경로유형별 성별과 연령 분포	195
〈표 V-5〉 가구구성의 유형 간 차이	196
〈표 V-6〉 가구 경제수준의 집단 내/간 차이	196

〈표 V-7〉 생애사건의 경로유형별 차이	197
〈표 V-8〉 자아존중감의 집단 내/간 차이	198
〈표 V-9〉 자아탄력성의 집단 내/간 차이	199
〈표 V-10〉 사회적 낙인감의 집단 내/간 차이	200
〈표 V-11〉 게임중독의 집단 내/간 차이	201
〈표 V-12〉 스마트폰중독의 집단 내/간 차이	202
〈표 V-13〉 가구 경제수준의 집단 내/간 차이	203
〈표 V-14〉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집단 내/간 차이	204
〈표 V-15〉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집단 내/간 차이	205
〈표 V-16〉 부모방임의 집단 내/간 차이	206
〈표 V-17〉 부모학대의 집단 내/간 차이	207
〈표 V-18〉 친한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208
〈표 V-19〉 새로 사귀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209
〈표 V-20〉 학업중단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210
〈표 V-21〉 또래애착의 집단 내/간 차이	211
〈표 V-22〉 친구 비행성향의 집단 내/간 차이	212
〈표 V-23〉 지역사회 통합의 집단 내/간 차이	213
〈표 V-24〉 지역사회 무질서의 집단 내/간 차이	214
〈표 V-25〉 지역사회 유익환경의 집단 내/간 차이	215
〈표 V-26〉 경로유형별 학업중단 시점의 차이	217
〈표 V-27〉 학업중단 당시 성적의 경로유형별 차이	217
〈표 V-28〉 무단결석 경험의 경로유형별 차이	218
〈표 V-29〉 교사와의 관계의 이행경로별 차이	218
〈표 V-30〉 친구관계의 이행경로별 차이	219
〈표 V-31〉 학습부적응의 이행경로별 차이	219

〈표 V-32〉 학교풍토의 이행경로별 차이	220
〈표 V-33〉 학교규범 위반경험의 이행경로별 차이	220
〈표 V-34〉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1순위)에 대한 경로유형별 차이 ..	221
〈표 V-35〉 학업중단 사유(1순위)에 대한 경로유형별 차이	222
〈표 V-36〉 학업중단 시 정보 제공받은 경험의 경로유형별 차이	223
〈표 V-37〉 학업중단 학교특성의 경로유형별 차이	224
〈표 V-38〉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의 수의 집단 내/간 차이	225
〈표 V-39〉 동아리 경험 유무의 경로유형별 차이	226
〈표 V-40〉 진로정보 탐색활동의 집단 내/간 차이	227
〈표 V-41〉 진로장애의 집단 내/간 차이	228
〈표 V-42〉 진로결정의 집단 내/간 차이	229
〈표 V-43〉 진로계획 달성 가능성 예측의 집단 내/간 차이	230
〈표 V-44〉 교육기대에 대한 경로유형별 차이	231
〈표 V-45〉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의 집단 내/간 차이	232
〈표 V-46〉 미래에 대한 태도의 집단 내/간 차이	233
〈표 V-47〉 학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 내/간 차이	234
〈표 V-48〉 학업중단청소년 이행경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236
〈표 V-49〉 분석결과 요약-이행경로별 개인적 특성	240
〈표 V-50〉 분석결과 요약 - 이행경로별 환경적 특성	241
〈표 V-51〉 분석결과 요약 - 이행경로별 제도적 특성	244
〈표 V-52〉 분석결과 요약-이행경로별 중단 후 인식 및 가치관	245
〈표 V-53〉 분석결과 요약 - 학업중단청소년 이행경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유무	245
〈표 V-54〉 변수 측정 방법	252
〈표 V-55〉 심리정서 상태	256

〈표 V-56〉 자아탄력성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57
〈표 V-57〉 충동성의 집단 내 차이 검증	258
〈표 V-58〉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59
〈표 V-59〉 매체 이용 관련 중독 성향 및 경험	259
〈표 V-60〉 게임중독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60
〈표 V-61〉 게임중독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정)	260
〈표 V-62〉 환경요인 - 부모 관계	262
〈표 V-63〉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검증)	263
〈표 V-64〉 부모 방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63
〈표 V-65〉 부모 학대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64
〈표 V-66〉 부모 학대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64
〈표 V-67〉 환경요인 - 친구 관계	265
〈표 V-68〉 친한 친구 수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66
〈표 V-69〉 친구의 비행성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67
〈표 V-70〉 친구의 비행성향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67
〈표 V-71〉 지역사회 특성	268
〈표 V-72〉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68
〈표 V-73〉 지역사회 통합 인식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69
〈표 V-74〉 중단 이후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	270
〈표 V-75〉 청소년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71
〈표 V-76〉 복지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1
〈표 V-77〉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72
〈표 V-78〉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2

〈표 V-79〉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73
〈표 V-80〉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4
〈표 V-81〉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75
〈표 V-82〉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275
〈표 V-83〉 종교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6
〈표 V-84〉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76
〈표 V-85〉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7
〈표 V-86〉 치료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7
〈표 V-87〉 대안교육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정)	278
〈표 V-88〉 진로 관련 경험 및 인식	278
〈표 V-89〉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79
〈표 V-90〉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79
〈표 V-91〉 향후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80
〈표 V-92〉 향후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80
〈표 V-93〉 진로달성 예측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81
〈표 V-94〉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82
〈표 V-95〉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82
〈표 V-96〉 일상생활 - 평일 생활시간	283
〈표 V-97〉 평일 수면 시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84
〈표 V-98〉 평일 수면 시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84

〈표 V-99〉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간의 집단 내 차이 검증 (다변량 검증)	285
〈표 V-100〉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하는 시간의 집단 간 차이	285
〈표 V-101〉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286
〈표 V-102〉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86
〈표 V-103〉 식습관	287
〈표 V-104〉 아침식사 부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88
〈표 V-105〉 아침식사 부족 정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88
〈표 V-106〉 일상생활 - 활동경험	289
〈표 V-107〉 아르바이트 경험의 집단 내 차이 검증	290
〈표 V-108〉 일상생활 - 피해경험	291
〈표 V-109〉 집단 따돌림 당하기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91
〈표 V-110〉 음란물 받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92
〈표 V-111〉 일상생활 - 가해경험	293
〈표 V-112〉 흡연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94
〈표 V-113〉 음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95
〈표 V-114〉 음주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295
〈표 V-115〉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96
〈표 V-116〉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96
〈표 V-11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97
〈표 V-118〉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98
〈표 V-119〉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298
〈표 V-12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뺏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98
〈표 V-121〉 돈내기 도박 해보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99
〈표 V-122〉 자살 시도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299

〈표 V-123〉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300
〈표 V-124〉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300
〈표 V-125〉 가치관	301
〈표 V-126〉 학업중단 불안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302
〈표 V-127〉 학업중단 불안감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302
〈표 V-128〉 학업중단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303
〈표 V-129〉 학업중단 만족도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303
〈표 V-130〉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304
〈표 V-131〉 분석 결과 요약 - 심리·정서 상태	305
〈표 V-132〉 분석 결과 요약 - 환경 요인	306
〈표 V-133〉 분석 결과 요약 - 일상생활	307
〈표 V-134〉 분석 결과 요약 -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	308
〈표 V-135〉 분석 결과 요약 - 비행 관련 경험	309
〈표 V-136〉 분석 결과 요약 - 진로 관련 경험	310
〈표 V-137〉 분석 결과 요약 - 가치관	311
〈표 부록 2-1〉 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403
〈표 부록 2-1-1〉 최근 학업중단 시기	404
〈표 부록 2-1-2〉 학업 중단 당시 처리 형태	405
〈표 부록 2-1-3〉 학교성적수준	406
〈표 부록 2-1-4〉 학업중단 횟수	407
〈표 부록 2-1-5〉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408
〈표 부록 2-1-6〉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409
〈표 부록 2-1-7〉 무단결석 여부	410

〈표 부록 2-1-8〉 최초 결석 시기	411
〈표 부록 2-1-9〉 최초 결석 이유	412
〈표 부록 2-1-10〉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413
〈표 부록 2-1-11〉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	414
〈표 부록 2-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	415
〈표 부록 2-1-13〉 부모 결혼상태	416
〈표 부록 2-1-14〉 다문화가정 여부	417
〈표 부록 2-1-15〉 부모 학력	418
〈표 부록 2-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419
〈표 부록 2-2-2〉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420
〈표 부록 2-2-3〉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421
〈표 부록 2-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422
〈표 부록 2-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423
〈표 부록 2-2-6〉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	424
〈표 부록 2-2-7〉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425
〈표 부록 2-3-1〉 생애사건 경험	426
〈표 부록 2-3-2〉 생애사건 경험	427
〈표 부록 3-1〉 부처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현황	428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2~2015년)	5
【그림 I-2】 2015년 연구추진체계	9
【그림 II-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변화(2005~2013)	15
【그림 II-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교 복귀율 변화(2010~2013년)	16
【그림 II-3】 2013학년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18
【그림 II-4】 2013학년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18
【그림 II-5】 2011~2013년 시도별 초등학교 학업중단을	20
【그림 II-6】 2011~2013년 시도별 중학교 학업중단을	20
【그림 II-7】 2012~2013년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20
【그림 II-8】 2012 ~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을	21
【그림 II-9】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비율	22
【그림 II-10】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비율	23
【그림 II-11】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을	24
【그림 II-12】 학령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35
【그림 II-13】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 · 성별 비율	36
【그림 III-1】 본패널 조사 설계 및 흐름도	61
【그림 III-2】 비교패널 조사 흐름도	62
【그림 III-3】 조사 팸플릿 예시	65
【그림 III-4】 패널 홈페이지 이미지 예시	66
【그림 III-5】 보호관찰소 담당자용 조사 안내문 예시	67
【그림 III-6】 응답자용 조사 안내문 예시	68
【그림 III-7】 면접원 교육 지침서 예시	72
【그림 III-8】 모바일 APP 예시	73
【그림 III-9】 면접원 사전접촉 지침 예시	75
【그림 III-10】 인포시트 예시	77

【그림 III-11】 패널 동의서 예시	79
【그림 III-12】 웹입스(WEB-IFS) 프로그램 예시: 면접원 입력 페이지	80
【그림 III-13】 모바일 앱(APP) 접촉일지 예시: 접촉일지 구성 안내	81
【그림 III-14】 리뷰가이드(Review Guide) 예시	83
【그림 III-15】 자료 입력 로직 리스트 예시	85
【그림 III-16】 데이터 클리닝 리스트 예시	88
【그림 III-17】 패널 유지율	89
【그림 IV-1】 중단/복교상태	97
【그림 IV-2】 졸업자격 취득 여부	98
【그림 IV-3】 복교 경험	99
【그림 IV-4】 복교 학교 형태	100
【그림 IV-5】 복교 시기	101
【그림 IV-6】 복교 이유	102
【그림 IV-7】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103
【그림 IV-8】 종전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	104
【그림 IV-9】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105
【그림 IV-10】 재중단 경험	106
【그림 IV-11】 재중단 학교 유형	107
【그림 IV-12】 학업 재중단 시기	108
【그림 IV-13】 학업 재중단 이유	109
【그림 IV-14】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	111
【그림 IV-15】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112
【그림 IV-16】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113
【그림 IV-17】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114
【그림 IV-18】 중단 후 경험실태	115
【그림 IV-19】 대안학교 유형	116

【그림 IV-20】 검정고시 공부 방법	117
【그림 IV-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118
【그림 IV-22】 검정고시 합격 여부	118
【그림 IV-23】 직업훈련 프로그램	119
【그림 IV-24】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120
【그림 IV-25】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121
【그림 IV-2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122
【그림 IV-27】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123
【그림 IV-28】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놀았던 이유	124
【그림 IV-29】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125
【그림 IV-30】 가출 시 거주 장소	126
【그림 IV-31】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	127
【그림 IV-32】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	128
【그림 IV-33】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129
【그림 IV-34】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	130
【그림 IV-35】 아르바이트 경험	131
【그림 IV-36】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134
【그림 IV-37】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135
【그림 IV-38】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136
【그림 IV-39】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	137
【그림 IV-40】 참여하는 동아리 · 인터넷 카페 유형	138
【그림 IV-41】 동아리 ·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139
【그림 IV-42】 진로정보탐색	140
【그림 IV-43】 진로 장애	141
【그림 IV-44】 향후 진로 계획	142
【그림 IV-45】 진로 계획 달성 예측	143

【그림 IV-46】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144
【그림 IV-47】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	145
【그림 IV-48】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146
【그림 IV-49】 우울, 충동성	147
【그림 IV-50】 게임 중독	148
【그림 IV-51】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149
【그림 IV-52】 스마트폰 중독	150
【그림 IV-53】 부모의 지원	151
【그림 IV-54】 부모의 방임·학대	152
【그림 IV-55】 친한 친구 수	153
【그림 IV-56】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154
【그림 IV-57】 지역사회	155
【그림 IV-58】 하루 생활시간-수면	156
【그림 IV-59】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	157
【그림 IV-60】 하루 생활-주요 영역 평균	158
【그림 IV-61】 취침 시각	160
【그림 IV-62】 식생활	162
【그림 IV-63】 학력에 대한 생각	163
【그림 IV-6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164
【그림 IV-65】 사회적 낙인감	165
【그림 IV-66】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166
【그림 IV-67】 문제행동 피해경험	167
【그림 IV-68】 비행경험	168
【그림 IV-69】 장래 희망	169
【그림 V-1】 시계열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	182
【그림 V-2】 군집수에 따른 주요 지표값의 변화	183

【그림 V-3】 학업지속형 청소년들의 특징	184
【그림 V-4】 학업복귀형 청소년들의 특징	185
【그림 V-5】 직업형 청소년들의 특징	186
【그림 V-6】 학업-직업전환형 청소년들의 특징	187
【그림 V-7】 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징	188
【그림 V-8】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특징	189
【그림 V-9】 이행경로별 가구경제수준의 변화 추이	197
【그림 V-10】 이행경로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추이	199
【그림 V-11】 이행경로별 자아탄력성의 변화 추이	200
【그림 V-12】 이행경로별 사회적 낙인감의 변화 추이	201
【그림 V-13】 이행경로별 게임중독의 변화 추이	202
【그림 V-14】 이행경로별 스마트폰중독의 변화 추이	203
【그림 V-15】 이행경로별 비행경험의 변화 추이	204
【그림 V-16】 이행경로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변화 추이	205
【그림 V-17】 이행경로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변화 추이	206
【그림 V-18】 이행경로별 부모방임의 변화 추이	207
【그림 V-19】 이행경로별 부모학대의 변화 추이	208
【그림 V-20】 이행경로별 친한 친구수의 변화 추이	209
【그림 V-21】 이행경로별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수의 변화 추이 ...	210
【그림 V-22】 이행경로별 학업중단 친구수의 변화 추이	211
【그림 V-23】 이행경로별 또래애착의 변화 추이	212
【그림 V-24】 이행경로별 또래 비행성향의 변화 추이	213
【그림 V-25】 이행경로별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변화 추이	214
【그림 V-26】 이행경로별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변화 추이	215
【그림 V-27】 이행경로별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의 변화 추이	216
【그림 V-28】 이행경로별 멘토와의 만남 기관 수의 변화 추이	225

【그림 V-29】 이행경로별 진로정보탐색 활동 수준의 변화 추이	227
【그림 V-30】 이행경로별 진로장애의 변화 추이	228
【그림 V-31】 이행경로별 진로결정의 변화 추이	229
【그림 V-32】 이행경로별 진로계획 달성가능성 예측 수준의 변화 추이	230
【그림 V-33】 이행경로별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 추이	232
【그림 V-34】 이행경로별 미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	233
【그림 V-35】 이행경로별 학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	234
【그림 V-36】 중단 후 이행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	249
【그림 V-37】 자아탄력성의 집단별 변화 추이	257
【그림 V-38】 충동성의 집단별 변화 추이	258
【그림 V-39】 사회적 낙인감의 집단별 변화 추이	259
【그림 V-40】 게임중독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1
【그림 V-41】 스마트폰 중독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1
【그림 V-42】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3
【그림 V-43】 부모 학대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5
【그림 V-44】 친한 친구 수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6
【그림 V-45】 친구 비행성향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7
【그림 V-46】 지역사회 통합 정도의 집단별 변화 추이	269
【그림 V-47】 복지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272
【그림 V-48】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273
【그림 V-49】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274
【그림 V-50】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275

【그림 V-51】 진로정보 탐색 활동의 집단별 변화 추이	280
【그림 V-52】 향후 진로결정 여부의 집단별 변화 추이	281
【그림 V-53】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의 집단별 변화 추이	282
【그림 V-54】 평일 수면시간의 집단별 변화 추이	284
【그림 V-55】 평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별 변화 추이	287
【그림 V-56】 식습관 관련 변수들의 집단별 변화 추이	289
【그림 V-57】 아르바이트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290
【그림 V-58】 집단 따돌림 당하기의 집단별 변화 추이	292
【그림 V-59】 흡연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294
【그림 V-60】 음주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296
【그림 V-61】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297
【그림 V-6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와 뺑뺏기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298
【그림 V-63】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300
【그림 V-64】 학업중단 불안감의 집단별 변화 추이	302
【그림 V-65】 학업중단 불안감의 집단별 변화 추이	303
【그림 부록 2-1-1】 최근 학업중단 시기	404
【그림 부록 2-1-2】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	405
【그림 부록 2-1-3】 학교성적수준	406
【그림 부록 2-1-4】 학업중단 횟수	407
【그림 부록 2-1-5】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408
【그림 부록 2-1-6】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409
【그림 부록 2-1-7】 무단 결석 여부	410
【그림 부록 2-1-8】 최초 결석 시기	411
【그림 부록 2-1-9】 최초 결석 이유	412

【그림 부록 2-1-10】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413
【그림 부록 2-1-11】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	414
【그림 부록 2-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	415
【그림 부록 2-1-13】 부모 결혼상태	416
【그림 부록 2-1-14】 다문화가정 여부	417
【그림 부록 2-1-15】 부모 학력	418
【그림 부록 2-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419
【그림 부록 2-2-2】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420
【그림 부록 2-2-3】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421
【그림 부록 2-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422
【그림 부록 2-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423
【그림 부록 2-2-6】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	424
【그림 부록 2-2-7】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425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학년도 기준 연간 5만 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교육통계는 연간 학업중단 발생자 수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학령인구 아동의 출생과 취학, 중단과 복학을 포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추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령기임에도 학교 밖에 있는 누적된 인구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2014년도 본 연구에서 추정하 바에 따르면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31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조사·통계 자료를 통해 소재 파악이 가능한 인구가 5만여 명으로 약 26만 여명에 대한 소재는 파악할 수 없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법무부 교정시설의 통계를 통해 파악하기 전까지는 공공부문 통계를 통해 그들의 삶의 흔적을 포착하기 어렵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이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들의 삶은 정형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삶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중단시점부터 추적조사를 하는 중단연구를 시도하였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응 및 부적응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삶이 변화무쌍하고 지속적·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들이 20대 초·중반에 이를 때까지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녹록치 않은 연구 환경, 학업중단 청소년의 극심한 유동성으로 인해 조사패널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감안하여 우선 학업중단 초기, 3개년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에 대한 기존 연구와 달리, 1년 이내에 발생한 학업중단자 정보를 학교에서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습득하여 추적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안학교, 쉼터 등 기관의 특성이 학업중단자의 특성으로 반영되었던 종전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학업중단자 전체 집단의 특징을 가능한 실제 모습에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실태, 가치관과 의식은 어떠하며 그것은 중단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중단 이후 어떤 경험의 이행경로를 거치고 있으며 이행경로별 분포는 어떠한가?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행경로에 따른 특징과 차이는 무엇인가?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이행경로를 고려한 대책은 어떻게 구안되어야 하는가?

전체 연구의 목적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및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중단자료를 수집하여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의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험을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분포를 파악한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이행경로를 포함)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탐색한다.

2015년도 연구의 목적

첫째, 3차년도 조사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3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추적한다.

둘째, 1·2·3차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이행경로별 분포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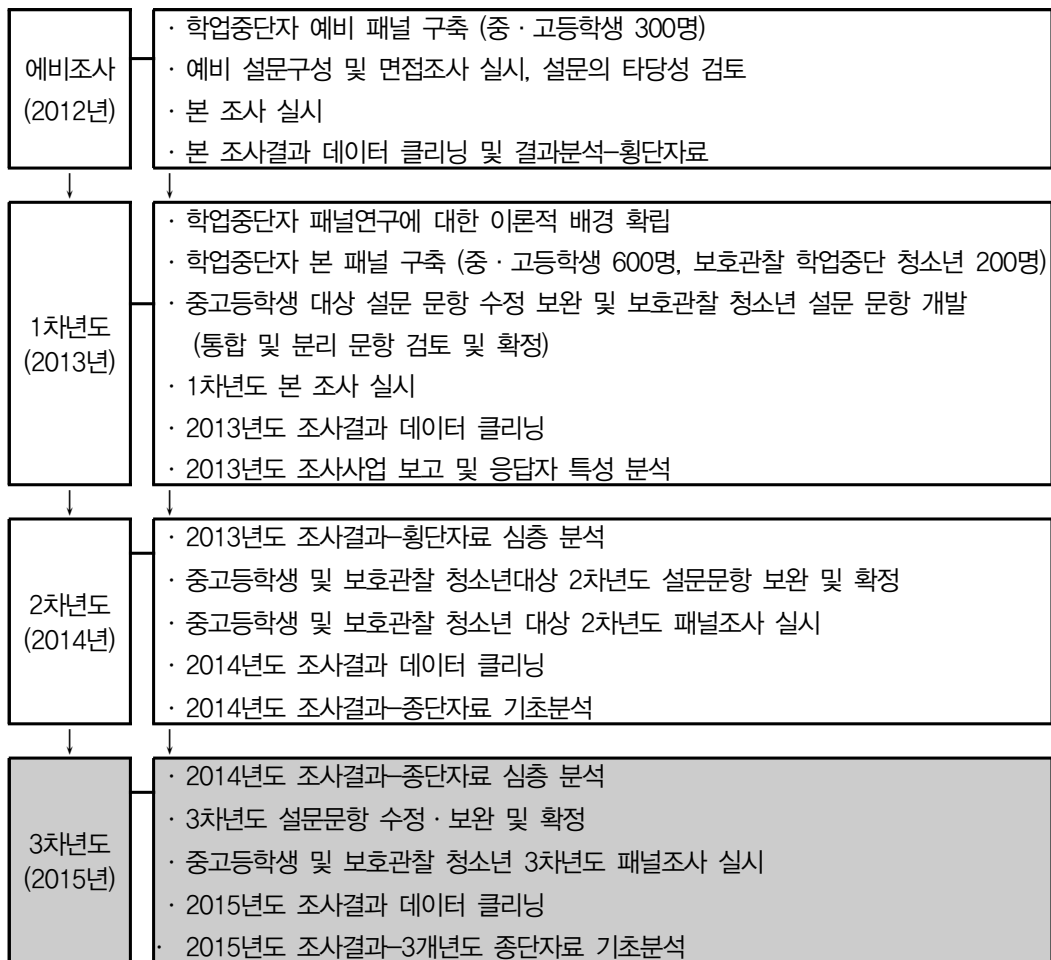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이행경로별 특성 포함) 및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탐색한다.

2. 연구내용

1) 3개년 종단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금까지 3개년 종단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도에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수탁과제) 예산을 토대로 300명의 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13년부터 3개년 간 종단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안)은 【그림 I-1】 과 같다.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2~2015년)

*출처: 윤철경 외(2013) pp.6-7의 【그림 I-1】을 수정보완함.

2) 2015년도 주요 연구내용

(1) 2015년도(3차년도) 조사 실시 및 데이터 구축

3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3차년도 조사도구 신규항목 개발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보완된 항목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요 경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문항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 3장에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리서치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실시하였다. 이후 리서치 업체의 조사과정 및 데이터 처리 과정을 관리하였다. 조사과정은 크게 조사준비, 실사, 자료검증 및 처리, 패널 유지 및 관리의 4단계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본 연구 3장을 참고하면 된다.

조사패널 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조사대상자로 구축된 최종 학업중단 표본 수는 996명이었으며 당초 3차년도까지 648명(65%) 유지를 목표로 하였다. 최종 패널은 661명(66.3%)으로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였다. 기관접촉을 통한 패널의 이탈이 많았고 개인 명부를 통한 패널 유지가 더 잘 되었다. 이는 당초 개인적으로 조사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충성도가 기관접촉을 통한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표 I-1> 참조).

표 I-1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경로별 최종목표 표본 수

[단위: 명(%)]

구 분 ²⁾	2013	2014	2015	주관기관
개인명부 조사	552	449(81.3)	370(67.0)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분석기관
기관접촉 조사	224	150(67.0)	124(55.4)	
보호관찰소 조사	220	210(95.5)	167(75.9)	형사정책연구원 /조사분석기관
합 계	996	809(81.2)	661(66.3)	

2) 개인명부 조사는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 상담복지센터의 개별 명부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이며,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교육청을 거친 학교별 개인명부 확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관접촉 조사는 직업 및 학업기관 대상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임.

(2) 협동연구관리³⁾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협동연구기관에서의 연구대상은 중·고등학교 학령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전국 보호관찰소 중 11개소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 최종적으로 220명의 조사패널이 구축되었다. 2차 조사에서 210명, 3차 조사에서 167명으로 높은 유지율을 보였다.

연구내용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으며,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비행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비행, 재비행 및 사회적응 요인을 밝히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협동연구과제의 연구일정(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본 연구일정보다 7~10일 선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조사일정(설문지 개발 및 실사 진행, 자료처리 등)은 본 조사 패널과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하였다.

(3) 2013, 2014, 2015년도 조사결과 분석

1, 2, 3차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상태, 중단 후 경험, 개인적 특성(심리정서 및 문제행동), 환경적 특성, 중단 후 주요 경험, 일상생활 및 가치관, 등에 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 유형화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26일 이행경로 분석을 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데이터를 기초로 이행경로 분석 방법에 대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고, 해당 분석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2015년 7월 2일 1차 세미나를 통해 검토한 분석방법에 따라 1차년도와 2차년도 데이터를 기초로 이행경로를 유형화하고 이행경로별 특성을 도출하는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분포 및 경로별 차이, 결정요인 분석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3개년도 조사데이터를 기초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행경로

3)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p.9의 내용을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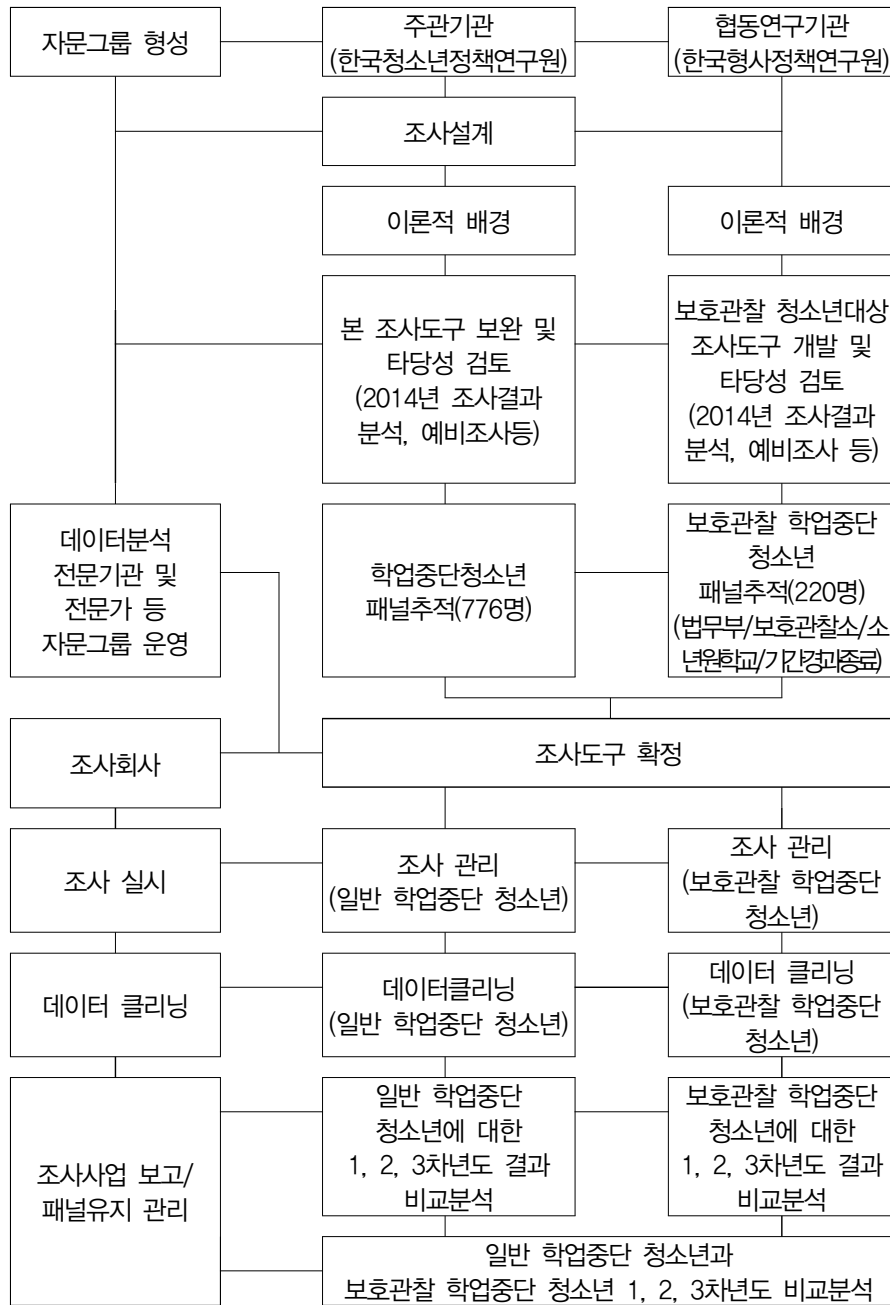
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집단별 차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6) 본패널(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패널(보호관찰 청소년)의 차이 및 변화 비교
본패널과 비교패널의 비교를 위해 3개년도 조사데이터를 기초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의 차이 및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1)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협동연구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3년간 협동연구로 추진되어 왔다. 본패널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조하여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7월(2차 조사 2012년도 9월 ~ 2013년도 9월)까지
발생하는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비교집단 패널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와 협조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담당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I-2】와 같다.



【그림 I -2】 2015년 연구추진체계

*출처: 윤철경 외(2014), p.11의 【그림 I -2】을 수정보완함.

2) 문헌연구

학업중단 관련 통계연보 등 기존 문헌 등을 통해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로를 검토하였고,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자료를 분석·제시하였다.

3)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

학업 중단 후 이행경로에 대한 분석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1차와 2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가 콜로키움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연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중단자료의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쳤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10월 3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교육, 직업, 복지, 상담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모여 학업중단자 지원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책제언에 반영하였다.

4) 패널조사

3차년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최종 설문지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최종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패널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0일부터 2015년 8월 14일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삶과 의식에 대한 2015년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호관찰 패널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6일부터 2015년 8월 17일까지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실사방법은 본 보고서 3장에 기술되어 있다.

제 II 장

학업중단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통계적 소재 추정
2.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제 II 장 학업중단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 통계적 소재 및 이행경로 추정

1) 학업중단을 변화추이

<표 II-1>은 198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나타낸 것이다. 1980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는 5년 간격으로, 2006학년도부터는 1년 간격으로 학업중단율이 제시되어있다.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0%대의 학업중단율을 보이다가 2000학년도에 들어와서 0.4%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2008년까지 0.5%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학년도부터 0.3%대로 감소한 후 유지되고 있다. 중학교는 1980학년도 이래 2000학년도까지 1% 수준의 학업중단율을 보이다가 2005학년도 이후 대체로 0.8% 수준의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2000학년도까지는 2~3%의 학업중단율을 보이다가 2005학년도에는 1.3%로 학업중단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6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는 1.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학년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증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세의 학업중단율을 보였으며 2005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약간 증가, 중학교는 유지, 고등학교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3학년도의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는 초등학교 15,908명(0.6%), 중학교 14,278명(0.8%), 고등학교 30,982명(1.6%)으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수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2배정도 많다(<표 II-1> 참조).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980~2013년도)⁵⁾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1980	5,658,002	3,856	0.1	2,471,997	30,628	1.2	1,696,792	43,088	2.5
1985	4,856,752	1,636	0.0	2,782,173	29,410	1.1	2,152,802	63,841	3.0
1990	4,868,520	1,299	0.0	2,275,751	22,348	1.0	2,283,806	42,542	1.9
1995	3,905,163	1,219	0.0	2,481,848	24,567	1.0	2,157,880	53,743	2.5
2000	4,019,991	14,734	0.4	1,860,539	19,097	1.0	2,071,468	52,136	2.5
2005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6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7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8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9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10	3,299,094	18,836 (10,404) →10,181 (사망자제외)	0.6 (0.3)	1,974,798	18,866 (16,509) →16,320 (사망자제외)	1.0 (0.8)	1,962,356	38,887 (34,091)	2.0 (1.7)
2011	3,132,477	19,163 (10,771)	0.6 (0.3)	1,910,572	17,811 (15,337)	0.9 (0.8)	1,943,798	37,391 (33,057)	1.9 (1.7)
2012	2,951,995	16,828 (9,192)	0.6 (0.3)	1,849,094	16,426 (14,231)	0.9 (0.8)	1,920,087	34,934 (30,558)	1.8 (1.6)
2013	2,784,000	15,908 (7,900)	0.6 (0.3)	1,804,189	14,278 (12,055)	0.8 (0.7)	1,893,303	30,382 (26,459)	1.6 (1.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46. 표 II-18.

교육부(2014.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p.22. 표-18.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2013학년도 학업중단자 수: 2013.3.1.~2014.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3.4.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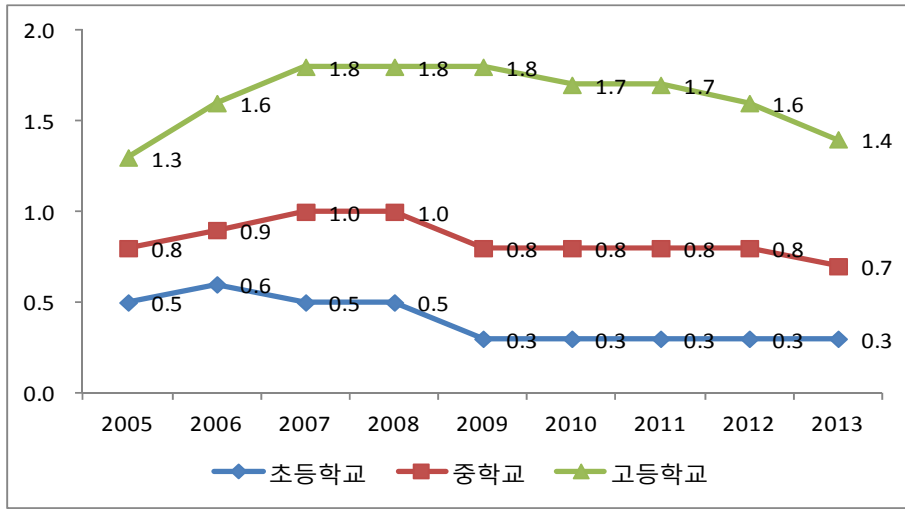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2013년 기준).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0~2012년의 ()는 2009년 이전 기준(유학이민/파견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5) 윤철경 외(2014) p.202 <표 V-1>에서 2013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그림 II-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변화(2005~2013) (단위: %)⁶⁾

* 주: 2009년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2010년 이후의 학업중단율을 산출한 값을 비교함.

2) 학업중단자 복귀현황과 학교급별 복귀율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최근 4개년 간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의 학교 복귀현황(<표 II-2>, 【그림 II-2】)을 보면 첫째,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80% 수준, 중학교는 50% 내외, 고등학교에서는 20% 미만 수준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복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도별 복귀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13학년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복귀율은 각각 6.9%p, 3%p가 낮아졌으나 중학교의 복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4.2%p 높아졌다.

6) 윤철경 외(2014) p.203 【그림 V-1】에서 2013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표 II-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복귀현황(2010~2013년)⁷⁾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복귀 자수	복귀 율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복귀 자수	복귀 율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복귀 자수	복귀 율
2010	18,836 (10,404)	0.6 (0.3)	16,245	86.2	18,866 (16,509)	1.0 (0.8)	9,382	49.7	38,887 (34,091)	2.0 (1.7)	7,366	18.9
2011	19,163 (10,771)	0.6 (0.3)	15,160	79.1	17,811 (15,337)	0.9 (0.8)	9,221	51.8	37,391 (33,057)	1.9 (1.7)	6,565	17.6
2012	16,828 (9,192)	0.6 (0.3)	13,733	81.6	16,426 (14,231)	0.9 (0.8)	8,760	53.3	34,934 (30,558)	1.8 (1.6)	6,204	17.8
2013	15,908 (7,900)	0.6 (0.3)	12,614	79.3	14,278 (12,055)	0.8 (0.7)	7,700	53.9	30,382 (26,459)	1.6 (1.4)	4,820	15.9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2014(학생변동상황).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2013학년도 학업중단자 수: 2013.3.1.~2014.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3.4.1.기준).

3)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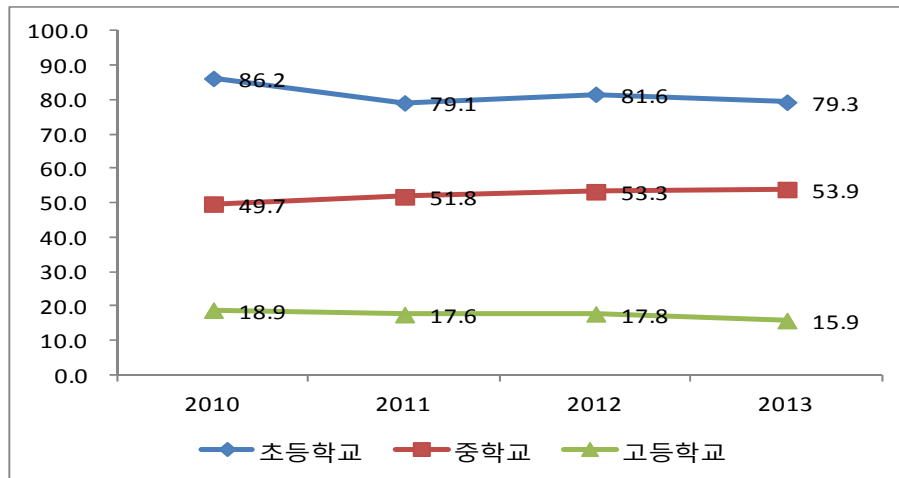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2013년 기준).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0~2013년의 ()는 2009년 이전 기준(유학이민/파견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7) 복귀율 = 복귀자수 / 학업중단자수 × 100

8) 초·중등학교 복귀자는 재취학 및 편입 인원, 고등학교 복귀자는 재입, 편입, 복학 인원임.

【그림 II-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교 복귀율 변화(2010~2013년) (단위: %)⁸⁾

7) 윤철경 외(2014) p.204 <표 V-2>에서 2013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8) 윤철경 외(2014) p.204 【그림 V-2】에서 2013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임.

3) 시도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표 II-3>와 【그림 II-3】은 2013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는 서울(1.05%), 대전(0.80%), 경기(0.72%) 지역 순으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며, 중학교에서는 서울(1.17%), 경기(0.94%), 세종(0.92%)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강원(1.85%), 충북(1.73%), 경기(1.72%)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고, 경남(1.32%) 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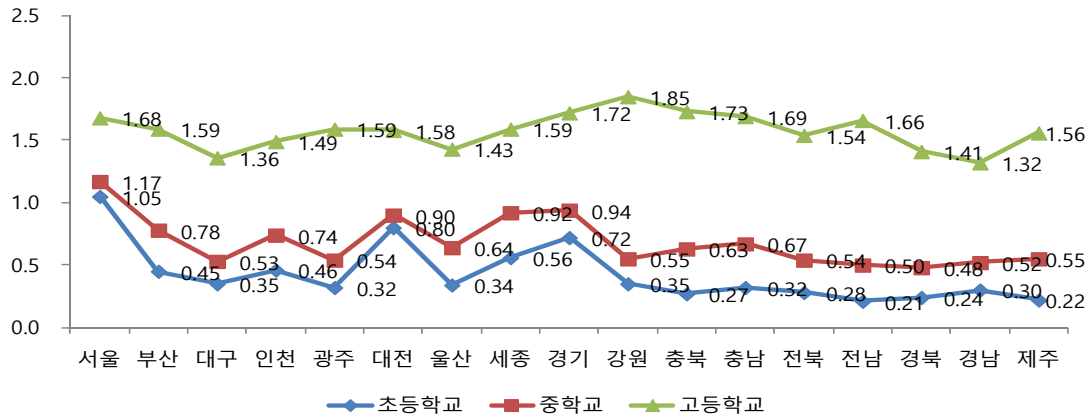
【그림 II-4】의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업중단자 수가 월등히 많으며 또한 초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자 수 인구가 현격히 많다.

표 II-3 2013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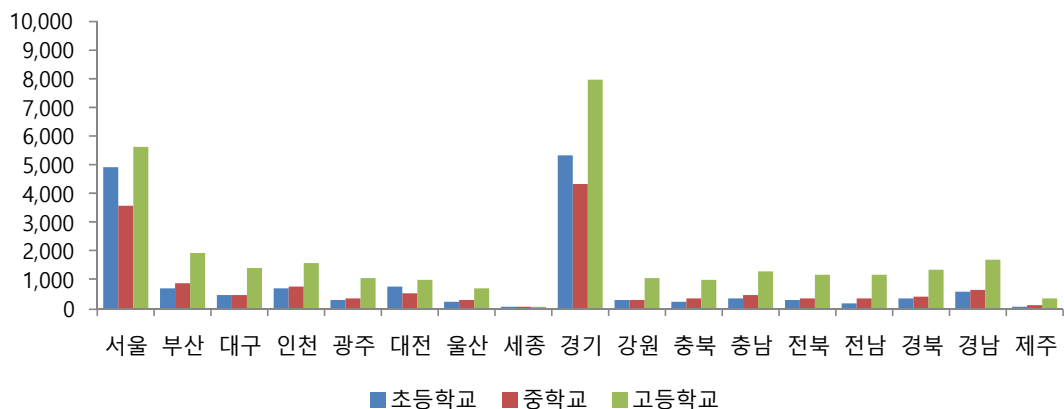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 율
서울	469,392	4,948	1.05	304,251	3,561	1.17	334,123	5,625	1.68
부산	160,821	716	0.45	110,454	865	0.78	122,060	1,937	1.59
대구	136,309	478	0.35	94,394	496	0.53	103,666	1,405	1.36
인천	157,918	724	0.46	100,776	743	0.74	105,310	1,568	1.49
광주	96,055	310	0.32	65,124	349	0.54	67,374	1,070	1.59
대전	93,398	746	0.80	59,997	538	0.90	62,812	995	1.58
울산	67,156	230	0.34	45,860	294	0.64	49,863	712	1.43
세종	7,090	40	0.56	3,797	35	0.92	3,528	56	1.59
경기	739,619	5,327	0.72	458,220	4,317	0.94	460,580	7,943	1.72
강원	83,187	289	0.35	54,755	299	0.55	56,601	1,047	1.85
충북	88,860	244	0.27	57,623	362	0.63	58,950	1,020	1.73
충남	116,216	371	0.32	72,867	490	0.67	75,837	1,282	1.69
전북	105,135	297	0.28	70,602	382	0.54	74,621	1,148	1.54
전남	99,206	204	0.21	67,888	340	0.50	71,790	1,189	1.66
경북	135,237	331	0.24	89,128	424	0.48	95,018	1,336	1.41
경남	190,166	567	0.30	124,566	651	0.52	127,457	1,680	1.32
제주	38,235	86	0.22	23,887	132	0.55	23,713	369	1.56

* 출처: 교육부(2014.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주: 1)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3.3.1.~2014.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3.4.1.기준.



【그림 II-3】 2013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그림 II-4】 2013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단위: 명)

최근 3개년 간 초중고의 시도별 학업중단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4>과 같다. 초등학교의 시도별 학업중단율(<표 II-4>, 【그림 II-5】)을 보면 첫째, 서울과 경기도의 학업중단율은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2학년도에 약 2배 증가하여 2013학년도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지역은 매년 학업중단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전의 학업중단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3학년도에는 2011학년도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셋째, 세종시의 학업중단율은 2012학년도 비해 2013학년도에 6배가 증가하여 0.6%p이었다. 중학교의 시도별 학업중단율(<표 II-4>, 【그림 II-6】)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지역의 학업중단율이 2011학년도를 기준으로 2012학년도에 증가하였다가 2013학년도

에 다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시도별 학업중단율(<표 II-4>, 【그림 II-7】)은 제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13학년도에 2012학년도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세종은 0.8%p, 대전은 0.6%p, 부산과 경기도, 강원도는 0.3p가 감소하여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표 II-4 시도별·학교급별 학업중단율(2011~2013년)의 변화 (단위: %)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⁹⁾	2012 ¹⁰⁾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일반고	특성화고		
서울	0.6	1.1	1.1	1.1	1.3	1.2	1.4	2.6	1.9	1.7
부산	0.3	0.4	0.5	0.8	0.9	0.8	1.0	4.7	1.9	1.6
대구	0.2	0.3	0.4	0.5	0.6	0.5	0.8	4.2	1.5	1.4
인천	0.3	0.4	0.5	0.9	0.9	0.7	1.2	2.9	1.6	1.5
광주	0.2	0.3	0.3	0.6	0.7	0.5	1.6	3.0	1.7	1.6
대전	0.3	0.6	0.8	0.7	1.0	0.9	1.2	6.5	2.1	1.6
울산	0.2	0.4	0.3	0.6	0.7	0.6	0.8	4.5	1.6	1.4
세종		0.1	0.6		0.7	0.9			2.4	1.6
경기	0.4	0.7	0.7	0.9	1.1	0.9	1.3	3.8	2.0	1.7
강원	0.3	0.3	0.4	0.8	0.8	0.6	1.2	6.1	2.2	1.9
충북	0.2	0.3	0.3	0.6	0.7	0.6	1.2	3.3	1.9	1.7
충남	0.2	0.3	0.3	0.8	0.8	0.7	1.4	3.6	1.9	1.7
전북	0.2	0.3	0.3	0.6	0.6	0.5	1.5	3.5	1.6	1.5
전남	0.2	0.2	0.2	0.6	0.5	0.5	1.0	4.8	1.8	1.7
경북	0.2	0.2	0.2	0.5	0.5	0.5	1.3	3.6	1.6	1.4
경남	0.2	0.3	0.3	0.6	0.6	0.5	1.2	3.8	1.6	1.3
제주	0.2	0.2	0.2	0.6	0.5	0.6	1.1	2.9	1.6	1.6

* 출처: 교육부(2013). 2006~2012 연도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인성교육지원팀 내부자료).

교육부(2013).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2008~2012(내부자료).

교육부(2014.8.29).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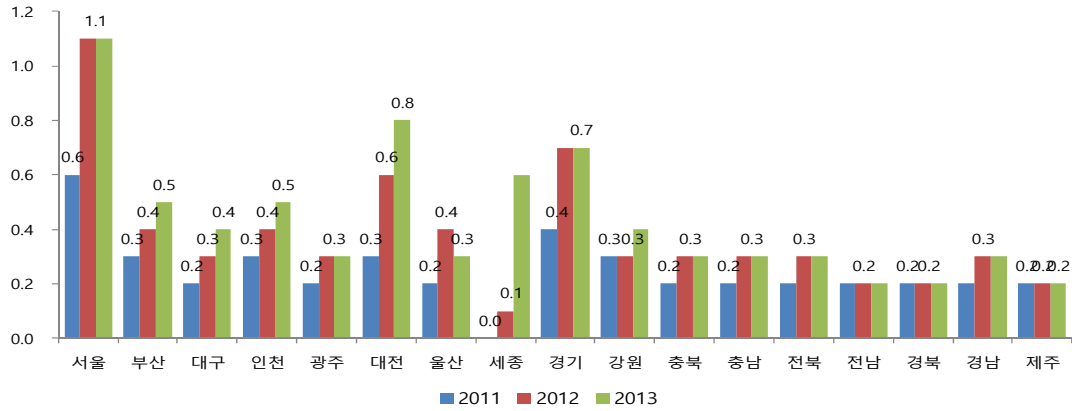
* 주: 1)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기준.

2)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3.3.1.~2014.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3.4.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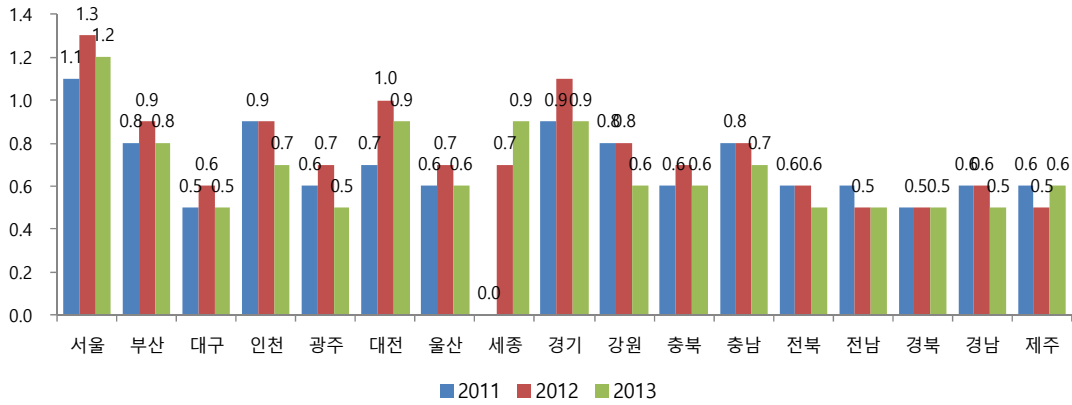
3) 윤철경 외(윤철경 외(2014) p.204의 <표 V-2>을 업데이트한 것임.

9) 2011년 초·중고 자료는 윤철경 외(2013) p.24 <표 II-3>을 참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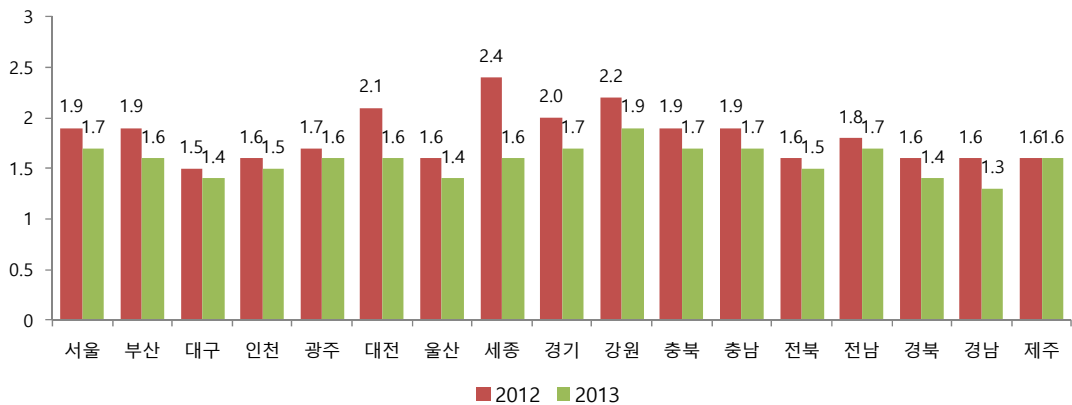
10) 2012년 초·중고 자료는 윤철경 외(2014) p.206 <표 V-4>를 참조하였음.



【그림 II-5】 2011~2013년 시도별 초등학교 학업중단율 (단위: %)



【그림 II-6】 2011~2013년 시도별 중학교 학업중단율 (단위: %)



【그림 II-7】 2012~2013년 시도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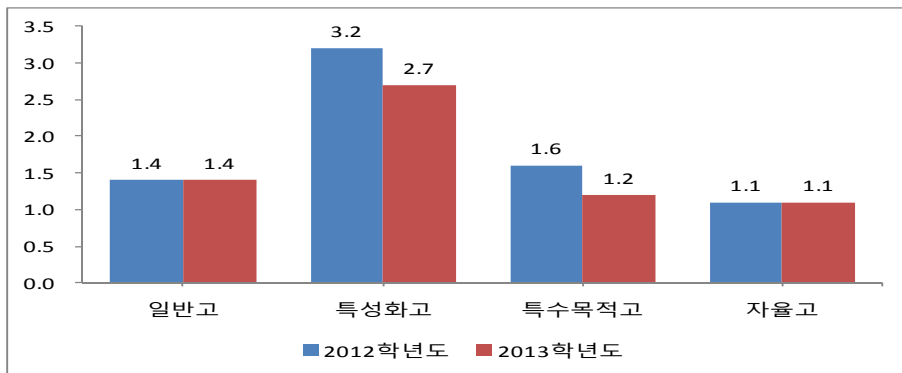
4)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현황 및 중단 사유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중단 사유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유예 및 면제,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학교폭력, 학칙위반)으로 구분되 <표 II-5>와 【그림 II-8】의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다른 고등학교 유형에 비해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12학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고의 학업중단율은 201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목고와 자율고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5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의 변화(2012~2013학년도) (단위: 명, %)

구분	2012학년도 ¹⁾			2013학년도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율
일반고	1,381,130	19,426	1.4	1,356,070	19,224	1.4
특성화고	330,797	10,095	3.2	320,374	8,782	2.7
특수목적고	64,468	1,041	1.6	67,099	804	1.2
자율고	143,692	1,671	1.1	149,760	1,572	1.1

- *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생현황, 학업중단학생현황)에서 재구성.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2014(학생현황, 학업중단학생현황)에서 재구성.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 기준.
 3)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3.3.1.~2014.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3.4.1. 기준.



【그림 II-8】 2012 ~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단위: %)¹²⁾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사유 현황(<표 II-6>, 【그림 II-9】)을 보면, 고등학교의

11) 윤철경 외(2014) p.206 <표 V-5>를 참조하였음.

12) 2012학년도 자료는 윤철경 외(2014) p.208 【그림 V-5】를 참조하였음.

유형과 상관없이 각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학업 중단사유는 부적응임을 알 수 있다(자율고, 41.2%, 특수목적고, 46.4%, 일반고, 47.4%, 특성화고, 63.1%). 다음으로 해외출국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높았다(자율고, 24.3%, 특수목적고, 22.5%, 일반고, 16.6%). 특성화고의 경우 해외출국 사유는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보다 낮은 반면 가사가 71%, 품행이 44%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6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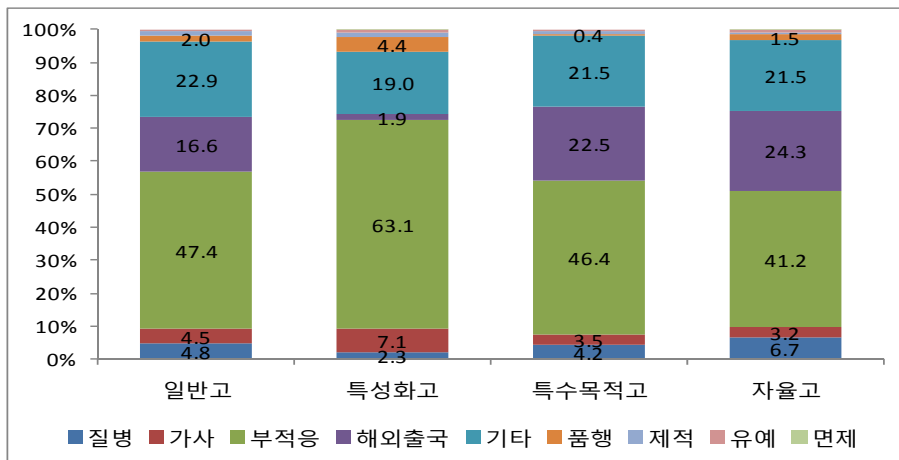
구분	학업 중단자수	자퇴					퇴학 품행	제적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일반고	19,224 (100.0)	931 (4.8)	868 (4.5)	9,110 (47.4)	3,195 (16.6)	4,408 (22.9)	378 (2.0)	251 (1.3)	74 (0.4)	9 (0.0)
특성화고	8,782 (100.0)	201 (2.3)	625 (7.1)	5,542 (63.1)	165 (1.9)	1,670 (19.0)	384 (4.4)	127 (1.4)	58 (0.7)	10 (0.1)
특수목적고	804 (100.0)	34 (4.2)	28 (3.5)	373 (46.4)	181 (22.5)	173 (21.5)	3 (0.4)	6 (0.7)	6 (0.7)	0 -
자율고	1,572 (100.0)	106 (6.7)	51 (3.2)	647 (41.2)	382 (24.3)	338 (21.5)	23 (1.5)	11 (0.7)	13 (0.8)	1 (0.1)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2014(학업중단학생현황).

* 주: 1)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 해당사유자수 / 학업중단자수 × 100

2)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3.3.1.~2014.2.28. 기준.

3) 학업중단자 중 유예, 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그림 II-9】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비율 (단위: %)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업중단학생현황).

<표 II-7>, 【그림 II-10】은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유를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사유로 세분화한 현황으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업관련 부적응 사유가 가장 높았고 특목고와 자율고에서도 기타를 제외하면 학업관련 부적응 사유가 가장 많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업 부적응을 사유로 중단하는 비율이 어느 고등학교 유형에서나 가장 높다는 것이다. 둘째, 기타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학교규칙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서 대인관계를 사유로 한 학업중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7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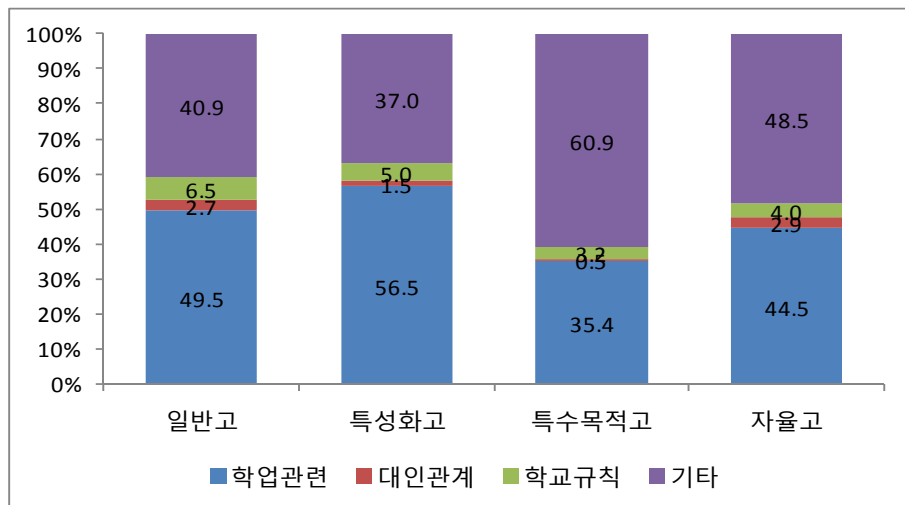
구분	부적응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일반고	9,110 (100.0)	4,537 (49.5)	250 (2.7)	593 (6.5)	3,730 (40.9)
특성화고	5,542 (100.0)	3,135 (56.5)	83 (1.5)	275 (5.0)	2,049 (37.0)
특수목적고	373 (100.0)	132 (35.4)	2 (0.5)	12 (3.2)	227 (60.9)
자율고	647 (100.0)	288 (44.5)	19 (2.9)	26 (4.0)	314 (48.5)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2014(학업중단학생현황).

* 주: 1) 부적응사유별 학업중단율 = 해당사유자수 / 부적응학업중단자수 × 100

2)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3.3.1.~2014.2.28. 기준.

3) 학업중단자 중 유예, 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그림 II-10】 2013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비율 (단위: %)

5)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 현황 및 중단 사유

<표 II-8>은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율과 학업중단사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때가 2.8%로 가장 높으며 고2 때가 1.6%, 고3 때가 0.4%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높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았을 때도 부적응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1학년이 1.5%로 나타나, 2학년, 3학년보다 2~7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까지 버텨오던 부적응 학생들이 고1때 대거 중단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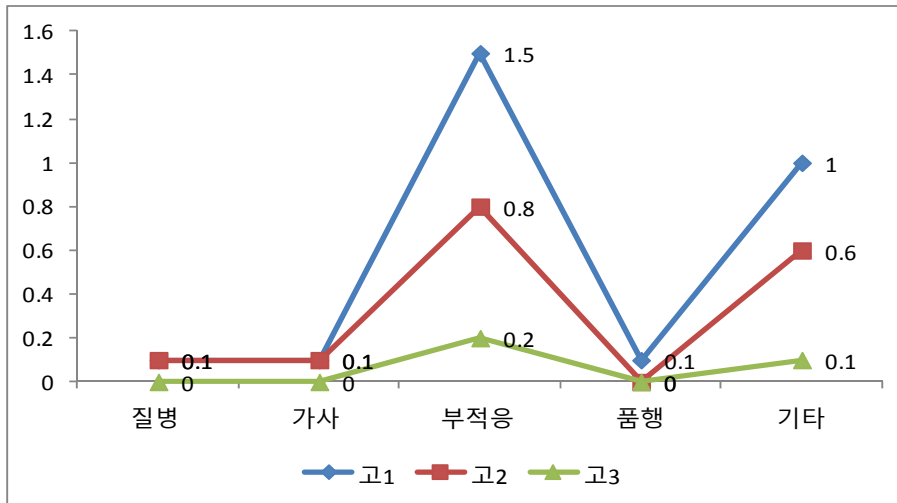
표 II-8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질병		가사		부적응		품행		기타		학업중단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재적 학생수	비율
고1	694	0.1	870	0.1	9,448	1.5	430	0.1	6,604	1.0	633,976	2.8
고2	445	0.1	527	0.1	4,993	0.8	219	0.0	3,699	0.6	625,651	1.6
고3	133	0.0	175	0.0	1,231	0.2	139	0.0	775	0.1	633,676	0.4
계	1,272	0.1	1,572	0.1	15,672	0.8	788	0.0	11,078	0.6	1,893,303	1.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48, 표 II-22.

* 주: 1) 초·중학교는 유예와 면제로 구분되며, 유예에는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가 포함되며, 면제에는 질병, 해외출국, 기타가 포함됨. 학적관리에서 면제처리된 사망은 학업중단학생에서 제외됨. 고등학교는 학업중단을 자퇴와 퇴학, 유예 및 면제로 구분하며, 자퇴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로 구분되며, 퇴학은 품행이 포함됨. 여기에서는 질병, 가사, 부적응, 품행, 기타(해외출국, 기타, 제적, 면제, 유예)로 구분하였음.

2)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3.3.1.~2014.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3.4.1. 기준



【그림 II-11】 2013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단위: %)

6)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 통계적 소재 및 이행경로 추정

(1) 학령인구 대비 학생 수 :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

<표 II-9> 는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학령인구와 해당 학령인구 중 공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 재학생수의 산출방식을 종전 연구(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II)에서는 단순히 학생총수와의 격차로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정교히 해서 연령별 학생 수를 반영하였다. 이렇게 산출할 때 출생인구 기준 학령인구와 해당 연령의 학생 수는 401,774명의 격차가 발생한다.

표 II-9 1995~2006년생 주민등록상 인구와 학생 수

출 생 년 도	주민등록상 인구수	학생 인구수						격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방계학제	합계	
06	449,005	421,840				634	422,474	26,531
05	436,650	421,931				778	422,709	13,941
04	473,567	457,244				923	458,167	15,400
03	493,097	476,970				905	477,875	15,222
02	494,455	409,959				1,376	411,335	83,120
01	558,993	521,402	2,546			3,115	527,063	31,930
00	638,649	70,157	533,341			3,837	607,335	31,314
99	619,119	1,098	602,153			3,852	607,103	12,016
98	638,986	610	604,504	3,812		2,957	611,883	27,103
97	670,498		59,148	571,262		2,995	633,405	37,093
96	684,035		1,998	628,256		4,521	634,775	49,260
95	706,264		217	636,707	7,088	2,409	646,421	59,843
합 계	6,862,319	2,781,211	1,803,907	1,840,037	7,088	28,302	6,460,545	401,774

*출처: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연보

*주: 1) 2013. 12. 31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현황

2) 2013. 04. 01 기준 재적 학생 수

3) 출생신고 기준 학령인구 수는 사망자와 이민자를 제외한 총 6,875,470명이며 해외체류, 사망신고 등을 주요 사유로 하는 거주불명 등록자 총 13,151명을 제외한 수치임

4) 격차는 주민등록상 인구수에서 학생 인구수의 합계를 뺀 수임

5) 방계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함.

여기에서 좀 더 고려할 점은 먼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학생 수이다. 외국인 학생은 출생이 등록된 학령인구가 아니므로 학령인구에 더해줘야 한다. 2013년 4월1일 기준 9,720명의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둘째,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재학생 수의 산출 기준 일에 따른 문제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13년 12월 31일을, 교육통계 재학생 수는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에 2013년 4월1일 이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학생 변동 상황이 학생 수 산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를 추정하였다. <표 II-10>은 학업중단과 복교가 매월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9개월간 학업중단자 수이다. 2013년 12월 31일 까지 총 26,044명의 학업중단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이 숫자만큼 학생 수를 감해야 한다.

표 II-10 2013학년도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추정, 2013.4.1~12.31) (단위: 명)

구분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 수(A)	2013학년도 복귀자 수(B)	2013년도 순학업중단자 수 (A-B)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추정)
기간 학제	초등학교	15,908	12,614	3,294	2,470
	중학교	14,278	7,700	6,578	4,933
	고등학교	30,382	5,811	24,571	18,428
방계 학제	특수학교	—	—	—	—
	공민학교	—	—	—	—
	고등공민학교	—	—	—	—
	고등기술학교	78	—	78	57
	각종학교(초·중·고)	209	—	209	156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	—	—	—
	산업체 특별학급	—	—	—	—
	방송통신고등학교	—	—	—	—
총계		68,561	28,697	34,730	26,044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학생변동 상황).

* 주: 1)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수는 2013.3.1~2014.2.28 기준임.

2) 2013학년도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수의 월별 데이터가 없어 매월 동일한 비율로 학업중단과 복귀가 일어났다고 가정하여 2013학년도 순학업중단자 수 x 9/12로 하여 추정함. 학업중단이 월별로 분산되는 반면 복귀는 3월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9개월간 순학업중단자 수 추정치는 최소 수치라고 할 수 있음.

3) 방계학제인 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산업체부설 고등학교/산업체 특별학급/방송통신고등학교의 복귀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음.

<표 II-11> 에 의하면 2013년 12월31일 현재 초·중·고 학령인구에 해당하지만 대학을 포함하여 공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총 442,598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II-11 학교 밖 청소년 규모(2013.12.31. 기준)

구 분		인 구 수		비 고
		2012.12.31 기준 ¹³⁾	2013.12.31 기준	
학령 인구	주민등록상 학령인구(A)	7,126,098	6,862,319	2013.12.31. 기준.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외국인 자녀 중 학령 인구(B)	13,372	14,780	· 2002~2013 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 향과(2002~2013) 원 자료 활용.
학생 수	교육통계상 학생인구(C)	6,715,622	6,460,545	· 2013.4.1. 기준 재학생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년 교육통계연보
	순 학업중단자수(D)	29,895	26,044	· 2013.4~2013.12 9개월간 발생한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학교 밖 청소년 수 $E=(A+B)-(C-D)$	453,743	442,598	

(2)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442,598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면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 실시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로 있는 지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학령인구의 국제이동 현황을 파악하였다.

① 학령기 청소년의 국제이동 현황

<표 II-12>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활용하여 2013년 기준 초1에서 고3 학령인구의 출입국 실태를 최대 12개년 간 누적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고3의 경우 12개년 간 출입국, 고2의 경우 11개년 간, 초 1의 경우 1개년 것만 반영하였다. 초1~고3 학령인구 중 순 출국자는 72,296명으

13) 2012.12.31.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학생의 출생연도를 고려하여 2013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출한 결과 윤철경 외(2014), p.212의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음.

로 산출되었다.

표 II-12 2013년 학령인구 기준 내국인 순 출국자수 및 외국인 순 입국자 (단위: 명)

년도	내국인 순 출국자	외국인 순 입국자
2002	1,296	13
2003	3,156	-3
2004	4,985	-54
2005	8,583	42
2006	15,092	31
2007	10,251	488
2008	8,435	557
2009	-734	698
2010	7,401	1,197
2011	6,258	2,689
2012	3,532	2,565
2013	4,041	6,558
합계	72,296	14,780

*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2-2013), 국제인구이동통계.

* 주: 1) 국제인구이동통계 원자료(각세별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 기준 학령인구의 국제이동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종단적으로 파악한 것임.

2) 국제인구이동이란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이동을 의미함. 내국인 순출국자(출국자-입국자), 외국인 순입국자(입국자-출국자)를 산출하였음.

교육부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출국 및 귀국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출국학생과 귀국학생 통계가 2005년부터 산출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출·귀국 학생 데이터는 없다. 이 기간은 9개년 간 출입국 격차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교육부 출·귀국 학생 현황은 학년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초1~고3 12개 학년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13학년 재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초1~고3 학생 출입국 격차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2012년 출입국 격차에는 2013년 때 고3 학생은 고2였기 때문에 초1~고2 학생 출입국 격차만, 2011년 출입국 격차에는 초1~고1 학생만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12개 학년별로 동일하게 출입국 격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정한 순 출국 학생 수는 100,988명이다(<표 II-13> 참조).

표 II-13

2013학년도 재학생 기준 순 출국 학생 수(추정)

(단위: 명)

구분	출국			귀국			출입국 격차	가중치	순출국 학생수
	유학	해외 출국	출국학 생합계 (A)	유학	파견 동행/ 이민	귀국 학생 합계(B)	A-B	n=1 ~12	
2002	—	—		—	—		17,511	1/12	1,459
2003	—	—		—	—		17,511	2/12	2,918
2004		—		—	—		17,511	3/12	4,377
2005	22,330	14,994	37,324	6,204	7,382	13,586	23,738	4/12	7,912
2006	31,910	16,296	48,206	9,683	8,679	18,362	29,844	5/12	12,435
2007	30,981	16,148	47,129	11,126	9,151	20,277	26,852	6/12	13,426
2008	31,019	14,024	45,043	11,248	11,015	22,263	22,780	7/12	13,288
2009	20,883	11,953	32,836	12,150	11,548	23,698	9,138	8/12	6,092
2010	20,982	11,921	32,903	10,306	9,679	19,985	12,918	9/12	9,688
2011	19,747	11,928	31,675	8,696	10,502	19,198	12,477	10/12	10,397
2012	17,030	10,967	27,997	8,082	9,676	17,758	10,239	11/12	9,385
2013	13,892	11,606	25,498	6,619	9,268	15,887	9,611	12/12	9,611
9개년 합계	208,774	119,837	328,611	84,114	86,900	171,014	157,597		
연평균							17,511		
12개년 추정치									100,988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6~2013), 각년도 교육통계연보(유학현황, 귀국현황).

* 주: 1) 12개년간 출국 후 미복귀 학생 추정치는 2013학년도 재학생 기준으로 2002~2004년도에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가 없어 9개년 간 평균값을 대입하여 추정함.

[추정식: $\sum(A-B) \times n/12$, ($n=1\sim12$)]

2) 구분 연도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당해 연도로 수정함. 즉 2005년도는 2005.3.1~2006.2.28
기준임.

3) 유학(미인정 유학, 인정유학, 자비유학, 미취학자 미인정 유학 포함), 해외출국(해외이주, 파견동행, 미취학자 해외출
국 포2013년 함)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학령인구 순 출국자 수에 따르면 72,296명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교육통계 상 순 출국 학생 수는 100,988명으로 28,692명이 더 많다.
즉, 약 2만8천명의 학령기 청소년이 귀국은 하였으나 초·중등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학령기 외국인 순입국자는 14,780명인데, 교육통계

(2013.4.1.기준)에 나타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는 9,720명(표 II-14)이다. 나머지 5,060명은 외국인 학교박 청소년수로 추정할 수 있다.

② 통계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현황

<표 II-14>는 획득 가능한 통계자료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를 파악한 결과이다.

표 II-14 통계를 통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파악

구 분			인구		산출근거	비고
			2012.12.31. 기준 ¹⁴⁾	2013.12.31. 기준		
학업중단 청소년 수(A)			453,743	442,598	〈표 II-11〉 참조	2013년 산출방식으로 산출하여 2012년 규모가 변화됨
국내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 수(B=A-D)			368,661	370,302		외국인 포함
국제이동 관련자를 뺀 학업중단 청소년수 (C=B-E-H)			336,760	336,550		
국제이동	내국인	순출국 학생수 (D, 추정)	85,082	72,296	• 2002~2013 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출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2~2013) 원 자료 활용.	• 2012년은 2001.1-2012.12 학령인구 순출국자 수
		귀국 후 미복교자 (E, 추정)	(25,293)	(28,692)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6~2013) 각년도 교육통계연보(유학 및 귀국현황)를 가공·추정한 결과 출국 후 미복교한 청소년 100,988명에서 순출국 학생 수를 감한 수치임.	• ()는 중복 가능하여 사회적 소재 파악자수에서 제외
	외국인	순입국자(F, 추정)	13,372	14,780	• 2002~2013 간 누적된 학령인구 순입국자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02~2013) 원 자료 활용.	

구 분		인구		산출근거	비고
		2012.12.31. 기준 ¹⁴⁾	2013.12.31. 기준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수(G)	6,764	9,720	• 각년도 . 4.1 기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2012년, 2013년 교육 통 계연보(다문화현황).	
	학교밖 청소년수 (H.추정=F-G)	(6,608)	(5,060)		• ()는 중복 가능 하여 사회적 소 재 파악자수에서 제외
검정 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52,174)	(33,686)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3년 만 19세 이하 합격자 수 (기준일: 2013.12.31)	• 2012년은 해당 연령의 검정고시 누적인구임. • ()는 중복 가능 하여 사회적 소 재 파악자수에서 제외
대안 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8,738	19,375	(기준일: 2013.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만 20세 이하 현황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399	6,762	(기준일: 2013.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시도교육청 조사자료	파악된 시설의 학 생 수임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관 (취업사관학교)	93(2)*	152	고용노동부 ('13년 기준)	2012년의 ()는 고 졸학력 취득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일 배움 카드제)	2,162 (3,241)*	-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 지지)	771(75)*	1,741		
교정	소년원	1,078 (590)*	17,214 (추정)	산출식: 43,035 (소년보호처분자 수) x 0.4(학 업중단을 추정치) 2013년 기준	2012년()는 초·중 고 재학생/고등학 교 졸업/대학생 포 함
	소년교도소	215 (5)*			
	보호관찰소	15,478 (21,660)*			
질병 · 장애	장기 입원	5,358	-	2012년 기준 학령 인구 중 건강보험공단 3개월 이상 장 기입원자수	

구 분		인구		산출근거	비고
		2012.12.31. 기준 ¹⁴⁾	2013.12.31. 기준		
	재가 장애인	2,945	36,719 (추정)	• 2013년 기준 7~18세 장애 인구 71,999명 × 0.51(고퇴 이하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실태조사 참조	• 2012년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기준일: 2011.5. 30.) 장애인실태 조사 연령별자료수합
기 타	군 입대(모집병)	41	-	2012년 기준 18세 모집병 중 학업중단자 수(추정치)	
	사회적 소재 파악자(I)	54,278	81,963		
	사회적 소재 미파악자 (J= B-I)	314,383	288,339		

<표 II-14>에 의하면 2013년 기준 7세~18세 연령 학교 밖 청소년 442,598명이다. 해외체류자 72,296명(추정치)를 빼면 370,302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수치이다(중도입국 및 외국인 청소년 포함). 이 중 행정·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81,963명이 었다(추정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있는 청소년이 약 26,137명, 검정고시 합격자 가 33,686명¹⁵⁾ 이다. 이들은 학령기 내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학령기를 벗어난 학력 취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원 파악과 더불어 연도별로 출생연도를 고려한 검정고시 합격인원이 산출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학력취득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2013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령인구 청소년으로 파악된 인원은 1,893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령별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자료를 얻지 못하면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2년도에는 고용부가 별도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 중 6,344명이 고용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318명은 검정고시 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3,026명은 고등학교 이하 학업중단자이다. 고졸이하 중퇴자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는 대단히 적으며 이에 대한

14) 2012학년도 데이터는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Ⅱ, p. 213 참조

15) 2013년 해당연령 검정고시 합격자를 연도별·각세별로 누적하여 파악한 데이터가 없어 2013년 합격자만 반영함. 2012 년 학령인구 기준 검정고시 합격자는 2001~2012년으로 12개년간 각 세별 학령인구를 누적하여 산출한 것으로 총 52,174명이었음.

연령별 데이터도 산출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학업중단자는 17,214명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 실제 데이터와 큰 차이는 없다.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당시 출생연도와 학력 현황, 이후의 학력 취득현황을 출생연도별로 통계화 할 필요가 있다.

질병으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학업중단 청소년 5,358명의 자료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작성한 자료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자(학업중단자)에 대한 파악 역시 정기적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 장애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36,719명으로 추정되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초로 추정한 것이다. 장애인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기타 모집병으로 군 복무 중인 학령기 청소년은 2012년 기준 41명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기준, 국내거주 학업중단 청소년 370,302명 중 81,963 명은 통계적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288,339명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전일제 근로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쉼터나 그룹 홈 등 민간 수용시설의 학업중단 청소년, 검정고시나 취미·기능·직업훈련 학원 등 민간교육시설의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정에 머물며 소일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 현황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3) 학업중단 청소년집단에 대한 특성 분석: 성별, 교급별, 이행경로별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II-15>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국내체류 여부별, 연령(연령 데이터가 없어 학교급으로 대체)별 성별, 이행경로별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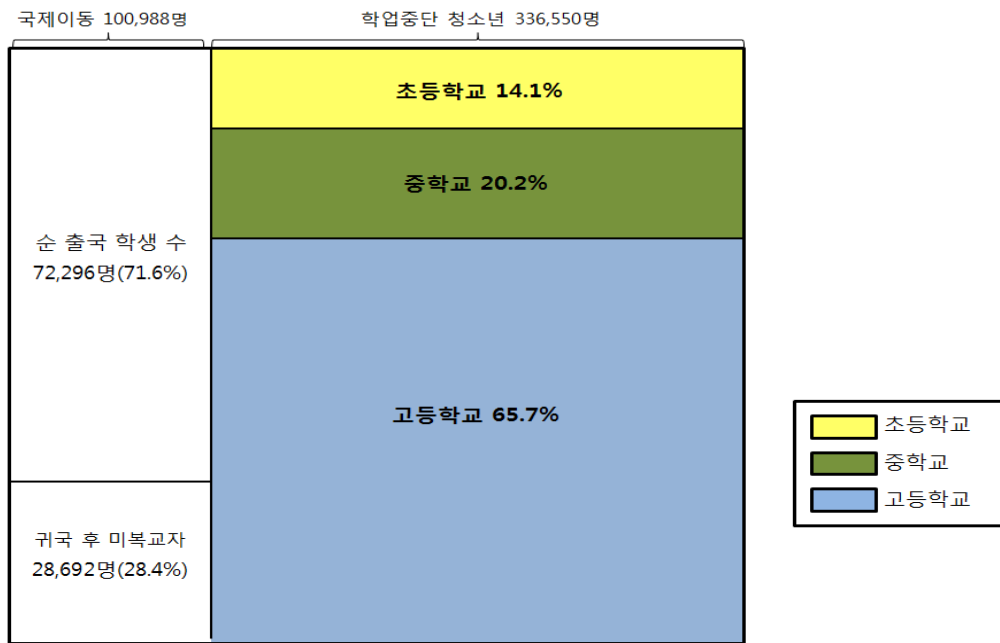
표 II-15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구성비	인구(%)	산출근거	비고
학업중 단청소 년	전체	100.0	442,598	〈표 II-14〉 참조	
	국내거주 학업중단 청소년	83.6	370,342	〈표 II-14〉 참조	
	국제이동 제외 학업중단 청소년	76.9	336,550	〈표 II-14〉 참조	교육통계와 패널조사의 기준집단
연령별	초등학교 연령	14.1	47,453	336,550 × 0.141	2002~2013 각년도 학교급별 순학업중단자수(학 업중단자수-복귀자 수)와 구성비를 산출
	중학교 연령	20.2	67,983	336,550 × 0.202	
	고등학교 연령	65.7	221,113	336,550 × 0.657	
교급별 · 성별	초등학교 연령 여자	13.5 ¹⁾	19,354. (40.8) ²⁾	40.8=19,354÷47,453 × 100	1) 2002~2013 각 년도 교급별 여자 순학업중단자 수 및 구성비 산출 후 성별구성비 산출 2) ()은 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를 100으로 본 여자청소년 비율임
	중학교 연령 여자	23.4	33,548 (49.3)	49.3=33,548÷67,983 × 100	
	고등학교 연령 여자	63.1	90,466 (40.9)	40.9=90,466÷221,113 × 100	
	전체	100.0	143,370 (42.6)	143,370=336,550 × 0.426	
이행 경로별 (추정)	학업형	50.4	169,621	336,550 × 0.504	본 연구의 2012년 6월 이후 중단자의 3년차 이행경로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직업형	32.4	109,042	336,550 × 0.324	
	무업형	11.1	37,357	336,550 × 0.111	
	비행형	6.0	20,193	336,550 × 0.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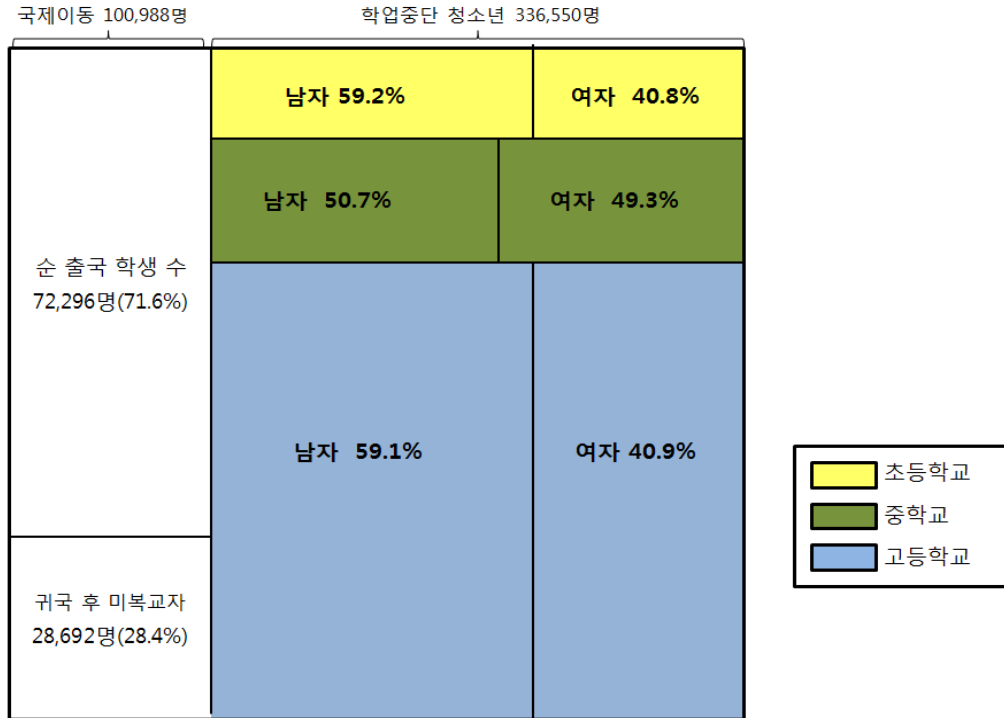
먼저, 본 연구를 통해 2013년 기준 초·중등학교 연령 청소년 중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10만 명 선으로 추정하였다. 출국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해외체류 중이며 3명은 귀국했지만 복교하지 않았다. 귀국 후 미복교자를 포함하여 국내 거주 초·중등학교 학령기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37만 명(83%)이며, 국제이동자를 빼고 산출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33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국제이동자를 뺀 학업중단 청소년 수를 산출하는 이유는 교육통계나 본 연구의 패널조사의 학업중단자 인구에서 이들 집단이 빠져 있고 교육통계의 학업중단자 성별·교급별 비율 산출 시에도 이들 집단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다루기 위함이다.

교급별 학업중단 청소년 수를 파악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2013년까지 각급 학교 순학업중단자 수(당해년도 중단자 수- 복귀자 수)를 합한 후 전체에서 교급별 구성 비율을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는 14.1%, 중학교는 20.2%, 고등학교는 65.7%로 나타났다. 336,5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 연령이 47,453명, 중학교 연령이 67,983명, 고등학교 연령이 221,113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12】 학령기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여자 학업중단 청소년의 구성비를 산출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 순학업중단자 수의 합, 각 년도 여자 순학업중단자 수의 합을 구해 여자청소년 구성비를 산출한 결과는 42.4%였다. 전체 학업중단자 수(336,550명 기준)에 이 비율은 곱하여 산출한 전체 여자 학업중단자 수는 143,370명이었다. 이 인원수에 여자 청소년의 교급별 비율(13.5%, 23.4%, 63.1%)을 각기 곱하여 초등학교 여자 학업중단자 19,354명, 중학교 여자 학업중단자 33,548명, 고등학교 여자 학업중단자 90,466명을 산출하였다. 교급별·여자청소년 비율은 초등학교 40.8%, 중학교 49.3%, 고등학교 40.9%로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50%에서 10%p 가량 못 미쳤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남자 학업중단 청소년이 10%p 이상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3】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성별 비율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의 이행경로별 분포를 활용하였다. 2012년 6월 이후 학업중단한 후 3차년도 까지 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업형 50.4%, 직업형 32.4%, 무업형 11.1%, 비행형 6.0% 로 산출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 총수(336,550명 기준)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학업형 169,621명, 직업형 109,042명, 무업형 37,357명, 비행형 20,193명으로 추정하였다.

행정통계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국내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분류하면 <표 II-16>과 같다. 국내거주 학업중단 청소년 중 행정·조사통계를 활용해 사회적 소재를 파악한 인원은 전체의 약 22%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78%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통계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실시기반이 취약함을 뜻한다.

표 II-16 통계적으로 소재가 파악된 학업중단 청소년 이행경로별 인구 (단위: 명,%)

구 분		총 계		비 고
국내거주 학교 밖 청소년		370,342(100.0)		
학업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9,375	26,137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6,762		
	검정고시 합격자	(33,686)		
직업형	직업훈련기관(취업사관학교)	152	1,893	
	취업지원 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제)	—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지지)	1,741		
비행형	소년원		17,214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무업형	장기 입원	—	36,719	
	재가 장애인	36,719		
	군 입대(모집병)	—		
전체	통계적 소재 파악자	—	81,963(22.1)	
	통계적 소재 미파악자	—	288,339(77.9)	

2. 관련 정책 현황 분석

1) 관련 법 및 조례 제정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여성가족부는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대학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중단 또는 미취학한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다.

본 법령에서 규정한 주요 정책전달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다. 본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을 중심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철경 외, 2014: 215).

본 법령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발굴 및 연계를 위해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단체장 등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소년에게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본 센터로 연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4: 215).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책 실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기관 간 연계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법 개정 추진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 문제와 상충되어 난관에 부딪쳐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7>과 같다. 2011년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제정을 하였으며 2012년 대전, 경남, 경기도가 뒤를 이어 제정을 하여 2015년 10월 현재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다.

표 II-17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광역자치단체)¹⁶⁾

연번	광역자치	조례명	제정 시기
1	서울	-	-
2	부산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1-1 조례 제4967호 일부개정 : 2015-01-01 조례 제5081호
3	대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1-10 조례 제4623호
4	인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3-10 조례 제5333호
5	광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	2011-7-27 조례 제3987호
6	대전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제정 : 2012-6-15 조례 제4066호 전부개정 : 2015-06-19 조례 제4475호
7	울산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11-12 조례 제1401호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4-10 조례 제474호
9	경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10-2 조례 제4445호 일부개정 : 2014-9-24 조례 제4778호
10	강원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8-2 조례 제3663호
11	충북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2013-1-4 조례 제3534호
12	충남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6 조례 제3864호
13	전북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2-06 조례 제3954호
14	전남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2012-10-12 조례 제3617호 일부개정 : 2014-8-1 조례 제3821호
15	경북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5-30 조례 제3422호 전부개정 : 2014-12-29 조례 제3592호
16	경남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6-21 조례 제3714호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2013-5-15 조례 제1035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조례법(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15.10.07.인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매우 활발해졌다. <표 II-18>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경기도 부천시가 조례 제정을 시작하여 2013년 말까지 15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도에 6개, 2015년에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새로 제정하여 2015년 10월 현재 5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2015년에 대단히 활발히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6) 윤철경 외(2014) p.216. <표 V-12>를 수장보완함.

표 II-18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기초자치단체)¹⁷⁾

연 번	기초자치 단체	조례명	제정시기	개정시기
1	부천시(경기)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2012-03-26	2012-10-04
2	강동구(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2-10-17	2013-12-11
3	안양시(경기)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2-11-12	
4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2013-04-17	
5	하남시(경기)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3-06-07	2014-12-26
6	동구(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08-01	
7	성남시(경기)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08-02	
8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09-12	2015-05-14
9	여주시(경기)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3-09-23	2014-12-31
10	군포시(경기)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3-11-01	2014-12-10
11	북구(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13	
12	시흥시(경기)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2013-12-17	2014-12-12
13	구리시(경기)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12-24	
14	과천시(경기)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12-30	
15	광명시(경기)	광명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12-31	2014-08-14
16	동두천시(경기)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03-13	
17	의왕시(경기)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0-06	2015-04-03
18	서구(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0-10	
19	서산시(충남)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10-17	2015-01-26
20	남구(인천)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1-17	
21	목포시(전남)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12-29	
22	고양시(경기)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1-02	
23	북구(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2-27	
24	홍성군(충남)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3-02	
25	아산시(충남)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3-16	
26	동구(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3-25	
27	구미시(경북)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3-25	
28	수원시(경기)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03	
29	연제구(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4-29	
30	안성시(경기)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06	
31	성북구(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5-14	
32	송파구(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5-21	
33	동구(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29	
34	김포시(경기)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6-10	
35	보령시(충남)	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7-10	
36	강북구(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24	

17) 윤철경 외(2014) p.217. <표 V-13>을 수장보완함.

37	용인시(경기)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7-28	
38	관악구(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7-30	
39	달서구(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31	
40	남동구(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7-31	
41	영월군(강원)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2015-07-31	
42	서구(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8-03	
43	군산시(전북)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8-03	
44	안산시(경기)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8-10	
45	나주시(전남)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8-11	
46	강서구(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8-12	
47	광양시(전남)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9-23	
48	은평구(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9-24	
49	남구(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9-30	
50	당진시(충남)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09-30	
51	해운대구(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5-10-0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조례법(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현황(2015.10.07 인출).

* 전체 기초자치단체(226곳) 중 조례법 제정 51곳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주요 내용은 ① 학교 밖 청소년(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 부여,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또는 후견인제 운영, ④ 진로 및 교육지원, 상담지원, 자립 및 자활지원 등의 지원 강조, 건강검진이나 체력검사 지원, 취업지원, 여가문화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음, ⑤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합의 목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⑥ ‘대안교육지원센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대부분 유사하다(윤철경 외, 2014: 217).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14: 218).

- 첫째,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발굴과 개인에 중점을 둔 서비스 지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대일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중심 지원형,
-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학습공간이나 배움터 등 대안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관 중심 지원형
- 셋째, 위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자 하는 개인·기관 지원 병행형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분석하면 <표 II-19>와 같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또는 개인·기관 양자의 병행 지원을 규정한 곳이 비슷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는 곳이 훨씬 더 많다. 청소년을 일대일 개인 베이스로 지원하는 것은 기관중심 지원보다 고비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시, 군, 구 단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학습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학습 공간 및 프로그램, 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향후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표 II-19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책 방향 분석¹⁸⁾

구 분	해당 자치단체		개소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개인 지원형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군산시,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충남 당진시, 대구 동구, 인천 서구, 경기 안산시, 충남 홍성군,	11
기관 지원형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전북, 대구, 대전	경기 군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안양시, 경기 여주시, 경기 하남시, 경기 광명시, 경기 구리시,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정부시, 울산 동구	20
개인·기관 병행지원형	인천, 세종, 경기, 울산, 경북	울산 북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고양시,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경북 구미시, 경기 김포시,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경기 과천시, 광주 동구, 전남 목포시, 충남 보령시, 광주 북구, 광주 서구, 충남 서산시,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충남 아산시, 경기 안성시, 부산 연제구, 강원 영월군, 경기 용인시, 서울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남양주시, 전남 광양시	36

18) 윤철경 외(2014) p.218, <표 V-14>를 수정보완함.

2) 정책현황

(1) 범부처 관련사업 분석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자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 2015년 시행계획¹⁹⁾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여성가족부가 수합한 각 부처 시행 계획 중에 학생, 비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 집단(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까지)에게 관련 서비스²⁰⁾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이나 시설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표 II-20>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정리된 학업중단 예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현황이다. 총 31개 사업이 도출되었다. 사업수로 볼 때는 문화/여가(8), 문제행동예방교육(7), 진로교육(5) 순으로 많았다. 사업대상을 볼 때 31개 중 26개 사업이 초·중·고·대학생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4개, 위기청소년으로 대상을 명시한 사업은 1개뿐이다. 담당부처별로 볼 때 여성가족부는 7개 영역에 대한 예방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고 있는 편이며, 교육부는 고용과 학업지원을 제외한 5개 영역에서 비교적 골고루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업지원에 사업수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활동과 문제행동 예방교육, 보건복지부는 문제행동 치료와 방과 후 학업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훈련/근로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19)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pp.11-687.

20) 학업중단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영역은 학업지원, 소속감 및 유대감 증진, 진로교육, 고용 및 훈련, 근로보호, 문화여가활동, 문제행동 치료지원, 음주, 흡연 등 문제행동 예방교육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II-20 범부처 학업중단 관련 예방 사업

서비스영역			학업 지원	소속감/ 유대관계	진로 교육	고용·훈련/ 근로보호	문화/ 여가	문제행동 치료	문제행동 예방교육	계
사업 수 ²¹⁾			2	2	5	3	8	3	8	31
대상자	학생	초·중·고	2	2	3	1	7	2	5	22
		대			1	1				2
		초·중·고·대				1			1	2
	아동·청소년				1		1		2	4
	위기청소년							1		1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2				2
	교육부			1	2		1	1	3	8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4		2	6
	법무부									
	보건복지부		1					1	1	3
	여성 가족부		1	1	3	1	3	1	2	12
전체	예산 ²²⁾ (단위:백만원)		304,206	9,707	41,846	227,878	206,042	5,050	12,448	807,177
	수혜인원 ²³⁾ (수혜기관 수)		8,091	104,650 (6,506)	413,184	4,719	472,132 (7,292)	2,070,000	1,127,629 (502)	12,173,405 (14,300)

예산규모로 볼 때 학업지원, 고용/훈련/근로보호, 문화/여가가 규모가 컸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예산규모가 컸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스포츠강사 배치 등이 예산규모가 컸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은 모두 학교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훈련 프로그램도 대학생과 초·중·고생에 집중되어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는 비예산 사업으로 청소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만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진로교육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II-21>은 학업중단 관련 예방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학업중단 관련 지원 대책을 정리한 것이다. 서비스 영역별 사업수를 볼 때 총 27개 사업 중 고용/훈련/근로보호(10개), 문제행동치료(6개), 문제행동 예방교육(3개), 주거지원(3개) 순이었다. 사업예산규모로 볼 때 고용/훈련/근로

21) 여기서 사업 수는 기본계획 상에 중복적으로 제시된 사업을 동일 주무부처(해당 과), 동일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1개 사업으로 카운트하여 산출하였다.

22) 사업예산은 2015년 예산 기준임.

23) 수혜자 수는 2014년 실적 기준임.

보호 사업이 제일 규모가 컸으며 그 다음은 문제행동 치료, 문제행동예방교육·주거지원 사업 순이었다.

사업대상을 볼 때 위기청소년(17개)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든 아동·청소년(8개), 비학생 청소년(2개) 순이었다. 비학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학업지원사업(부록3-32 참조), 국토교통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사업(부록 3-55)이었으며, 고용노동부가 15-24세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제/취업사관학교(부록3-35의 고용/훈련/근로보호 서비스)는 비학생 청소년뿐 아니라 고교 졸업예정자도 사업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300, 654백만원으로 매우 규모가 크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지에 대한 통계가 없어 수혜율을 가늠할 수 없다.

담당부처별로 볼 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었다(부록3 참조). 소년원 출원생을 대상으로 한 자립생활관 운영이 가장 주요한 예산사업이었고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즉 법무부의 경우 보호관찰 등 비행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외부 자원의 연계·활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지원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에서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소년과(보호관찰소, 소년원)와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안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및 정신보건 치료, 지역사회차원에서 정신건강 및 식생활 등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소외계층 아동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서비스는 고용/훈련/근로보호 영역과 문제행동 치료영역 및 예방교육 영역에 분포되어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 문화여가, 학업,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지원사업은 부족한 형편이다. 여성가족부가 예산규모는 작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상별로 필요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지원사업을 구안·실천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발굴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표 II-21 범부처 학업중단 관련 지원 대책

서비스영역		학업 지원	소속감/ 유대 관계	진 로 교 육	고용 훈련/ 근로 보호	문화/ 여가	문제 행동 치료	문제 행동 예방 교육	주거 지원	경제 적 지원	계
사업 수		1	1	1	10	1	6	3	3	1	27
대 상 자	비학생 (24세 이하)	1							1		2
	위기청소년			1	8	1	2	2	2	1	17
	아동·청소년		1		2		4	1			8
담 당 부 처	고용노동부				2						2
	교육부										
	국토교통부								1		1
	문화체육 관광부										
	법무부				4		1	2	1		8
	보건복지부		1		1		3	1			6
	여성가족부	1		1	3	1	2		1	1	10
전 체	예산 (단위: 백만원)	131	1,067		302,477		38,093	120	23,515	1,415	366,818
	수혜인원 (수혜기관 수)		(756)		28,737		73,930	13,324	565,510		681,501 (756)

<표 II-22>는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발굴체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 내실화와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CYS-Net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부록 3-59~61).

교육부의 Wee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발굴하는 기능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지원센터는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기능을, CYS-Net은 지역사회 관련기관들의 연계·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위기청소년을 발굴·연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빨리 해당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부족한 지역사회의 자원에만 의존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시급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굴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과 지역자원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핵심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발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표 II-22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발굴체계 현황

서비스영역			gateway
사업 수			3
대상자	학생	초 · 중 · 고	1
	비학생	18세 이하	1
	위기청소년		1
담당 부처	교육부		1
	여성가족부		2
전체	예산(단위: 백만원)		40,761
	수혜인원		14,953

제 III 장

패널조사 방법

1. 패널구축 및 조사 설계
2.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3. 조사과정
4. 패널실사
5. 자료검증 및 처리
6. 패널유지 현황 및 이탈패널 분석

제 III 장 패널조사 방법*

1. 패널구축 및 조사설계²⁵⁾

1) 패널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한 패널 구축은 2013년도에 총 996명으로 구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본패널 776명, 비교패널 220명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표본수를 보면, 학교 개인 명부를 통해 구축한 표본 수는 349명이었고, 스노우볼링, 웹 홍보를 통해 구축한 표본 수는 49명이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및 대안교육기관 등 기관 접촉을 통해 구축한 패널은 378명이었다. 그리고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보호관찰소를 통해 구축한 비교패널은 220명으로 구성하였다(<표 III-1> 참조).

표 III-1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구축 현황

구 분			최종 표본수	대상 특성
본패널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개인명부 조사		349명	1년 미만 학업 중단자
	스노우볼링, 웹 홍보		49명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학업 중단자 중 동일 비율 고려
	기관 접촉 조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4명	
		직업훈련기관 / 자활지원관	57명	
		검정고시학원 / 대안교육기관	167명	
비교패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보호관찰소		220명	1년 미만 보호관찰자
합 계			996명	

*출처: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p.92. <표 IV-4> 재구성

* 이 장은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25)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윤철경 외(2014), pp.19-21과 그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함.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661명(61.3%), 여성이 385명(38.7%)이었고, 연령별에서는 중학교 학령기가 100명(10.0%), 고등학교 학령기가 881명(88.5%), 학령기 이후가 15명(1.5%)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패널 특성별 구축 현황 (단위: 명, %)

구분		패널 수	패널 비율
성별	남자	611	61.3
	여자	385	38.7
연령별	중학교 학령기	100	10.0
	고등학교 학령기	881	88.5
	학령기 이후	15	1.5
전체		996	100.0

*출처: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p.20. <표 II-2> 참조.

2) 조사설계

(1) 본패널(일반학업 중단 청소년)

1차 조사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776명의 본패널을 구축하였다. 본패널에 적합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조사동의를 한 학업중단자 리스트 외 취업사관학교, 직업전문학교,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등의 기관접촉과 온라인/오프라인 스노우볼링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2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구축된 패널 776명의 본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자의 지인(가족, 친척, 친구, 보호자 등)에게 조사담당업체에서 개별 접촉하여 조사약속을 잡고,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가 1:1 대면면접의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구축패널 776명 중, 총 599명(77.2%)의 본패널 조사가 완료되었다.

3차 조사의 경우, 2차 조사와 동일하게 구축패널 776명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자의 지인(가족, 친척, 친구, 보호자 등)에게 조사담당업체에서 개별 접촉하여 조사약속을 잡고,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가 1:1 대면면접의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2) 비교패널(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차 조사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행화이므로, 본 패널과 비교가 가능하게하기 위해 비행경험(보호관찰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을 비교 패널로 구축하였다. 2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구축된 220명의 비교패널 중, 2014년도 조사시점에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패널의 경우 외부의 접근이 어려운 보호관찰소의 특성 상 보호관찰소 단위로 접근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3차 조사의 경우, 2차 조사와 동일하게 보호관찰소 단위로 접근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는 형태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해 구성된 설문지는 1차년도에 개발된 설문지를 기초로 2차년도에 일부 문항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었고, 일부 문항은 삭제되었다. 3차년도 조사에서도 조사 문항의 특성에 따라 일부 문항이 수정되거나 추가 혹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3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조사 문항을 가급적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수정 및 삭제는 필요한 최소 문항에 한해 진행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패널의 진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학이나 직업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문항을 일부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의 경우 재비행과 관련하여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년도 설문지에 대한 수정·보완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보호관찰 관련 현장전문가(보호관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조사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기존의 문항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 문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설문문항을 포함해 전체 설문문항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자세한 설문구성에 대한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 26)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3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학업 중단 관련 실태	현재 신분상태	중단/복교상태	●	1	-	1	1	1	1	연구진 작성	3차보기수정
		졸업자격 취득여부	●	-	-	1-1	1-1	1-1	1-1	2013년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구분 준용·수정	2,3차 계속
		학사 일정	●	-	-	1-2	1-2	1-2	1-2		
	복교 관련 실태	복교 경험	●	8	7	2	2	2	2	연구진 작성	1,2,3차 계속
		복교 학교 형태	●	-	-	2-1	2-1	2-1	2-1	연구진 작성	3차보기수정
		복교 시기	●	-	-	2-2	2-2	2-2	2-2	윤철경 외(2013) 문5-1 수정	
		학교 복귀 이유	●	8-3	7-3	2-3	2-3	2-3	2-3	윤철경 외(2013) 문5-3 수정	
		복교 학교 유형	●	8-4	7-4	2-4	2-4	2-4	2-4	연구진 작성	1,2,3차 계속
		증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	8-5	7-5	2-5	2-5	2-5	2-5	연구진 작성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2-6	2-6	2-6	2-6	연구진 작성	3차 수정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	-	-	2-7	2-7	2-7	2-7	연구진 작성	2,3차 계속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	-	-	-	윤철경 외(2013) 문5-1	1차
		최초 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	8-2	7-2	-	-	-	-	윤철경 외(2013) 문5-2	
	학업중단 실태	재중단 경험	●	-	-	3	3	3	3	연구진 작성	2,3차 계속
		재중단 학교유형	●	-	-	3-1	3-1	3-1	3-1	연구진 작성	3차 보기수정
		학업중단 년월	●	3	2	3-2	3-2	3-2	3-2	윤철경 외(2010) 문6	1,2,3차 계속
		학업중단 이유	●	4	3	3-3	3-3	3-3	3-3	윤철경 외(2010) 문8 수정	
		학업중단 시 학년	●	2,2-1	1,1-1	-	-	-	-	윤철경 외(2010) 문4-1 수정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	-	-	-	윤철경 외(2013) 문4 수정	1차
		학교성적수준	●	6	5	-	-	-	-	윤철경 외(2013) 문10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	-	-	-	윤철경 외(2013) 문5	

개인적 특성	학업중단 시 지원 실태	학업중단 시 상담자	●	9	8	3-4	3-4	3-4	3-4	3-4	윤철경 외(2010) 문9 수정	1,2,3차 계속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	10	9	3-5	3-5	3-5	3-5	3-5	민인철 외(2011) 문10 /학업중단숙려제 추가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	11	10	3-6	3-6	3-6	3-6	3-6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	14	13	3-7	3-7	3-7	3-7	3-7	윤철경 외(2013) 문8 수정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	14-1	13-1	3-8	3-8	3-8	3-8	3-8	윤철경 외(2013) 문8-1 수정	
	최초 학업중단 회고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	12	11	-					연구진 작성	1차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	13	12	-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	-	-	4	4	-	-	-	연구진 작성	2차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	-	-	5	5	-	-	-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	-	-	6	6	-	-	-	김영희 외(2013) 수정·보완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	-	-	7	7	-	-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	-	-	7-1	7-1	-	-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	-	-	7-2	7-2	-	-	-		
심리 정서	자이존중감	●	28-1)~5)	24-1)~5)	19-1)~5)	19-1)~5)	15-1)~5)	15-1)~5)	15-1)~5)	최인재 외(2012) 문8	1,2,3차 계속	
	자이탄력성	●	28-6)~10)	24-6)~10)	19-6)~10)	19-6)~10)	15-6)~10)	15-6)~10)	15-6)~10)	김지경 외(2010) KCYPs 중1패널 1차년도 문19 ㉔,㉕,㉖,㉗,㉘ 선정		
	생활만족도	●	-	-	19-11)~3)	19-11)~3)	15-11)~3)	15-11)~3)	15-11)~3)	이종원 외(2013) KCYPs 고1 패널 문13	2,3차 계속	
	우울	●	29-1)~10)	25-1)~10)	20-1)~10)	20-1)~10)	16-1)~10)	16-1)~10)	16-1)~10)	이경상 외(2011) KCYPs 중1패널 2차년도 문18 ㉙~㉛ 선정		
	충동성	●	29-11)~15)	25-11)~15)	20-11)~15)	20-11)~15)	16-11)~15)	16-11)~15)	16-11)~15)	Grasmick 등(1993) 척도, 이희경(2006)	1,2,3차 계속	
	사회적 낙인감 ²⁷⁾	●	-	-	31	31	27	27	27	배주미 외(2010) 문항 선정		2,3차 계속

환경적 특성	문제행동 가· 피해 경험	피해경험	●	41	36	33	33	29	29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1,2,3차 계속	
		문제행동 가해경험	●	42	37	34	34	30	30	최인재 외(2012) 문6 수정		
		경찰서 방문 여부	△		-			-	31	연구진 작성	3차 신규	
		경찰서 방문 횟수	△		-			-	31-1			
		경찰서 방문 당시 처분 유형	△		-			-	31-2			
		게임중독	●	30	26	21-1	21-1	17-1	17-1	최인재 외(2012) 문3 ⑤~⑬	1,2,3차 계속	
	학교 및 학교 생활	SNS 관련 ²⁸⁾ 피해·가해	●		-		21-2	21-2	17-2	17-2	이창호 외(2012) 수정·보완	2,3차 계속
		스마트폰 중독 ²⁹⁾	●		-		21-3	21-3	17-3	17-3	이창호 외(2013) 수정·보완	
		교사관계	●	16-1)~3)	15-1)~3)			-			최인재 외(2012) 문13 ④~⑥	1차
		친구관계	●	16-4)~7)	15-4)~7)			-			최인재 외(2012) 문13 ⑦~⑨	
		학습 부적응 (수업참여)	●	16-8)~10)	15-8)~10)			-			김성식 외(2008) 문36 ①~③ 수정·보완	
		훈육적 학교풍토	□	17-1)~2)	-			-			김성식 외(2008) 문10 ③, ④ 수정·보완	
부모 관계	참여적 학교풍토	□	17-3)~4)	-			-			연구진 작성	1,2,3차 계속	
	학교규범 위반 경험	●	18-1)~7)	16-1)~7)			-			김성식 외(2008) 문9 ①, ②, ③, ⑥, ⑨ 수정·보완		
	부모애착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1)~8)	27-1)~8)	22-1)~8)	22-1)~8)	18-1)~8)	18-1)~8)	최인재 외(2012) 문10 ②~⑥, ⑩, ⑫, ⑭ 수정			
	부모의 방임	●	32-1)~5)	28-1)~5)	23-1)~5)	23-1)~5)	19-1)~5)	19-1)~5)	허보연(2000) 방임 선정·수정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	32-6)~9)	28-6)~9)	23-6)~9)	23-6)~9)	19-6)~9)	19-6)~9)	이경상 외(2012) KCYPs 중·패널 3차년도 문25 ⑤~⑧ 수정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	33	29	24	24	20	20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연구진 작성	3차 보기수정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	33-1	29-1	24-1	24-1	20-1	20-1	윤철경 외(2013) 문19		
		학업중단한 친구 수	●	33-2	29-2	24-2	24-2	20-2	20-2	연구진 작성		
		또래 애착	●	34-1~3	30-1~3	25-1~3	25-1~3	21-1~3	21-1~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 선정		
		친구의 비행성향	●	34-4~6	30-4~6	25-4~6	25-4~6	21-4~6	21-4~6	전영식신동준(2012) 문15-4, 15-5, 15-6		
	지역 사회	지역사회 사회통합(세대와 통제)	●	35-1~4	31-1~4	26-1~4	26-1~4	22-1~4	22-1~4	김지선홍영오(2011)		
		지역사회 물질사(물리적, 사회적)	●	35-5~8	31-5~8	26-5~8	26-5~8	22-5~8	22-5~8	김지선홍영오(2011)		
		지역사회 유익 환경	●	35-9~10	31-9~10	26-9~10	26-9~10	22-9~10	22-9~10	연구진 작성		
		중단 후 경험실태	●	19-1~9	17-1~9	8-1~11	8-1~11	4-1~11	4-1~11	윤철경 외(2013) 문17 수정		
		중단 후 경험실태(비행)	●	20-1~4	18-1~4	9-1~5	9-1~5	5-1~5	5-1~5	윤철경 외(2013) 문18 수정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중단이후 경험	대안학교 소재지	●	-	-	-	-	4-1	4-1	연구진 작성	3차 신규	2,3차 계속
		대안학교 유형	●	-	-	-	-	4-1-1	4-1-1			
		검정고시 공부 방법	●	-	-	8-1	8-1	4-2	4-2			
		검정고시 응시 경험	●	-	-	-	-	4-2-1	4-2-1			
		검정고시 합격 여부	●	-	-	-	-	4-2-2	4-2-2			
		직업훈련프로그램 유형	●	-	-	-	-	4-3	4-3			
		직업훈련프로그램 교육내용	●	-	-	-	-	4-3-1	4-3-1			
		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	●	-	-	-	-	4-3-2	4-3-2			
		직업훈련프로그램 불만족 이유	●	-	-	-	-	4-3-3	4-3-3			

			●	-	-	4-4	4-4	4-4				2,3차 계속
			●	-	-	4-4-1	4-4-1	4-4-1				1,2,3차 계속
			●	-	-	4-5	4-5	4-5				2,3차 계속
			●	-	-	5-1	5-1	5-1				2차
			●	-	-	5-2	5-2	5-2				1,2,3차 계속
			●	-	-	5-3	5-3	5-3				2,3차 계속
			●	-	38	9-3	9-3	9-3				2차
			●	-	-	9-4	9-4	9-4				1,2,3차 계속
			●	-	-	9-5	9-5	9-5				2차
			●	21	19	10	10	10				1,2,3차 계속
			●	-	-	10-1	10-1	10-1				2차
			●	21-1	19-1	10-2	10-2	10-2				1,2,3차 계속
			●	21-2	19-2	10-3	10-3	10-3				1,2,3차 계속
			●	22	20	11	11	11				3차보가정
			●	-	-	12,12-12	12,12-12	12,12-12				2,3차계속
			●	-	-	8-3	8-3	8-3				3차 신규

	진로 계획	진로정보의 탐색 진로 장애 ³⁰⁾ 향후 진로 계획 진로 계획 달성 예측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	23	21	13	13	9	9	1차: 윤철경 외(2013) 문23 수정 2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진로성숙도 검사지 2문항 추가	1,2,3차 계속
			●	-	-	14	14	10	10	배주미 외(2010) 진로장애척도 수정 · 보완	2,3차 계속
			●	24	22	15	15	11	11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1-1 수정	1,2,3차 계속
			●	25	-	16	16	12	12	윤철경 외(2013) 문24	1,2,3차 계속
			●	26	-	17	17	13	13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3	1,2,3차 계속
			●	-	-	32	32	28	28	신혜경 외(2008), 배주미 외(2010) 자립지원요구조사 척도 수정 · 보완	2,3차 계속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관련 심리정서	●	27-1)~6)	23-1)~6)	18	18	14	14	윤철경 외(2013) 문27 ①③⑥⑧⑨ 선정 /27-5) 연구진 작성	3차 발문수정
			●	36	32	27	27	23	2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최인재 외(2012) 문33 참조	1,2,3차 계속
	일상 생활 및 가치관	취침시간	●	-	-	27-1	27-1	23-1	23-1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 · 보완	2,3차 계속
			●	37	33	28	28	24	24	최인재 외(2012) 문5, 6, 7, 11 수정	1,2,3차 계속
생애사건 경험	가치관	학력에 대한 생각	●	38	-	29	29	25	25	이경상 외(2007) KCYPs 중2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⑩ 선정 수정	1,2,3차 계속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39	34	30	30	26	26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1,2,3차 계속
	최초무단결석 경험	무단 결석 여부	●	15	14	-	-	-	-	연구진 작성	1차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	-	-	-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	-	-	-		
	생애사건경험	생애사건 경험	●	40-1)~20)	35-1)~20)	36	36	-	-	이경상 외(2005) 중2패널 3차년도 ex. 수정 -20번으로 '이사 등으로 전학' 신규 추가	1,2차

배경 문항	배경 문항	기초구성, 이사 횡수, 가정경제수준	●	43,47,48	39,43,44	35,37,38	35,37,38	31~33	32~34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1,2,3차 계속
보호 관찰 별지	배경 문항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학력,	●	44~46	40~42	-	-	-	-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1차
		건강상태	●	-	-	39	39	34	35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보완	2,3차 계속
		장래희망	●	-	-	40	40	35	36	연구진 작성	
		추가여죄 혹은 추가범죄	△	-	-	-	별지1	-	-	신규	2차
보호 관찰 별지	배경 문항	추가처분	△	-	-	-	별지2	-	-	전영실 외(2013) B형 문항 별지 문4 수정	2차
		부가처분	△	-	-	-	별지3	-	-	신규	2차
		보호관찰 이행의 성실성	△	-	-	-	별지4	-	-	신규	2차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	-	-	-	별지4	-	-	신규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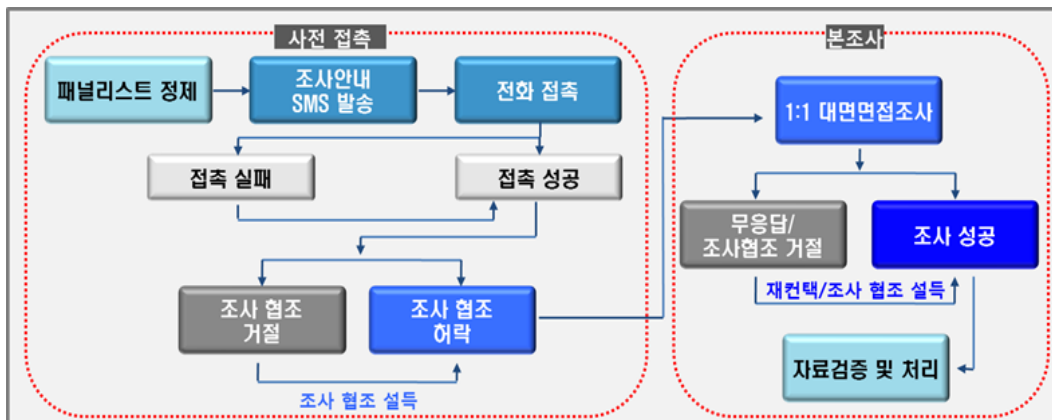
- 26) ● : A B 공통, □ : A형 설문(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 27) 사회적 낙인 척도는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보완한 10개 문항 그대로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28) SNS 피해·가해 경험은 이정호 등(2012)이 사용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 가해 경험 유무 1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10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이정호, 성윤숙, 정낙원(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9)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항 8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대로 사용함. 이정호, 김경희(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0) 진로장애척도는 김은영(2000)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한 척도로써 원래 9개 4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31) 윤철경 외(2014), p.27의 <표 II -4>를 수정·보완함.

3. 조사과정

조사는 진행단계에 따라 조사 준비단계, 실사단계, 자료검증 및 처리 단계 그리고 패널관리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3차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차 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과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조사 홍보에 필요한 팸플릿, 홈페이지 팝업창, 조사 안내문, 조사 지침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패널 정보 업데이트(패널 관리) 및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사 단계에서는 본패널 실사(대면면접조사)와 비교패널 실사(우편조사)를 나누어 개별 진행하였다. 본패널의 조사 진행은 크게 전화 사전접촉과 본조사로 나뉜다. 사전접촉 단계에서는 2014년 2차 조사 및 패널 정보 업데이트(패널 관리) 결과를 취합하여 가장 최근 정보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정제한 후 면접원들에게 패널 리스트(인포시트)를 배분하였다. 담당 면접원이 패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인포시트를 확인 후, 패널에게 전화로 접촉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약속을 정하였다(윤철경 외, 2014: 21).

본 조사 단계에서는 전화 사전접촉을 통해 조사 협조 의사를 표시한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담당 업체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윤철경 외, 2014: 21). 실사가 완료된 후에는 면접원 및 수퍼바이저 리뷰, 전화 검증 등 자료검증 및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였다(윤철경 외, 2014: 21). 조사의 과정 및 흐름은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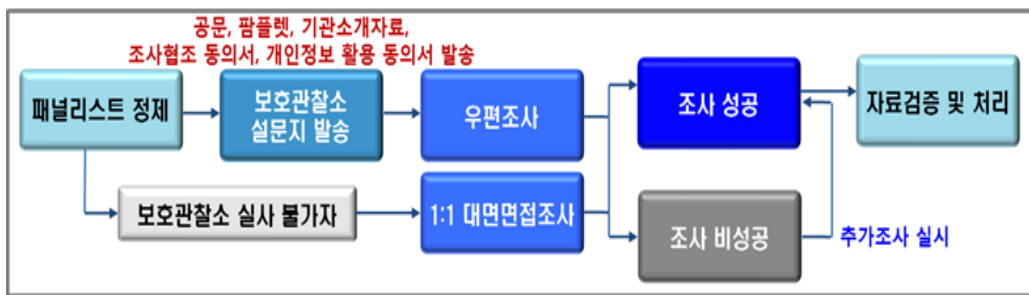


【그림 III-1】 본패널 조사 설계 및 흐름도³²⁾

32)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윤철경 외(2014). p.21. 【그림 II-1】과 동일함.

보호관찰 중인 경우 외부인의 보호관찰소 접촉이 어려우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접촉 및 추적에 보다 효율적이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과의 라포(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점, 전체적인 패널유지를 제고 등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의하여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패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관을 통한 조사를 1차로 수행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총 26개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패널 리스트 및 설문지, 안내문 등의 설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 조사 대상자가 보호관찰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완료된 설문은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여 우편으로 회송하도록 하였다. 실사 완료 후 자료검증 및 처리, 최종 데이터 확정 과정은 본패널과 동일하다.



【그림 III-2】 비교패널 조사 흐름도³³⁾

1) 조사준비

(1) 3차 조사 대상자 확정

3차 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 시 구축된 패널 수와 동일하다. 3차 조사 접촉을 위해 1차 조사 후, 2013년 12월, 2014년 4월, 2015년 5월의 패널 정보 업데이트(패널 관리)를 통하여 접촉 가능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였다. 패널 정보 업데이트(패널 관리)는 본패널 및 비교패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33) 윤철경 외(2014), p.22의 【그림 II-2】를 참고하였음.

표 III-4 3차 조사 대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수(명)	비율(%)
전체	996	100.0
패널 유형별		
일반(개인)	552	55.4
일반(기관)	224	22.5
보호관찰	220	22.1
현재 연령대별		
중학교 학령기	9	0.9
고등학교 학령기	315	31.6
학령기 이후	672	67.5
2차 조사 참여 여부별		
참여	809	81.2
미참여	187	18.7

(2) 비교패널 조사 대상자

조사담당업체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의 협의를 통해 비교패널의 3차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확정하였다. 2차 조사 당시 조사가 완료되었던 패널별 보호관찰소 리스트를 전달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 보호관찰소별 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확정하여 배부하였다. 비교패널의 조사 대상자 유형은 아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비교패널 조사 대상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수(명)	비율(%)
전체	220	100.0
보호관찰 종료 여부별		
보호관찰 기간 중인 패널	90	40.9
보호관찰 종료 패널	130	59.1
현재 연령대별		
중학교 학령기	2	0.9
고등학교 학령기	63	28.6
학령기 이후	155	70.5
2차 조사 참여 여부별		
참여	210	95.5
미참여	10	4.5

2)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3차 조사 설문지의 설문 타당도를 점검하고 본 조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확인하여 실제 조사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 대면면접조사(면접원이 조사 중 지속적으로 안내함) 2명과 자기기입식 조사 2명 등, 총 4명의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Ⅲ-6 예비조사 점검 사항

점검 항목	세부내용
설문 문항 점검	(1) 의미가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항 (2) 매뉴얼 상에 설명이 없는 문항 및 용어 (3) 매뉴얼 상으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항목 (4) 응답자가 기억 하지 못해 응답이 어려운 문항 (5) 응답 거절률(문제행동 등)이 높은 항목
조사 종료 후 점검	(1) 문항이 의도하는 목적에 충실히 응답했는지 여부 (2) 신규 문항에 대한 이해도 (3) 시간 및 시기 기준 응답(중단 시기, 생활시간 등)이 어려운 문항 (4) 조사에 대한 협조도 및 설문 소요시간

3) 조사 홍보

(1) 조사 팸플릿

조사 대상자 또는 조사 대상자 보호자가 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조사 팸플릿에는 조사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내용 등 조사에 대한 기본안내와 조사문의 방법 및 홈페이지 주소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 연구 결과 예시를 제공하여 조사 대상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조사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주관기관에 대한 소개와 패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기록하였다.

**한국리서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5 패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를 준수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 (연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에 관한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을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16조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17조 (통계작성) ①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신분보호)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33조 (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통계작성) ①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个人的을 식별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Panel Study of School Dropouts in Korea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2년 7월 ~ 2013년 9월 사이에 전국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 및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생활 실태 및 의식 변화를 추적하는 중단적 조사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본 조사는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 및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사 진행기관	조사 주관기관
 Hartook Research 홈페이지 : http://www.hrc.co.kr 전화 : 080-614-1000 e-mail : hrc@hrc.co.kr	 KIC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c.go.kr 전화 : 044-415-2102 e-mail : kic@kic.go.kr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Panel Study of School Dropouts in Korea 2015

【그림 Ⅲ-3】 조사 팸플릿 예시

패널조사 방법
제Ⅲ장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PANEL STUDY OF SCHOOL DROPOUTS IN KOREA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조사개요

공지사항/자유게시판

질문/답변

[홈](#) [로그인](#) [패널등록](#)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공지사항

[돌 >](#) 공지사항

제목	[안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5'가 시작됩니다.
관리자	2015-05-22 오후 7:16:08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입니다.

2015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 3차 년도 조사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체연구원이 주관합니다.

본 조사의 조사기간은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2개월)이며,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화사전접촉

- ☞ 조사 기간 동안 한국리서치 조사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으시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약속을 정해주세요.

2단계. 대면면접조사

-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한국리서치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음 약속한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에는 조사원의 조율을 통해 자유롭게 조사 일정의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012년 7월을 시작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인식변화를 추적 조사해온
3년간의 패널 조사연구가 2015년 올해의 조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3년 1차년도 조사, 2014년 2차년도 조사를 무사히 완료하였으며,
본 조사의 연구 결과자료 또한 발간할 수 있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 2015년에 진행되는 3차년도 조사에서 패널 여러분들께서 응답해주시는 소중한 응답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니, 2015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한국리서치 박종경 대리(02-3014-0980)

한국리서치 홍세정 연구원(02-3014-1016)

감사합니다.

【그림 III-4】 패널 홈페이지 이미지 예시

(3) 비교패널 보호관찰소 담당자용 조사 안내문

본패널과 달리 비교패널의 경우에는 면접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해당 보호관찰소의 협조 하에 패널 리스트와 설문지를 전달하여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패널 조사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조사 안내문은 조사에 대한 기본정보와 조사 수행 방법 및 필수 수행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호관찰 담당자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보호관찰 패널조사

Panel Study of School Dropouts in Korea 2015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입니다. 본 조사는 2013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차년도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보호관찰소 담당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목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함
조사방법	조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 방문 시, 조사 담당 보호관찰관의 안내를 통해 조사를 실행함
조사기간	2015년 7월 한 달 간
조사대상	(1) 보호관찰 기간 중인 패널 (2) 보호관찰 기간 종료 패널

조사 수행 방법 보호관찰소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어 조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조사 관련 물품 수령

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아래의 조사 물품을 수령합니다.

- 조사 대상자 리스트
- 조사 설문지
- 응답자 사례비 (3만원/5만원권 총 2종류)
- 조사 안내문 (조사 대상자용/보호관찰담당자용 총 2종)
- A4 봉투 (응답자 설문 발송용)
- A3 봉투 (전체 응답 완료 설문 및 잔여 사례비 수합용)

② 수령한 조사 물품에 누락 또는 부족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02 조사 대상자 설문 실시

①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용 안내문을 먼저 전달합니다.

② 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 설문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③ 안내문 설명 후, 설문지를 전달하면 대상자는 스스로 설문을 작성합니다.

03 완료 설문 및 잔여 사례비 회송

① 작성 완료된 설문지와 미완료된 대상자의 잔여 사례비를 한국리서치로 회송합니다.

② 회송은 착불 택배를 이용하시면 되며, 보내실 곳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에이치타워 8층 한국리서치
 홍세경 연구원 (02-3014-1016)

【그림 III-5】 보호관찰소 담당자용 조사 안내문 예시

(4) 비교패널 응답자용 조사 안내문

본 조사 패널과 달리 비교패널의 경우에는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설문 응답 중 누락 또는 재확인과 같은 응답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응답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이 다소 난해한 문항이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응답 규칙에 대해 응답자가 설문 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설문지 작성 방법

Panel Study of School Dropouts in Korea 2015

조사 대상자께서는 설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본 안내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아무렇게나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있을 시 사례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설문지에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적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만 응답해 주세요.(가장 중요!!)

본인이 만약에 2014년 3월에 복학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문항의 올바른 응답은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입니다.

문 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① ☒ 학한 경험이 없다

② ☐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3」으로

- 「문 2-1」로
- 2

설문지 질문의 검정 바탕의 글자를 꼭 읽어주세요.

검정 바탕의 글자는 본인이 응답해야 하는 문항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아래 문항의 검정 바탕 글자의 내용처럼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다면, 아래 문항에 꼭 응답해야 합니다.

문 5-2. 문 5에서 ③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는 응답을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보호관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는 「문 6」으로

① ☒ 없다

② ☐ 다

- 「문 6-4」로

- 「문 6-3」으로
- 3

문항에 모두, 세가지와 같은 지시문이 없는 경우, 반드시 하나의 응답만 선택해주세요.

아래 문항처럼 **모두** 응답해 달라거나 **세 가지를 고르라** 라는 요청이 있는 문항만 여러 개의 응답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 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여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청소년상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③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④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⑤ 학원

⑥ 대안교육기관

⑦ 없음

⑧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⑨ 보호관찰소

⑩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⑪ 병원 등 치료시설

⑫ 직장

⑬ 기타()

【그림 Ⅲ-6】 응답자용 조사 안내문 예시

4) 패널 정보 관리

(1) 패널 정보 업데이트 프로세스

패널 정보 업데이트는 구축 패널 9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CAMI(모바일 조사) 진행 후, CAMI에 응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집/부모님/친척/친구/기타 연락처를 모두 활용하는 CATI(전화 조사)로 진행하였다. 구축 패널 996명 중 본인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있는 패널(CAMI 조사 대상자)은 937명이었으며, CAMI 완료 및 조사 거절자를 제외한 CATI 조사 대상자는 856명이었다.

총 조사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 간이며, CAMI(모바일 조사)를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CATI(전화 조사)를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각각 진행하였다.

표 III-7 패널 정보 업데이트 개요

항목	조사 방법	
	CAMI	CATI
조사 대상자	937명	856명
조사 기간	5월 19일 ~ 6월 1일	5월 22일 ~ 6월 3일
이용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번호	본인 번호 외 기타 연락 가능 번호 (집/부모/친척/친구/기타)
조사 내용	(1) 본인 휴대전화번호 변경 유무 (2) 집 전화번호 변경 유무 (3) 지난 조사 이후 복교 또는 대안학교 입학 여부 (4) 현재 주로 하는 일 (5) 대학 입학 시기(입학했다고 응답한 경우) (6) 유학 및 군입대 예정 시기(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	

(2) 패널 정보 업데이트 결과

패널 정보 업데이트의 결과, 총 585명(58.7%)의 패널을 접촉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중 CAMI 완료자가 96명(9.6%), CATI 완료자가 489명(49.1%)이다.

본패널의 경우, CAMI 완료자가 87명(11.2%), CATI 완료자가 395명(50.9%)으로 총 482명(62.1%)이 접촉에 성공하였다. 비교패널의 경우, CAMI 완료자가 9명(4.1%), CATI 완료자가 94명(42.7%)으로 총 117명(53.2%)이 접촉에 성공하였다.

표 III-8 패널 정보 업데이트 결과

구분	본패널		비교패널		전체 패널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접촉 완료(전체)	482	62.1	103	46.8	585	58.7
CAMI 완료	87	11.2	9	4.1	96	9.6
CATI 완료	395	50.9	94	42.7	489	49.1
접촉 미완료	294	37.9	117	53.2	411	41.3
합계	776	100.0	220	100.0	996	100.0

패널 정보 관리가 완료된 총 585명의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132명(22.6%)으로 가장 높으며, ‘아르바이트’ 91명(15.6%), ‘아무것도 하지 않음’ 80명(13.7%) ‘취업하여 일을 함’ 68명(11.6%),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님’ 57명(9.7%),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 준비 중’ 43명(7.4%), ‘군대 입대를 준비 중’ 19(3.2%) 등의 순이었다.

패널 정보 업데이트에서 확인한 “현재 주로 하는 일”은 3차 조사에서 면접원이 활용하는 패널별 인포시트에 기록된다. 비록 패널 정보 업데이트에서 본인과 접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 또는 친구 등에게 패널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얻은 경우, 해당 사항을 인포시트에 기록하여 추후 본 조사 시 면접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9 현재 주로 하는 일

현재 주로 하는 일	빈도(명)	비율(%)
대학에 다님	132	22.6
아르바이트를 함	91	15.6
아무것도 하지 않음	80	13.7
취업하여 일을 함	68	11.6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님	57	9.7
대학에 가기 위해 입시 준비 중임	43	7.4
군대 입대를 준비 중임	19	3.2
직업기술훈련을 받음(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15	2.6
검정고시학원에 다님	15	2.6
대안학교에 다님	14	2.4
유학(해외)을 준비 함	4	0.7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2	0.3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 중임	2	0.3
기타	43	7.4
합계	585	100.0

패널 정보 업데이트의 결과, 총 411명의 패널이 접촉 미완료 되었다. 주요 미완료 사유로는 ‘연락 가능한 모든 번호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99명(24.1%)으로 가장 높으며, ‘결번으로 본인 번호가 추적 불가능한 경우’가 67명(16.3%), ‘본인 번호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66명(16.1%) ‘착신 정지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59명(14.4%) 등의 순이다. 그 외 세부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10 패널 정보 업데이트 미완료 사유

구분	세부 구분	빈도(명)	비율(%)
컨택 불가	결번(본인번호 추적불가)	67	16.3
	연락가능 번호없음	8	1.9
	착신 정지	59	14.4
	타인 번호	32	7.8
	본인번호 모르거나 연락두절 상태	15	3.6
소계		181	44.0
중도 실패	설문 중단	5	1.2
	약속 후 미완료	11	2.7
소계		16	3.9
전화 안받음	전화 안받음(본인)	66	16.1
	전화 안받음(리스트 번호 모두)	99	24.1
	본인 외 전화 안받음(본인번호 없음)	12	2.9
소계		177	43.1
거절	사전접촉 거절	14	3.4
	본조사 거절	23	5.6
소계		37	9.0
합계		411	100.0

5) 면접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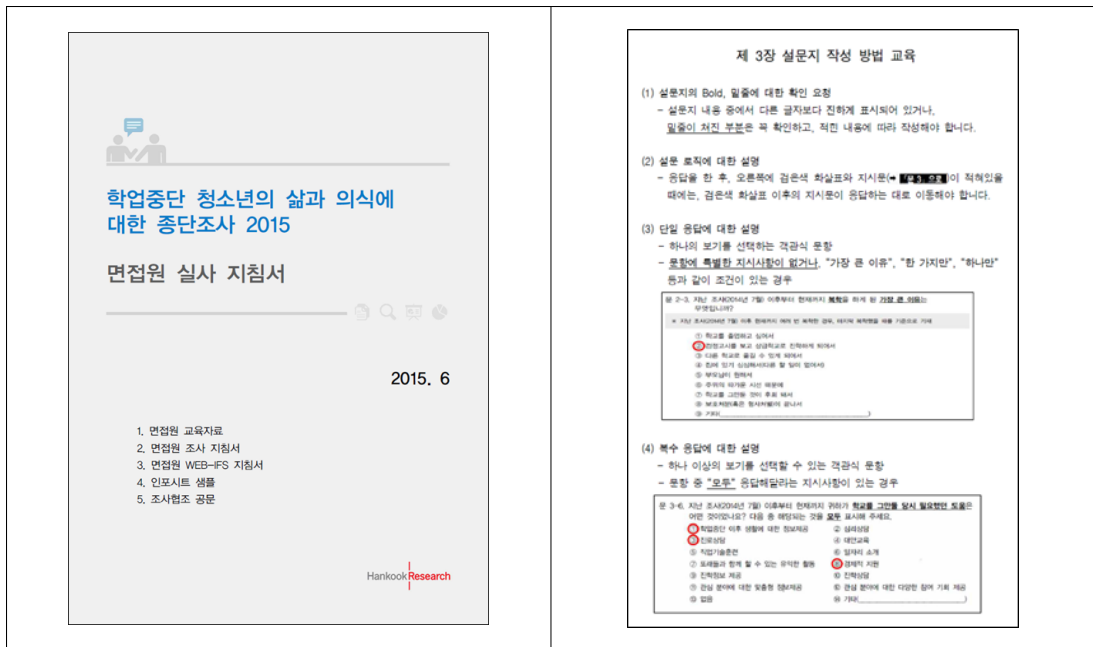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선발된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특징 및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원 교육은 조사담당업체의 지방사무소에서 지역별 집체교육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표 Ⅲ-11 지역별 면접원 교육 일정

날짜	교육 장소	대상지역	교육내용
6월 4일(목)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조사개요 - 설문지 교육(설문 문항별 개념 정의 및 설문 로직) - 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 - 인포시트 및 설문 작성법 - 접촉일지 작성방법(WEB-IFS 및 APP 사용방법) - 면접원 설문 진행상황 입력 프로그램 교육
6월 5일(금)	대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6월 5일(금)	광주	광주, 전북, 전남	
6월 5일(금)	대구	대구, 경북	
6월 5일(금)	부산	부산, 울산, 경남	
6월 8일(월)	제주	제주	

조사 개요에서는 조사 목적과 내용, 조사 대상 및 기간에 대해 교육하였고, 설문지 교육에서는 문항별 응답 시 주의사항, 작년 조사에서 어려가 많았던 유형의 문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는 1:1 대면면접조사 시 면접원 소개, 조사 대상자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 설문 완료 후 검수 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그 외 인포시트 작성 방법, 수퍼바이저 보고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윤철경 외, 2014: 48).



【그림 Ⅲ-7】 면접원 교육 지침서 예시

전반적인 설문 진행 방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실사진행을 위해 면접원들이 본인에게 배부된 조사 진행상황을 직접 입력 및 관리하는 실사관리 프로그램인 웹입스(WEB-IFS)와 모바일 APP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웹입스(WEB-IFS)는 면접원이 조사 진행 시 발생하는 이관, 거절, 중단 등의 특이사항에 대해 슈퍼바이저에게 개별 보고하지 않고, 웹입스(WEB-IFS)에 기록함으로써 실사를 관리하는 면접원과 슈퍼바이저, 연구원이 동시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모바일 APP은 면접원이 현장 조사 시 노트북 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조사 진행상황을 모바일 APP을 통해 조사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함으로써,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다(윤철경 외, 2014: 49).



【그림 III-8】 모바일 APP 예시

4. 패널실사

1) 사전접촉³⁴⁾

본 조사는 패널 조사로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의 라포(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특히 학업중단자라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가정환경 또는 거주환경이 불확실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담당 면접원이 패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화 접촉 및 대면면접조사의 실사 과정을 각각의 담당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패널의 경우,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2015년 5월에 진행된 패널 정보 업데이트(패널 관리)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의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을 고려하여 담당 면접원이 직접 SMS 발송 및 사전 전화접촉을 진행하였다.

표 III-12 패널 상태에 따른 접촉 및 진행 방법

현재 주로 하는 일	조사 진행 지침
대학 재학	기말고사가 5월 말~6월 초이므로, 방학이 시작되는 6월 2주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
아르바이트/취업	근무 중은 피하고 근무가 끝나는 시간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재학	실사가 진행되는 7월 초까지 학기 중이므로, 학기 중에 접촉 시 방과후 또는 주말에 조사를 진행할 것
검정고시 준비	2015년 2차 검정고시가 8월 5일 예정이므로 6월 실사 시작 후 최대한 신속히 접촉할 것
군입대	군입대 대기 중인 경우 입대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며, 이미 군입대를 한 경우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
유학	유학 준비 중인 경우 출국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며, 이미 출국을 한 경우 재입국 시기를 확인할 것

34)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조사방법이 윤철경 외(2014) pp.49-50와 상당 부분 유사함.

접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가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SMS로 전화 연락을 공지한 후 접촉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접촉을 하였고, 접촉이 어려운 경우는 집, 부모님, 친구의 순으로 접촉하여 본 조사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많은 조사 대상자의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최초 접촉 시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낸 후 연락을 하는 것이 협조를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 지난 조사 결과, 학업중단 경험 학생들이 잘 모르는 전화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면접원이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하는 것이 조사 협조를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자유롭게 보내도 좋으나,
주요 예시를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문자 1.

OOO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OOO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학업중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 통화가 가능하실지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 2.

OOO님 안녕하세요. 작년 OO월에 찾아뵙고 학업중단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한국리서치 면접원 OOO입니다. 전화가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 본인 외 타인번호(가족, 친척, 친구 등) 접촉 시,

타인에게 조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 학업중단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패널이 2013년부터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왔고, 올해 조사를 위해 연락을 여러번 했는데 접촉이 안 되어서, 남겨주신 다른 번호로 연락드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지합니다. 이후에 본인과 연결 가능한 수단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원 수강, 아르바이트 등으로 저녁에 늦게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학생들은 학업 중단 이후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을 수강하거나, 생계, 용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응답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주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학생이 공부하는 학원 또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협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III-9】 면접원 사전접촉 지침 예시

2) 실사

(1) 실사방법

(가) 본패널

본패널과 비교패널은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본패널의 실사는 사전접촉 후 1:1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윤철경외, 2014: 50). 본패널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사전 접촉)하여 약속을 잡고, 조사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1:1 대면면접으로 설문지를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윤철경외, 2014: 50).

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인포시트 형태로 제공하였다. 인포시트는 면접원에게 리스트 정보 및 사전접촉 결과를 전달하고, 조사 대상자 접촉 상황 및 접촉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자료로, 인포시트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13 인포시트 포함 내용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자 정보	- PID(패널ID), 이름, 성별, 생년월일 - 패널 유형(대분류, 소분류) - 최근 학업종단 정보(학교명, 종단 시기, 학교급) - 2차 조사 시점, 패널접촉 유무 - 최종접촉시점 기준 주로 하는 일, 특이사항 등
연락처 정보	- 본인 휴대전화번호 - 집 전화번호 - 아버지/어머니 휴대전화번호 - 친한 친구 및 기타 연락처 - 거주지 주소, 부모님 주소 - 이메일 주소
접촉상황	- 조사 대상자 접촉상황 및 비고 - 슈퍼바이저 확인 유무 - 전화 검증 확인 유무

실제 활용한 인포시트는 다음과 같다. 인포시트의 하단에는 방문일지 및 비교 사항을 면접원이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기록된 자료는 패널관리 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5 인포시트									
PID	1000			면접원	1000 김동화				
이름	홍길동	성별	남	생년월	96년 3월				
패널 유형	(일반) 학교 리스트			3차 쿼터	일반(개인)				
최근 학업중단 정보	서울고등학교								
	12	년	8	월	고등학교 1학년				
휴대전화	010-1234-1234			집 전화	031-123-1234				
이메일	gildong98@hanmail.net			카카오ID	01012341234				
형제자매친척	형제	홍인형	010-3456-3456	친구	최철	010-4567-4567			
아버지	홍문	010-2345-6789		기타	한성희(조모)	02-555-6666			
어머니	손성	010-9876-5432		기타	정보없음	정보없음			
사는곳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한국아파트 101-301호								
부모님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신곡1동 한국아파트 101-301호								
접속시점	2014년 조사	2차 참여(7월 26일)			사전접속	O			
사전접속 주로하는일	대학에 다님								
전화접속 특이사항	* 당일 면접원이 패널 접속 시 작성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오후12시-저녁8시)를 하고 있음. 아르바이트 전이나 후에 아르 바이트 가게 근처에서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함(청량리역 근처)								
1차 방문	__6__월 __13__일		① 조사완료 ☒ 부재중		③ 조사거절	④ 미완성	⑤ 조사불가		
	[비고] 1호선 청량리역 4번 출구 롯데리아에서 응답자 만나기로 하였으나 오지 않음								
2차 방문	__6__월 __15__일		① 조사완료		② 부재중	③ 조사거절	☒ 미완성	⑤ 조사불가	
	[비고] 조사 진행 중, 응답자가 급한 일이 생겨 다음에 마저 진행하기로 함								
3차 방문	__6__월 __19__일		☒ 조사완료		② 부재중	③ 조사거절	④ 미완성	⑤ 조사불가	
	[비고] 1호선 청량리역 지하에서 조사 완료								
4차 방문	__ __월 __ __일		① 조사완료		② 부재중	③ 조사거절	④ 미완성	⑤ 조사불가	
	[비고]								
5차 방문	__ __월 __ __일		① 조사완료		② 부재중	③ 조사거절	④ 미완성	⑤ 조사불가	
	[비고]								
⑤ 조사불가: 거주지불명(가출)/해외유학/장기입원/군입대/사망 등 사유로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이며, 비교 환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합니다									
수퍼바이저 확인						전화 검증 확인			

【그림 III-10】 인포시트 예시

(나) 비교패널

비교패널에 대한 실사는 우편조사로 진행하였다. 실과 과정은 조사담당업체에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으로 설문지 등 조사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 보호관찰소로 조사 물품을 보내, 완료된 설문지를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보호관찰소 내에서 실사는 보호관찰관의 주도 아래 진행되며,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조사 대상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조사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응답 완료 후 A4 봉투에 설문지를 넣어 밀봉하게 되어 있으며, 분실방지를 위해 완료된 조사 대상자별 설문과 잔여 사례비를 A3 봉투에 함께 넣어 회수하였다. 비교패널의 실사는 7월 6일(월)에 시작하여 8월 17일(월)에 최종 종료 되었다.

표 III-14 비교패널 조사 준비 자료 내역

준비 자료	수량	비고
조사 대상자 리스트	총 26개 기관별 배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작
조사 설문지	여분 포함 250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용 10부 별도
조사 완료 답례품	3만원권 90매 = 270만원권 5만원권 130매 = 650만원권 1만원권 기준 총 920만원권	보호관찰 기간 중 패널: 3만원권 보호관찰 기간 종료 패널: 5만원권
보호관찰관용 안내문	여분 포함 50부	조사 방법 안내
조사 대상자용 안내문	여분 포함 250부	응답 방법 안내
설문 밀봉용 A4 봉투	여분 포함 250부	응답자 본인 밀봉
완료 설문용 A3 봉투	여분 포함 50부	보호관찰소 담당자 관리용

(다) 패널 연장 동의 확인 및 답례품 지급

본 조사는 조사 기획 시, 3년 패널 추적을 목표로 하였으나 연장 가능성이 발생하여 추후 2년 동안 연장되는 사항에 대한 패널 동의 안내와 서명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본 동의에는 추후 패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상품권 수령확인증은 조사 완료 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30,000원 문화상품권(보호관찰 기간 종료 패널은 5만원권 전달)을 수령하였는지 조사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패널이 답례품 미수령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널관리의 차원에서 확보하는 자료이다(윤철경 외, 2014: 51-5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패널 정보 기록지 및 상품권 수령증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참여해 주신 조사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조사를 위해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자 하오며, 이 정보는 본 조사 연구진을 제외한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부모님(보호자)께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귀하께 안부전화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귀하와 계속 연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내용		위 사항을 모두 읽고,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사는 곳 또는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주소를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전화번호를 기록			
가족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아버지 · 어머니 · 남형제 · 여형제 · 친척		친한 친구	성명
	휴대 전화 번호				휴대 전화 번호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는 2015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서명(싸인): _____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III-11】 패널 동의서 예시

(2) 실사관리

내부 실사관리는 조사담당업체 자체 개발 웹입스(WEB-IFS) 및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웹입스(WEB-IFS) 프로그램은 면접원이 배부 받은 리스트에 대해 진행상황을 각각 입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면접원은 웹입스(WEB-IFS) 프로그램을 통해 배부 수, 진행상황 입력 및 미입력 수, 입력비율을 확인함으로써 스케줄 및 조사 진행을 관리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5

관리자님 토크아웃

지역별 접속현황 | 조사진행상황 입력 | 보호관찰

배부수: 769부 | 진행상황 입력 수: 496부 | 진행상황 미입력 수: 273부 | 진행상황 입력비율: 64.5%

no	PID	성명	방문주소	휴대전화번호	접전화번호	배부일	조사상황	응답거절유형	조사불가사유	저장
1	0019	김태국	경남 거제시 봉곡동 612-30번지	010-4071-4664	정보없음	2015-06-12	선택	선택	선택	
			주요해는없				선택	선택	선택	
			특이사항				선택	선택	선택	
			정보없음				선택	선택	선택	
							이관하기			
2	0023	육양진	경남 거제시 허정면 유계리 107-2	010-4920-7319	070-7391-7319	2015-06-12	선택	선택	선택	
			아르바이트를 함				선택	선택	선택	
							이관하기			
3	0024	김재욱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신우산가토 아파트 104동 402호	010-3879-3975	정보없음	2015-06-12	선택	선택	선택	
			취업하여 일을 함				선택	선택	선택	
							이관하기			

【그림 III-12】 웹입스(WEB-IFS) 프로그램 예시: 면접원 입력 페이지

조사 진행 상황별 입력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① 조사완료: 조사약속 후 설문 응답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
- ② 통화약속: 그 당시 통화가 어려워 추후 통화하기로 약속을 잡은 경우
- ③ 전화부재중: 5회 이상 컨택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재중인 경우
- ④ 전화결번(그런 사람 없음):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응답자의 리스트 정보로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응답거절: 약속을 잡았으나 이후 전화를 피하는 경우, 또는 약속을 어기고 전화를 피하는 경우

- ⑥ 강력거절: 강력하게 조사를 거부하여, 추후에도 조사에 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⑦ 대면조사약속: 통화가 성공하여 대면조사 약속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경우
- ⑧ 설문진행중(미완성): 부득이하게 응답자를 2회 이상 만나 설문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 ⑨ 조사불가: 거주지 불명(가출 등), 해외유학, 군입대, 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사망 등 조사기간 내 응답자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모바일 앱(APP) 접촉일지를 통해 입력한 경우도 웹입스(WEB-IFS)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사용가능한 환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APP) 접촉일지는 웹입스(WEB-IFS) 프로그램과 달리, 접촉일지 상에서 패널의 접촉 가능 연락처를 확인하여 바로(원클릭)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패널 정보 검색 방법

Step 2

(1) 시도별/시군구별 검색 가능
(2) PID/이름 검색 가능

전체 ☒
경남 ☐
경북 ☐
부산 ☐
울산 ☐
하소 ☐

전체 ☒
거창군 ☐
고성군 ☐
김해시 ☐
밀양시 ☐
양산시 ☐
진주시 ☐
하동군 ☐
함안군 ☐
하소 ☐ 확인 ☐

홈 관리자 패널정보 **접촉일지**

시도: 경남 시군구: 진해

PID: 이름: 검색

패널 정보

PID: 0005 / 이름: 양효정
주소: 경남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198

PID: 0034 / 이름: 이찬희
주소: 경남 김해시 봉황동 가락로 15번길 47-2

PID: 0035 / 이름: 최재현
주소: 경남 김해시 내동 121-3

PID: 0066 / 이름: 신유림
주소: 부산 강서구 강동동 90-49번지

PID: 0130 / 이름: 손영우
주소: 경남 김해시 내동 한국1차 206동 601호

PID: 0154 / 이름: 최주은
주소: 경남 밀양시 삼문동 휴먼시아 105동

PID: 0206 / 이름: 진상희
주소: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2리 590-6

PID: 0349 / 이름: 김대환
주소: 경남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102번길24

PID: 0353 / 이름: 김수진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17

PID: 0356 / 이름: 김지원
주소: 경남 김해시 구산동 주공아파트 101

전체: 100 명

접촉일지 작성

010-2088-6765 (휴대전화)
055-321-6765 (직전화)
010-3636-6765 (어디나!)

본인
자택
모
부
형제
친구
기타1
기타2

Step 1

검색 버튼 클릭하여 리스트 업

Step 3

해당 응답자 클릭하여 정보 확인

(1) PID: 응답자 패널ID 확인
(2) 이름: 응답자 성명 확인
(3) 근황: 최근 접촉 시 응답자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
(4) 연락: 응답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리스트 확인

Step 4

해당 전화번호 클릭 시 바로 통화 연결 가능

【그림 III-13】 모바일 앱(APP) 접촉일지 예시: 접촉일지 구성 안내

(3) 면접원 관리³⁵⁾

면접원 관리는 1차/2차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III-15 **면접원 관리 방안³⁶⁾**

면접원 관리 방안	내용
1일 통제시스템	수퍼바이저에 의한 면접원 1일 조사활동 관리 아래 항목을 일별로 통제함. - 조사 진행 상황(배부, 완료, 회수) - 조사대상별 진행 상황(진행중, 완료, 조사 약속 등) - 조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면접원 근태 - 검증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주의 당부 등
주간 통제시스템	연구부와 수퍼바이저에 의한 면접원별 주간 조사활동 관리 면접원별 주간 진행 상황을 통제하고, 면접원이 한 주에 할 수 있는 부수에 과도하게 못 미치거나, 과도하게 많이 한 경우는 조사 진행을 독려하거나, 과도하게 많이 진행한 이유를 파악하여 조사 전반의 진행을 통제하고, 조사의 질을 확보함. 주1회 정도는 수퍼바이저와 면접원이 본사 또는 지방사무소 (경우에 따라 조사 현장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 예러의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면접원 간담회	격주 단위로 조사 연구원 및 수퍼바이저와 면접원이 직접 만나 조사 진행상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면접원 간담회를 개최함. 연구부에서는 면접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정리하여 면접원에게 전달함.
조사실적 인센티브 제공	조사 진행건수에 따라 면접원에게 인센티브를 차등지급 함으로써 면접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35)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조사방법이 윤철경 외(2014) p.52와 동일함.

36) 윤철경 외(2014) p.52 <표II-12>와 동일함.

5. 자료검증 및 처리

1) 자료검증 및 입력

(1) 조사담당업체 내부 검증³⁷⁾

자료 검증은 면접원 검증, 수퍼바이저 검증, 전화 검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실사 시작 전 담당 연구원은 리뷰가이드(Review Guide)를 제작하여 면접원이 실사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문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단계에서 면접원 및 수퍼바이저가 리뷰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우선 면접원 검증은 실사를 담당한 면접원이 완료된 설문지에서 누락 문항, 로직 오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패널에게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원 검증을 마친 설문지는 수퍼바이저의 검토를 거쳤으며, 수퍼바이저는 연구원이 작성한 리뷰가이드를 보고 설문 로직, 누락 문항 등을 재확인하고, 재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리뷰 가이드'			
페이지	문번	주요 확인사항	세부 내용
* 설문지 상의 기록은 반드시 면접원이 작성합니다.(일부 민감한 척도 문항 제외) **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문23 이 여러가 많은 주요 문항이니 해당 문항 작성 시 주의 바랍니다. *** 오픈 문항들을 주의하여 리뷰해 주십시오. 복학/중단 년월, 아르바이트 근무일/시간/급여, 보호관찰관 변경 횟수, 이사 횟수, 장래희망 등의 이상값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각 문항에 대한 리뷰는 면접원 교육 지침에 따라 반드시 100% 리뷰를 진행해 주십시오.			
2	문2-1	기타	1) 학교 유형 모를 경우, '기타'에 학교 이름 붙네임으로 기록
2	문2-2	로직	1) "14년 7월" ~ "15년 7월" 만 입력 가능 2) 응답 시기 에러 시, 복학 여부 및 시기 재확인 필요
3	문2-6	학교 주소	1) 시/도, 시/군/구, 2개 항목은 반드시 응답 있어야 함 2) 응답자가 학교 주소 모를 경우, 학교명 응답 받아서 위치 검색 후 입력 3) 학교명 반드시 정식명칭(붙네임)으로 입력
4	문3-1	기타	1) 학교 유형 모를 경우, '기타'에 학교 이름 붙네임으로 기록
4	문3-2	로직	1) "14년 7월" ~ "15년 7월" 만 입력 가능 2) 응답 시기 에러 시, 중단 여부 및 시기 재확인 필요
5	문3-3	순위	1) 1순위 무응답 시 재확인 필요 2) 1순위, 2순위, 3순위 상호 중복불가 3) 2순위 또는 3순위 '없음' = '-1' 무응답 표시할 것

【그림 III-14】 리뷰가이드(Review Guide) 예시

37)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연구방법이 윤철경 외(2014) pp.53-54의 내용과 유사함.

전화 검증은 리뷰가 완료된 설문지 중에서 면접원별 완료부수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담당업체 전문 검증팀이 담당하였다. 전화 검증을 통해 본인 실제 조사 여부 및 주요 항목의 응답내용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며, 패널 조사 특성 상 연락처 변경 확인 및 재조사 등 잦은 접촉으로 인한 응답자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였다.

표 III-16 전화 검증 항목

순번	검증 항목
1	본인이 직접, 또는 면접원을 만나서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2	조사완료 후 문화상품권 3만원을 수령했는지 여부
3	연락처(전화번호)가 맞는지 여부(통화한 번호 외 1개 이상 추가 확인)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설문지를 100% 재확인 하였으며, 오류의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입력³⁸⁾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의 입력은 자료 입력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전 문항을 더블 펀칭함으로써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담당 연구원은 문항내 및 문항간의 응답 에러 유형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작성된 에러 유형을 입력프로그램인 Survey Craft에 설정하여, 로직에 벗어난 응답은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또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자료입력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 입력 방식은 더블펀치로 진행하였다. 더블펀치는 2명의 자료입력원이 각각 응답값을 입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1차로 한 명의 자료입력원이 리뷰 및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 후 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였다.

38)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조사방법이 윤철경 외(2014) pp.54-55와 상당 부분 유사함.

다음으로 다른 한 명의 자료입력원이 동일한 설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 때 1차 설문지 입력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입력되면 프로그램이 넘어가지 않고 경고창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료입력원은 설문지를 직접 확인하여 불일치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중단 조사 2015 - 편지 스펙(일반용)	
* 변수명 예시: 문3-2(단수) -> T3_Q3_2 / 문19-3-2(복수) -> M_T3_Q19_3_2 * 모든 문항의 무응답은 '-1'로 입력함 * 본 설문지의 순위응답은 문3-3, 문8-1로 총 2개임.(최소 1순위 응답은 있어야 함) * 본 설문지의 복수응답은 문3-4, 문3-6, 문7, 문31로 총 4개임. 순위응답 외의 문항은 모두 단수응답. * 설문지상의 로직은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설문지 내 검정배경 워딩은 모두 로직임)	
문번	내용
PID 리스트 확인	PID 편집 시, 첨부한 PID 리스트와 대조하여 올바른 PID가 편집되었는지 확인.
인포시트	이름, 성별, 생년월, 최근 학업중단 정보(학교명, 중단년월, 중단학교급 및 학년), 접촉시점(본조사, 패널접촉, 재조사), 전화접촉 특이사항, 자수별 방문기록(방문월일, 조사상황, 비고), 슈퍼바이저 확인(O/X), 전화 검증 확인(O/X) 편집 필요.
문2-2	1) "14년 7월" ~ "15년 7월" 만 입력 가능
문2-6	1) 학교 이름 정식명칭(풀네임)만 기록 가능(도담초, 학성중 등 약어 불가) 2)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은 총 3개의 별도 변수로 오픈 입력
문3-2	1) "14년 7월" ~ "15년 7월" 만 입력 가능
문3-3	1) 1순위는 반드시 입력 2) 순위별 중복 있을 시, 하순위는 무응답 '-1'로 입력 예: 1순위 ㉔, 2순위 ㉔, 3순위 ㉔ 인 경우, 3순위 '-1'로 입력
문3-4	1) 문3-4 = ㉔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문3-6	1) 문3-6 = ㉔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문4-1	1) 학교 이름 정식명칭(풀네임)만 기록 가능(도담초, 학성중 등 약어 불가) 2)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은 총 3개의 별도 변수로 오픈 입력
문5	1) 문5 1)~5) = ㉔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2) '해당없음'은 '99'로 코딩
문5-5	1) 이용여부 = ㉔ 인 경우, 만족도 응답 불가
문6-2	1) 보기 1) '근무 일 수'는 0 초과 7 이하/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 가능 2) 보기 2) '근무 시간'은 0 초과 24 이하/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 가능 3) 보기 3) '시급'은 1,000~100,000 사이만 입력 가능
문7	1) 문7 = ㉔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문8-1	1) 1순위는 반드시 입력 2) 문8-1 = 17번 선택 시, 하순위는 무응답 '-1'로 입력 3) 순위별 중복 있을 시, 하순위는 무응답 '-1'로 입력 예: 1순위 ㉔, 2순위 ㉔, 3순위 ㉔ 인 경우, 3순위 '-1'로 입력
문14	1) 문4에서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의 월별 체크가 모두 있는 경우만 문14 응답을 스킵함
문20	1) "친한 친구 수" 오픈값 0~100명 사이만 입력 가능

【그림 III-15】 자료 입력 로직 리스트 예시

(3) 비교패널 재조사

비교패널 조사의 경우 면접원의 가이드 없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하며, 설문응답 보호를 위해 밀봉하기 때문에 본 설문이 조사담당업체에 우편으로 회송이 되어야 누락 응답 및 로직에러를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비교패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완료된 비교패널 167명 중 재조사 필요자 51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 방법은 3차 조사 시 응답 받은 본인 연락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시 2차 조사에서 응답한 (1)본인 휴대전화, (2) 어머니 휴대전화, (3) 집 전화, (4) 아버지 휴대전화 (5) 형제/기타 연락처 순으로 접촉하였다. 또한 오전 시간대에 접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중 오후/심야(22시까지), 주말 오전/오후/심야(22시까지) 시간대에 접촉을 시도하였다.

표 III-17 비교패널 재조사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재조사 불필요		116	69.5
재조사 필요	전체	51	30.5
	성공	17	10.2
	조사 불가 ³⁹⁾	10	6.0
	착신 정지	8	4.8
	부재 ⁴⁰⁾	16	9.6
총합		167	100.0

39) 조사 불가 사유: 구치소/소년원 수용,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였으나 패널과 만나지 않아 본인 컨택 불가

40) 부재: 패널 접촉 가능 연락처별 5회 이상 부재중으로 확인된 상태

문항별로 재조사 필요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 중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 기입 예러와 관련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22개(2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생활 경험’(16개, 20.8%), ‘하루 동안 생활시간’(10개,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문항별 재조사 빈도 및 비율(상위 10순위 기준)

문항	문항 내용	빈도(개)	비율(%)	재조사 사유
문14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	22	28.6	무응답
문4	생활 경험	16	20.8	누락응답
문23	하루 동안 생활 시간	10	13.0	무응답
문5-5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8	10.4	무응답
문4-5	문4 보기 6)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	7	9.1	무응답
문5-4	보호관찰 선생님과 관계	4	5.2	무응답
문12	진로계획 달성 예측	3	3.9	무응답
문13	교육받기를 원하는 수준	3	3.9	무응답
문20	친한 친구 수	2	2.6	이상값
문4-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경험	2	2.6	무응답
총합		77	100.0	-

재조사 실시 결과, 비교패널 167명 중 총 17명(10.2%, 재조사 필요자 기준 33.3%)에 대해 재조사가 완료되었다. 구치소/소년원 수용, 본인 및 지인 모두 전화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불가로 처리하여 무응답으로 최종 코딩하거나, 응답 로직에 따라 클리닝을 진행하였고, 부재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보고하여 추가 지침을 통해 데이터를 수정하였다.

(4) 데이터 클리닝⁴¹⁾

3차년도 최종 조사 완료 데이터 응답자 수는 716명(본패널: 549명, 비교패널: 167명)이었다. 자료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케이스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데이터 클리닝은 크게 일반패널 데이터 클리닝(549명 기준), 비교패널 데이터 클리닝(167명 기준), 통합 데이터 클리닝(716명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각 유형별 오류 클리닝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각각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추출하여 확인해야할 데이터를 정리하여 파일로 작성하였다. 확인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1차적으로 설문지 원본 재확인을 통해서 편지 에러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데이터 리코드 혹은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인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클리닝 리스트				
페이지	문번	변수명	유형	클리닝 기준
-	-	-	이동 로직	설문지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이동 로직은 확인 대상임
2	문2-2	T3_Q2_2	응답 로직	문2-2 = "14년 7월" ~ "15년 8월" 만 입력 가능
4	문3-2	T3_Q3_2	응답 로직	문3-2 = "14년 7월" ~ "15년 8월" 만 입력 가능
5	문3-3	T3_Q3_3	응답 로직	1) 1순위 무응답 시 에러 2)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응답 불가
5	문3-4	T3_Q3_4	응답 로직	1) 문3-4 = ⑦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6	문3-6	T3_Q3_6	응답 로직	1) 문3-6 = ③ 인 경우, 중복응답 불가
6	문3-7	T3_Q3_7	문항간 로직	1) 문3-5 6) = ② 이면서, 문3-7 = ① 이 아니면 재확인
8	문4	T3_Q4_1/11	문항간 로직	1) 월별 무응답 확인 2) 문1=② 인 경우, 문4 항목 (1) 또는 (2)에 응답이 하나라도 있어야 함 3) 문1=④ 인 경우, 문4 항목 (11)에 응답이 하나라도 있어야 함
8	문4-1	T3_Q4_1_1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2) 응답 있는데, 문4-1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2) 응답 했는데, 문4-1 응답 한 경우 재확인
8	문4-1-1	T3_Q4_1_1A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2) 응답 있는데, 문4-1-1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2) 응답 했는데, 문4-1-1 응답 한 경우 재확인
9	문4-2	T3_Q4_2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3) 응답 있는데, 문4-2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3) 응답 했는데, 문4-2 응답 한 경우 재확인
9	문4-2-1	T3_Q4_2_1A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3) 응답 있는데, 문4-2-1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3) 응답 했는데, 문4-2-1 응답 한 경우 재확인
9	문4-3	T3_Q4_3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4) 응답 있는데, 문4-3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4) 응답 했는데, 문4-3 응답 한 경우 재확인
9	문4-3-1	T3_Q4_3_1A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4) 응답 있는데, 문4-3-1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4) 응답 했는데, 문4-3-1 응답 한 경우 재확인
9	문4-3-2	T3_Q4_3_2A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4) 응답 있는데, 문4-3-2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4) 응답 했는데, 문4-3-2 응답 한 경우 재확인
10	문4-4	T3_Q4_4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5) 응답 있는데, 문4-4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5) 응답 했는데, 문4-4 응답 한 경우 재확인
10	문4-4-1	T3_Q4_4_1A	문항간 로직	1) 문4 항목 (5) 응답 있는데, 문4-4-1 응답 안 한 경우 재확인 2) 문4 항목 (5) 응답 했는데, 문4-4-1 응답 한 경우 재확인 3) 단, 문4-4 = 0번 응답한 경우는 제외

【그림 III-16】 데이터 클리닝 리스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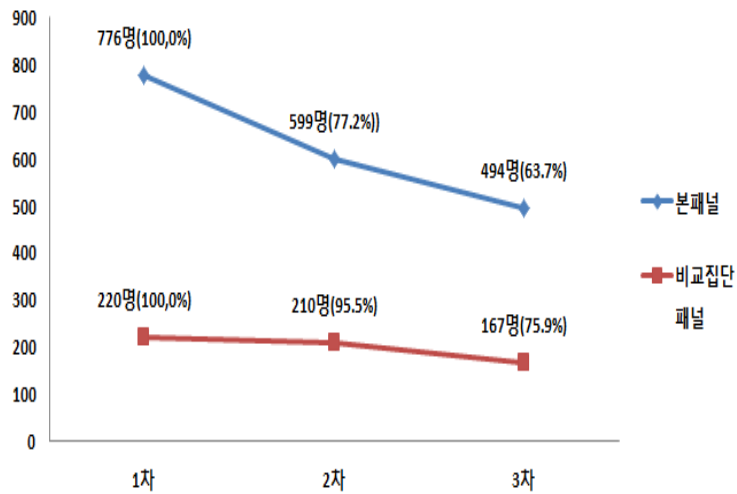
조사담당업체에서 실시한 클리닝 과정에서 상호 논의가 필요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업체, 청소년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담당연구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각 에러 유형별로 처리 방침을 논의한 후에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였다.

41) 본 연구는 다년도 과제로서 조사방법이 윤철경 외(2014) p.58과 상당 부분 유사함.

6. 패널유지 현황 및 이탈패널 분석

1) 표본유지율

본 조사의 패널 유지율은 전체 표본 996명 중 661명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원표본 대비 66.4%의 유지율을 보였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본패널이 63.7%로 나타났으며, 비교패널의 경우는 75.9%로 나타났다.



【그림 III-17】 패널 유지율

2) 이탈패널분석

(1) 자료수집 방법별 패널 이탈율 분석

3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패널은 본패널의 경우 36.3%이다. 일반(개인)이 33.0%인데 반해 일반(기관)의 경우는 44.6%로 일반(개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교패널의 경우 24.1%로 패널 이탈율이 가장 낮았다(<표 III-19> 참조).

표 III-19

자료수집방법별 패널 이탈율

(단위: 명, %)

패널유형	자료수집 방법	참여 차수		전체
		1·2·3차 모두 참여	2차 혹은 3차 미참여	
본패널	계	494(63.7)	282(36.3)	776(100.0)
	일반(개인)	370(67.0)	182(33.0)	552(100.0)
	일반(기관)	124(55.4)	100(44.6)	224(100.0)
비교패널	보호관찰	167(75.9)	53(24.1)	220(100.0)

(2) 이탈패널 사유 분석

3차년도에 조사를 성공하지 못한 '이탈 패널'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280명 중 '전화 안받음'이 59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결번' 51명(18.2%), '거주지 불명' 49명(17.5%), '강력 거절' 46명(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패널과 비교 패널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본패널 전체 227명 중 '전화 안받음'이 59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화 결번'이 51명(22.5%), '강력 거절'이 46명(20.3%), '응답 거절'이 24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패널은 '거주지 불명'이 33명(62.3%)으로 가장 많았다(<표 III-20> 참조).

표 III-20

세부 비성공 사유별 현황

패널 유형		이탈 패널								
		전체	3차 조사 비성공 패널				조사 불가 패널			
			강력 거절	응답 거절	전화 결번	전화 안받음	거주지 (소재) 불명	군입대	소년원/구치소/교도소	유학/사망 등
전체	사례수(명)	280	46	33	51	59	49	27	7	8
	비율(%)	100.0	16.4	11.8	18.2	21.1	17.5	9.6	2.5	2.9
본패널	본패널 전체	사례수(명)	227	46	24	51	59	16	23	7
		비율(%)	100.0	20.3	10.6	22.5	26.0	7.0	10.1	3.1
	일반 (개인)	사례수(명)	150	31	11	36	41	11	12	7
		비율(%)	100.0	20.7	7.3	24.0	27.3	7.3	8.0	4.7
	일반 (기관)	사례수(명)	77	15	13	15	18	5	11	0
		비율(%)	100.0	19.5	16.9	19.5	23.4	6.5	14.3	0.0
비교패널	보호관찰	사례수(명)	53	0	9	0	33	4	6	1
		비율(%)	100.0	0.0	17.0	0.0	62.3	7.5	11.3	1.9

(3) 본패널과 이탈패널 집단 간의 학업중단 기간 비교

다음은 본패널과 이탈패널 간의 학업중단 기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II-21>를 보면, 학업중단 기간을 비교하였을 때 이탈패널의 최근 학업중단 후 기간이 본패널보다 약 2개월 더 길었고, 최초 학업중단 후 기간 역시 이탈패널이 본패널보다 약 2개월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이탈패널 집단의 경우 본패널 집단보다 학업중단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었다.

표 III-21 **학업중단 기간('15.9월기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균(개월)	표준편차	t
최근 학업중단후 기간	본패널	494	37.2	9.556	-2.794**
	이탈패널	282	39.3	11.186	
최초 학업중단후 기간	본패널	494	39.2	11.176	-2.364*
	이탈패널	282	41.3	12.573	

* $p < .05$, ** $p < .01$

제 IV 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3. 소결

제 IV 장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⁴³⁾

본 장에서는 3차년도에 걸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현황과 학업중단 이후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현황은 <표 IV-1>과 같다. 전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776명의 패널 중 1~3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패널은 494명으로 전체 패널 가운데 63.7%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3차년도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1차년도와 2차년도에만 참여한 패널은 50명(6.4%)으로 나타났고, 2차년도에 참여하지 않았고, 1차년도와 3차년도에만 참여한 패널은 55명(7.1%)이었다. 그리고 조사 첫 해인 2013년 1차년도에만 참여하고 2차와 3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은 패널은 177명(22.8%) 이었다.

표 IV-1 1차, 2차년도 및 3차년도⁴⁴⁾ 조사 참여자 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모두 참여	494	63.7
1차년도와 2차년도 참여	50	6.4
1차년도와 3차년도 참여	55	7.1
1차년도만 참여만 참여	177	22.8
계	776	100.0

* 이 장은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43) 이 조사에서 응답한 응답자에 대한 분석은 2013년도 1차년도부터 2015년도 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494명의 응답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음.

44) 2013년 실시한 조사는 1차년도, 2014년 실시한 조사는 2차년도, 2015년 실시한 조사는 3차년도로 표기되었음. 이하 동일.

다음으로 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전체 응답자 494명 중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292명(59.1%), 여자 청소년은 202명(40.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19~20세가 316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연령대인 만 16~18세가 174명(35.2%), 중학교 연령대인 만 14~15세가 4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부모 가정 31.0%, 부모가 모두 안 계신 가정이 13.0%인 것으로 나타나 절반 가까운 패널 가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9.8%, 중과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동일하게 40.1%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업중단 당시의 성적을 살펴보면, 상이었다는 응답이 23.9%, 중 22.5%, 하 53.6%로 각각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당시의 성적이 대체로 하 집단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6.1%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사례수	비율
전 체		494	100.0
성별	남자	292	59.1
	여자	202	40.9
연령	만14~15세	4	0.8
	만16~18세	174	35.2
	만19~20세	316	64.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77	56.1
	한부모가정	153	31.0
	부모 모두 안 계심	64	13.0
가정경제수준	상	98	19.8
	중	198	40.1
	하	198	40.1
학업성적	상	118	23.9
	중	111	22.5
	하	265	53.6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9	1.8
	건강하지 못하다	109	22.1
	건강한 편이다	282	57.1
	매우 건강하다	94	19.0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

1) 학업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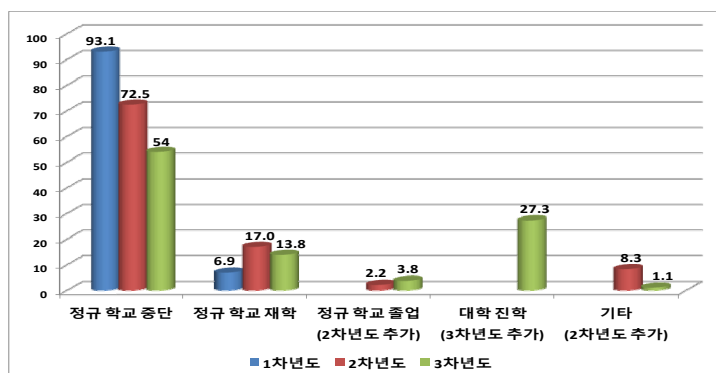
문 1. 중단/복교상태

중단/복교상태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4%가 '정규 학교를 그만둔 상태' 라고 응답함

- 현재 '정규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93.1%, 2차년도 72.5%, 3차년도 54%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18.5%p 감소하였다. 반면, 정규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3.8%로 나타났으며, 3차년도에 추가된 '대학 진학'의 경우는 2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1~3차년도 비교결과



【그림 IV-1】 중단/복교상태(N=494, 단위: %)

표 IV-3 중단/복교상태⁴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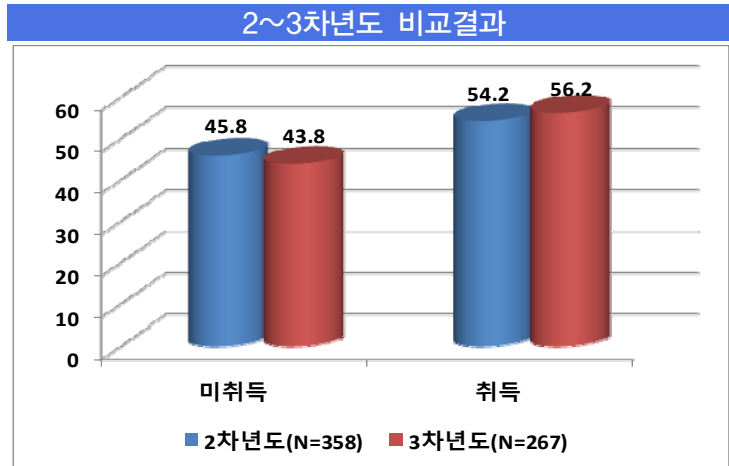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460	93.1	358	72.5	267	54.0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34	6.9	84	17.0	68	13.8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2차년도 추가)			11	2.2	19	3.8
④ 대학에 진학한 상태(3차년도 추가)					135	27.3
⑤ 기타(2차년도 추가)			41	8.3	5	1.1
계	494	100.0	494	100.0	494	100.0

45) 1차년도 조사 당시 보기(① 학교를 그만 둔 상태 ②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정규학교로 복교한 상태)는 2~3차년도 조사 시 수정된 보기에 따라는 각각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로 간주하여 대입되었음. 병합된 셀에 해당되는 보기는 해당년도에 조사되지 않았던 항목임. 이하 동일

문 1-1. 졸업자격 취득여부(2차년도 추가)⁴⁶⁾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6.2%가 '취득하였다', 43.8%가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함

-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에 대해 '취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차년도 조사에서는 54.2%로 나타났으며, 3차년도 조사에서는 56.2%로 전년도 대비 2.0%p 증가하였다. 3차년도 조사에서 대학진학한 상태가 135명으로 나타나 3차년도의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자 전체 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졸업자격 취득 여부(단위: %)

표 IV-4 졸업자격 취득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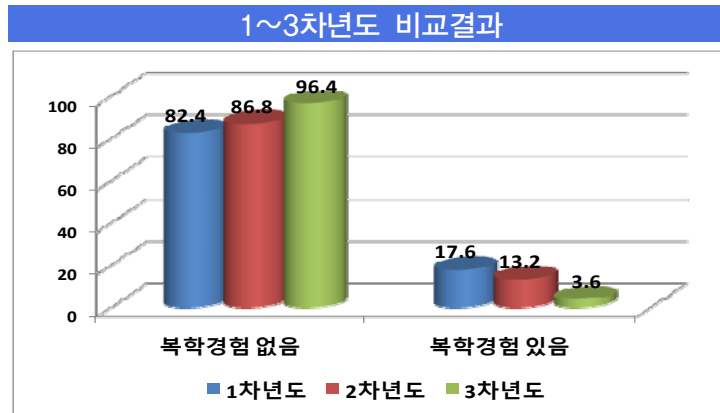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음	164	45.8	117	43.8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함	194	54.2	150	56.2
계	358	100.0	267	100.0

46) 문 1-1은 문 1의 ①번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1-2의 경우 학사 일정(학기 중, 방학 중, 휴학 중)을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본 보고서에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문 2. 복교 경험

복교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6%만이 '복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복교 경험에 대해서 '복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17.6%, 2차년도 13.2%, 3차년도 3.6%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9.6%p 감소하였다. 복교 경험이 3차년도에 크게 줄어든 이유는 대학진학 진학자 수가 3차년도에 크게 증가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림 IV-3】 복교 경험(N=494, 단위: %)

표 IV-5 복교 경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복교 경험 없음	407	82.4	429	86.8	476	96.4
복교 경험 있음 ⁴⁷⁾⁴⁸⁾	87	17.6	65	13.2	18	3.6
계	494	100.0	494	100.0	4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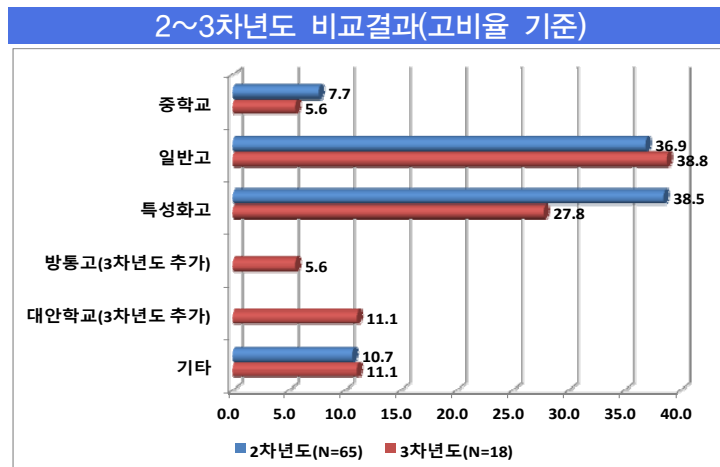
47) 2~3차년도 조사 시 수정된 보기에 따라 1차년도 조사 당시 보기 ①, ②(① 복교한 경험이 있다 ② 현재 복교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복교 경험 있음으로 간주하여 제시되었음.

48) 복교 경험 있다고 응답한 1차년도 87명 사례의 경우 1차년도 조사 문 8-1(최초 학업중단 시기)과 문8-2(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까지의 기간)을 근거로 최초 학업중단 후 복교까지 걸린 기간을 산출해 보았을 때 평균 9.7개월이 소요되었음. 한편, 3년간 복교 경험자료를 보면, 3년간 170명이 복교경험이 있었고, 전체 494명 대비, 약 34.4%임.

문 2-1. 복교 학교 형태(2차년도 추가)⁴⁹⁾

복교 학교 형태는 ‘일반고(38.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27.8%)’, ‘대안학교(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복교 학교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36.9%로 가장 높았는데, 3차년도에도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성화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27.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3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인 대안학교(2명), 방통고(1명)에 복교하였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그림 IV-4】 복교 학교 형태(단위: %)

표 IV-6 복교 학교 형태⁵⁰⁾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학교	5	7.7	1	5.6
② 일반고	24	36.9	7	38.8
③ 특성화고	25	38.5	5	27.8
④ 자율고	2	3.1	0	0.0
⑤ 특목고	2	3.1	0	0.0
⑥ 방통중(3차년도 추가)			0	0.0
⑦ 방통고(3차년도 추가)			1	5.6
⑧ 대안학교(3차년도 추가)			2	11.1
⑨ 기타	7	10.7	2	11.1
계	65	100.0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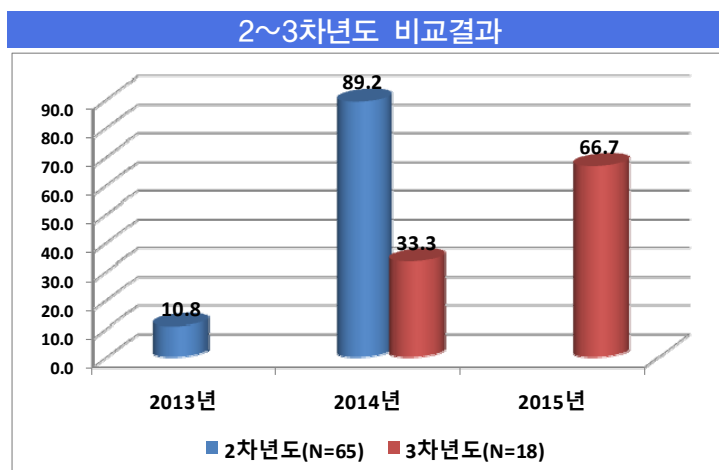
49) 문 2-1~문 2-7은 문 2의 ②번 ‘복교한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2차년도 65명, 3차년도 18명)만 응답한 결과임.

50) 1차년도 복교경험자 87명의 복교한 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 22명(25.3%), 일반계고 27명(31%), 특성화고 23명(26.4%), 기타 15명(17.2%)로 나타났다.

문 2-2. 복교 시기(2차년도 추가)

복교 시기는 '2015년(66.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2014년'의 경우 33.3%로 나타남

- 복교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차년도의 경우 '2014년(89.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3차년도의 경우 '2015년(66.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5】 복교 시기(단위: %)

표 IV-7 복교 시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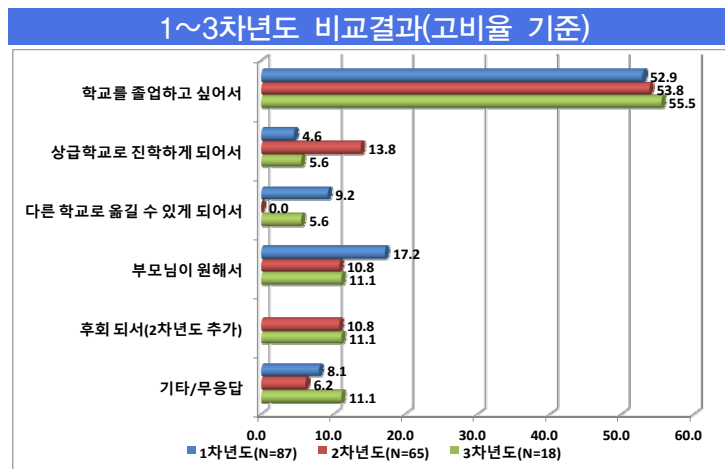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2013년 복교	7	10.8	51)	
2014년 복교	58	89.2	6	33.3
2015년 복교			12	66.7
계	65	100.0	18	100.0

51) 3차년도 조사 시 응답 기준이 2014년 7월 이후이므로 2013년은 해당되지 않음.

문 2-3. 복교 이유

학교 복교 이유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55.5%)’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이 원해서(11.1%)’,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되서(11.1%)’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복교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52.9%, 2차년도 53.8%, 3차년도 55.5%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1.7%p 증가하였다. 한편,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은 3차년도 5.6%로 2차년도 13.8%에 비해 8.2%p 감소하였다.



【그림 IV-6】 복교 이유(단위: %)

표 IV-8 복교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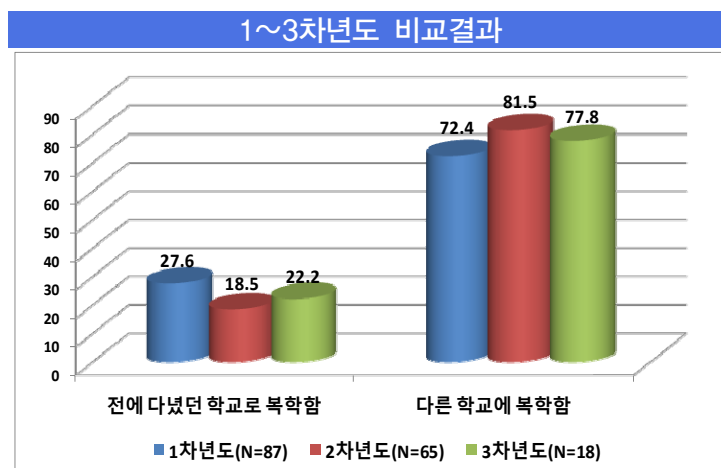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46	52.9	35	53.8	10	55.5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4	4.6	9	13.8	1	5.6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8	9.2	0	0.0	1	5.6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	5	5.7	3	4.6	0	0.0
⑤ 부모님이 원해서	15	17.2	7	10.8	2	11.1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2	2.3	0	0.0	0	0.0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돼서(2차년도 추가)			7	10.8	2	11.1
⑧ 보호처분이 끝나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⑨ 기타/무응답	7	8.1	4	6.2	2	11.1
계	87	100.0	65	100.0	18	100.0

문 2-4.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2%만이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교하였다'고 응답함

-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에 대해서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교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27.6%, 2차년도 18.5%, 3차년도 22.2%로 전년도 대비 3.7%p 증가하였다.



【그림 IV-7】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단위: %)

표 IV-9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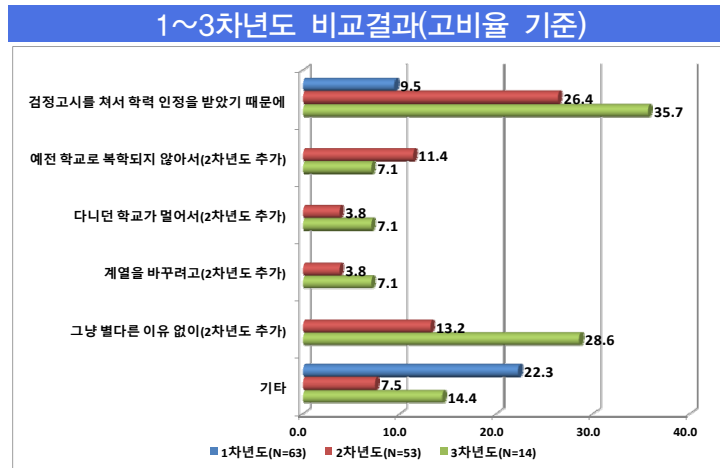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다른 학교에 복교함	63	72.4	53	81.5	14	77.8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교함	24	27.6	12	18.5	4	22.2
계	87	100.0	65	100.0	18	100.0

문 2-5.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⁵²⁾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는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35.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9.5%, 2차년도 26.4%, 3차년도 35.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9.3%p 증가하였다.



【그림 IV-8】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단위: %)

표 IV-10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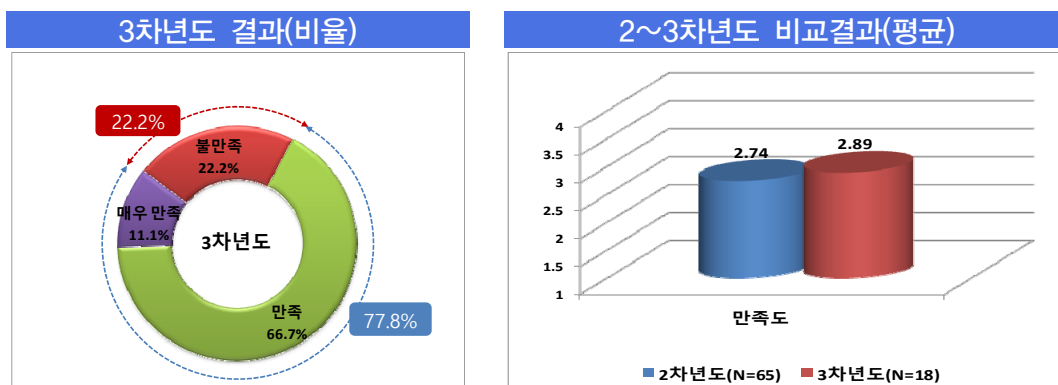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8	12.7	7	13.2	0	0.0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10	15.9	1	1.9	0	0.0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6	9.5	4	7.5	0	0.0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겨려고	14	22.3	5	9.4	0	0.0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	9.5	14	26.4	5	35.7
⑥ 예전 학교로 복교되지 않아서(2차년도 추가)			6	11.4	1	7.1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2차년도 추가)			2	3.8	1	7.1
⑧ 학비가 비싸서(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2차년도 추가)			0	0.0	0	0.0
⑩ 계열을 바꾸려고(2차년도 추가)			2	3.8	1	7.1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2차년도 추가)			7	13.2	4	28.6
⑫ 기타	14	22.3	4	7.5	2	14.4
모름/무응답	5	7.8	1	1.9	0	0.0
계	63	100.0	53	100.0	14	100.0

52) 문 2-5는 문 2-4(이전 학교로의 복귀여부)의 ②번 ‘다른 학교’에 응답한 경우(1차년도 63명, 2차년도 53명, 3차년도 14명)만 응답한 결과임. 문 2-6의 경우 복교한 학교 소재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본 보고서에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문 2-7.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2차년도 추가)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도 평균은 3차년도(M=2.89)로 나타남

-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에 대해서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67.7%에서 3차년도 77.8%로 전년대비 10.1%p 증가하였다. 한편, 만족도 평균은 2차년도(M=2.74)에서 3차년도(M=2.89)로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9】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단위: %, 점)

표 IV-11

복교 후 학교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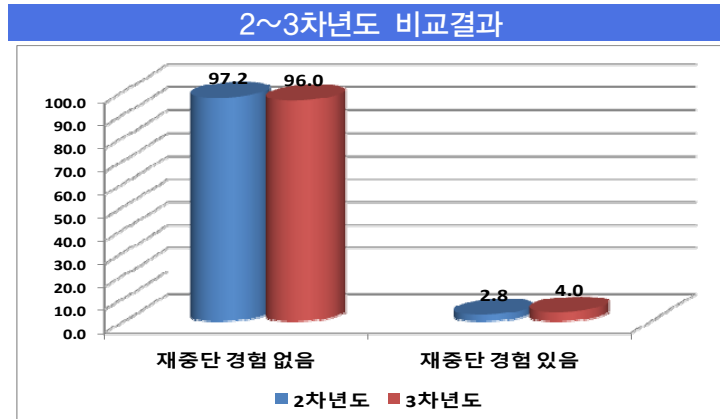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t
	사례수	비율	M(SD)	사례수	비율	M(SD)	
매우 불만족한다	8	12.3	2.74 (0.91)	0	0.0	2.89 (0.58)	-0.847
불만족한다	13	20.0		4	22.2		
만족한다	32	49.2		12	66.7		
매우 만족한다	12	18.5		2	11.1		
계	65	100.0		18	100.0		

문 3. 재중단 경험(2차년도 추가)

재중단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0%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지난 조사 이후(2014년 7월)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2.8%에서 3차년도 4.0%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하였다.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지난 조사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패널이 2013년도 2차년도 조사결과(14명) 대비 2015년도 3차년도 조사에서 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재중단 경험(N=494, 단위: %)

표 IV-12 재중단 경험⁵³⁾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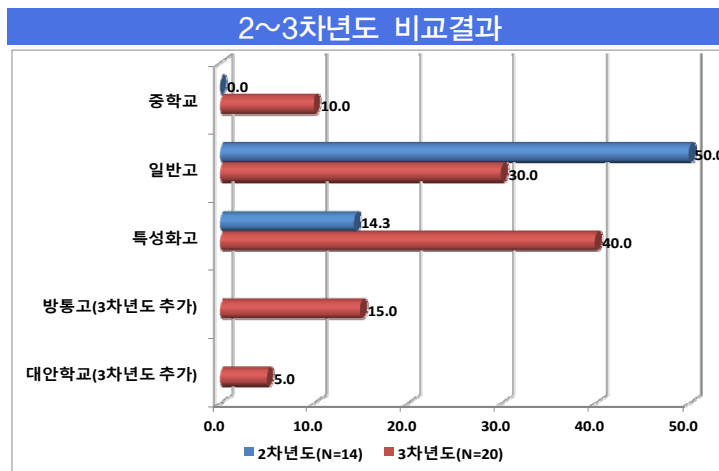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재중단 경험 없음	480	97.2	474	96.0
재중단 경험 있음	14	2.8	20	4.0
계	494	100.0	494	100.0

53) 재중단율(1~3차 통합결과(재중단경험/복고경험×100): 문 3의 재중단경험자 34명/문 2의 복고경험자 170명×100=20%

문 3-1. 재중단 학교 유형(2차년도 추가)⁵⁴⁾

재중단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40.0%)’가 가장 많았고,
‘일반고(30.0%)’, ‘방통고(15.0%)’, ‘중학교(10.0%)’의 순으로 나타남

- 재중단 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특성화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14.3%에서 3차년도 40.0%로 전년도 대비 25.7%p 증가하였다. 한편, ‘일반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2차년도 50.0%에서 3차년도 30.0%로 전년도 대비 20.0%p 감소하였으며, 3차년도에 추가된 ‘방통고’의 경우 15.0%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IV-11】 재중단 학교 유형(단위: %)

표 IV-13 재중단 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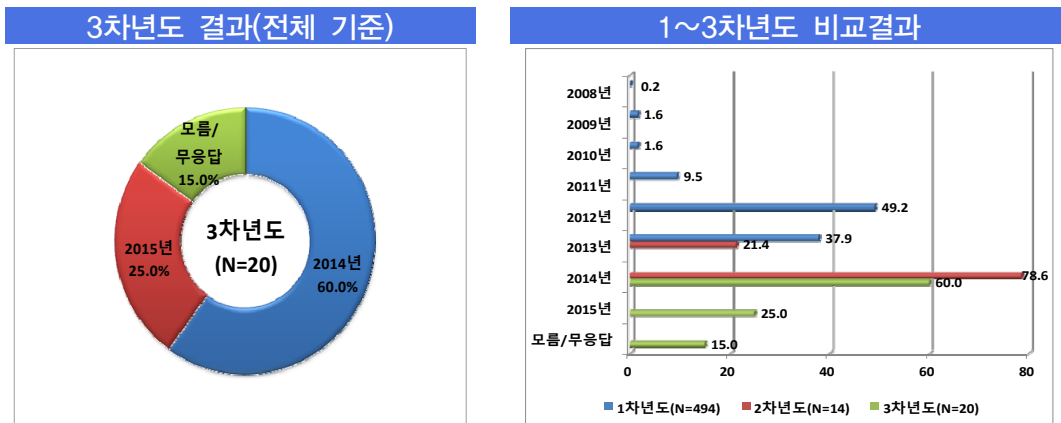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학교	0	0.0	2	10.0
② 일반고	7	50.0	6	30.0
③ 특성화고	2	14.3	8	40.0
④ 자율고	1	7.1	0	0.0
⑤ 특목고	0	0.0	0	0.0
⑥ 방통중(3차년도 추가)			0	0.0
⑦ 방통고(3차년도 추가)			3	15.0
⑧ 대안학교(3차년도 추가)			1	5.0
⑨ 기타	4	28.6	0	0.0
계	14	100.0	20	100.0

54) 문 3-1~문 3-8은 문 3의 ②번 ‘재중단 경험이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3-2. 학업 재중단 시기⁵⁵⁾

지난 조사 이후(2014년 7월) 정규 중·고등학교 재중단 경험에 대해
‘2014년 60.0%’, ‘2015년은 25.0%’로 나타남

- 지난 조사 이후(2014년 7월) 이후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2014년도에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0%였고, 2015년도에는 25.0%로 나타났다. 2013년도 1차년도 조사 기준으로는 조사 전년도인 2012년도(243명)가 49.2%로 가장 많았고, 조사당해년도인 2013년도가 37.9%(187명)로 나타났다.



【그림 IV-12】 학업 재중단 시기(단위: %)

표 IV-14 학업 재중단 시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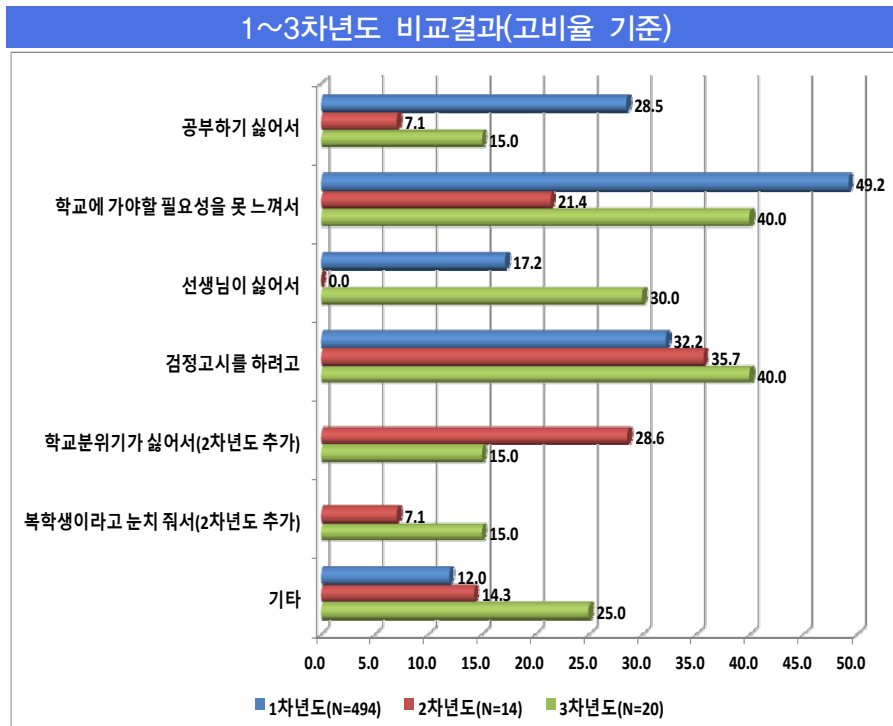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2008년	1	0.2				
2009년	8	1.6				
2010년	8	1.6				
2011년	47	9.5				
2012년	243	49.2				
2013년	187	37.9	3	21.4	12	60.0
2014년			11	78.6		
2015년					5	25.0
모름/무응답			0	0.0	3	15.0
계	494	100.0	14	100.0	20	100.0

55) 문 3-2~문 3-8에 해당하는 문항은 1차년도의 경우 학업중단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2~3차년도의 경우 지난 조사 이후 학업 재중단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음.

문 3-3. 학업 재중단 이유(복수응답)

학업 재중단 이유는 ‘검정고시를 하려고(40.0%)’와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0.0%)’가 가장 많았고,
‘기타(25.0%)’, ‘공부하기 싫어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검정고시를 하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32.2%, 2차년도 35.7%, 3차년도 40.0%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4.3%p 증가하였다. 한편,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 49.2%, 2차년도 21.4%, 3차년도 4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8.6%p 증가하였다.



【그림 IV-13】 학업 재중단 이유(단위: %)

표 IV-15 학업 재중단 이유⁵⁶⁾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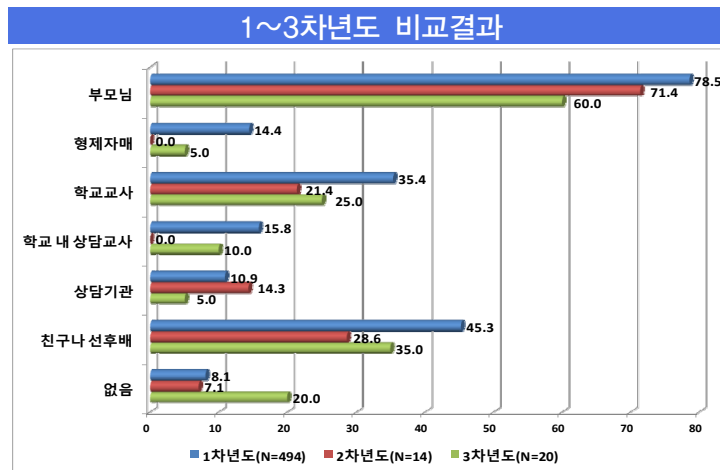
영역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가정형편/ 개인사정	① 건강상의 이유로	494	50	10.1	14	3	21.4	20	1	5.0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494	67	13.6	14	0	0.0	20	0	0.0
	③ 가정불화 때문에	494	30	6.1	14	0	0.0	20	0	0.0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494	32	6.5	14	2	14.3	20	0	0.0
	⑮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2차년도 추가)	494			14	2	14.3	20	2	10.0
학교부적응/ 품행문제 (학업, 친구, 환경 등)	⑤ 공부하기 싫어서	494	141	28.5	14	1	7.1	20	3	15.0
	⑥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494	243	49.2	14	3	21.4	20	8	40.0
	⑦ 친구들이 싫어서	494	62	12.6	14	3	21.4	20	0	0.0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494	61	12.3	14	3	21.4	20	2	10.0
	⑨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놓고 싶어서	494	34	6.9	14	0	0.0	20	1	5.0
	⑩ 선생님이 싫어서	494	85	17.2	14	0	0.0	20	6	30.0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494	71	14.4	14	2	14.3	20	2	10.0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서	494	12	2.4	14	1	7.1	20	0	0.0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2차년도 추가)	494			14	3	21.4	20	1	5.0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2차년도 추가)	494			14	0	0.0	20	2	10.0
	⑱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2차년도 추가)	494			14	0	0.0	20	0	0.0
	⑲ 이성문제로 인해(2차년도 추가)	494			14	0	0.0	20	0	0.0
	㉑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2차년도 추가)	494			14	4	28.6	20	3	15.0
	㉒ 전학이 안 돼서(2차년도 추가)	494			14	1	7.1	20	0	0.0
	㉓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2차년도 추가)	494			14	1	7.1	20	3	15.0
대안교육 선호	㉔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2차년도 추가)	494			14	1	7.1	20	2	10.0
	㉕ 성적이 안 나와서(2차년도 추가)	494			14	0	0.0	20	1	5.0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494	159	32.2	14	5	35.7	20	8	40.0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494	141	28.5	14	0	0.0	20	0	0.0
	㉖ 기타(취업, 타 진로 등)	494	60	12.0	14	2	14.3	20	5	25.0

56) 1~3순위로 복수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3-4.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복수 응답)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는 ‘부모님(60.0%)’이 가장 많았고,
‘친구나 선후배(35.0%)’, ‘학교교사(25.0%)’, ‘없음(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78.5%, 2차년도 71.4%, 3차년도 60.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11.4%p 감소하였다. 한편, 중단 시 상담자가 ‘없었다’는 응답률이 20.0%로 2차년도 7.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V-14】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단위: %)

표 IV-16 학업 재중단 시 상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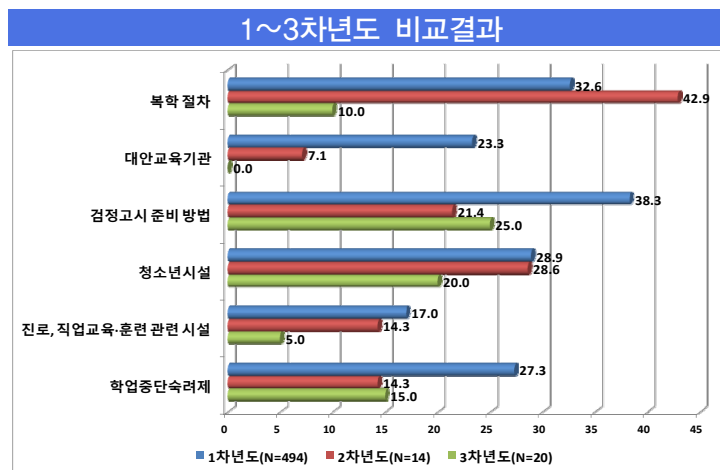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① 부모님	494	388	78.5	14	10	71.4	20	12	60.0
② 형제자매	494	71	14.4	14	0	0.0	20	1	5.0
③ 학교교사	494	175	35.4	14	3	21.4	20	5	25.0
④ 학교 내 상담교사	494	78	15.8	14	0	0.0	20	2	10.0
⑤ 상담기관	494	54	10.9	14	2	14.3	20	1	5.0
⑥ 친구나 선후배	494	224	45.3	14	4	28.6	20	7	35.0
⑦ 없음	494	40	8.1	14	1	7.1	20	4	20.0
⑧ 기타	494	0	0.0	14	0	0.0	20	0	0.0

문 3-5.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는 ‘검정고시 준비 방법(25.0%)’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 시설(20.0%)’, ‘학업중단숙려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검정고시 준비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38.3%, 2차년도 21.4%, 3차년도 25.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3.6%p 증가하였다. 반면 ‘복학 절차’의 경우 10.0%로 2차년도 42.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IV-15】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단위: %)

표 IV-17 학업 재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⁵⁷⁾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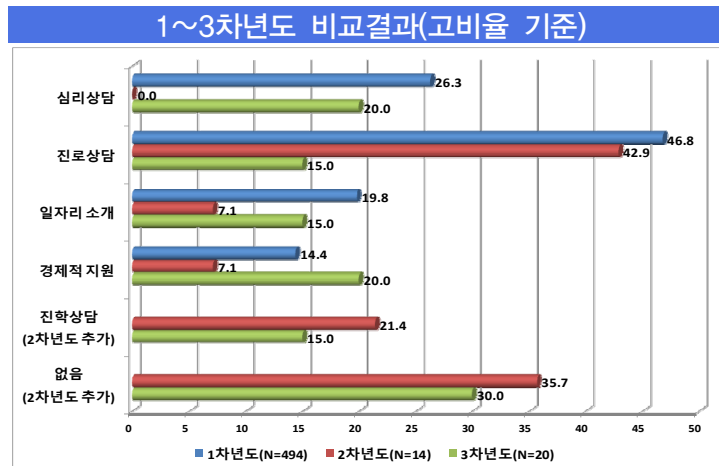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1) 복학 절차	494	161	32.6	14	6	42.9	20	2	10.0
2) 대안교육기관	494	115	23.3	14	1	7.1	20	0	0.0
3) 검정고시 준비 방법	494	189	38.3	14	3	21.4	20	5	25.0
4) 청소년시설	494	143	28.9	14	4	28.6	20	4	20.0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494	84	17.0	14	2	14.3	20	1	5.0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494	135	27.3	14	2	14.3	20	3	15.0

57)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②번 '있다'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 3-6.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복수 응답)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은 '없다(30.0%)'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지원(20.0%)', '심리상담(20.0%)', '진로상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35.7%, 3차년도 3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5.7%p 감소하였다. 한편, '심리상담'의 경우 20.0%로 2차년도 0.0%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V-16】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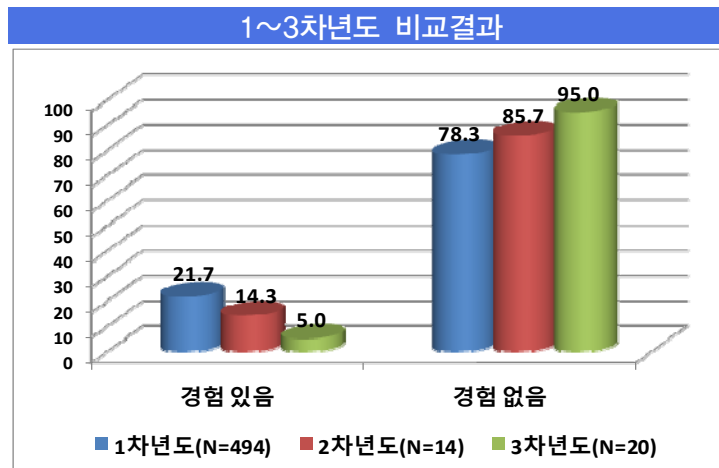
표 IV-18 학업 재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N	사예수	비율	N	사예수	비율	N	사예수	비율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494	186	37.7	14	3	21.4	20	2	10.0
② 심리상담	494	130	26.3	14	0	0.0	20	4	20.0
③ 진로상담	494	231	46.8	14	6	42.9	20	3	15.0
④ 대안교육	494	34	6.9	14	0	0.0	20	1	5.0
⑤ 직업기술훈련	494	91	18.4	14	0	0.0	20	1	5.0
⑥ 일자리 소개	494	98	19.8	14	1	7.1	20	3	15.0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494	82	16.6	14	0	0.0	20	0	0.0
⑧ 경제적 지원	494	71	14.4	14	1	7.1	20	4	20.0
⑨ 진학정보 제공(2차년도 추가)				14	4	28.6	20	2	10.0
⑩ 진학상담(2차년도 추가)				14	3	21.4	20	3	15.0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2차년도 추가)				14	4	28.6	20	1	5.0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2차년도 추가)				14	3	21.4	20	2	10.0
⑬ 없음(2차년도 추가)				14	5	35.7	20	6	30.0
⑭ 기타	494	51	10.3	14	1	7.1	20	0	0.0

문 3-7.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속려제 경험⁵⁸⁾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속려제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5.0%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속려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78.3%, 2차년도 85.7%, 3차년도 95.0%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9.3%p 증가하였다.



【그림 IV-17】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속려제 경험(단위: %)

표 IV-19 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 속려제 경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험 없음	387	78.3	12	85.7	19	95.0
경험 있음	107	21.7	2	14.3	1	5.0
계	494	100.0	14	100.0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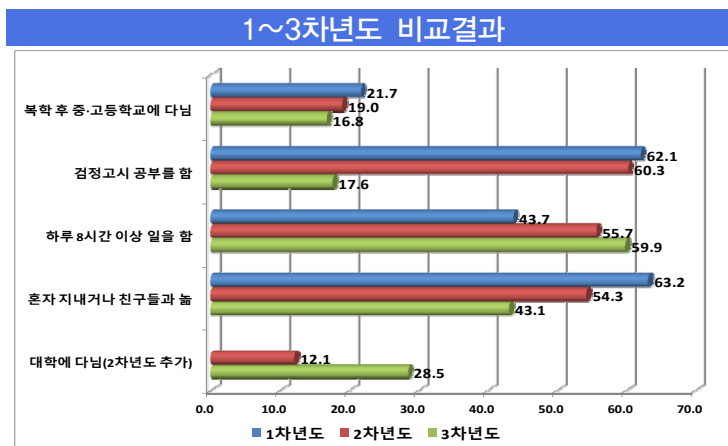
58) 문 3-8(학업 재중단 시 학업중단 속려제의 유용성)은 사례수가 적은 관계(3차년도 1명)로 응답 결과의 의미가 낮아 본 보고서에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2) 학업중단 후 생활 경험과 인식

문 4. 중단 후 경험실태⁵⁹⁾

중단 후 경험실태에 대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59.9%)’이 가장 많았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43.1%)’, ‘대학에 다님(28.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단 후 경험실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43.7%, 2차년도 55.7%, 3차년도 59.9%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4.2%p 증가하였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다’고 응답한 비율은 3차년도 43.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대학에 다닌다’의 응답률은 28.5%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복학 후 중·고등학교에 다닌다’와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 16.8%, 17.6%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IV-18】 중단 후 경험실태(N=494, 단위: %)

표 IV-20 중단 후 경험실태⁶⁰⁾

(N=494,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107	21.7	94	19.0	83	16.8
② 대안학교에 다님	37	7.5	20	4.0	18	3.6
③ 검정고시 공부를 함	307	62.1	298	60.3	87	17.6
④ 직업기술을 배움	87	17.6	79	16.0	56	11.3
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216	43.7	275	55.7	296	59.9
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312	63.2	268	54.3	213	43.1
⑦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	81	16.4	74	15.0	73	14.8
⑧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67	13.6	36	7.3	35	7.1
⑨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42	8.5	22	4.5	30	6.1
⑩ 대학입시 공부를 함(2차년도 추가)			103	20.9	79	16.0
⑪ 대학에 다님(2차년도 추가)			60	12.1	141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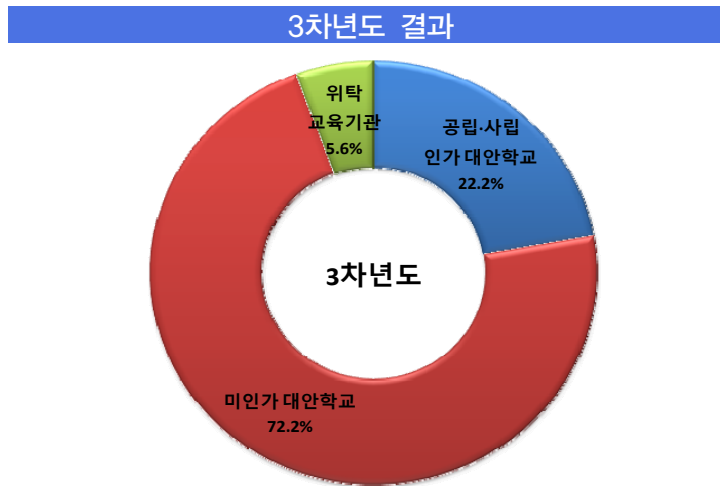
59) 문 4-1은 대안학교 소재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60)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4-1-1. 대안학교 유형(3차년도 추가)⁶¹⁾

대안학교 유형에 대해 ‘미인가 대안학교(72.2%)’가 가장 많았고,
‘공립·사립 인가 대안학교(22.2%)’, ‘위탁 교육기관(5.6%)’의 순으로 나타남

- 대안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인가 대안학교(72.2%)’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립·사립 인가 대안학교(22.2%)’, ‘위탁 교육기관(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9】 대안학교 유형(N=18)

표 IV-21 대안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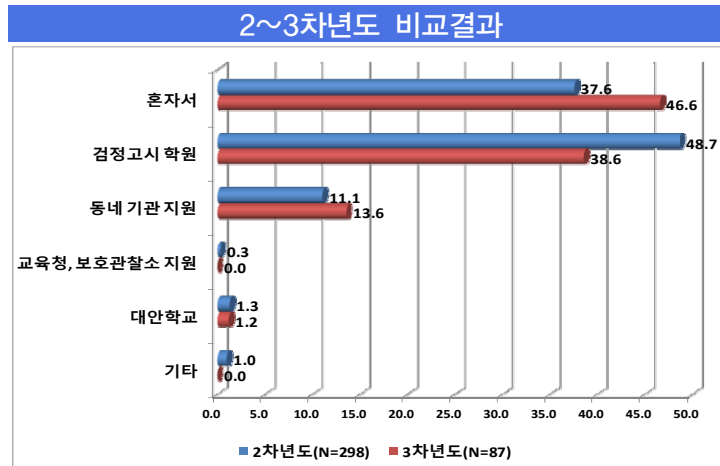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학력 인정이 됨)	4	22.2
② 미인가 대안학교(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함)	13	72.2
③ 위탁교육기관(종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자격을 줌)	1	5.6
④ 잘 모르겠음	0	0.0
계	18	100.0

61) 문 4-1-1은 문 4의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에만 문 4-1-1에 응답하였음.

문 4-2. 검정고시 공부 방법(2차년도 추가)⁶²⁾

검정고시 공부 방법으로는 ‘혼자서(46.6%)’가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학원(38.6%)’, ‘동네기관지원(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검정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혼자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37.6%에서 3차년도 46.6%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9.0%p 증가하였다. 반면, ‘검정고시 학원’의 경우 3차년도 38.6%로 2차년도 48.7%에 비해 10.1%p 감소하였다.



【그림 IV-20】 검정고시 공부 방법(단위: %)

표 IV-22 검정고시 공부 방법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혼자서(방송이나 인터넷 강의 포함)	112	37.6	40	46.6
② 검정고시 학원	145	48.7	34	38.6
③ 청소년 관련시설,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	33	11.1	12	13.6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	1	0.3	0	0.0
⑤ 대안학교	4	1.3	1	1.2
⑥ 기타	3	1.0	0	0.0
계	298	100.0	87	100.0

62) 문 4-2~문 4-2-2는 문 4의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3차년도 추가)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8.4%가 ‘응시 한 적 있다’라고 응답함**

-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8.4%가 ‘응시 한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21.6%는 ‘응시 한 적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3차년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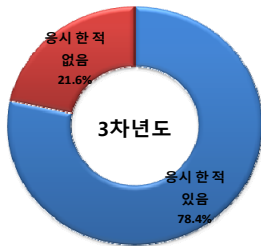


표 IV-23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응시 한 적 없음	18	21.6
응시 한 적 있음	69	78.4
계	87	100.0

【그림 IV-21】 검정고시 응시 경험 유무(N=87)

문 4-2-2. 검정고시 합격 여부(3차년도 추가)⁶³⁾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대해 ‘전과목 합격(65.2%)’이 가장 많았고,
‘부분 합격(26.1%)’, ‘불합격(8.7%)’의 순으로 나타남**

- 검정고시 합격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과목 합격(65.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분 합격(26.1%)’, ‘불합격(8.7%)’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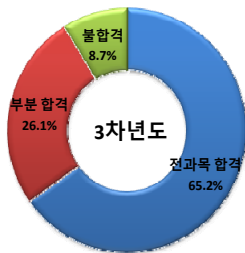


표 IV-24 검정고시 합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과목 합격	45	65.2
부분 합격	18	26.1
불합격	6	8.7
계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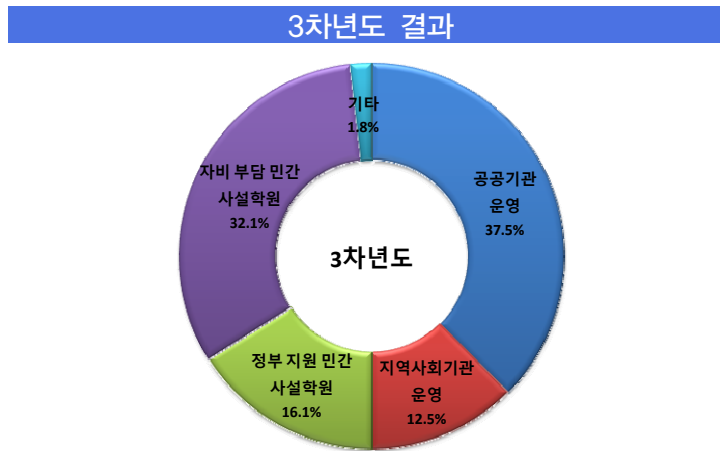
【그림 IV-22】 검정고시 합격 여부(N=69)

63) 문 4-2-2는 문 4-2-1(검정고시 응시여부)의 ①번 ‘응시한 적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3. 직업훈련 프로그램(3차년도 추가)⁶⁴⁾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37.5%)’이 가장 많았고, ‘자비 부담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3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운영기관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2.5%로 나타났다. 한편, 학원비 부담 형식으로 분류되는 ‘자비 부담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의 응답률은 각 32.1%, 16.1%로 나타났다.



【그림 IV-23】 직업훈련 프로그램(N=56)

표 IV-25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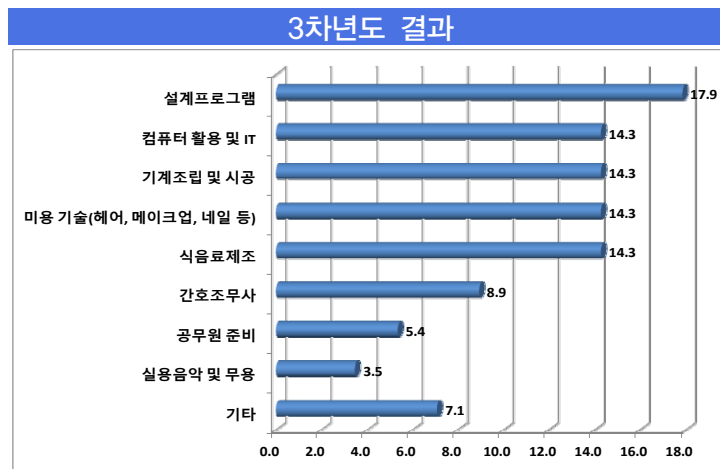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운영기관별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21	37.5
	②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7	12.5
학원비 부담 형식별	③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9	16.1
	④ 자기가 학원비를 내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18	32.1
	⑤ 기타	1	1.8
계		56	100.0

64) 문 4-3~문 4-3-3은 문 4의 “4) 직업기술을 배움”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3-1.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3차년도 추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계프로그램(17.9%)’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 활용 및 IT(14.3%)’, ‘기계조립 및 시공(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설계프로그램(17.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 활용 및 IT(14.3%)’, ‘기계조립 및 시공(14.3%)’, ‘미용 기술(14.3%)’이 동일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실용음악 및 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V-24】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N=56, 단위: %)

표 IV-26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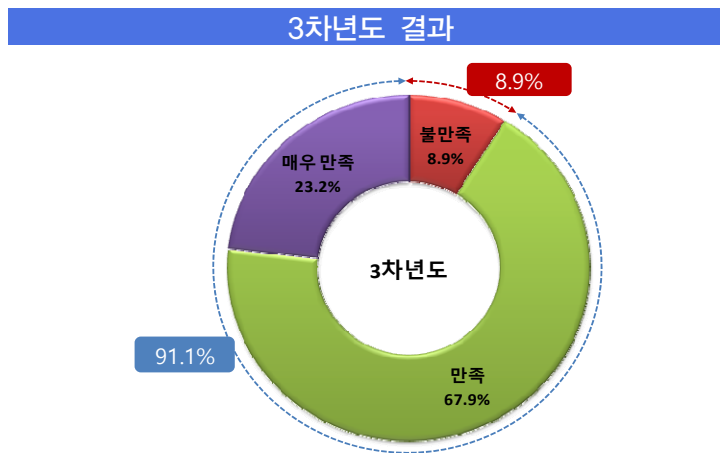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설계·제작프로그램(CAD, 포토샵 등)	10	17.9
컴퓨터활용 및 IT(한글, 파워포인트, 정보보안 등)	8	14.3
기계조립 및 시공(밀링, 자동차 정비 등)	8	14.3
미용 기술(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	8	14.3
식음료제조(바리스타, 제과제빵, 일식조리 등)	8	14.3
간호조무사	5	8.9
공무원 준비	3	5.4
실용음악 및 무용	2	3.5
기타(운전, 세무회계 등)	4	7.1
계	56	100.0

문 4-3-2~문 4-3-3.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⁶⁵⁾(3차년도 추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91.1%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1.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8.9%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문 4-3-3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로는 훈련 지도자의 무시, 차별, 무신경 등이 있었다.



【그림 IV-25】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N=56)

표 IV-27 직업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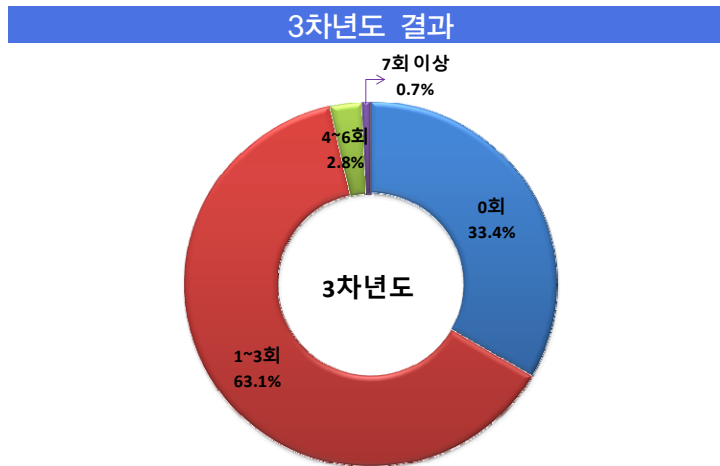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M(SD)
매우 불만족	0	0.0	3.14 (0.55)
불만족	5	8.9	
만족	38	67.9	
매우 만족	13	23.2	
계	56	100.0	

65) 문 4-3-3은 문 4-3-2(직업훈련프로그램 만족도)의 ①번 '매우 불만족' 또는 ②번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응답한 내용임.

문 4-4.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⁶⁶⁾(3차년도 추가)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1~3회(63.1%)’가 가장 많았고,
‘0회(33.4%)’, ‘4~6회(2.8%)’, ‘7회 이상(0.7%)’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1~3회(63.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0회(33.4%)’, ‘4~6회(2.8%)’, ‘7회 이상(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N=296)

표 IV-28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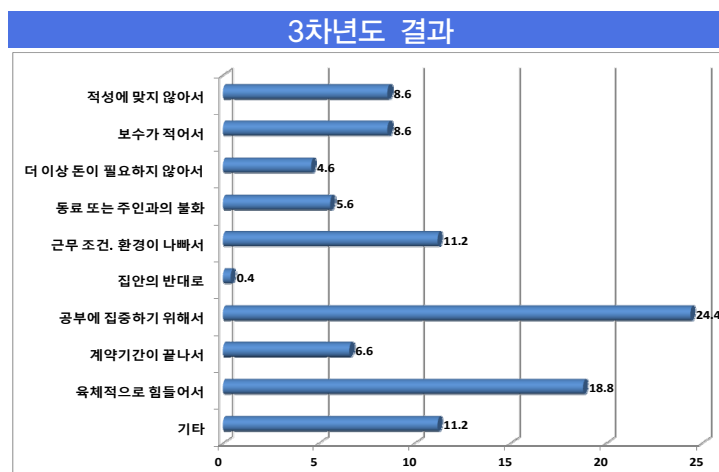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0회	99	33.4
1~3회	187	63.1
4~6회	8	2.8
7회 이상	2	0.7
계	296	100.0

66) 문 4-4~문 4-4-1은 문 4의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4-4-1.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3차년도 추가)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24.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육체적으로 힘들어서(18.8%)’,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7】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N=197, 단위: %)

표 IV-29 아르바이트 및 일 중단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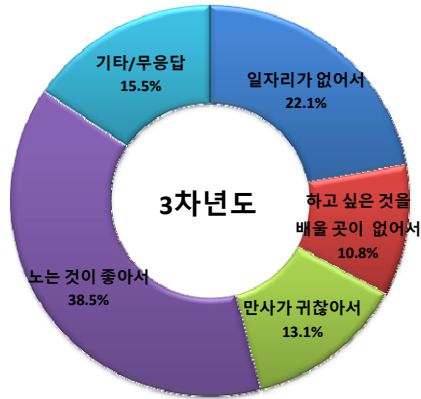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17	8.6
② 보수가 적어서	17	8.6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9	4.6
④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11	5.6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22	11.2
⑥ 집안의 반대로	1	0.4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48	24.4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13	6.6
⑨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37	18.8
⑩ 기타	22	11.2
계	197	100.0

문 4-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놀았던 이유⁶⁷⁾(3차년도 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던 이유로는,
‘노는 것이 좋아서(38.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는 것이 좋아서(38.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22.1%)’, ‘기타/무응답(15.5%)’, ‘만사가 귀찮아서(13.1%)’,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치 않아서(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결과



【그림 IV-28】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놀았던 이유(N=213)

표 IV-30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놀았던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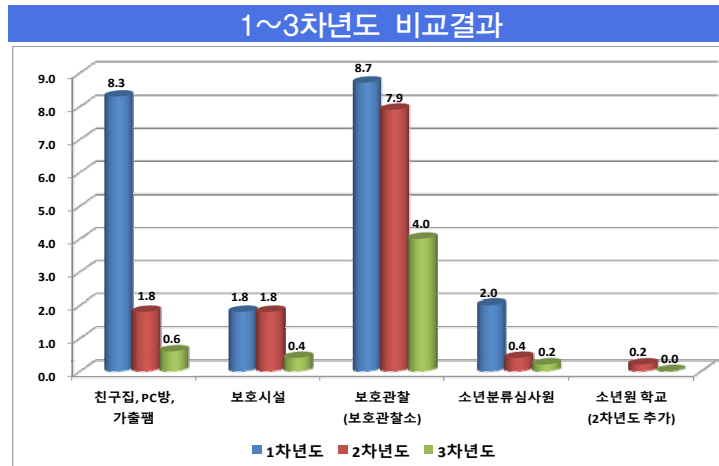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47	22.1
②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23	10.8
③ 만사가 귀찮아서	28	13.1
④ 노는 것이 좋아서	82	38.5
⑤ 기타/무응답	33	15.5
계	213	100.0

67) 문 4-5는 문 4의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⁶⁸⁾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음(4.0%)’이 가장 많았고, ‘친구집, PC방, 가출팸과 어울림(0.6%)’, ‘보호시설에서 지냄(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8.7%, 2차년도 7.9%, 3차년도 4.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3.9%p 감소하였다. 한편,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3차년도 0.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업중단 후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그림 IV-29】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N=494, 단위: %)

표 IV-31 학업중단 후의 주거 공간 및 비행경험 (N=49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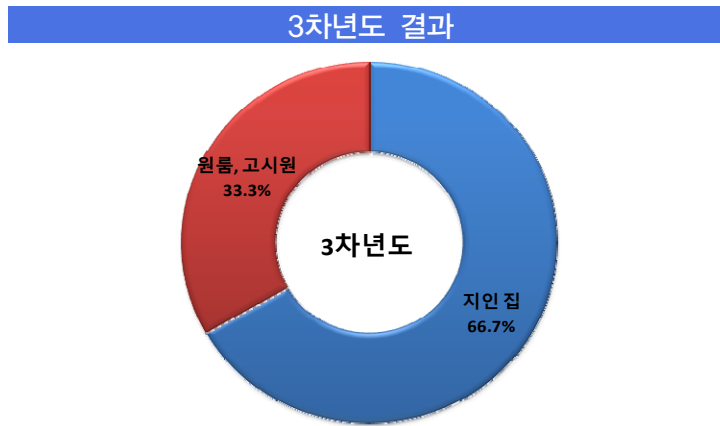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41	8.3	9	1.8	3	0.6
2) 보호시설에서 지냄	9	1.8	9	1.8	2	0.4
3) 보호관찰을 받음(보호관찰소)	43	8.7	39	7.9	20	4.0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10	2.0	2	0.4	1	0.2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2차년도 추가)			1	0.2	0	0.0

68) 해당 경험이 있는 달에 모두 응답하는 형식이었으며, 비율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문 5-1. 가출 시 거주 장소⁶⁹⁾(3차년도 추가)⁷⁰⁾

**가출 시 거주 장소에 대해
‘친구나 아는 형/누나 집(66.7%)’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원룸, 고시원(33.3%)’으로 나타남**

- 가출 시 거주 장소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6.7%가 ‘친구나 아는 형(오빠)/누나(언니) 집’이라고 응답하였고, 33.3%는 ‘원룸, 고시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V-30】 가출 시 거주 장소(N=3)

표 IV-32 가출 시 거주 장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친구나 아는 형(오빠)/누나(언니) 집	2	66.7
② PC방	0	0.0
③ 찜질방	0	0.0
④ 모텔, 여관	0	0.0
⑤ 원룸, 고시원	1	33.3
⑥ 지하철이나 기차역, 공원 등 거리	0	0.0
⑦ 기타	0	0.0
계	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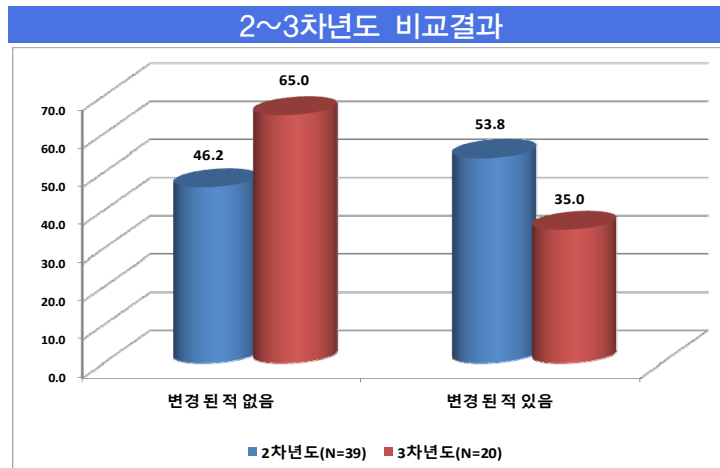
69) 문 5-1은 문 5의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다가 가출팜과 함께 생활함”에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70)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로만 활용 바람.

문 5-2.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⁷¹⁾(2차년도 추가)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5.0%가 '변경 된 적 있다'고 응답함

-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에 대해서 '변경 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53.8%에서 3차년도 35.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8.8%p 감소하였다.



【그림 IV-31】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단위: %)

표 IV-33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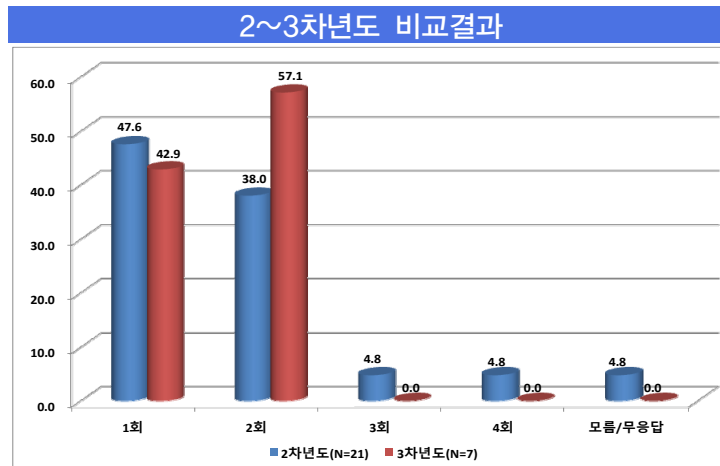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변경 된 적 없음	18	46.2	13	65.0
변경 된 적 있음	21	53.8	7	35.0
계	39	100.0	20	100.0

71) 문 5-2~문 5-4는 문 5의 “3) 보호관찰을 받음”에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3.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⁷²⁾(2차년도 추가)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에 대해 '2회(5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회(42.9%)'의 순으로 나타남

-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38.0%에서 3차년도 57.1%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9.1%p 증가하였다.



【그림 IV-32】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단위: %)

표 IV-34 담당 보호관찰관 변경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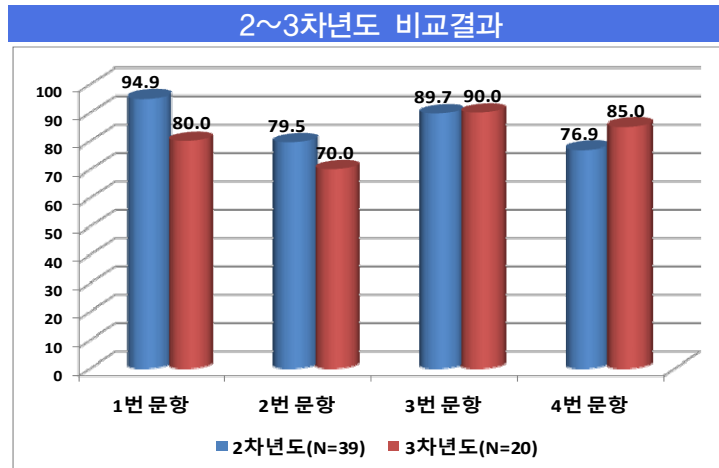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회	10	47.6	3	42.9
2회	8	38.0	4	57.1
3회	1	4.8	0	0.0
4회	1	4.8	0	0.0
모름/무응답	1	4.8	0	0.0
계	21	100.0	7	100.0

72) 문 5-3은 문 5-2(보호관찰관의 변경 여부)의 ②번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5-4.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2차년도 추가)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 대한 문항별 긍정적 응답 비율에서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 주셨다 문항(9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3번 문항인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다’의 긍정적 응답률이 2차년도 89.7%에서 3차년도 9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3%p 증가하였다. 한편, 1번 문항인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의 긍정적 응답률은 3차년도 80.0%로 2차년도 94.9%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IV-33】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단위: %)

표 IV-35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관계⁷³⁾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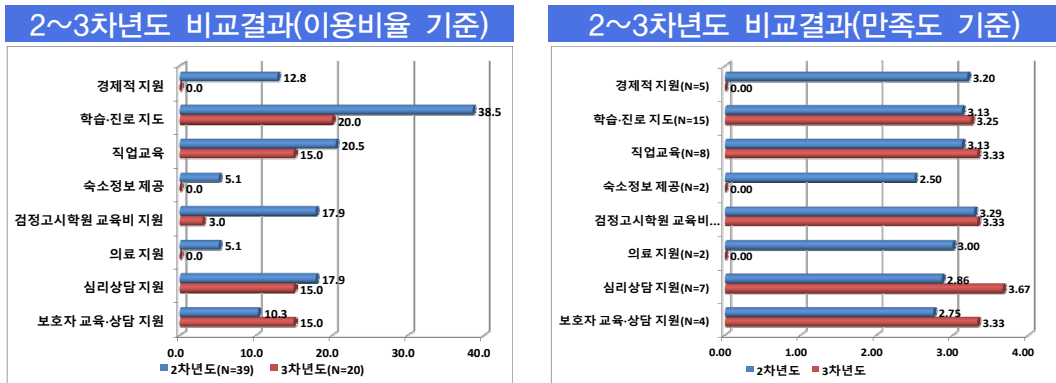
문항	2차년도			3차년도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	39	37	94.9	20	16	80.0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	39	31	79.5	20	14	70.0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다	39	35	89.7	20	18	90.0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나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39	30	76.9	20	17	85.0

7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번 ‘그렇다’와 ④번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결과임.

문 5-5.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2차년도 추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 중
이용여부에서는 ‘학습·진로지도(20.0%)’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평균은 ‘심리상담(M=3.6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여부에서 ‘학습·진로지도’의 응답률이 2차년도 38.5%에서 3차년도 2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8.5%p 감소하였다. 한편, 만족도 부분에서는 ‘심리상담’의 평균이 2차년도(M=2.86), 3차년도(M=3.67)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34】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단위: %, 점)

표 IV-36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 경험⁷⁴⁾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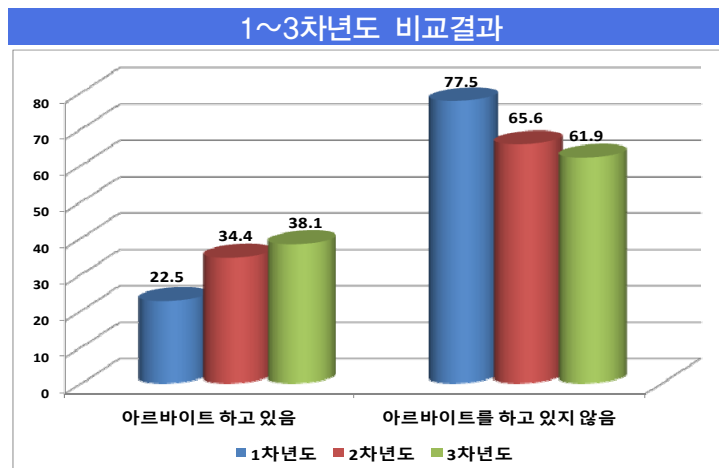
문항	1) 이용비율				2) 만족도			
	N	2차년도	N	3차년도	N	2차년도	N	3차년도
1) 경제적 지원	39	12.8	20	0.0	5	3.20	0	0.00
2) 학습·진로 지도	39	38.5	20	20.0	15	3.13	4	3.25
3)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39	20.5	20	15.0	8	3.13	3	3.33
4) 숙소정보 제공	39	5.1	20	0.0	2	2.50	0	0.0
5)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39	17.9	20	15.0	7	3.29	3	3.33
6) 의료 지원	39	5.1	20	0.0	2	3.00	0	0.00
7) 심리상담 지원	39	17.9	20	15.0	7	2.86	3	3.67
8)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39	10.3	20	15.0	4	2.75	3	3.33

74) 이용비율은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①번 ‘예’에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수치임. 만족도 평균은 이용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였으며, 4점 척도(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 한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로 제시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한 수치임.

문 6.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8.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22.5%, 2차년도 34.4%, 3차년도 38.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3.7%p 증가하였다.



【그림 IV-35】 아르바이트 경험(N=494, 단위: %)

표 IV-37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음	383	77.5	324	65.6	306	61.9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111	22.5	170	34.4	188	38.1
계	494	100.0	494	100.0	494	100.0

문 6-1. 아르바이트 업종⁷⁵⁾

아르바이트 업종에 대해 ‘기타(17.5%)’를 제외하고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12.8%)’이 가장 많고, ‘카페 및 주점 서빙(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의 서빙이나 배달(12.8%) 혹은 카페 및 주점에서의 서빙(10.1%),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서빙이나 배달이 주를 이루었다.

표 IV-38 아르바이트 업종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전단지 돌리기	1	0.9	0	0.0	0	0.0
② 카페 및 주점 서빙	10	9.0	15	8.8	19	10.1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6	5.4	18	10.6	11	5.9
④ 일반상점 판매원	3	2.7	11	6.5	10	5.3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2	1.8	4	2.4	9	4.8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1	0.9	0	0.0	2	1.1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1	0.9	0	0.0	0	0.0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27	24.3	22	12.9	18	9.6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31	27.9	27	15.9	24	12.8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0	0.0	2	1.2	2	1.1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3	2.7	3	1.8	1	0.5
⑫ 주유소 주유원	2	1.8	0	0.0	0	0.0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3	2.7	1	0.6	1	0.5
⑭ 건설현장 노동	2	1.8	4	2.4	3	1.6
⑮ 공장노동	3	2.7	9	5.3	8	4.3
⑯ 사무업무 보조	1	0.9	2	1.2	4	2.1
⑰ 아기, 노인 돌보기	1	0.9	0	0.0	0	0.0
⑱ 퀵서비스 배달(2차년도 추가)			2	1.2	3	1.6
⑲ 택배기사(2차년도 추가)			3	1.8	0	0.0
⑳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2차년도 추가)			2	1.2	4	2.1
㉑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2차년도 추가)			0	0.0	0	0.0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2차년도 추가)			1	0.6	1	0.5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2차년도 추가)			16	9.2	12	6.4
㉔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2차년도 추가)			4	2.4	1	0.5
㉕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2차년도 추가)			1	0.6	6	3.2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2차년도 추가)			1	0.6	3	1.6
㉗ 패션, 광고 모델(2차년도 추가)			1	0.6	1	0.5
㉘ 배우(2차년도 추가)			0	0.0	1	0.5
㉙ 가수(2차년도 추가)			0	0.0	2	1.1
㉚ 콜센터 안내직원(2차년도 추가)			2	1.2	4	2.1
㉛ 일반 사무직(2차년도 추가)			3	1.8	5	2.7
㉜ 기타			14	12.7	33	17.5
계	111	100.0	170	100.0	188	100.0

75) 문 6-1~문 6-2는 문 6(아르바이트 여부)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1차년도 조사항목 중 응답빈도가 적은 것은 2차년도 조사 시 삭제되었으며 1차년도 조사 시 기타 응답을 참조하여 응답빈도가 많은 것을 2차년도에 포함시켰음.

표 IV-39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⁷⁶⁾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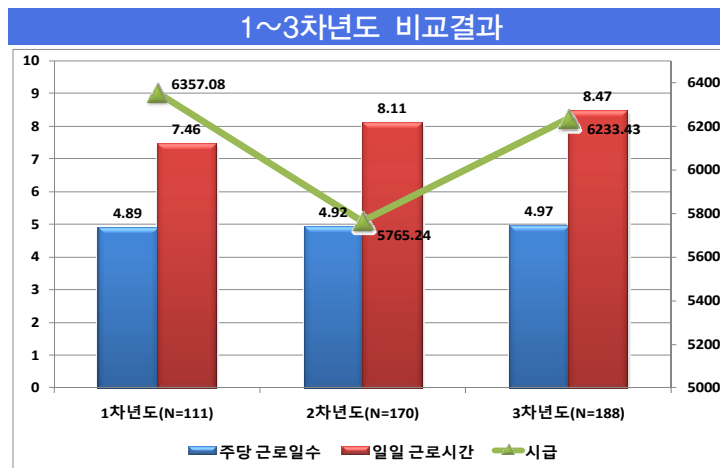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14	12.6	19	11.2	30	16.0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58	52.2	49	28.8	42	22.4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9	8.1	29	17.1	21	11.2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5	4.5	13	7.7	11	5.9
주유소 주유원	2	1.8	0	0.0	0	0.0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3	2.7	3	1.8	1	0.5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	0.9	2	1.2	4	2.1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0	0.0	2	1.2	2	1.1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16	9.2	12	6.4
기타	19	17.2	37	21.8	65	34.4
계	111	100.0	170	100.0	188	100.0

76)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별에 포함된 보기는 다음과 같음.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②, ⑤, ⑥, ⑦번.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⑧, ⑨번.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③, ④번.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⑭, ⑮번. 주유소 주유원 ⑫번.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⑪번.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⑯번.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⑩번. 식당 및 출장뷔페 등 요리사 ⑬번. 기타 ①, ⑬, ⑰~⑳, ㉔~㉕번.

문 6-2.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아르바이트에 대한 평균에서 '주당 근로일수'는 '4.97일'로 나타났고, '일일 근로시간'은 '8.47시간', '시급'은 '6233.43원'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당 근로일수'는 1차년도 4.89일, 2차년도 4.92일, 3차년도 4.97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일일 근로시간' 역시 1차년도 7.46시간, 2차년도 8.11시간, 3차년도 8.4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시급'의 경우 1차년도 6357.08원, 2차년도 5765.24원, 3차년도 6233.43원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1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IV-36】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단위: 일, 시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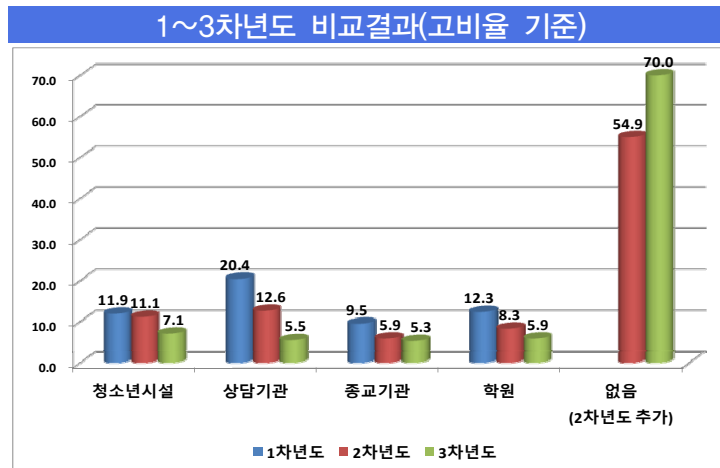
표 IV-40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일수, 일일 근로시간, 시급 (단위: 일, 시간, 원)

문항	평균		
	1차년도 (N=111)	2차년도 (N=170)	3차년도 (N=188)
1) 주당 근로일수	4.89	4.92	4.97
2) 일일 근로시간	7.46	8.11	8.47
3) 시급	6357.08	5765.24	6233.43

문 7.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복수 응답)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없음(70.0%)’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시설(7.1%)’, ‘학원(5.9%)’, ‘상담기관(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차년도 조사 시 추가된 ‘없음’의 응답률이 2차년도 54.9%에서 3차년도 70.0%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5.1%p 증가하였다. 한편, ‘상담기관’의 경우 3차년도 5.5%로 2차년도 12.6%에 비해 7.1%p 감소하였다.



【그림 IV-37】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N=49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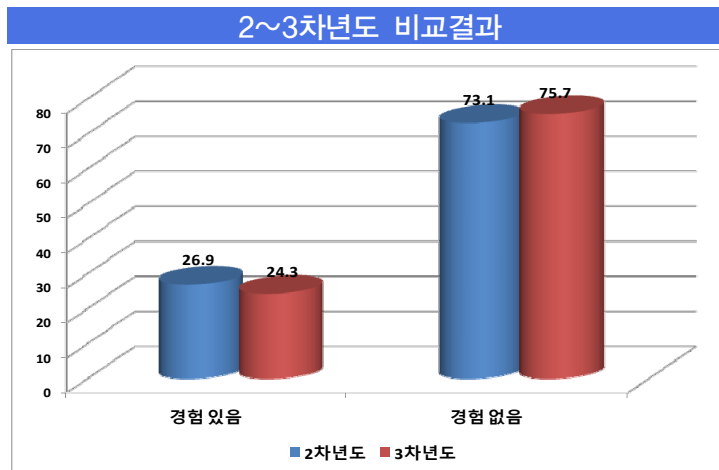
표 IV-41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 (단위: N=494,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청소년시설	59	11.9	55	11.1	35	7.1
② 복지시설	13	2.6	13	2.6	6	1.2
③ 보호시설	12	2.4	11	2.2	5	1.0
④ 상담기관	101	20.4	62	12.6	27	5.5
⑤ 보호관찰소	28	5.7	18	3.6	8	1.6
⑥ 직업훈련기관	30	6.1	17	3.4	16	3.2
⑦ 종교기관	47	9.5	29	5.9	26	5.3
⑧ 학원	61	12.3	41	8.3	29	5.9
⑨ 병원 등 치료시설	20	4.0	16	3.2	7	1.4
⑩ 대안교육기관	23	4.7	11	2.2	9	1.8
⑪ 직장(3차년도 추가)					10	2.0
⑫ 없음(2차년도 추가)			271	54.9	346	70.0
⑬ 기타	200	40.5	18	3.6	12	2.4

문 8.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2차년도 추가)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에 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4.3%가 '있다'고 응답함

-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에 대해서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26.9%에서 3차년도 24.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2.6%p 감소하였다.



【그림 IV-38】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N=494, 단위: %)

표 IV-42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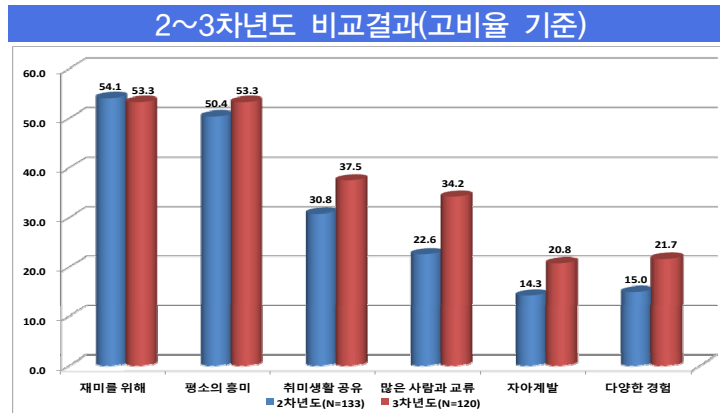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험 없음	361	73.1	374	75.7
경험 있음	133	26.9	120	24.3
계	494	100.0	494	100.0

문 8-1.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⁷⁷⁾(2차년도 추가-복수응답)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에 대해
'재미를 위해(53.3%)'와 '평소의 흥미(53.3%)'가 가장 많았음**

-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미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54.1%, 3차년도 53.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8%p 감소하였다. 한편, '평소의 흥미'라고 응답한 비율은, 2차년도 50.4%에서 3차년도 53.3%로 전년도 대비 2.9%p 증가하였다.



【그림 IV-39】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단위: %)

표 IV-43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이유⁷⁸⁾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N	사례수	비율	N	사례수	비율
재미·흥미	① 재미를 위해	133	72	54.1	120	64	53.3
	③ 평소의 흥미	133	67	50.4	120	64	53.3
	⑦ 취미생활 공유	133	41	30.8	120	45	37.5
친교·교류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 공감대 형성	133	7	5.3	120	6	5.0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133	30	22.6	120	41	34.2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133	5	3.8	120	5	4.2
정보 및 자아개발	② 자아개발	133	19	14.3	120	25	20.8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133	2	1.5	120	2	1.7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133	20	15.0	120	26	21.7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133	3	2.3	120	1	0.8
	⑪ 복학에 도움	133	2	1.5	120	0	0.0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133	10	7.5	120	11	9.2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133	12	9.0	120	13	10.8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133	6	4.5	120	12	10.0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133	5	3.8	120	5	4.2
	⑯ 학과 공부에 도움	133	9	6.8	120	11	9.2
기타	⑰ 특별한 이유 없음	133	10	7.5	120	0	0.0
	⑱ 기타	133	4	3.0	120	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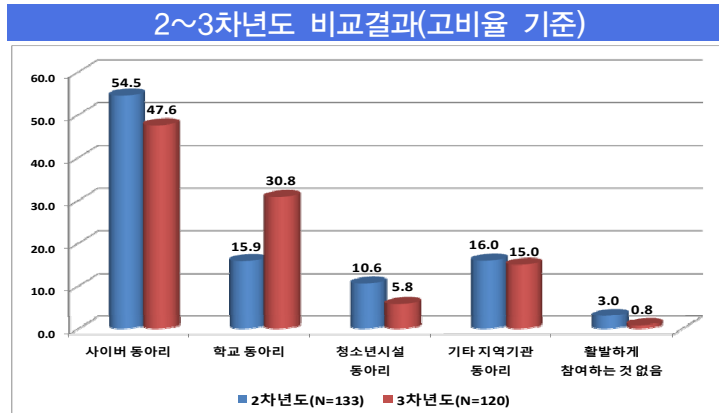
77) 문 8-1~문 8-3은 문 8(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여부)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78) 1~3순위 복수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8-2.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2차년도 추가)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에 대해
‘사이버 동아리(47.6%)’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이버 동아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54.5%에서 3차년도 47.6%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6.9%p 감소하였다.



【그림 IV-40】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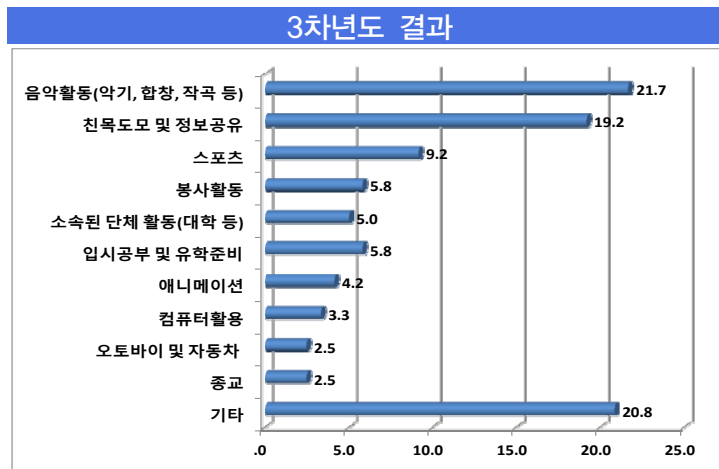
표 IV-44 참여하는 동아리·인터넷 카페 유형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이버 동아리	⑭ 인터넷 포털 카페	24	18.0	21	17.5
	⑮ 인터넷 홈페이지	3	2.3	4	3.3
	⑯ SNS 서비스 카페	46	34.2	32	26.8
	소계	73	54.5	57	47.6
학교 동아리	⑪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1	0.8	1	0.8
	⑫ 중·고등학교 동아리	9	6.8	14	11.7
	⑬ 대학교 동아리	11	8.3	22	18.3
	소계	21	15.9	37	30.8
청소년시설 동아리	① 청소년시설 동아리	11	8.3	5	4.2
	③ 보호시설 동아리	1	0.8	1	0.8
	④ 상담기관 동아리	2	1.5	1	0.8
	소계	14	10.6	7	5.8
기타 지역기관 동아리	② 복지시설 동아리	2	1.5	2	1.7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0	0.0	0	0.0
	⑥ 직업훈련기관 동아리	5	3.8	1	0.8
	⑦ 종교기관 동아리	1	0.8	5	4.2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0	0.0	0	0.0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1	0.8	0	0.0
	⑩ 대입학원 동아리	1	0.8	0	0.0
	⑱ 기타(운동, 음악 동아리)	11	8.3	10	8.3
	소계	21	16.0	18	15.0
기타	⑰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4	3.0	1	0.8
소계		4	3.0	1	0.8
전체		133	100.0	120	100.0

문 8-3.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3차년도 추가)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음악활동(2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타(20.8%)’,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음악활동(21.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20.8%)’,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19.2%)’, ‘스포츠(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N=120, 단위: %)

표 IV-45 동아리·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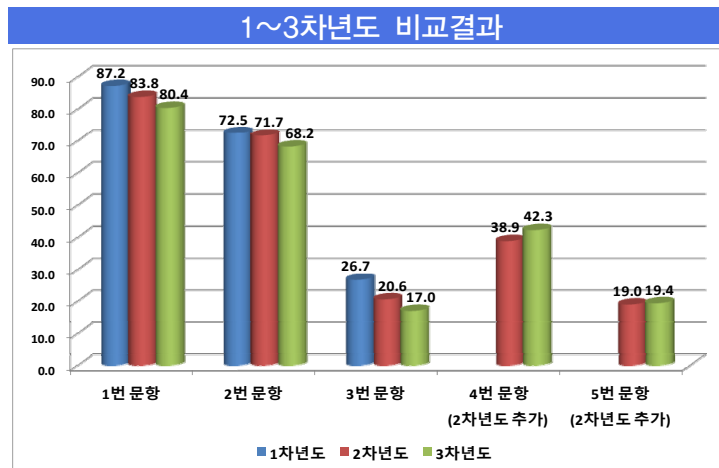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음악활동(악기, 합창, 작곡 등)	26	21.7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SNS 활동)	23	19.2
스포츠	11	9.2
봉사활동	7	5.8
소속된 단체 활동(학과 실습, 청소년인권활동 등)	6	5.0
입시공부 및 유학준비	7	5.8
애니메이션	5	4.2
컴퓨터활용 및 IT	4	3.3
오토바이 및 자동차	3	2.5
종교	3	2.5
기타(문학, 요리, 애완동물 등)	25	20.8
계	120	100.0

문 9. 진로정보탐색

진로정보탐색에 대한 문항별 긍정적 응답 비율은
‘진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80.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을 검색했다(68.2%)’ 등의 순이었음

- 진로정보탐색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번 문항인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과 대화를 나누었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1차년도 87.2%, 2차년도 83.8%, 3차년도 80.4%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3.4%p 감소하였다. 한편, 4번 문항인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은 2차년도 38.9%에서 3차년도 42.3%로, 전년도 대비 3.4%p 증가하였다.



【그림 IV-42】 진로정보탐색(N=494, 단위: %)

표 IV-46 진로정보탐색⁷⁹⁾

[N=49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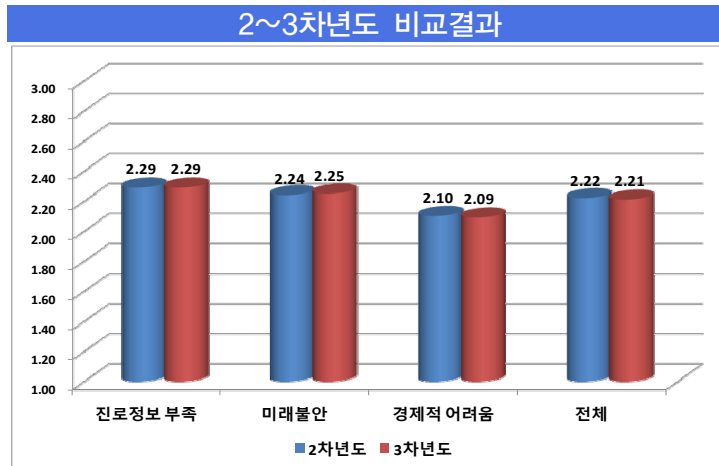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과 대화를 나누었다	431(87.2)	414(83.8)	397(80.4)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358(72.5)	354(71.7)	337(68.2)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132(26.7)	102(20.6)	84(17.0)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2차년도 추가)		192(38.9)	209(42.3)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2차년도 추가)		94(19.0)	96(19.4)

7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③번 ‘그렇다’와 ④번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결과임.

문 10. 진로 장애(2차년도 추가)

진로 장애에 대한 평균에서
‘진로정보 부족(M=2.29)’, ‘미래불안(M=2.25)’, ‘경제적 어려움(M=2.09)’으로 나타남

- 진로 장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진로정보 부족’의 평균이 2차년도(M=2.29)에서 3차년도(M=2.29)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미래불안’의 평균과 ‘경제적 어려움’의 평균은 각 M=2.25, M=2.09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43】 진로 장애(N=494, 단위: 점)

표 IV-47 진로 장애⁸⁰⁾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진로정보 부족	1)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2.11	2.06	0.075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⁸¹⁾	2.58	2.63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2.20	2.26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2.39	2.37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2.18	2.13	
소계		2.29	2.29	
미래불안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2.40	2.36	-0.058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11	2.16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2.02	2.02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2.44	2.45	
소계		2.24	2.25	
경제적 어려움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2.23	2.19	0.213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2.06	2.06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2.17	2.15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1.93	1.95	
소계		2.10	2.09	
전체		2.22	2.21	0.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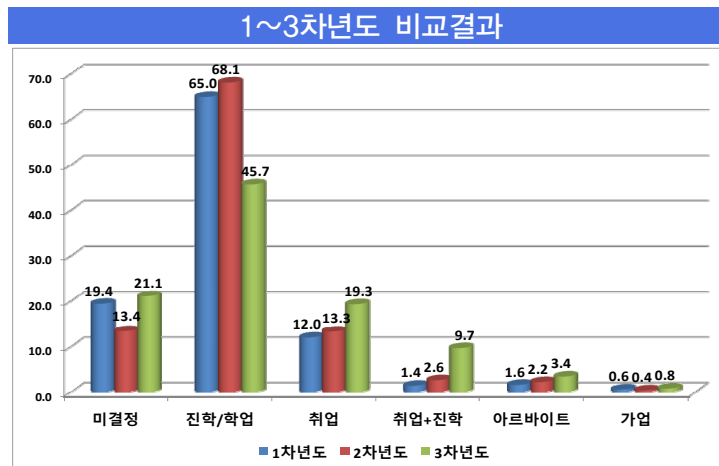
80)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81)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문 11. 향후 진로 계획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진학/학업(45.7%)'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진로 미결정(21.1%)', '취업(19.3%)', '취업과 진학 병행(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진학/학업'의 응답률이 1차년도 65.0%, 2차년도 68.1%, 3차년도 45.7%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22.4%p 감소하였다. 한편 '취업'과 '취업과 진학 병행' 그리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각 6.0%p, 7.1%p, 1.2%p 증가하였다.



【그림 IV-44】 향후 진로 계획(N=494, 단위: %)

표 IV-48 향후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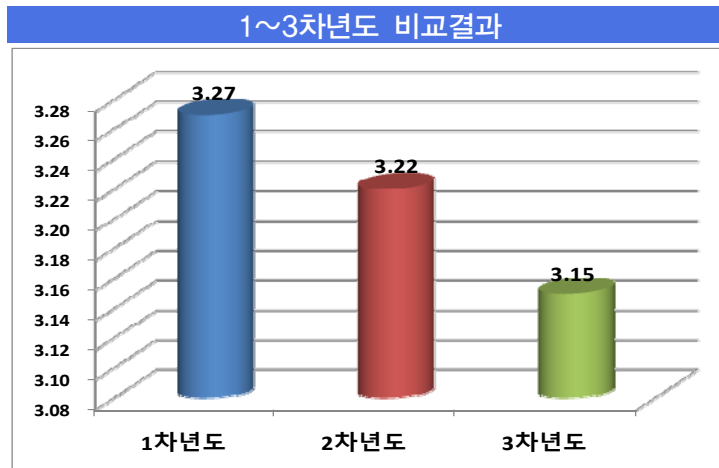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미결정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96	19.4	66	13.4	104	21.1
소계		96	19.4	66	13.4	104	21.1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	144	29.1	267	54.0	174	35.2
	③ 대안학교 진학	8	1.6	10	2.0	3	0.6
	④ 해외 유학	17	3.4	9	1.8	17	3.4
	⑤ 검정고시 준비	152	30.9	50	10.3	32	6.5
	소계	321	65.0	336	68.1	226	45.7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32	6.5	48	9.7	70	14.2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	27	5.5	18	3.6	25	5.1
	소계	59	12.0	66	13.3	95	19.3
취업+진학		7	1.4	13	2.6	48	9.7
소계		7	1.4	13	2.6	48	9.7
아르바이트	⑨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별 예정	8	1.6	11	2.2	17	3.4
	소계	8	1.6	11	2.2	17	3.4
가업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	3	0.6	2	0.4	4	0.8
	소계	3	0.6	2	0.4	4	0.8
계		494	100.0	494	100.0	494	100.0

문 12. 진로 계획 달성 예측⁸²⁾

진로 계획 달성 예측 평균에 대해
3차년도($M=3.15$)로 나타남

○ 진로 계획 달성 예측에 대해, 전체 평균 1차년도($M=3.27$), 2차년도($M=3.22$), 3차년도($M=3.15$)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45】 진로 계획 달성 예측($N=299$, 단위: 점)

표 IV-49 진로 계획 달성 예측⁸³⁾

($N=299$ ⁸⁴⁾,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F (대비)
	M	SD	M	SD	M	SD	
진로 계획 달성 예측	3.27	0.58	3.22	0.60	3.15	0.56	4.212* (a>c)

* $\alpha=.05$.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82) 문 12는 문 11(향후 진로 계획)의 ②번~⑩번(② 정규학교로 복학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검정고시 준비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울 예정임)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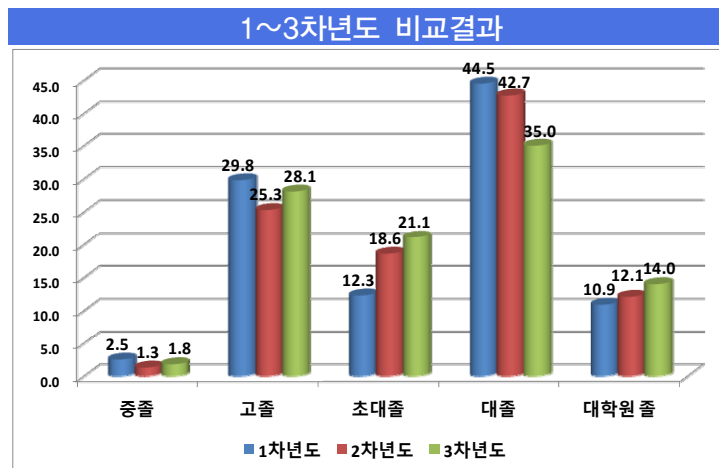
8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84) 기존의 N수와 평균[1차년도($N=398$, $M=3.21$), 2차년도($N=428$, $M=3.13$), 3차년도($N=390$, $M=3.10$)]이 분석 시 조절되었음.

문 13.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5.0%'가 '대졸'이라고 응답함

-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 '대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44.5%, 2차년도 42.7%, 3차년도 35.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7.7%p 감소하였다. 한편, '초대졸'과 '대학원 졸'의 경우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전년도 대비 각 25%p, 1.9%p 증가하였다.



【그림 IV-46】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N=494, 단위: %)

표 IV-50 자신의 향후 교육 기대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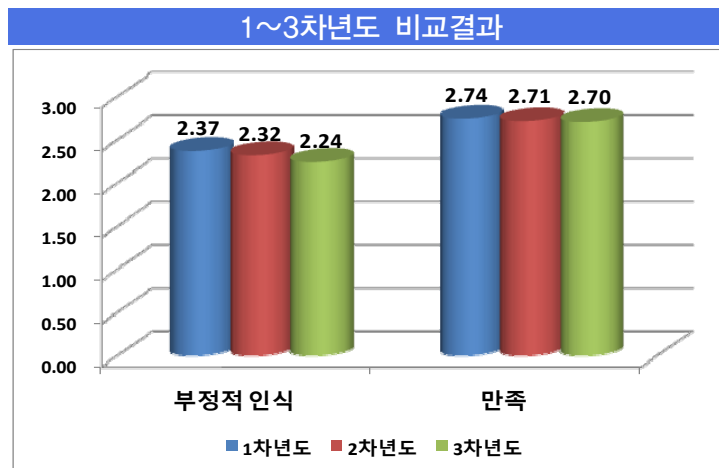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① 중졸	12	2.5	6	1.3	9	1.8
② 고졸	147	29.8	125	25.3	139	28.1
③ 초대졸(2~3년제)	61	12.3	92	18.6	104	21.1
④ 대졸(4년제)	220	44.5	211	42.7	173	35.0
⑤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54	10.9	60	12.1	69	14.0
계	494	100.0	494	100.0	494	100.0

문 14.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⁸⁵⁾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 관한 평균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M=2.24$)’,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M=2.70$)’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평균이 1차년도($M=2.37$), 2차년도($M=2.32$), 3차년도($M=2.24$)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에 대한 평균 역시 1차년도($M=2.74$), 2차년도($M=2.71$), 3차년도($M=2.70$)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47】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N=255$, 단위: 점)

표 IV-51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⁸⁶⁾

($N=255$ ⁸⁷⁾, 단위: 점)

문항	구분	$M(SD)$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3)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2.37(0.65)	2.32(0.68)	2.24(0.63)	5.020** (a)c)
4)~6)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2.74(0.39)	2.71(0.45)	2.70(0.43)	0.733

** $\alpha.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85) 문 14의 1차년도 결과는 조사 시 전체 응답한 결과이며, 2차년도와 3차년도 결과는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대학진학 및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 제외)만 응답한 결과임.

86)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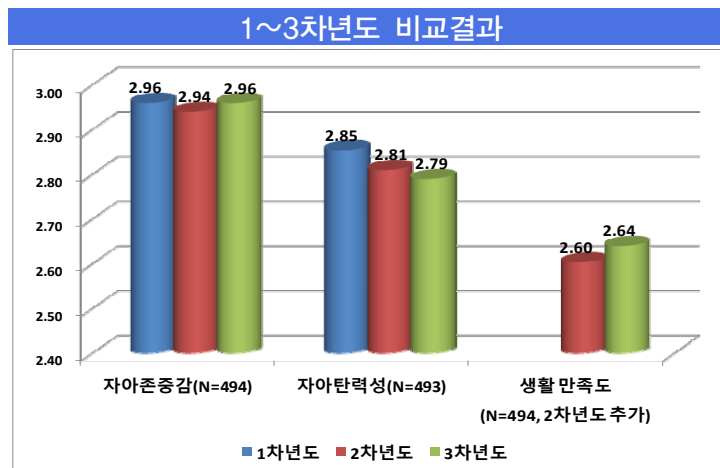
87) 기존의 N 수와 평균(1차년도[$N=494$, 부정적 인식 $M=2.35$, 만족 $M=2.75$], 2차년도[$N=352$ (무응답 2명), 부정적 인식 $M=2.31$, 만족 $M=2.71$], 3차년도[$N=366$ (무응답 41명), 부정적 인식 $M=2.21$, 만족 $M=2.68$])이 분석 시 조절되었음.

3) 개인의 심리 · 정서 상황

문 15.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⁸⁸⁾(생활만족도 2차년도 추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평균에서
'자아존중감(M=2.9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만족도(M=2.64)'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1차년도(M=2.96), 2차년도(M=2.95), 3차년도(M=2.96)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1차년도(M=2.85), 2차년도(M=2.81), 3차년도(M=2.7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2차년도(M=2.60), 3차년도(M=2.64)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48】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단위: 점)

표 IV-52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단위: 점)

문항	구분	N ⁸⁹⁾	평균			t,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5)	자아존중감	494	2.96(0.54)	2.94(0.54)	2.96(0.52)	0.286
6)~10)	자아탄력성	493	2.85(0.55)	2.81(0.51)	2.79(0.53)	3.632* (a)c)
11)~13)	생활만족도	494		2.60(0.64)	2.64(0.63)	-1.278

* α .05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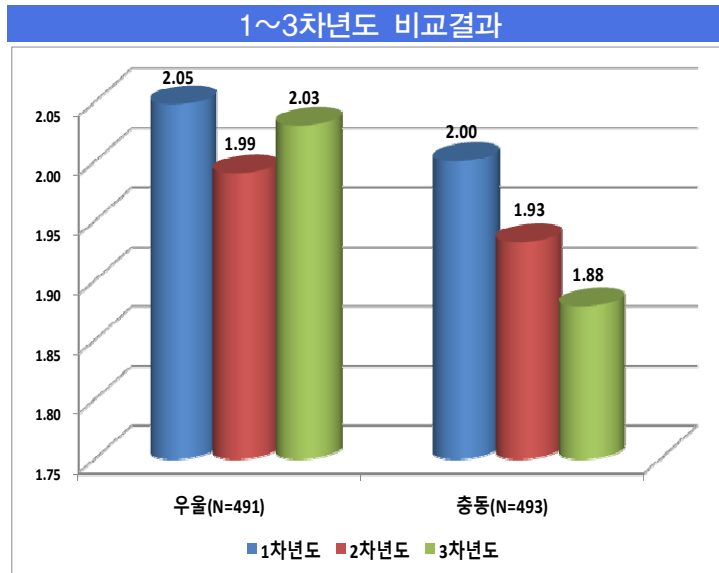
8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89) 자아탄력성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1명)

문 16. 우울, 충동성⁹⁰⁾

우울, 충동성에 대한 평균에서
'우울(M=2.03)', '충동(M=1.88)'으로 나타남

- 우울, 충동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울'의 평균이 1차년도(M=2.05), 2차년도(M=1.99), 3차년도(M=2.03)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충동'의 평균은 1차년도(M=2.00), 2차년도(M=1.93), 3차년도(M=1.88)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49】 우울, 충동성(단위: 점)

표 IV-53 우울, 충동성

(단위: 점)

문항	구분	N ⁹¹⁾	M(SD)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10)	우울	491	2.05(0.58)	1.99(0.57)	2.03(0.57)	2.516
11)~15)	충동성	493	2.00(0.58)	1.93(0.60)	1.88(0.56)	9.247*** (a>b, a>c, b>c)

*** $p<.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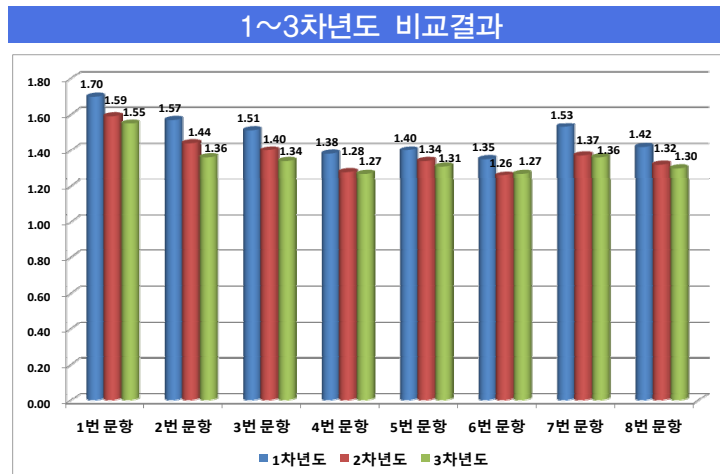
90)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91) 우울과 충동성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각 3명, 1명).

문 17-1. 게임 중독⁹²⁾

게임 중독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 '1번 문항($M=1.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번 문항($M=1.36$)', '7번 문항($M=1.36$)', '3번 문항($M=1.34$)' 등의 순이었음

- 게임 중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번 문항(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의 평균이 1차년도($M=1.70$), 2차년도($M=1.59$), 3차년도($M=1.5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V-50】 게임 중독(N=494, 단위: 점)

표 IV-54 게임 중독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70	1.59	1.55	12.994*** (a)b, a)c)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1.57	1.44	1.36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1.51	1.40	1.34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38	1.28	1.27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1.40	1.34	1.31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35	1.26	1.27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1.53	1.37	1.36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1.42	1.32	1.30	
전체	1.48	1.38	1.35	

*** $\alpha=.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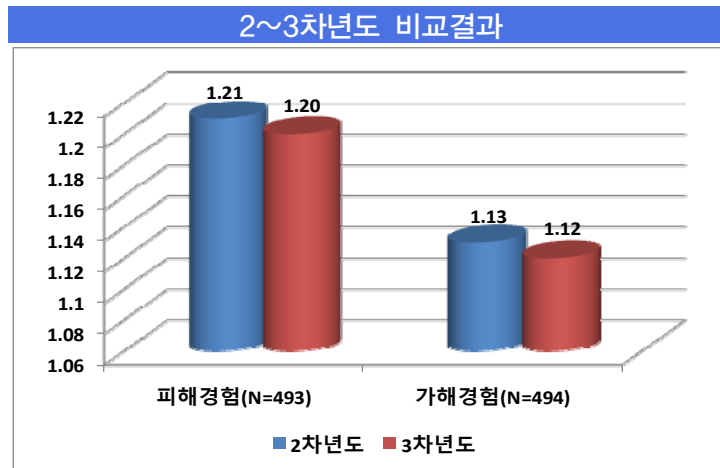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92)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17-2.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⁹³⁾(2차년도 추가)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한 평균에서
'피해 경험(M=1.20)', '가해 경험(M=1.12)'으로 나타남

-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SNS 관련 피해 경험'의 평균이 2차년도(M=1.21), 3차년도(M=1.20)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SNS 관련 가해 경험'의 평균 역시 2차년도(M=1.13), 3차년도(M=1.12)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림 IV-51】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단위: 점)

표 IV-55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단위: 점)

문항	구분	N ⁹⁴⁾	M(SD)		t
			2차년도	3차년도	
1)~5)	SNS 관련 피해 경험	493	1.21(0.36)	1.20(0.34)	0.254
6)~10)	SNS 관련 가해 경험	494	1.13(0.29)	1.12(0.26)	0.908

*** α .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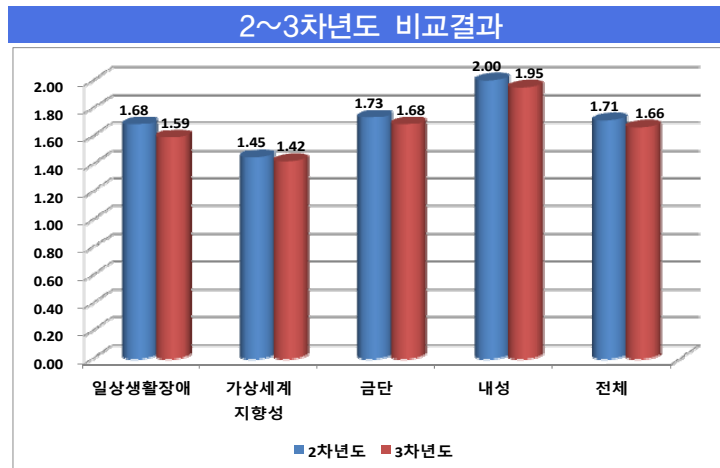
9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94) SNS 관련 피해 경험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1명)

문 17-3. 스마트폰 중독⁹⁵⁾(2차년도 추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 조절(M=2.2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질문한 결과, ‘7번 문항(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의 평균이 2차년도(M=2.30) 대비 3차년도(M=2.25)에 감소하였다. 한편, 평균이 가장 낮았던 ‘5번 문항(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은 2차년도(M=1.34) 대비 3차년도(M=1.28)에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52】 스마트폰 중독(N=494, 단위: 점)

표 IV-56 스마트폰 중독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일상생활장애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1.65	1.55	2.496*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71	1.63	
소계		1.68	1.59	
가상세계 지향성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55	1.55	1.270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34	1.28	
소계		1.45	1.42	
금단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88	1.84	1.550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57	1.51	
소계		1.73	1.68	
내성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1.69	1.64	1.512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⁹⁶⁾	2.30	2.25	
소계		2.00	1.95	
전체		1.71	1.66	2.304*

* $\alpha.05$

95)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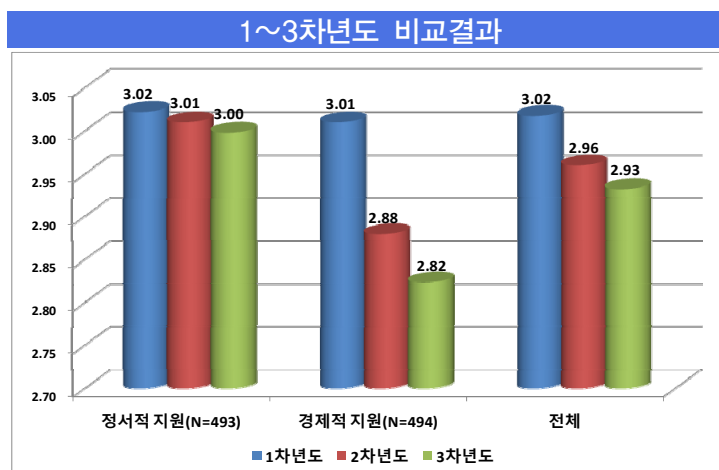
96) 이 문항은 역코딩 하였음.

4)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18. 부모의 지원⁹⁷⁾

**부모의 지원에 대한 평균에서
‘정서적 지원(M=3.00), ‘경제적 지원(M=2.82)’으로 나타남**

- 부모의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서적 지원’의 평균이 경제적 지원의 평균에 비해 더 높았으며, 1차년도(M=3.02), 2차년도(M=3.01), 3차년도(M=3.0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평균 역시 1차년도(M=3.01), 2차년도(M=2.88), 3차년도(M=2.8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V-53】 부모의 지원(단위: 점)

표 IV-57 부모의 지원

(단위: 점)

문항	구분	N ⁹⁸⁾	M(SD)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5)	부모의 정서적 지원	493	3.02(0.66)	3.01(0.65)	3.00(0.63)	0.306
6)~8)	부모의 경제적 지원	494	3.01(0.71)	2.88(0.76)	2.82(0.77)	15.605*** (a>b, a>c)
전체			3.02(0.60)	2.96(0.60)	2.93(0.58)	4.852** (a>b, a>c)

*** $\alpha.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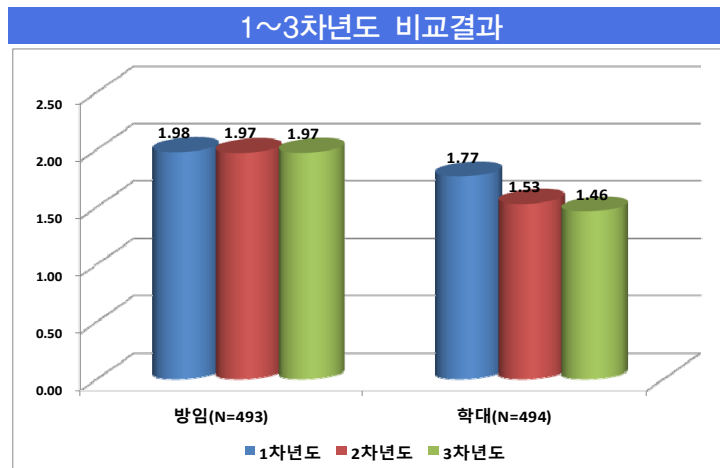
97)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98)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1명)

문 19. 부모의 방임·학대⁹⁹⁾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평균에서
'방임(M=1.97)', '학대(M=1.46)'로 나타남

-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방임'의 평균이 1차년도(M=1.98), 2차년도(M=1.97), 3차년도(M=1.97)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학대'의 평균은 1차년도(M=1.77), 2차년도(M=1.53), 3차년도(M=1.4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V-54】 부모의 방임·학대(단위: 점)

표 IV-58 부모의 방임·학대

(단위: 점)

문항	구분	N ¹⁰⁰⁾	M(SD)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5)	부모의 방임	493	1.98(0.44)	1.97(0.46)	1.97(0.47)	0.045
6)~9)	부모의 학대	494	1.77(0.74)	1.53(0.66)	1.46(0.60)	47.803*** (a>b, a>c, b>c)

*** $\alpha < .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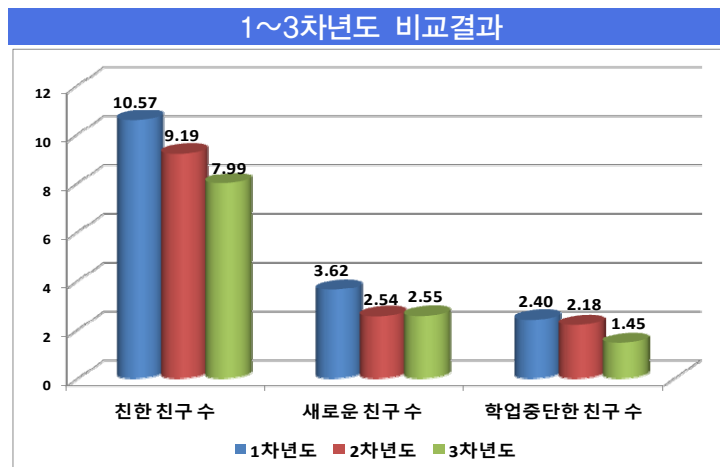
99)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100) 부모의 방임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1명)

문 20~20-2. 친한 친구 수,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학업중단 한 친구 수

친한 친구 수는 평균 '7.99명',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는 평균 '2.55명',
학업중단 한 친구 수는 평균 '1.45명' 으로 나타남

- 친한 친구 수에 대한 응답 결과, 1차년도 10.57명, 2차년도 9.19명, 3차년도 7.99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1차년도 3.62명, 2차년도 2.54명, 3차년도 2.5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한 친구 수의 경우 1차년도 2.40명, 2차년도 2.18명, 3차년도 1.4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V-55】 친한 친구 수(N=494, 단위: 명)

표 IV-59 친한 친구 수

(N=494, 단위: 명)

구분	M(SD)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 친한 친구 수	10.57(9.48)	9.19(9.87)	7.99(8.73)	14.853*** (a>b, a>c, b>c)
20-1.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3.62(6.39)	2.54(4.66)	2.55(4.88)	6.225** (a>b, a>c)
20-2. 학업중단 한 친구 수	2.40(3.13)	2.18(5.34)	1.45(3.08)	16.291*** (a>c,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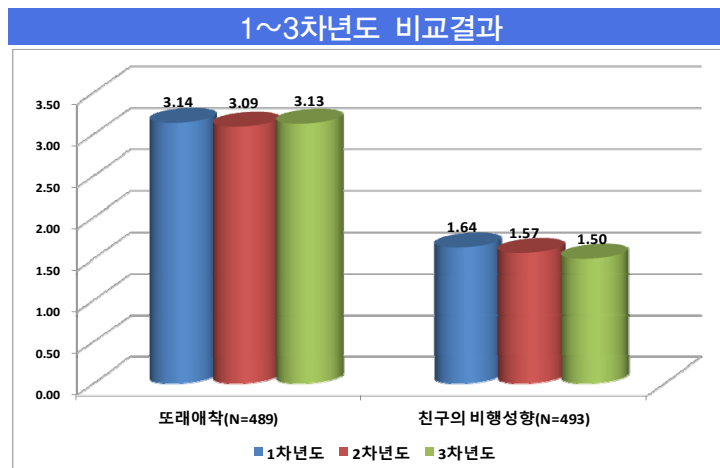
** $p < .01$, *** $p < .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문 21.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¹⁰¹⁾

또래애착, 또래의 비행성향에 대한 평균에서
'또래애착(M=3.13)', '친구의 비행성향(M=1.50)'으로 나타남

-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또래애착'의 평균이 1차년도(M=3.14), 2차년도(M=3.09), 3차년도(M=3.13)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의 비행성향'은 1차년도(M=1.64), 2차년도(M=1.57), 3차년도(M=1.5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IV-56】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단위: 점)

표 IV-60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단위: 점)

문항	구분	N ¹⁰²⁾	평균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3)	또래애착	489	3.14(0.59)	3.09(0.58)	3.13(0.58)	1.333
4)~6)	친구의 비행성향	493	1.64(0.61)	1.57(0.60)	1.50(0.58)	10.394*** (a>b, a>c, b>c)

*** $\alpha.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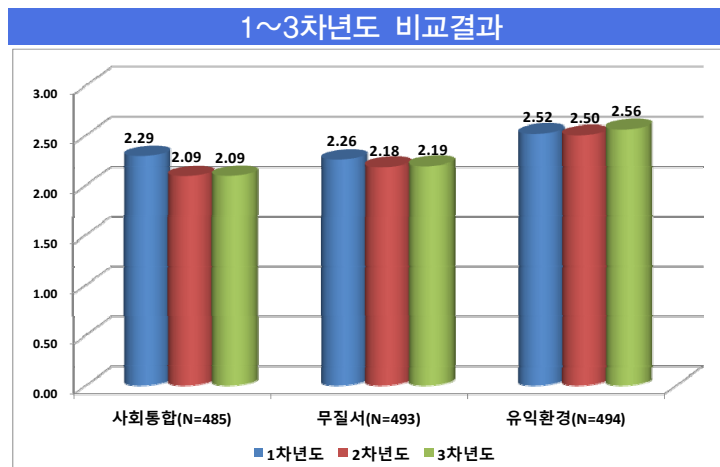
10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102) 또래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각 5명, 1명)

문 22. 지역사회¹⁰³⁾

지역사회에 대한 평균에서 ‘유익환경(M=2.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질서(M=2.19)’, ‘사회통합(M=2.09)’의 순이었음

- 지역사회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익환경’의 평균이 1차년도(M=2.52), 2차년도(M=2.50), 3차년도(M=2.56)로 나타났다. 한편, ‘무질서’의 평균은 1차년도(M=2.26), 2차년도(M=2.18), 3차년도(M=2.19)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의 평균이 1차년도(M=2.29), 2차년도(M=2.09), 3차년도(M=2.09)로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57】 지역사회(단위: 점)

표 IV-61 지역사회

(단위: 점)

문항	구분	N ¹⁰⁴⁾	M(SD)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지역사회 사회통합	485	2.29(0.67)	2.09(0.68)	2.09(0.67)	20.491*** (a>b, a>c)
5)~8)	지역사회 무질서	493	2.26(0.65)	2.18(0.65)	2.19(0.68)	3.182* (a>b)
9)~10)	지역사회 유익환경	494	2.52(0.67)	2.50(0.72)	2.56(0.72)	1.310

* α .05, *** α .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10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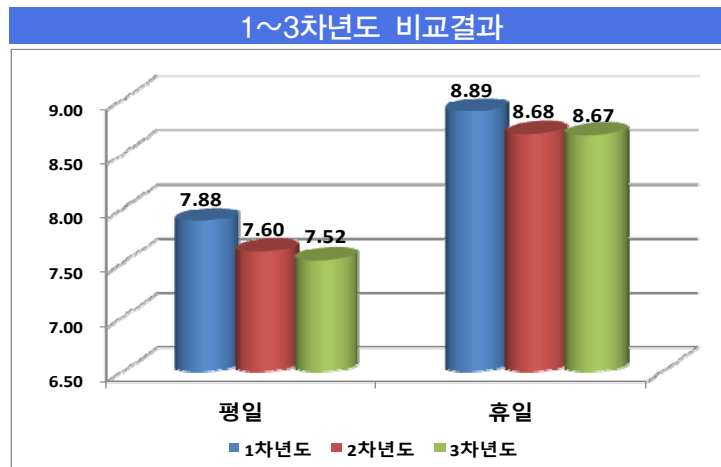
104) 지역사회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무질서의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각 9명, 1명)

5) 일상 생활 및 가치관

문 23. 하루 생활시간-수면

하루 생활시간 중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
평일(M=7.52시간), 휴일(M=8.67시간)로 나타남

- 하루 생활시간 중 수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1차년도(M=7.88시간), 2차년도(M=7.60시간), 3차년도(M=7.52시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휴일 평균 수면시간 역시 1차년도(M=8.89시간), 2차년도(M=8.68시간), 3차년도(M=8.67시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V-58】 하루 생활시간-수면(N=494, 단위: 시간)

표 IV-62 하루 생활시간-수면 (N=494,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M(SD)	2차년도 M(SD)	3차년도 M(SD)	F (대비)
평일 평균 수면시간	7.88(1.84)	7.60(1.89)	7.52(1.79)	7.575*** (a)b, a)c)
휴일 평균 수면시간	8.89(2.15)	8.68(2.15)	8.67(2.01)	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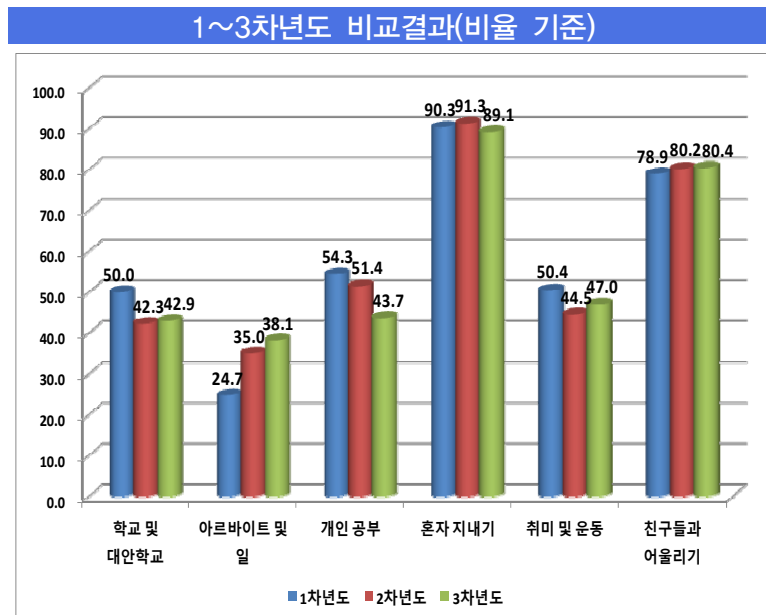
*** $\alpha.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문 23. 하루 생활시간-경험률

하루 생활시간에 대한 경험률에서 ‘혼자 지내기(89.1%)’가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80.4%)’, ‘취미 및 운동(47.0%)’, ‘개인 공부(4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90.3%, 2차년도 91.3%, 3차년도 89.1%로 가장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2.2%p 감소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차년도 4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아르바이트나 취업 후 일하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차년도 38.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취미, 운동, 종교와 관련된 시간’이 있다는 응답률이 3차년도 47.0%로 2차년도 44.5%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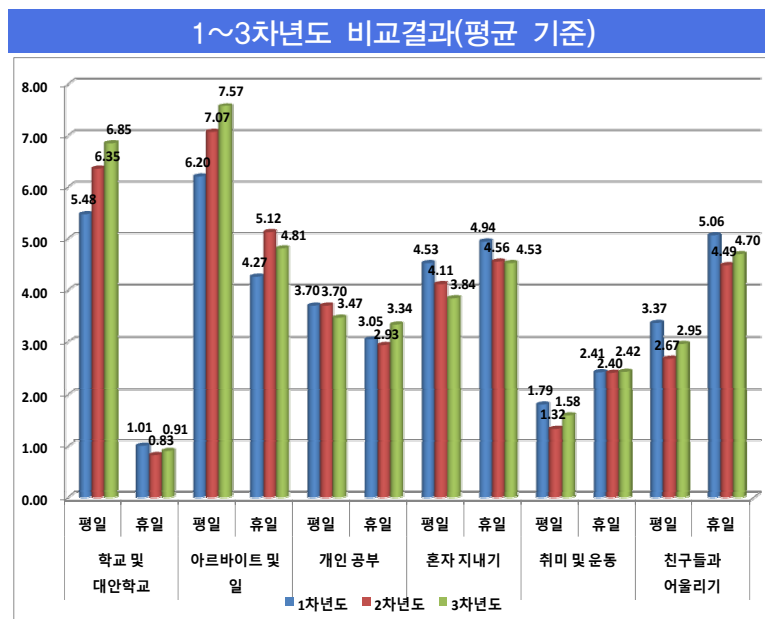


【그림 IV-59】 하루 생활시간-주요 영역 경험률(N=494, 단위: %)

문 23. 하루 생활시간-평균

하루 생활시간 평균에서 ‘아르바이트 및 일(M=7.57시간)’이 가장 높았고, ‘학교 및 대안학교(M=6.85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교 및 대안학교’와 ‘아르바이트 및 일’ 그리고 ‘개인 공부’의 경우 평일 시간의 비중이 컸다. 그 중 ‘아르바이트 및 일’의 평균은 평일 기준 1차년도 6.20시간, 2차년도 7.07시간, 3차년도 7.57시간, ‘학교 및 대안학교’의 평균은 평일 기준 3차년도 6.85시간으로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휴일에는 ‘혼자 지내기’와 ‘취미 및 운동’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기’의 비중이 컸다. 그 중 ‘혼자 지내기’의 평균은 휴일 기준 1차년도 4.94시간, 2차년도 4.56시간, 3차년도 4.53시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IV-60】 하루 생활-주요 영역 평균(단위: 시간)¹⁰⁵⁾

105) 영역에 따른 차수별 N수는 다음과 같음. 학교 및 대안학교(1차년도 247명, 2차년도 209명, 3차년도 212명), 아르바이트 및 일(1차년도 122명, 2차년도 173명, 3차년도 188명), 개인 공부(1차년도 268명, 2차년도 254명, 3차년도 216명), 혼자 지내기(1차년도 446명, 2차년도 451명, 3차년도 440명), 취미 및 운동(1차년도 249명, 2차년도 220명, 3차년도 232명), 친구들과 어울리기(1차년도 390명, 2차년도 396명, 3차년도 397명)

표 IV-63 하루 생활시간¹⁰⁶⁾

(단위: 명, %, 시간)

항목	시기	N	해당자 비율	평일		휴일	
				M	SD	M	SD
1) 수면시간	1차년도	494		7.88	1.83	8.89	2.15
	2차년도	494		7.60	1.89	8.68	2.15
	3차년도	494		7.52	1.79	8.67	2.01
	F(대비)			7.575*** (ab, a)c)		2.274	
2) 학교나 대안학교에 머무는 시간	1차년도	494	50.0	5.48	2.83	1.01	2.33
	2차년도	494	42.3	6.35	3.18	0.83	2.04
	3차년도	494	42.9	6.85	3.07	0.91	2.43
3)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	1차년도	494	24.7	6.20	3.53	4.27	4.13
	2차년도	494	35.0	7.07	3.56	5.12	4.49
	3차년도	494	38.1	7.57	3.42	4.81	4.55
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1차년도	494	54.3	3.70	2.59	3.05	3.26
	2차년도	494	51.4	3.70	3.07	2.93	3.11
	3차년도	494	43.7	3.47	2.99	3.34	3.42
5) 혼자 지내는 시간	1차년도	494	90.3	4.53	3.28	4.94	3.33
	2차년도	494	91.3	4.11	2.89	4.56	2.99
	3차년도	494	89.1	3.84	2.67	4.53	2.96
6) 취미 및 운동하는 시간	1차년도	494	50.4	1.79	1.52	2.41	1.92
	2차년도	494	44.5	1.32	1.26	2.40	1.99
	3차년도	494	47.0	1.58	1.47	2.42	2.02
7)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1차년도	494	78.9	3.37	2.81	5.06	3.19
	2차년도	494	80.2	2.67	2.29	4.49	2.82
	3차년도	494	80.4	2.95	2.52	4.70	3.02
8) 그 외 여가시간(2차년도 추가)	1차년도						
	2차년도	494	17.0	2.23	2.00	2.67	2.31
	3차년도	494	25.9	2.51	2.29	2.62	2.3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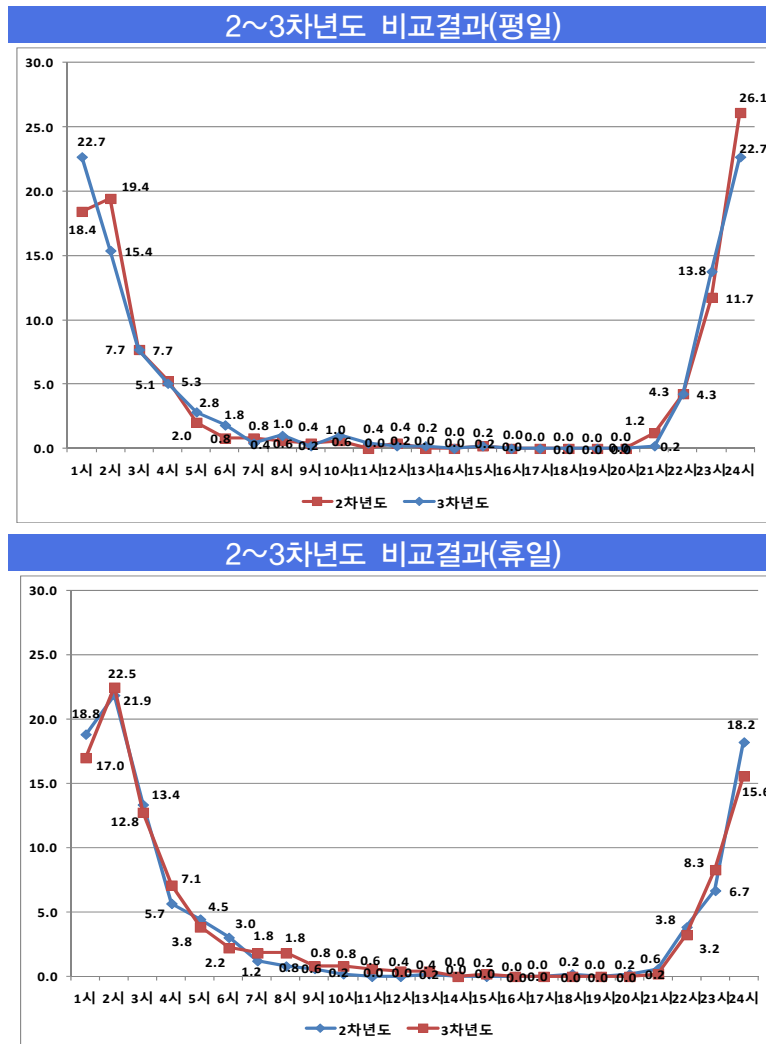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106) 비율은 각 항목별로 ②번 '해당 있음'에 응답한 결과임.

문 23-1. 취침 시각(2차년도 추가)

취침 시각에 대한 질문에
평일 '24~24시 59분(22.7%)'과 1시~1시 59분(22.7%),
휴일 '2시~2시 59분(22.5%)'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취침 시각에 대한 질문에, 평일 기준 '24시~24시 59분'과 '1시~1시 59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4시~24시 59분'라고 응답한 비율은 2차년도 26.1%, 3차년도 22.7%로 전년도 대비 3.4%p 감소하였으며, '1시~1시 59분'의 응답률은 2차년도 18.4%, 3차년도 22.7%로 전년도 대비 4.3%p 증가하였다. 한편, 휴일의 경우 '2시~2시 59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차년도 21.9%, 3차년도 22.5%로 전년도 대비 0.6%p 증가하였다.



【그림 IV-61】 취침 시각(N=494, 단위: %)

표 IV-64 취침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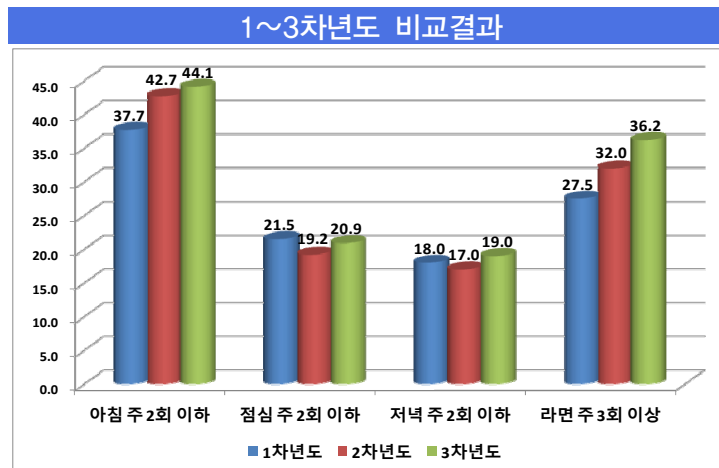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평일		휴일	
	2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사~1시 59분	91(18.4)	112(22.7)	93(18.8)	84(17.0)
2사~2시 59분	96(19.4)	76(15.4)	108(21.9)	111(22.5)
3사~3시 59분	38(7.7)	38(7.7)	66(13.4)	63(12.8)
4사~4시 59분	26(5.3)	25(5.1)	28(5.7)	35(7.1)
5사~5시 59분	10(2.0)	14(2.8)	22(4.5)	19(3.8)
6사~6시 59분	4(0.8)	9(1.8)	15(3.0)	11(2.2)
7사~7시 59분	4(0.8)	2(0.4)	6(1.2)	9(1.8)
8사~8시 59분	3(0.6)	5(1.0)	4(0.8)	9(1.8)
9사~9시 59분	2(0.4)	1(0.2)	3(0.6)	4(0.8)
10사~10시 59분	3(0.6)	5(1.0)	1(0.2)	4(0.8)
11사~11시 59분	0(0.0)	2(0.4)	0(0.0)	3(0.6)
12사~12시 59분	2(0.4)	1(0.2)	0(0.0)	2(0.4)
13사~13시 59분	0(0.0)	1(0.2)	1(0.2)	2(0.4)
14사~14시 59분	0(0.0)	0(0.0)	0(0.0)	0(0.0)
15사~15시 59분	1(0.2)	1(0.2)	0(0.0)	1(0.2)
16사~16시 59분	0(0.0)	0(0.0)	0(0.0)	0(0.0)
17사~17시 59분	0(0.0)	0(0.0)	0(0.0)	0(0.0)
18사~18시 59분	0(0.0)	0(0.0)	1(0.2)	0(0.0)
19사~19시 59분	0(0.0)	0(0.0)	0(0.0)	0(0.0)
20사~20시 59분	0(0.0)	0(0.0)	1(0.2)	2(0.4)
21사~21시 59분	6(1.2)	1(0.2)	3(0.6)	1(0.2)
22사~22시 59분	21(4.3)	21(4.3)	19(3.8)	16(3.2)
23사~23시 59분	58(11.8)	68(13.7)	33(6.7)	41(8.4)
24사~24시 59분	129(26.1)	112(22.7)	90(18.2)	77(15.6)
계	494(100.0)	494(100.0)	494(100.0)	494(100.0)

문 24. 식생활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해
‘아침 주 2회 이하(44.1%)’가 가장 많았고, ‘라면 주 3회 이상(36.2%)’의 응답률도 높았음

- 식생활(식습관 및 인스턴트식품 노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식습관에 있어서 ‘아침 주 2회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 37.7%, 2차년도 42.7%, 3차년도 44.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1.4%p 증가하였다. 또한, 인스턴트식품 노출의 측면을 다룬 ‘라면 주 3회 이상’의 응답률도 1차년도 27.5%, 2차년도 32.0%, 3차년도 36.2%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4.2%p 증가하였다.



【그림 IV-62】 식생활(N=494, 단위: %)

표 IV-65 식생활¹⁰⁷⁾

(N=49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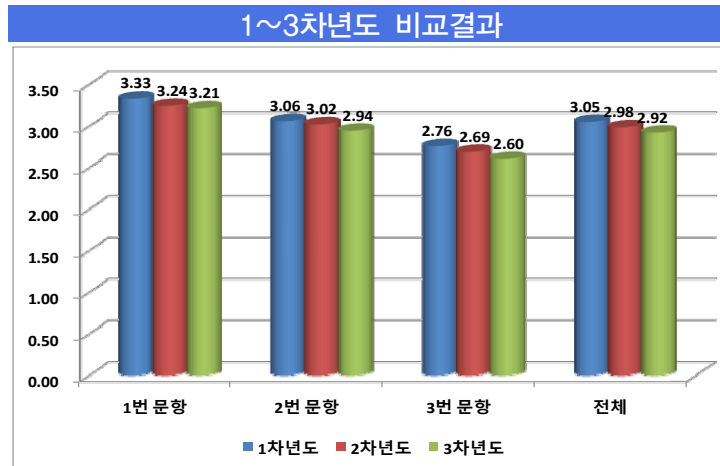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86	37.7	211	42.7	218	44.1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06	21.5	95	19.2	103	20.9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89	18.0	84	17.0	94	19.0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136	27.5	158	32.0	179	36.2

107) 사례수와 비율은 각 문항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결과임.

문 25. 가치관-학력에 대한 생각¹⁰⁸⁾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에서 ‘1번 문항(M=3.2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번 문항(M=2.94)’, ‘3번 문항(M=2.60)’의 순이었음

- 학력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1번 문항(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의 평균이 1차년도(M=3.33), 2차년도(M=3.24), 3차년도(M=3.2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번 문항(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와 ‘3번 문항(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의 평균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IV-63】 학력에 대한 생각(N=494, 단위: 점)

표 IV-66 학력에 대한 생각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3.33	3.24	3.21	5.494** (ab, a)c)
2)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3.06	3.02	2.94	4.759** (a)c, bc)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76	2.69	2.60	5.731** (a)c, bc)
전체	3.05	2.98	2.92	8.563*** (a)c, bc)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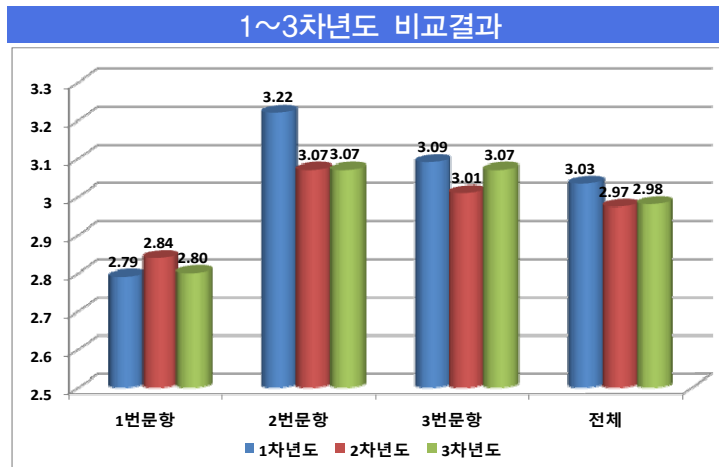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108)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문 26. 가치관-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¹⁰⁹⁾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별 평균은
'1번 문항(M=2.80)', '2번 문항(M=3.07)', '3번 문항(M=3.07)'으로 나타남**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3번 문항(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의 평균이 1차년도(M=3.09), 2차년도(M=3.01), 3차년도(M=3.07)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추세이다. 한편, '1번 문항(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의 평균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2번 문항(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의 평균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64】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N=348, 단위: 점)

표 IV-67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N=348¹¹⁰⁾, 단위: 점)

문항	평균			F (대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79	2.84	2.80	0.460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3.22	3.07	3.07	7.477*** (ab, a)c)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3.09	3.01	3.07	2.116
전체	3.03	2.97	2.98	1.587

*** $\alpha, 0.01$

*주: a=1차년도, b=2차년도, c=3차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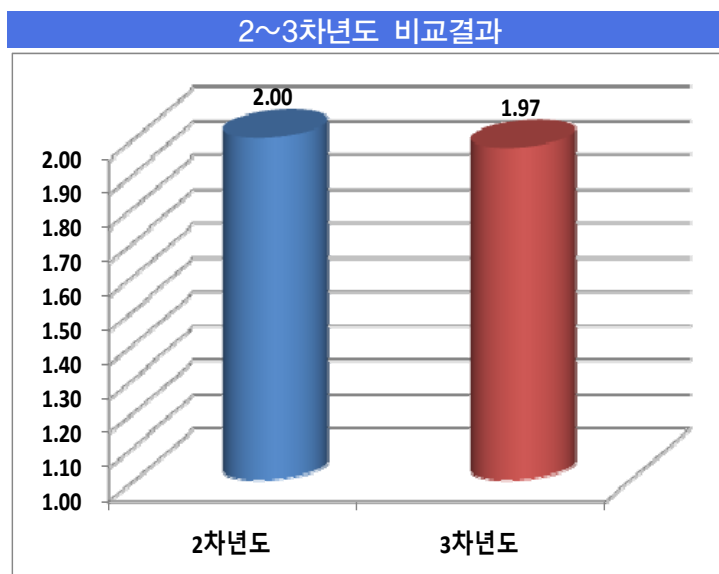
109) 문 26의 결과는 1차년도 조사 시 전체 응답한 경우,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 시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한 결과이며,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110) 기존의 N수와 평균[1차년도(N=494, 1번 문항 M=2.90, 2번 문항 M=3.26, 3번 문항 M=3.15, 전체 M=3.10), 2차년도(N=431, 문항 M=2.87, 2번 문항 M=3.10, 3번 문항 M=3.02, 전체 M=3.00), 3차년도(N=354, 1번 문항 M=2.81, 2번 문항 M=3.08, 3번 문항 M=3.08, 전체 M=2.99)]이 분석 시 조절되었음.

문 27. 사회적 낙인감¹¹¹⁾(2차년도 추가)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평균이 $M=1.97$ 로 나타남

-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이 2차년도($M=2.00$), 3차년도($M=1.97$)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65】 사회적 낙인감($N=493$, 단위: 점)

표 IV-68 사회적 낙인감

($N=493^{112}$), 단위: 점)

구분	$M(SD)$		t
	2차년도	3차년도	
사회적 낙인감	2.00(0.43)	1.97(0.44)	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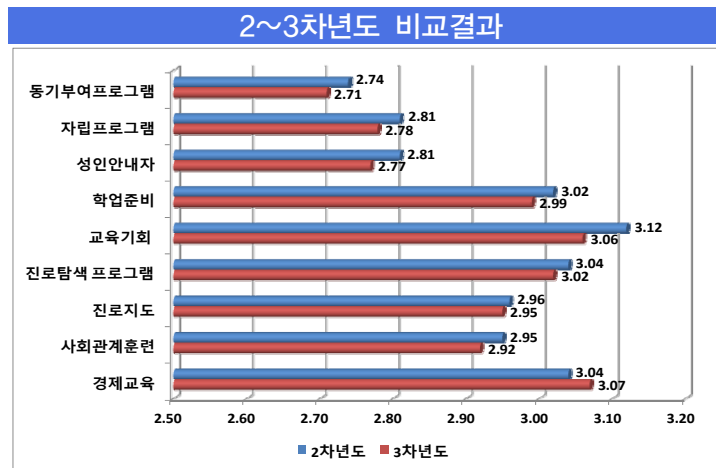
111)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112) N수는 2차년도 무응답자(1명)

문 28.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¹¹³⁾(2차년도 추가)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평균에서 ‘경제교육(M=3.0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기회(M=3.06)’, ‘진로탐색 프로그램(M=3.02)’, ‘학업준비(M=2.99)’의 순이었음.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의 평균이 2차년도(M=3.04), 3차년도(M=3.07)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그 외 문항의 평균은 전년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66】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N=494, 단위: 점)

표 IV-69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t
	2차년도	3차년도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74	2.71	0.958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2.81	2.78	0.580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2.81	2.77	0.811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3.02	2.99	0.794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나 한다	3.12	3.06	1.313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04	3.02	0.497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96	2.95	0.346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2.95	2.92	0.565
9)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3.04	3.07	-0.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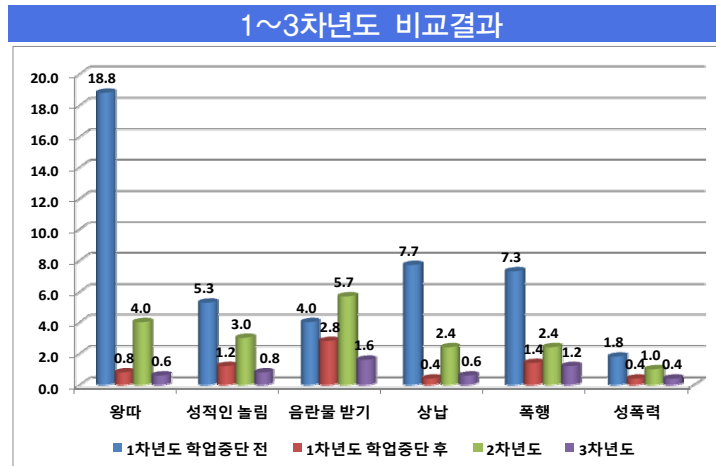
113) 문항은 4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었음.

6) 행동 경험

문 29. 문제행동 피해경험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음란물 받기(1.6%)’가 가장 많았고, ‘폭행(1.2%)’, ‘성적인 놀림(0.8%)’, ‘왕따(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대해, 학업중단 전에는 따돌림이 18.8%로 가장 높았으며, 상납(7.7%), 폭행(7.3%)순이었으며, 중단 후에는 ‘음란물 받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단 전 4.0%, 1차년도 2.8%, 2차년도 5.7%, 3차년도 1.6%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41%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폭행’이나 ‘왕따’ 등 전 문항에 걸쳐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V-67】 문제행동 피해경험(N=494, 단위: %)

표 IV-70 문제행동 피해경험¹¹⁴⁾

(N=49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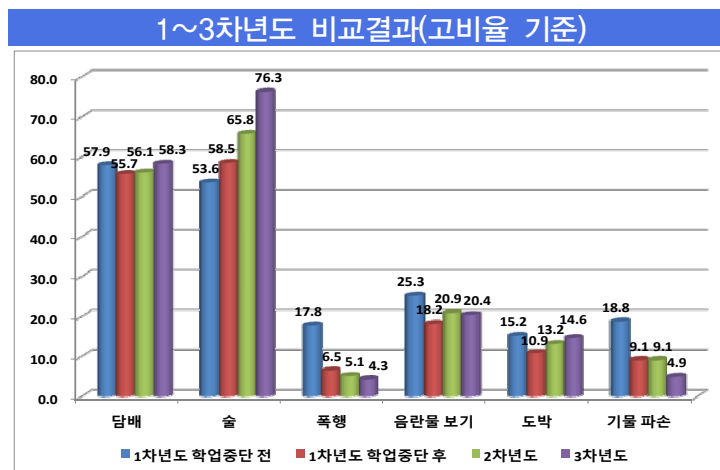
문 항	1차년도 ¹¹⁵⁾				2차년도		3차년도	
	학업중단 전		학업중단 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93	18.8	4	0.8	20	4.0	3	0.6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26	5.3	6	1.2	15	3.0	4	0.8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20	4.0	14	2.8	28	5.7	8	1.6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38	7.7	2	0.4	12	2.4	3	0.6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36	7.3	7	1.4	12	2.4	6	1.2
6) 성폭력 당하기	9	1.8	2	0.4	5	1.0	2	0.4

114)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피해경험이 ②번 '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문 30. 비행경험

비행경험에 대해 ‘술(76.3%)’이 가장 많았고, ‘담배(58.3%)’, ‘음란물 보기(20.4%)’, ‘도박(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행경험에 대해, ‘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단 전 53.6%, 1차년도 58.5%, 2차년도 65.8%, 3차년도 76.3%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년도 대비 10.5%p 증가하였다. 반면, ‘기물 파손’의 경우 중단 전 18.8%, 1차년도 9.1%, 2차년도 9.1%, 3차년도 4.9%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4.2%p 감소하였다.



【그림 IV-68】 비행경험(N=494, 단위: %)

표 IV-71 비행경험¹¹⁶⁾

(N=494, 단위: 명, %)

문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학업중단 전		학업중단 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 담배 피우기	286	57.9	275	55.7	277	56.1	288	58.3
2) 술 마시기	265	53.6	289	58.5	325	65.8	377	76.3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76	15.4	24	4.9	18	3.6	11	2.2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88	17.8	32	6.5	25	5.1	21	4.3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78	15.8	26	5.3	14	2.8	7	1.4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125	25.3	90	18.2	103	20.9	101	20.4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75	15.2	54	10.9	65	13.2	72	14.6
8) 자살 시도	75	15.2	35	7.1	11	2.2	13	2.6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93	18.8	45	9.1	45	9.1	24	4.9
10) 약물(본드) 흡입(2차년도 추가)					4	0.8	3	0.6

115) 문29~문30의 1차년도 결과의 경우 학업 중단 전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 조사시점까지의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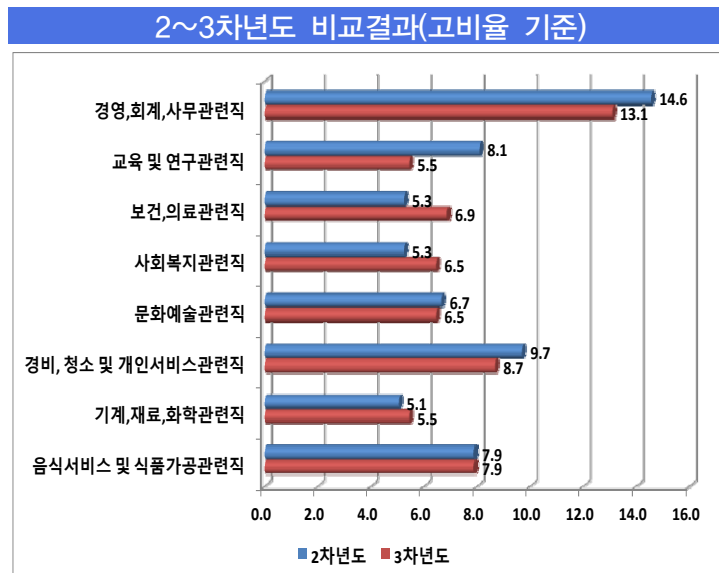
116)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가해경험이 ②번 '있다'에 응답한 결과임.

7) 배경요인¹¹⁷⁾

문 35. 장래 희망(2차년도 추가)¹¹⁸⁾

**장래 희망에 대해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13.1%)’이 가장 많았고,
‘개인서비스 관련직(8.7%)’, ‘음식서비스 및 식품가공관련직(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래 희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 14.6%, 3차년도 13.1%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15%p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 의료관련직’과 ‘사회복지 관련직’,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아직 미정이거나 무응답의 경우는 2차 및 3차 모두 18.1%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IV-69】 장래 희망(N=494, 단위: %)

117) 문 31~문 34(문 31. 가족구성, 문 32. 이사경험, 문 33. 경제적 수준, 문 34. 건강상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로 다루었음으로 제외되었음.

118) 해당 문항은 고용직업분류를 바탕으로 제작된 ‘2015년 한국직업전망보고서’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용직업분류에 포함되어있는 ‘군인’을 추가로 분류기준에 포함하였음.

표 IV-72 장래 희망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3차년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72	14.6	65	13.1
금융, 보험관련직	1	0.2	6	1.2
교육 및 연구관련직	40	8.1	27	5.5
법률, 경찰, 소방관련직	25	5.1	22	4.5
보건, 의료관련직	26	5.3	34	6.9
사회복지관련직	26	5.3	32	6.5
문화예술관련직	33	6.7	32	6.5
디자인 및 방송관련직	23	4.7	22	4.5
운전 및 운송관련직	3	0.6	2	0.4
영업 및 판매관련직	8	1.6	4	0.8
경비, 청소 및 개인서비스관련직	48	9.7	43	8.7
건설관련직	3	0.6	8	1.6
기계, 재료, 화학관련직	25	5.1	27	5.5
전기전자, 정보통신관련직	18	3.6	22	4.5
음식서비스 및 식품가공관련직	39	7.9	39	7.9
섬유, 환경 및 공예관련직	0	0.0	2	0.4
농림어업관련직	3	0.6	4	0.8
군인	11	2.2	13	2.6
미정/무응답	90	18.1	90	18.1
계	494	100.0	494	100.0

3. 소결

이 절에서는 총 3개년에 걸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 영역은 크게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학업중단관련 실태에 관한 것으로 학업중단 후 현재 신분상태, 학업중단 후 복교 실태, 학업 재중단 및 학업 재중단 시 지원 실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조사영역은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과 인식에 대한 것으로 학업 중단 후 생활실태, 대안학교나 직업훈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보호관찰 경험, 동아리 활동 경험, 진로활동 및 계획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조사영역에서는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에 관한 내용과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 조사영역에서는 부모·친구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섯 번째 조사영역에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역에서는 비행행동 경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조사영역에 중 현재 신분 상태에 대한 문항에서는 3차년도에 접어든 패널 조사의 특성상 대학에 진학한 상태가 조사대상자 494명 중 135명(27.3%)에 이르러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학교를 그만 둔 상태는 267명(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 중 과반수이상(267명 중 150명)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학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정규학교 졸업이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은 61.5%(304명)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청소년을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70% 이상¹¹⁹⁾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교시기와 관련해서는 3차년도(18명)보다는 2차년도(65명)가 더 많았으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교 이유는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복교는 종전학교보다는 다른 학교로 복교한 비율이 3배가량 더 많았으며, 그 이유는 1차년도에는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로 옮기기 위해서”, “종전학교의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2차년도 이상에서는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재중단 경험의 비율은 많이 나타나지는

119) 이탈 패널을 포함하면 이 보다는 수치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않았고(2차년도, 28%, 3차년도, 40%), 재중단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재중단 사유는 1차년도 기준으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부하기 싫어서” 등 학교 적응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다. 또한 학업 재중단시 필요했던 도움은 진로상담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영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과 관련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응답률이 해가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에 다닌다는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다”에 응답한 비율은 1차년도에 63.2%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여 3차년도의 응답률은 43.1%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경향을 볼 때, 학업중단 후 해가 지날수록 점차 학업이나 취업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굳혀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3차년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3차년도에 대학진학이 크게 증가한 결과와 반비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인가 대안학교(22.2%)보다 미인가 대안학교(72.2%)에 다닌다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 검정고시 준비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2차년도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3차년도에는 “혼자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37.5%)과 자비 부담 프로그램(32.1%)에 참여하는 비율이 지역사회 기관 운영 프로그램(12.5%)과 정부지원 프로그램(16.1%)보다 더 많았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91.1%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88명(38.1%)으로 1차년도 111명(22.5%), 2차년도 170명(34.4%)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주로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카페 및 게임 방 등에서 서빙이나 카운터 혹은 배달을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당 근로일수(4.92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4.97일)하였고, 일일 근로시간 역시 조사회수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였다(1차년도 하루 약 7.46, 2차년도 8.11, 3차년도 8.47시간). 그리고 시급의 경우 2015년도 최저시급 5,580원에 비해 많은 평균 6,233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또는 취업)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둔 경험”은 응답자 296명 중 대다수인 286명(96.5%)이 3회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그만둔 이유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24.4%)”, “육체적으로 힘들어서(18.8%)”,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4.3%로 전년도(26.9%)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고, 동아리 유형은 인터넷 포털 등 사이버 동아리가 47.6%,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동아리(30.8%)가 다음으로 많았다. 동아리 참여 이유는 “재미나 흥미” 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정보나 자아개발”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대체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해 나가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보 탐색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다(80.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검색(68.2%)이 뒤를 이었다.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진학이나 학업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65.0%)나 2차년도(68.1%)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 청소년들이 상당수 대학 진학을 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그리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겠다는 비율은 조사회차가 진행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도 21.1%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 이들에 대한 진로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향후 진로계획 달성 예측에 대해서는 1차년도와 3차년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해가 거듭할수록 현실의 벽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예컨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이 두렵다” 혹은 “소속된 곳이 없어 불안하다” 등의 비율은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학업 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조사영역인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는 연차별 차이가 없었고, 자아탄력성은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가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충동성도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심리적 변화의 한 측면이라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게임중독과 관련된 문항도 1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스마트폰 중독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조사영역인 부모·친구관계 등에 대한 결과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방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학대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바, 이러한 결과 역시 연령 증가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친한 친구의 수, 학업중단한 친구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비행성향 역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당시의 친구영향력은 해가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시간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 생활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아르바이트 및 일(7.57 시간)과 학교 및 대안학교(6.85 시간)가 가장 높았고, 휴일에도 역시 아르바이트 및 일(4.81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4.70시간), 혼자자내기(4.53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침시각의 경우 평일기준으로 새벽 1시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휴일의 경우는 새벽 2시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치관과 관련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차별을 받는다” 등 학력주의에 대한 생각은 차수가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주의에 대한 의식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1차년도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행행동 경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전과 비교해 볼 때, 따돌림, 성(性)적 놀림, 음란물 받기, 폭행,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기기 등의 피해 경험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비행경험의 경우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몇 가지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담배피우기와 술 마시기는 증가하였고, 음란물 보거나 돈내기 도박 등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제 V 장

학업중단 청소년 심층 분석

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와 관련변인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양상 비교

제 V 장 학업중단 청소년 심층 분석*

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와 관련변인¹²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삶의 경로 변화와 관련 변인들의 탐색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김강호, 2015: 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중·고등학생 600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200명에 대한 패널을 구축하여 2013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김강호, 2015: 3), 2015년까지 총 3차년의 조사를 실시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1차 조사 시, 당초 계획된 패널(800명)에 대한 표본 수정을 거쳐 총 99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일반청소년은 776명, 보호관찰 청소년은 220명이 최종 조사되었다(김강호, 2015: 3).

이 중 최종 3차년도까지 모두 패널에 참여한 일반청소년은 494명이며, 비행청소년은 167명이다. 또한 일반청소년의 패널 수집방법별로 살펴보면 학교와 상담복지기관 등을 통해 개인 명부를 확보하여 수집된 청소년은 370명, 그리고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 기관을 통해 수집된 청소년은 124명이다.

이 장에서는 최종 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학업중단 이후 지금까지의 생활경험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어떠한 경험경로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들은 학업중단 시기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후 경험사건의 패턴을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시점에 최초 학업을 중단한 이후의 경험들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1, 2, 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조사시점에 학업을 처음 중단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청소년은 총 333명이었다.

* 이 장의 1절은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2절은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121) 이 부분은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

(1) 연구방법¹²²⁾

가) 분석대상

본 장에서 사용한 자료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 2, 3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일반청소년 494명의 자료 중 1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처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며, 2012년 6월 이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333명이다. 왜냐하면, 1차년도 조사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경험사건들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2012년 7월 직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그들의 경험사건 변화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7월 시점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으나, 경험사건을 묻는 조사문항은 개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2012년 6월 말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있다면, 이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의 여러 경험사건들의 경로를 파악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시점이 년도와 월로 조사되기 때문에 해당 월의 몇째 주에 학업을 중단하였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2012년 7월 시점 이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7월 말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2012년 6월 초에 학업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1개월간의 사건은 학업중단 이후 전체 경험사건 경로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2012년 6월 시점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나) 경험사건 변수구성

학업중단 이후 경험사건들은 개월별로 총 16가지의 경험사건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해당 월에 경험한 사건들 중 16개의 사건에 해당하는 모든 경험들을 중복 응답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차년도 조사의 경우에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경험사건들을 월별로 조사하였다. 다만, 1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보완을 위해 두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경험사건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122) 분석방법은 본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Ⅱ 데이터 분석 세미나’에서 김강호(2015.07.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와 경로별 분포」의 p.4-8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함.

경험사건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3차년도 조사에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경험사건들이 월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차년도 조사 응답자 중 두 번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2차년도 조사에서 2013년 7, 8, 9월의 경험사건이 중복적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에는 최근의 경험사건 인지가 보다 객관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2차년도 조사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윤철경 외, 2014). 반대로 이들의 경우에는 2012년 7, 8, 9월의 경험사건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들 해당 월의 경험사건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패널들은 2012년 7월 혹은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월을 단위로 하는 일련의 시계열적 경험사건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3년간의 패널 자료이나, 경험사건 경로의 패턴(유형)을 파악하는 분석에서는 횡단면 자료로 경험사건들이 구성된다. 각 월별 경험사건 분류는 학업중단 후 경험들은 윤철경 외(2013)가 정한 분류방식을 취했다. 다만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분류를 위한 집단으로서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월 단위의 경험사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어의 표현상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등의 분류된 유형의 이름보다는 학업, 직업, 무업, 비행 등의 경험사건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의 학업중단 후 경험사건은 ①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② 대안학교에 다님, ③ 검정고시 공부를 함(학원 등), ④ 직업기술을 배움, 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⑦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⑧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⑨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⑩ 대학입시 공부를 함, ⑪ 대학에 다님, ⑫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패와 함께 생활함, ⑬ 보호시설에서 지냄, ⑭ 보호관찰을 받음, ⑮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⑯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김강호, 2015: 5). 이들 경험사건 항목 중 ⑩, ⑪, ⑯은 1차년도 조사에서는 없었지만, 2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김강호, 2015: 5).

①, ②, ③, ⑩, ⑪은 학업 경험 사건을 나타내며, ④와 ⑤는 직업경험 사건을, ⑥은 무업 경험사건을, ⑫부터 ⑮는 비행경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기존 패널조사의 청소년 유형분류의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김강호, 2015: 5). 다만, 이러한 경험들은 한 개인이 같은 시점(월)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윤철경 외(2013)의 이행경로 분류 방식에 따라 5개 유형을 사용하였다(김강호, 2015: 5).

표 V-1 학업중단 후 경험사건의 분류(월 기준)¹²³⁾

경험사건	해당경험
① 학업	학업 학업+직업, 학업+니트
② 직업	직업 직업+니트
③ 무업	니트
④ 비행	비행, 비행+다른 한 개 유형 비행+다른 두 개 유형, 비행+다른 세 개 유형
⑤ 혼재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¹⁾ 학업+직업+니트

*주 : 4개 유형에 모두 해당이 없는 경우는 학업, 직업, 무업, 비행 경험은 없으나, ⑦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⑧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⑨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중 최소 1개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다) 분석방법

이행경로 분석에 활용한 방법은 시퀀스 분석(sequences analysis) 방법이다. 시퀀스 분석방법은 시계열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경험들의 배열에 대한 (비)유사성((dis)similarities)을 도출하는 방법이다(김강호, 2015: 7-8). 즉, 각 사례의 경험사건 배열을 쌍으로 비교하거나 기준이 되는 사건배열에 대한 유사성을 계량적 수치(거리값)로 산출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거리값을 바탕으로 경험사건의 배열에 대한 군집화가 가능하다(김강호, 2015: 7-8).

군집분석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계층적 분석방법과 비계층적 분석방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계층적 분석방법은 사전에 적정 군집수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지만, 비계층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은 계층적 분석방법에 비해 국부적 척도(local criterion)뿐만 아니라 전역적 척도(global criterion) 모두를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PAM 알고리즘은 k-medoids 알고리즘으로 불리우며 k-means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k-means 기법¹²⁴⁾은 극도로 큰 값(혹은 작은 값)이 자료의 분포를 사실상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에

123) 김강호(2015) p.9의 <표 2>를 참조함

124) k-means 군집은 가장 가까운 평균을 가진 군집에 속해 있는 각각의 관측치만에 n개의 관측치들을 k개의 군집으로 분할하려는 목적을 가진 군집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k-means 알고리즘(McQueen, 1967)은 주어진 자료에 안에서 군집을 확인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각의 관측치들이 d차원의 실제 벡터인 관측치들($x_1, x_2, \dots, x_n$)이 주어졌을 경우, k-means 군집은 n개의 관측치들을 k개의 집합($C_1, C_2, \dots, C_k$)으로 분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군집간 제곱합을 식 (1)

민감하다. 이를 위해 군집에서 객체들의 평균값을 취하는 대신에 군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객체인 medoid를 사용할 수 있다. k-medoids 군집화 알고리즘의 기초적인 방법은 각 군집에서 대표 객체(medoids)를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n 개의 객체 중에서 k 개의 군집을 찾는 것이다. 남은 각각의 객체는 가장 비슷한 medoids에 군집된다. 이러한 산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ep 1. n 개의 객체 중 대표 객체(medoids)를 k 개 지정한다. ($n > k$)

Step 2. k 개의 medoids를 지정 후, 나머지 객체를 유사성이 가장 높은 medoid에 배속한다. 여기서 유사성은 거리측도를 활용한다.

Step 3. medoid가 아닌 다른 객체를 임의로 지정한다.

Step 4. 본래의 medoid와 임의의 medoid간의 총 거리측도 합을 계산한다.

Step 5. 만약 총 거리측도 합이 음수인 경우, 임의의 medoid를 기존의 medoid와 교체한다.

Step 6. 변화가 없을 때까지 Step2-Step5를 반복한다.

하지만, 비계층적 군집분석방법인 PAM 알고리즘은 1단계에서 이뤄지는 대표객체(medoids)의 선정에 의해 최적화된 군집 분류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대표객체가 잘못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적화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Studer, 2013).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 procedure)에 의한 결과를 PAM 알고리즘의 대표객체를 선정하는 초기값으로 활용하였다.

(2)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및 분포

(가) 적정군집수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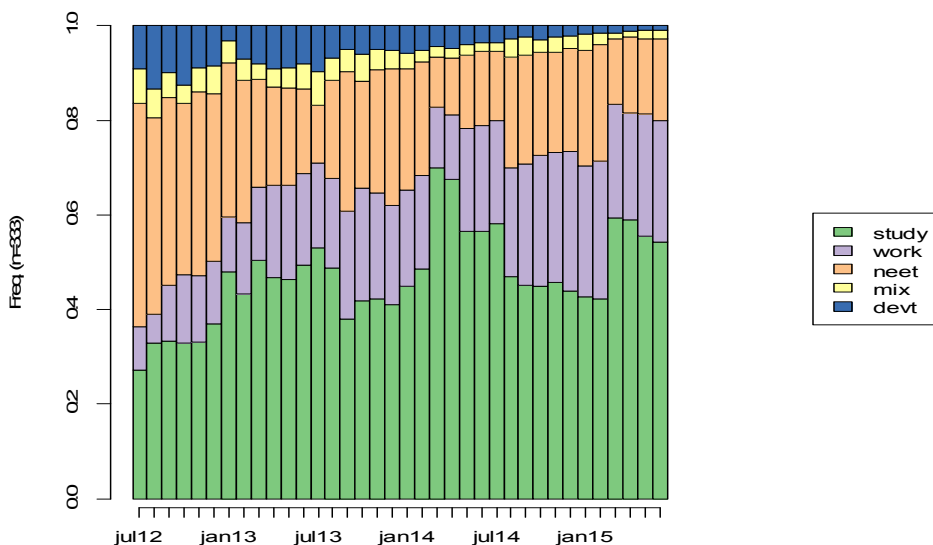
2012년 6월 이후 학업을 중단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중 1, 2, 3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를 나타낸다. 특기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혼재형 경험사건은 학업중단 시점 이후 그 분포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학업형 경험사건은 매해 학년 초인 3월경에 다른 시점에 비해 그 분포가 많아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경험사건의 배열을 가진 패널들이 지닌 경험사건의 패턴을 파악하여 상호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사례끼리 묶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정 군집수의 결정은 PAM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지표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V-1】에 제시된 4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PBC(Point Biserial Correlation)는

과 같이 최소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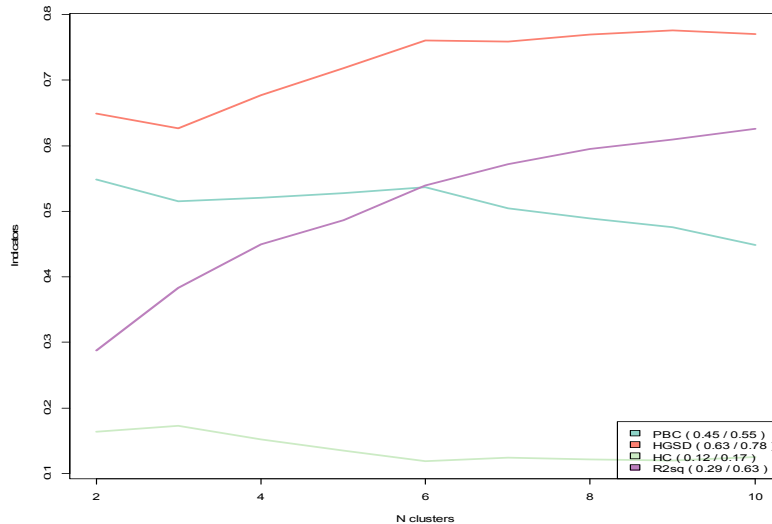
거리(distance)를 재계산하는 집단분류의 수용량(capacity of the clustering)을 측정한 값으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최댓값을 가지는 군집수가 적정 군집수가 된다. HGSD(Hubert's Somers' D)는 유사거리 내에 객체들을 묶기 위해 사용되는 거리를 크기순으로 재계산하기 위한 집단분류의 수용량을 측정한 값으로 이 역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최댓값을 가지는 군집수가 적정군집수가 된다. HC(Hubert's C)는 집단의 수와 거리값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집단분류와 자료에서 얻어진 집단분류간의 차이(gap)를 나타내는 값으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최솟값이 적정 군집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R2seq(Pseudo R2)는 군집해(clustering solution)에 의해 설명되는 불일치(discrepancy)의 비율을 의미하며, 거리값(distance)의 제곱을 사용한다. 이 역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나, 최댓값이 적정 군집수가 된다. 적정 군집수 판단에 필요한 군집수의 범위를 2부터 10까지 지정한 후 위의 4가지 지표값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 군집수를 판단하였다.



【그림 V-1】 시계열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333명)

【그림 V-2】에서 보면 군집수가 6일 때 HGSD가 최대치로 높아지고 그 이후의 군집수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BC의 경우 군집수가 2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이나 그 이후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군집수 6 이후에는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HC의 경우 군집수 6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약간 높아진 값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2sq의 경우에는 군집수가 많아질수록 높은 값을 가지나, 군집수 6 이후에는 그 증가폭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 값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는 적정 군집수는 6개로 정하였다.



【그림 V-2】 군집수에 따른 주요 지표값의 변화

분석에 활용된 333명의 일반청소년 패널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V-2>와 같다. 학업지속형 청소년이 가장 많은 102명(30.6%)이었고, 다음으로 학업복귀형 청소년은 66명(19.8%)이었다.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49명(14.7%)로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학업에서 직업으로 전환한 청소년은 59명(17.7%)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에는 학업형 경험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업형과 비행경험형 청소년은 각각 37명(11.1%), 20명(6.0%)로 비중이 낮았다.

표 V-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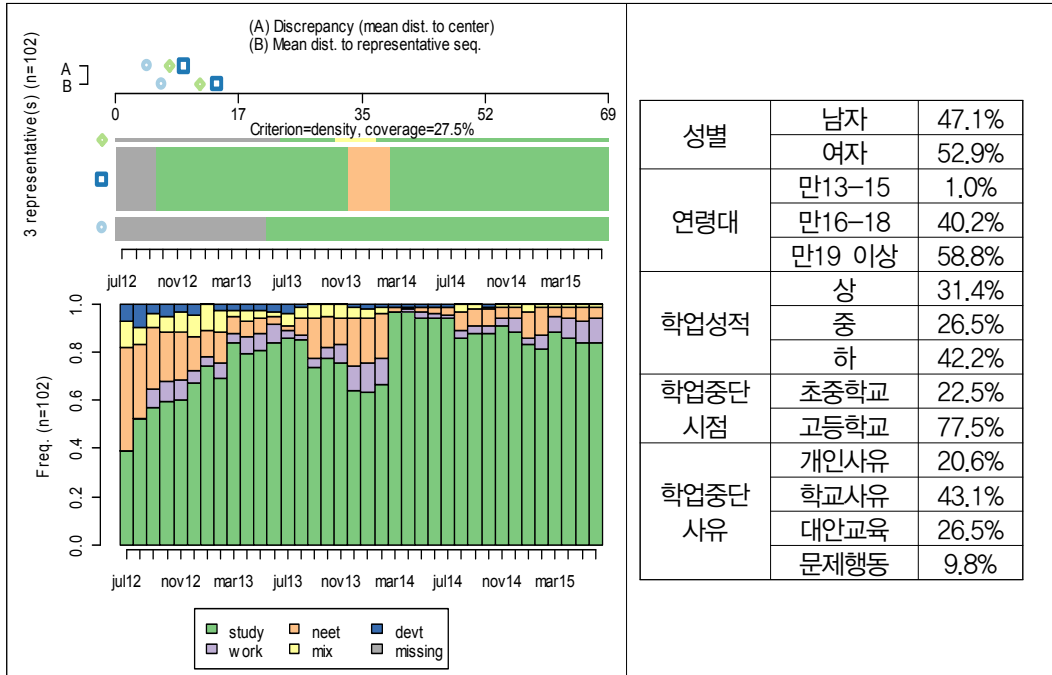
	빈도	%	대표객체(medoids)의 경험사건 배열
학업지속형	102	30.6	NA/7-학업/29
학업복귀형	66	19.8	NA/7-혼재/1-NA/3-무업/8-직업/1-학업/16
직업형	49	14.7	NA/8-직업/14-학업/1-직업/9-학업/4
학업-직업전환형	59	17.7	NA/9-무업/1-학업/12-직업/10-학업/4
무업형	37	11.1	NA/9-무업/3-직업/1-무업/9-직업/1-무업/13
비행경험형	20	6.0	NA/10-devt/4-무업/1-devt/13-무업/5-학업/3
	333	100.0	

(나) 유형별 특징

① 학업지속형

학업지속형 청소년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보면 학업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학업관련 경험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보면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에 무업형 경험사건을 3개월가량 경험하기도 하지만, 경험사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학업형 경험을 해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월별 경험사건의 분포역시 학업중단 직후에는 무업형 경험을 겪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다소 높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형 경험들의 분포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학령기 이후(만19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업중단 시기의 학교성적은 하위권이었던 경우가 42.2%로 가장 많은 편이었으나, 상위권에 속했던 청소년도 31.4%로 많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시점은 고등학교 시기가 많았고,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사유가 43.1%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안교육을 원해서인 경우가 26.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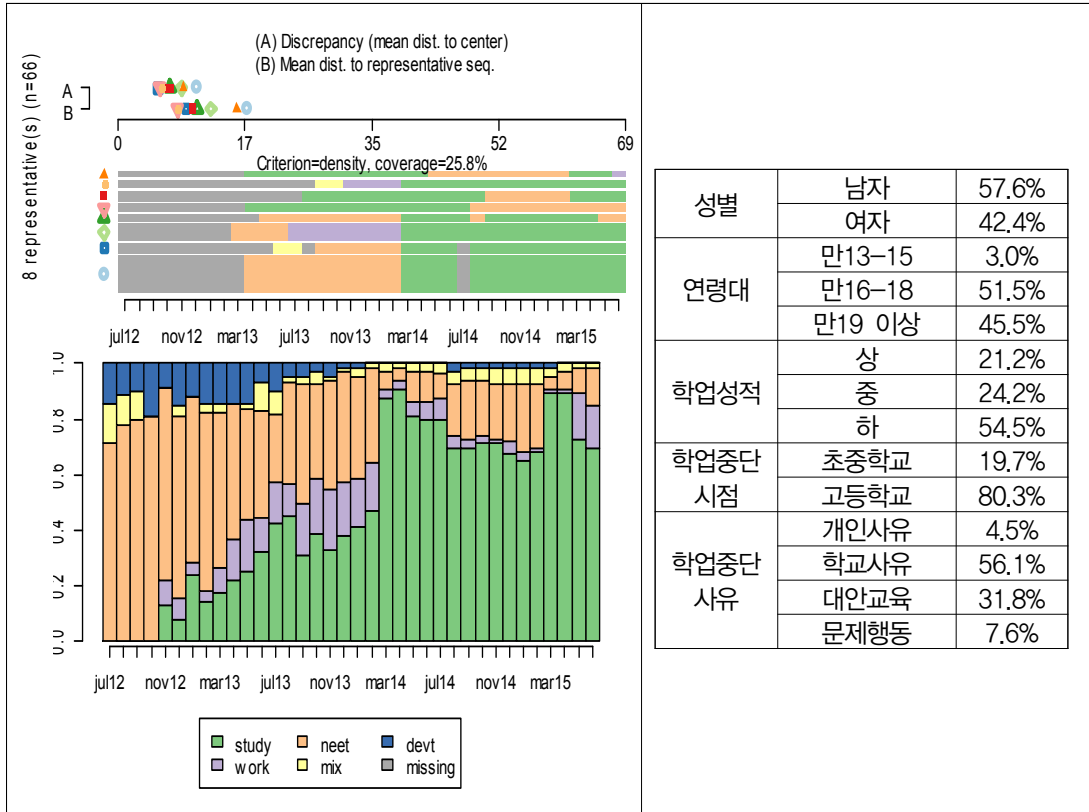


【그림 V-3】 학업지속형 청소년들의 특징

② 학업복귀형

학업복귀형 청소년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보면 학업중단 이후 무업형 경험사건 혹은 직업형 경험사건을 일정기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형 경험들을 많이 겪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분포에서도 학업중단 직후에는 무업형 경험들의 비중이 많다가 2014년 3월 이후에는 학업형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많은 비중을 보였고, 연령대는 고등학교 학령기(만16-18세)에 속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 시기의 학교성적은 하위권인 청소년들이 54.5%로 많은 편이었고, 학업중단 시점은 고등학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에 대한 불만족인 경우가 56.1%로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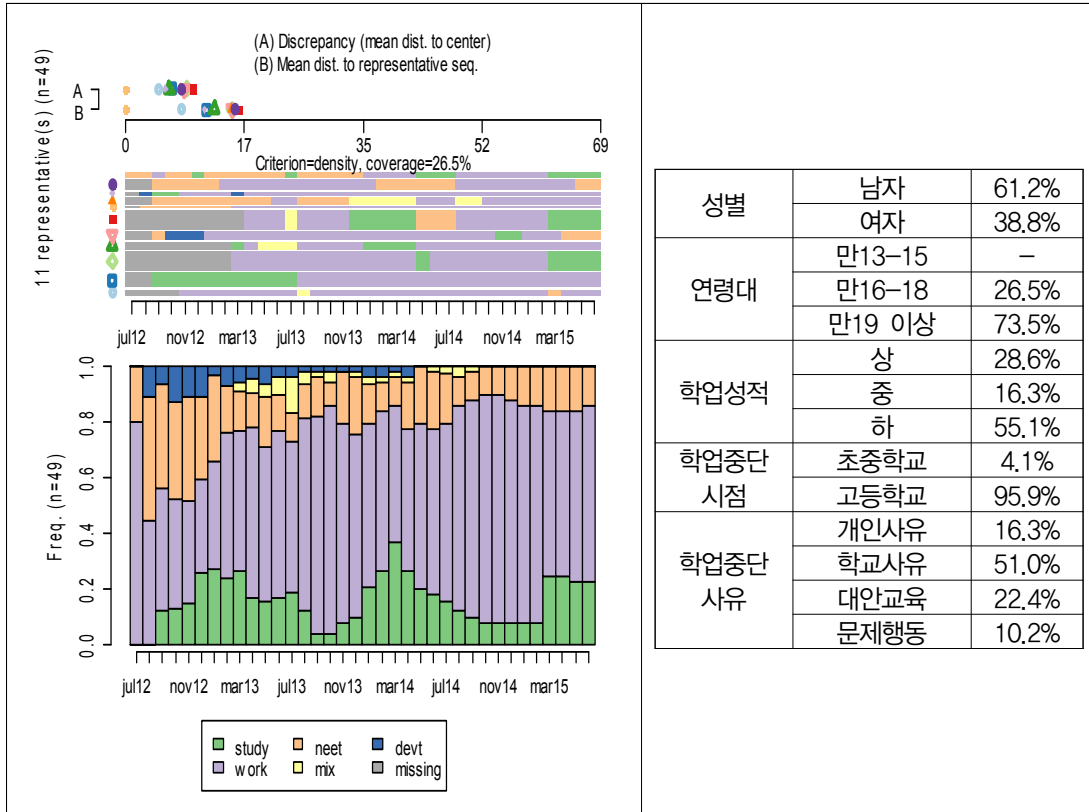


【그림 V-4】 학업복귀형 청소년들의 특징

③ 직업형

직업형 청소년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보면 학업종단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직업형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단 이후 경험사건의 분포에서도 일정 시기에 학업 혹은 무업형 경험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시점이 있으나, 대체로 직업형 경험사건 비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경우 여자보다는 남자의 비율이 2배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연령대에서는 중학교 학령기(만13-15세)에 속하는 청소년은 없었으며, 대다수가 학령기 이후(만19세 이상)인 청소년들이었다. 학업종단 시기의 학업성적은 55.1%가 하위권에 속했으나, 상위권에 속했던 청소년도 28.6%를 차지하였다. 학업종단 사유로는 학교문제가 51.0%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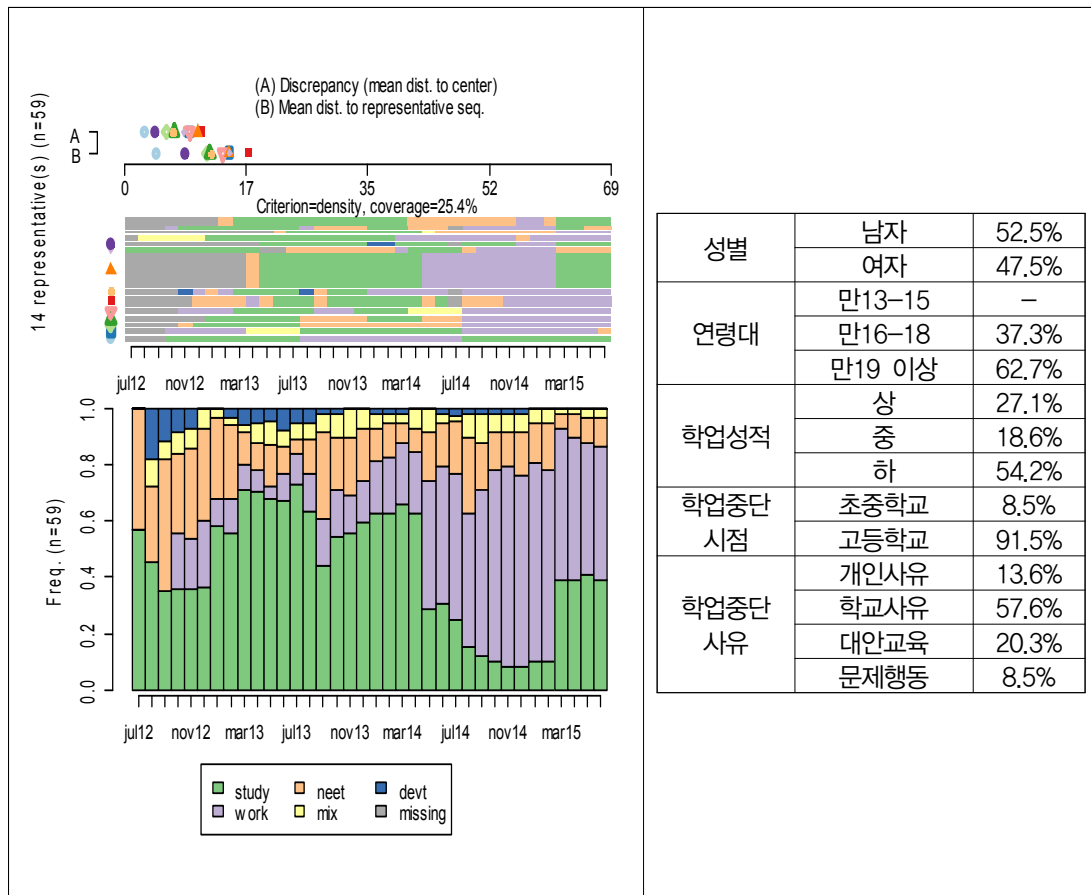


【그림 V-5】 직업형 청소년들의 특징

④ 학업-직업전환형

학업-직업전환형 청소년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보면 학업중단 이후 일정기간은 학업형 경험사건을 겪다가 그 이후에는 직업형 경험을 겪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학업형 경험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개인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다소 많았고, 연령대는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으나, 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도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시기의 학교성적 역시 직업형 청소년들과 유사하게 하위권이었던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으나, 상위권이었던 청소년도 27.1%로 많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사유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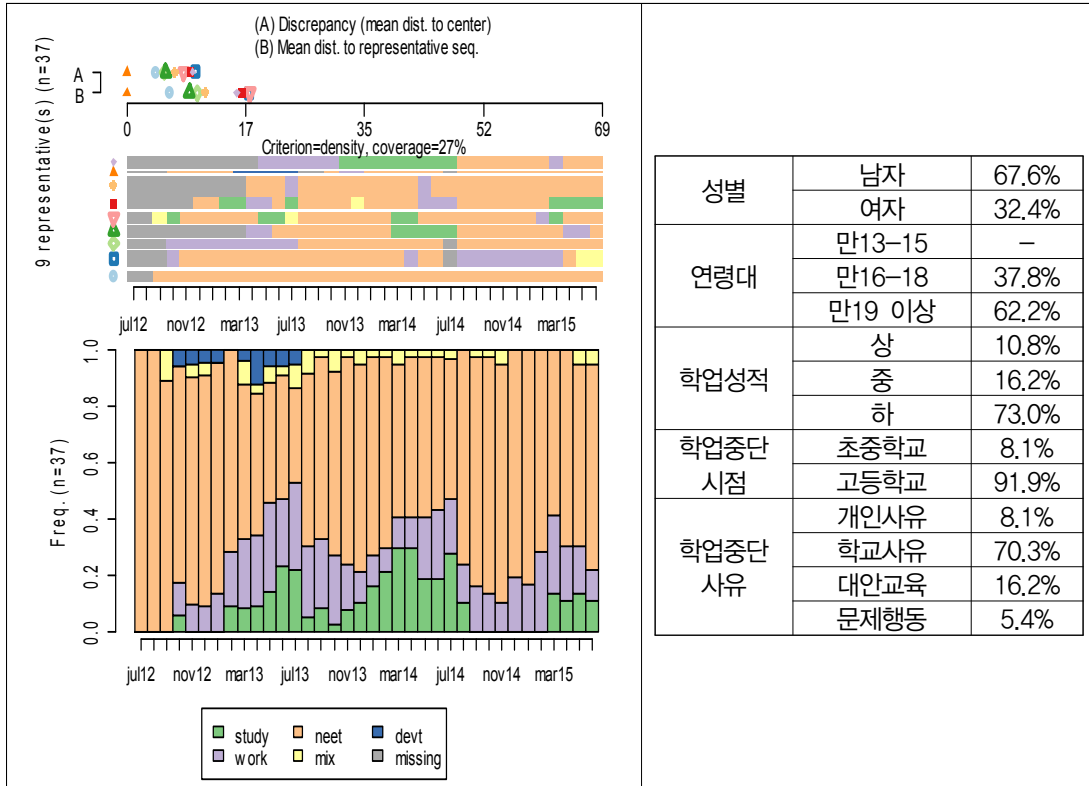


【그림 V-6】 학업-직업전환형 청소년들의 특징

⑤ 무업형

무업형 청소년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살펴보면 간헐적으로 학업 혹은 직업, 또는 혼재형 경험을 겪기도 하였으나, 학업중단 후 기간의 대부분을 무업형 경험사건을 겪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험사건의 분포에서도 전반적으로 무업형 경험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자에 비해 남자가 약 2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연령대는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학업중단 시기의 학교성적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하위권에 속했던 청소년의 비중이 54.2%로 가장 많았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무업형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였다는 점이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학교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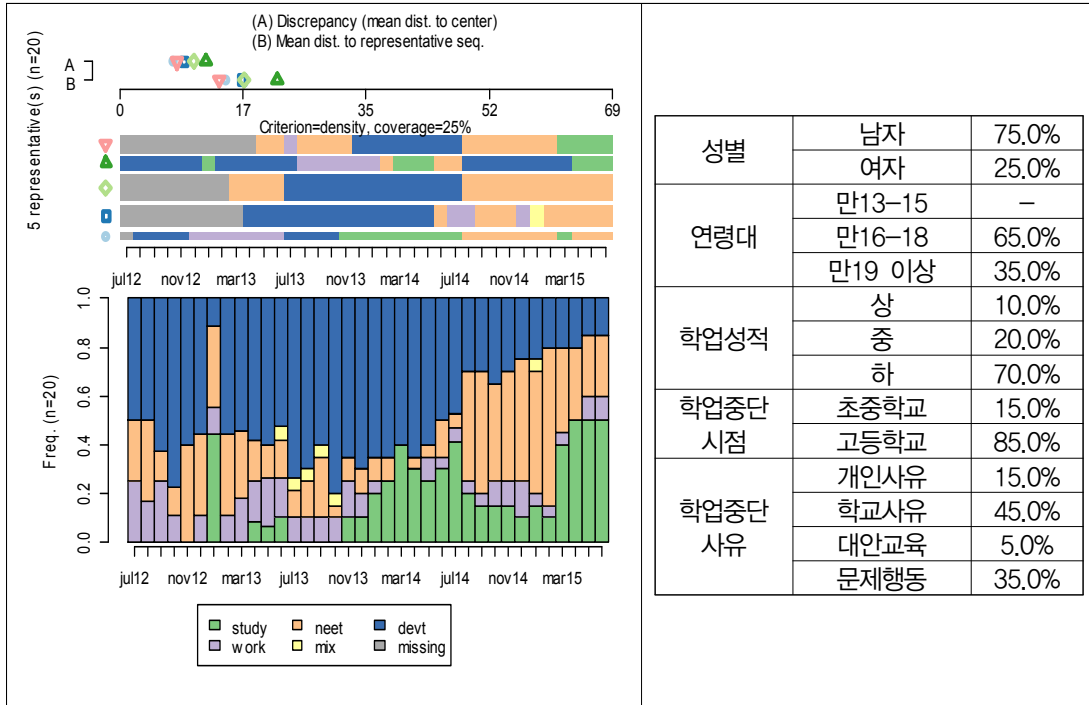


【그림 V-7】 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징

⑥ 비행경험형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직후, 혹은 학업중단 후 무업형 경험을 겪다가 비행형 경험을 겪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들 청소년들은 비행형 경험을 지속하지는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일정 기간 비행경험을 겪다가 무업형 경험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여자에 비해 남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령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업성적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하위권에 속했었던 청소년들이었으며, 학업중단 시점은 고등학교 시기였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들 유형의 청소년들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문제였던 경우가 45.0%로 가장 많았지만 문제행동 때문이었던 청소년들의 비율이 35.0%로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림 V-8】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특징

2) 이행경로 관련 변인

(1) 분석방법 및 자료의 구성

이 절에서는 앞서 분석된 6개 유형의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특성적 차이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6개 유형 중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5개 유형에서는 비행경험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이들 청소년들은 비행경험을 상당기간에 걸쳐 경험하고 있고, 아울러 비행경험이 끝났더라도 주로 무업형에 속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청소년들의 경우 사례수가 20명으로 많지 않아 분석에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5개 유형의 청소년 집단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5개 유형은 세 가지 형태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우선은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으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학업형은 5개 유형 중 학업지속형과 학업복귀형이 이에 해당되며, 직업형은 직업(유지)형과 학업-직업전환형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연구(윤철경 외, 2013)에서 분류한 방식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중단 후 이행경로에 따른 주요 특성은 이들 3개, 2개 유형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행경로별 관련변인의 탐색을 위해 반복측정 자료에 대한 일반선형모형 분석(GLM(M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의 경우 구형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일변량 또는 다변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형성 검사는 반복 처리 간 상관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복합 대칭성(compound symmetry)과 각 처리마다 처리 내 분산들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등분산(equal variance)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구형성 판단은 Mauchly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영가설은 구형성을 만족한다가 된다. 따라서 유의수준보다 낮은 경우는 구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되며, 반대로 유의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구형성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형성을 만족하는 경우는 일변량 분석결과를 통해 집단 내 효과를 판단하며, 구형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변량 분석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다변량 분석은 공분산 행렬에 아무런 가정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피험자의 수(학업중단 청소년)가 적은 경우 검정력이 매우 떨어지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구형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쳐 일변량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수정방법은 주로 Greenhouse-Geisser 혹은 Huynh-Feldt 방법을 활용한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선택기준은 구형성 검사에서 산출되는 Epsilon값을 활용하는데, 만약 이 값이 0.75보다 작을 때는 Greenhouse-Geisser epsilon을 이용하고, 0.75보다 클 때는 Huynh-Feldt epsilon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비교분석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더해 일변량 분석을 활용하되, 구형성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2) 변수의 구성

관련변수로 투입된 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환경적, 제도적 특성변수들이다. 개인적 특성변수에는 심리정서 특성변수, 문제행동 변수를 투입하였고, 환경적 변수에는 가족 특성,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한 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특성변수에는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향후 계획, 제공받은 경험, 학교 특성, 성인멘토 유무, 동아리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향후 진로결정 여부, 진로달성 예측, 본인의 교육기대,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인식, 미래에 대한 태도, 학력에 대한 태도 등을 투입하였다. 각 변수의 구성은 <표 V-3>과 같다.

구분	변수		측정방법
배경 요인	성별		1=남자, 2=여자
	연령		2015년 기준 만 나이
	가구구성		①양부모 가정, ②한부모 가정, ③부모 모두 안계심(1차년도)
	가구경제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1차년도) (1=매우 못 산다~7=매우 잘 산다)
	생애사건(가족구성 변화)		①친아버지가 돌아가심, ②친어머니가 돌아가심, ③친부모님의 별거, ④친부 모님의 이혼, ⑤친아버지의 재혼, ⑥친어머니의 재혼, ⑦친아버지의 가출, ⑧ 친어머니의 가출(0=없음, 1=있음)
개인적 요인	심리 정서	자아존중감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 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 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자아탄력성	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 나는 평소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 다 호기심이 많다, ⑤나는 내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의 5개 문항 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사회적 낙인감	①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②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③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④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⑤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 재로 본다고 느낀다, ⑥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역코딩), ⑦나는 사회 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⑧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 다의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문제 행동	게임중독	①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 만두는 것이 어렵다, ⑥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⑦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의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 항상 그렇다)의 평균
		스마트폰 중독	①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②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③스마트 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④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 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⑤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⑥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불절 하고 초조해진다, ⑦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역코딩), ⑧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의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 렇다)의 평균
		학업중단 전 비행경험	①담배피우기, ②술 마시기, ③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④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⑤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⑥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⑦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⑧자살시도, ⑨공공장소 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⑩약물(본드) 흡입(2, 3차년도 조사) 10개 문항(0=없다, 1=있다)

구분	변수		측정방법
환경적 요인	부모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①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 방임	①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②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③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고, ④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부모 학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②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친구 관계	친한 친구수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에 대한 응답값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수	‘그 중에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의 응답값
		학업중단 친구수	‘친한 친구 중에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의 응답값
		또래애착	①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②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③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친구의 비행성향	①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②내 친구들의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③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 사회 특성	지역사회 통합	①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②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③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④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회 무질서	①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②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③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④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지역사회 유익환경	①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②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는 2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제도적 요인	학교 생활 특성	학업중단 시기	‘최근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와 ‘몇 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습니까?’의 응답값
		학업중단 시 학업성적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을 어느 정도였습니까?(1=최하위권~7=최상위권)’의 응답값을 상, 중, 하로 재코딩

구분	변수	측정방법
	무단결석 여부 및 최초 결석 시기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와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일은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 의 응답값
	교사와의 관계	①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②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③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친구관계	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④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습부적응	①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②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③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교풍토(훈육적)	①학교 규칙은 엄격했다, ②잘못에 비해 벌을 심하게 줬다의 2개 항목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교풍토(개방적)	①학교에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②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활발하였다 2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교규범 위반경험	①지각, ②무단결석, ③두발, 복장 등 규정 위반, ④숙제를 하지 않음, ⑤수업을 몰래 빼 먹음, ⑥선생님에게 대들었음, ⑦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7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없었다, 2=연1~2회, 3=월1~2회, 4=주1~2회, 5=거의 매일)의 평균
	중단 후 하고 싶었던 일(2차년도)	‘최초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습니까?’ 에 대한 1순위 응답값
	학업중단사유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1순위 응답값
	중단 시 정보제공 받은 경험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한 응답값(1=없다, 2=있다) -①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②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③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⑤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⑥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중단학교 소재지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 ④기타
	학교규모	①대규모(학생수 1000명 이상), ②중규모(학생수 500~1000명 미만), ③소규모(학생수 500명 미만), ④기타
	학교유형	‘최초 학교를 그만 때는 언제였습니까?’ 에 대한 응답값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에 대한 응답값을 해당기관의 개수로 재코딩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종교기관, 학원, 치료시설,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은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를 0으로 측정
	동아리활동 경험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에 대한 2개년도(2, 3차) 응답값(1=예, 0=아니오)의 합을 더미변수 처리

구분	변수		측정방법
진로 관련 경험 및 인식			리(0=참여경험없음, 1=2 혹은 3차년도 참여, 2=2, 3차년도 모두 참여)
	진로정보 탐색활동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①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②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③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진로장애		①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②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역코딩), ③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④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⑤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⑥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⑦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⑧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⑨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⑩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 ⑪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⑫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⑬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의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향후 진로결정 여부		향후 진로에 대하여 진로를 결정한 상태인 경우=1, 결정하지 못한 경우=0로 코딩
	진로달성 가능성 예측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교육기대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값(1=중졸~5=대학원졸)
중단 후 인식 및 가치관	학업중단 불안감		①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②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③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 ④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역코딩), ⑤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⑥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역코딩)의 6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미래에 대한 태도		①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③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학력에 대한 태도		①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②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③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의 평균

(3) 분석결과

(가) 배경요인

① 인구학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이행경로별 성별분포를 보면 학업형 청소년은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직업형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0%p 더 많았고, 무업형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의 2배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중학교 학령기에 속한 청소년은 학업형에서만 3명이 분포하였고, 학령기 이후의 연령대에서 각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4

경로유형별 성별과 연령 분포

단위: 명(%)

		학업형 (N=168)	직업형 (N=108)	무업형 (N=37)
성별	남자	86(51.2)	61(56.5)	25(67.6)
	여자	82(48.8)	47(43.5)	12(32.4)
연령	중학교 학령(만13~15세)	3(1.8)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75(44.6)	35(32.4)	14(37.8)
	학령기 이후(만19세 이상)	90(53.6)	73(67.6)	23(62.2)

② 가구 구성

세 유형 집단별 가구구성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양부모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만,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 비중은 학업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형, 무업형 수준이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는 무업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5

가구구성의 유형 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양부모 가정	104(61.9)	60(55.6)	18(48.6)	182(58.1)
한부모 가정	45(26.8)	35(32.4)	14(37.8)	94(30.0)
부모 모두 안계심	19(11.3)	13(12.0)	5(13.5)	37(11.8)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chi^2=2.781(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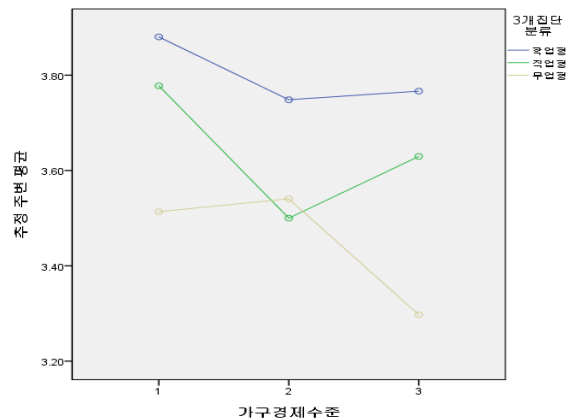
③ 가구경제수준

가구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변화에 따라 동일집단 내에서 가구의 경제수준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표 V-6 가구 경제수준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가구 경제수준	3.028	1.979	1.530	3.447	.033
	가구 경제수준*이행경로	2.370	3.958	.599	1.349	.251
	오차(가구경제수준)	271.474	611.499	.444		
집단 간 효과	절편	8407.641	1	8407.641	2660.553	.000
	이행경로	13.098	2	6.549	2.072	.128
	오차	976.474	309	3.160		

학업형 청소년들의 가구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따른 가구의 경제수준 변화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업형의 경우에는 3차년도 시점에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V-9】이행경로별 가구경제수준의 변화 추이

④ 생애사건(가족구성의 변화)

생애사건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 사건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친부모님의 이혼과 친어머니의 재혼 사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님의 이혼의 경우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다음으로는 무업형 청소년들이었다. 친어머니의 재혼 사건의 경우에는 세 집단 모두 사례 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으나, 직업형 청소년들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V-7 생애사건의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χ^2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없음	160(95.2)	104(96.3)	36(97.3)	300(95.8)	.407
	있음	8(4.8)	4(3.7)	1(2.7)	13(4.2)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없음	165(98.2)	107(99.1)	35(94.6)	307(98.1)	2.974
	있음	3(1.8)	1(0.9)	2(5.4)	6(1.9)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부모님의 별거	없음	131(78.0)	83(76.9)	27(73.0)	241(77.0)	.430
	있음	37(22.0)	25(23.1)	10(27.0)	72(23.0)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부모님의 이혼	없음	129(76.8)	68(63.0)	27(73.0)	224(71.6)	6.213 ($p<0.05$)
	있음	39(23.2)	40(37.0)	10(27.0)	89(28.4)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아버지의 재혼	없음	165(98.2)	104(96.3)	35(94.6)	304(97.1)	1.828
	있음	3(1.8)	4(3.7)	2(5.4)	9(2.9)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어머니의 재혼	없음	161(95.8)	92(85.2)	36(97.3)	289(92.3)	11.989 ($p<0.05$)
	있음	7(4.2)	16(14.8)	1(2.7)	24(7.7)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아버지의 가출	없음	161(95.8)	102(94.4)	35(94.6)	298(95.2)	.312
	있음	7(4.2)	6(5.6)	2(5.4)	15(4.8)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친어머니의 가출	없음	152(90.5)	96(88.9)	35(94.6)	283(90.4)	1.037
	있음	16(9.5)	12(11.1)	2(5.4)	30(9.6)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주1) * $p<0.05$, ** $p<0.01$, *** $p<0.001$

(나) 개인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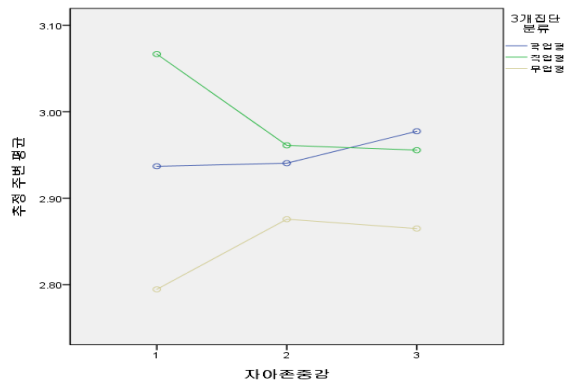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반선행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이행경로에 따른 세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조사 시점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도 집단에 상관없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8 자아존중감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자아존중감	.007	2	.003	.023	.977
	자아존중감*이행경로	1.058	4	.265	1.795	.128
	오차(자아존중감)	91.348	620	.147		
집단 간 효과	절편	5489.025	1	5489.025	10280.511	.000
	이행경로	1.851	2	.925	1.733	.178
	오차	165.517	310	.534		

세 집단의 시점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 양상을 보면 학업형 청소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직업형 청소년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업형의 경우에는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나, 3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V-10】 이행경로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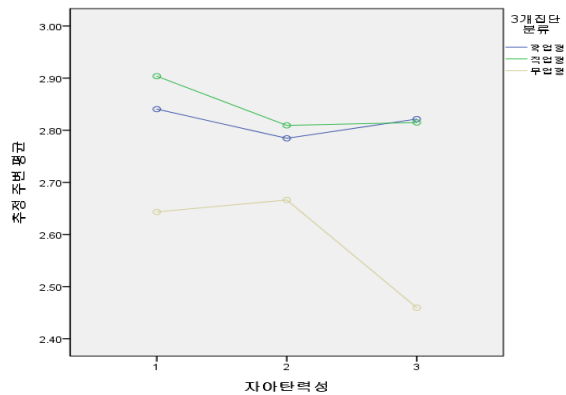
②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경우 이행경로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 시점에서 세 집단의 자아탄력성은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 내 효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동일 집단 내에서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시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9 자아탄력성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자아탄력성	1.013	2	.506	3.305	.037
	자아탄력성*이행경로	1.045	4	.261	1.705	.147
	오차(자아탄력성)	94.979	620	.153		
집단 간 효과	절편	4831.452	1	4831.452	9038.175	.000
	이행경로	5.617	2	2.809	5.254	.006
	오차	165.714	310	.535		

집단별로 자아탄력성은 직업형 청소년들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역시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동일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업형의 경우에는 3차년도 시점에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II】 이행경로별 자아탄력성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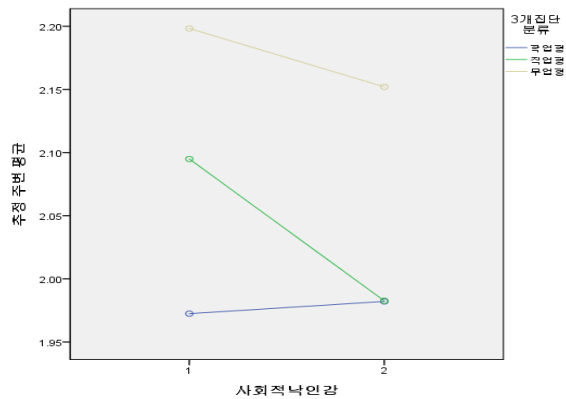
③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에서도 동일 시점에서 이행경로에 따른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시점에 따른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 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0 사회적 낙인감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사회적 낙인감	.262	1	.262	1.951	.163
	사회적 낙인감*이행경로	.490	2	.245	1.824	.163
	오차(사회적 낙인감)	41.617	310	.134		
집단 간 효과	절편	1814.966	1	1814.966	5903.451	.000
	이행경로	2.467	2	1.233	4.012	.019
	오차	95.307	310	.307		

조사 시점에 따른 사회적 낙인감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무업형 청소년들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사회적 낙인감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직업형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이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낙인감의 수준은 유지(학업형)되거나 감소(직업형, 무업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차년도 시점에서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 수준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V-12】이행경로별 사회적 낙인감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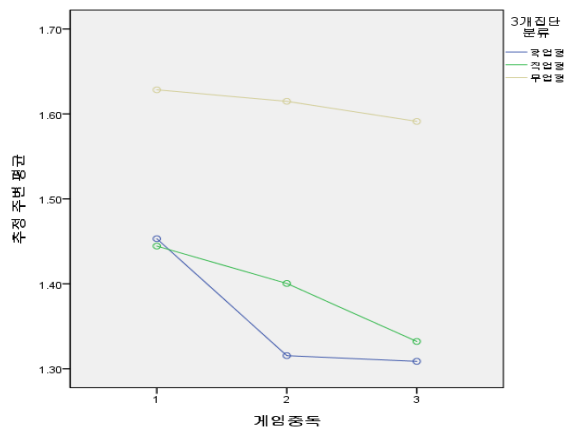
④ 게임중독

게임중독의 경우 이행경로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 집단 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과 게임중독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시간에 따른 게임중독 수준 변화양상이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1 게임중독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게임중독	1.058	1.965	.539	3.229	.041
	게임중독*이행경로	.479	3.929	.122	.731	.569
	오차(게임중독)	101.625	609.018	.167		
집단 간 효과	절편	1351.999	1	1351.999	2312.652	.000
	이행경로	5.825	2	2.913	4.982	.007
	오차	181.229	310	.585		

【그림 V-13】에서 보면, 시간에 따른 게임중독 수준은 세 집단 모두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다른 두 유형의 집단에 비해 높은 게임중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에 비해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빨리 게임중독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3】이행경로별 게임중독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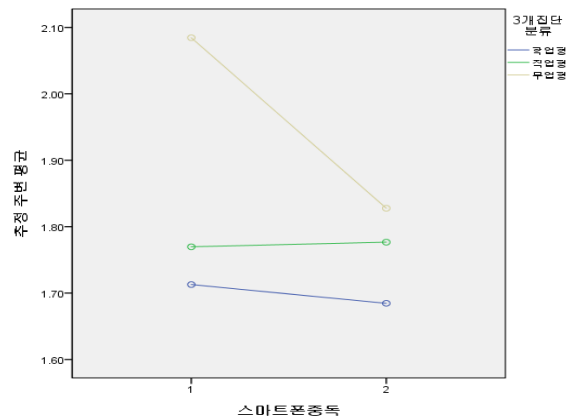
⑤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역시 중독수준이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단 내 효과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동일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변화양상도 집단 간에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스마트폰중독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스마트폰중독	.915	1	.915	6.525	.011
	스마트폰중독*이행경로	.998	2	.499	3.558	.030
	오차(스마트폰중독)	43.492	310	.140		
집단 간 효과	절편	1395.025	1	1395.025	3469.732	.000
	이행경로	4.130	2	2.065	5.136	.006
	오차	124.637	310	.402		

무업형 청소년들은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시간에 따라 중독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수준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학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4】이행경로별 스마트폰중독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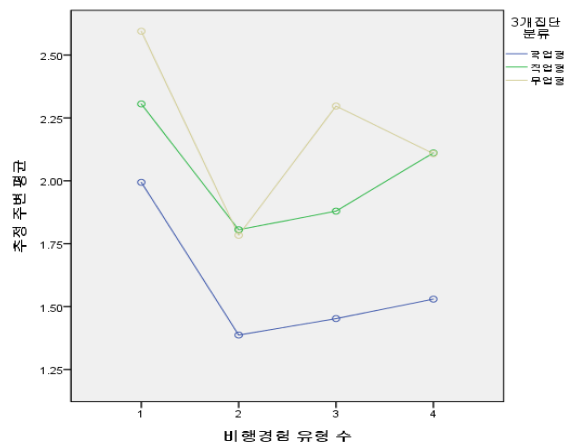
⑥ 비행경험

비행경험의 경우 동일 시점에서 세 집단 간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집단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경험의 수준도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시간변화에 따른 비행경험 수준의 변화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가구 경제수준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비행경험	45.148	2,562	17.624	12.695	.000
	비행경험*이행경로	5.978	5,123	1.167	.840	.523
	오차(비행경험)	1102.487	794,134	1.388		
집단 간 효과	절편	3199.104	1	3199.104	448.287	.000
	이행경로	74.390	2	37.195	5.212	.006
	오차	2212.250	310	7.136		

학업중단 이전 시점에서는 무업형 청소년들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업형 청소년이 많았다. 한편 학업중단 직후에는 비행경험이 세 집단 모두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15】이행경로별 비행경험의 변화 추이

(다) 환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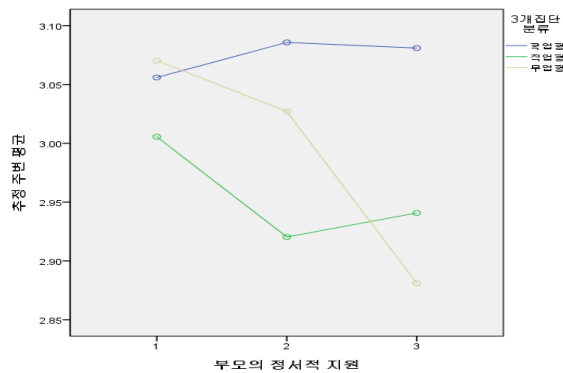
①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경우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집단 내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지원수준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변화양상에 대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4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	.625	2	.312	1.476	.229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행경로	1.085	4	.271	1.282	.276
	오차(부모의 정서적 지원)	131.213	620	.212		
집단 간 효과	절편	5781.894	1	5781.894	8094.029	.000
	이행경로	2.896	2	1.448	2.027	.133
	오차	221.446	310	.714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면 학업중단 직후에는 무업형 청소년들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가장 낮은 집단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미미한 수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앞서 일반선행모형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집단 간 또는 시간변화에 따른 정서적 지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V-16】이행경로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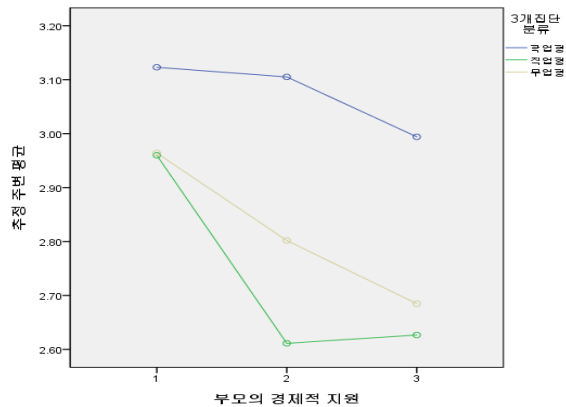
②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앞서 정서적 지원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은 동일시점에서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일집단 내에서 시간변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도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양상 역시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5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	6.904	2	3.452	13.668	.000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행경로	3.755	4	.939	3.717	.005
	오차(부모의 경제적 지원)	156.590	620	.253		
집단 간 효과	절편	5281.633	1	5281.633	5182.661	.000
	이행경로	24.504	2	12.252	12.022	.000
	오차	315.920	310	1.019		

부모의 경제적 지원수준에 대한 변화양상을 보면 우선 학업형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변화하면서 지원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무업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수준의 감소폭은 학업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V-17】이행경로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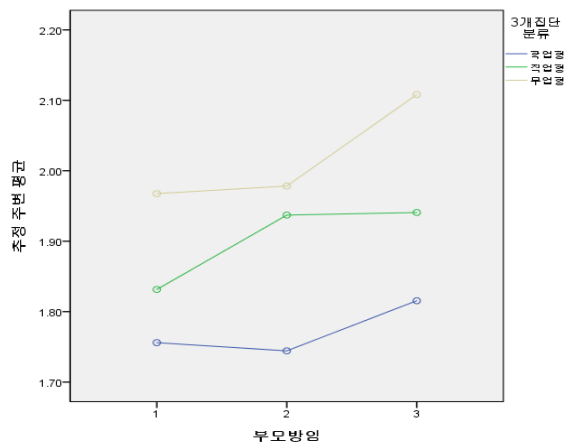
③ 부모 방임

부모방임 수준에서는 이행경로에 따른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시점에 따른 부모의 방임수준의 차이가 동일집단 내에서 발견되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집단 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6 부모방임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부모방임	1.172	2	.586	3.733	.024
	부모방임*이행경로	.580	4	.145	.924	.449
	오차(부모방임)	97.308	620	.157		
집단 간 효과	절편	2301.960	1	2301.960	4443.816	.000
	이행경로	7.106	2	3.553	6.859	.001
	오차	160.584	310	.518		

시간변화에 따른 부모방임 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방임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 집단 중 무업형 청소년들의 부모방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학업형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방임 수준은 낮았다.



【그림 V-18】 이행경로별 부모방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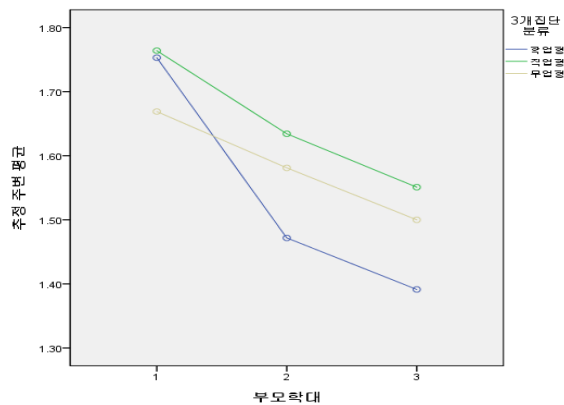
④ 부모 학대

부모학대의 경우 동일시점에서 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동일 집단 내에서 부모학대 수준에 변화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변화양상은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V-17 부모학대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부모학대	6.798	1,929	3.524	14.430	.000
	부모학대*이행경로	1.380	3,858	.358	1.465	.213
	오차(부모학대)	146.037	598,051	.244		
집단 간 효과	절편	1617.186	1	1617.186	1918.147	.000
	이행경로	2.430	2	1.215	1.441	.238
	오차	261.361	310	.843		

시간변화에 따른 부모방임 수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방임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의 경우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2차년도에서 부모의 방임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V-19】이행경로별 부모학대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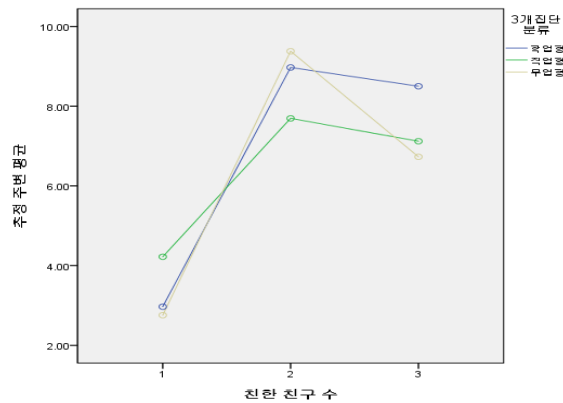
⑤ 친한 친구 수

친한 친구 수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동일 집단 내에서 친한 친구 수의 변화가 발견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양상은 이행경로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V-18 친한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친한 친구 수	3365.255	1,986	1694.649	42,623	.000
	친한 친구 수*이행경로	372.948	3,972	93.903	2,362	.052
	오차(친한 친구 수)	24475.671	615,602	39.759		
집단 간 효과	절편	26861.904	1	26861.904	309,034	.000
	이행경로	54,619	2	27,309	.314	.731
	오차	26945.860	310	86.922		

세 집단 모두 1차년도 조사에 비해 2차년도에는 친한 친구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차년도에는 세 집단 모두 친구 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무업형의 경우 친한 친구 수가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V-20】 이행경로별 친한 친구 수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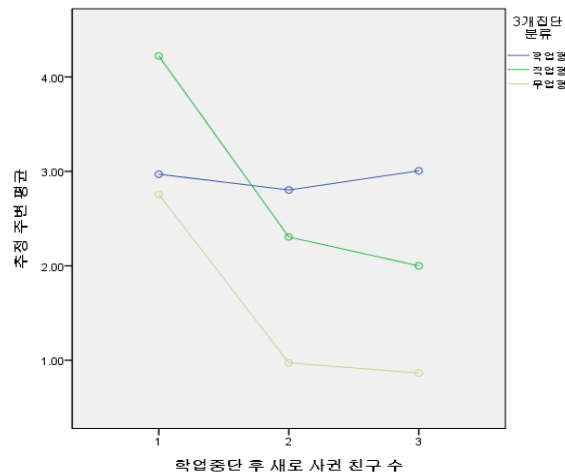
⑥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 수

학업중단 이후 새로 사귀 친구 수의 경우에도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 수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는 이행경로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새로 사귀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새로 사귀 친구 수	249.634	1,726	144.666	6.988	.002
	새로 사귀 친구 수*이행경로	205.925	3,451	59.668	2.882	.029
	오차(새로 사귀 친구 수)	11073.826	534.932	20.701		
집단 간 효과	절편	3785.658	1	3785.658	113.384	.000
	이행경로	183.011	2	91.505	2.741	.066
	오차	10350.229	310	33.388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형과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사귀 친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수도 적고 시간이 지나면서 1명 내외로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21】이행경로별 학업중단 후 새로 사귀 친구 수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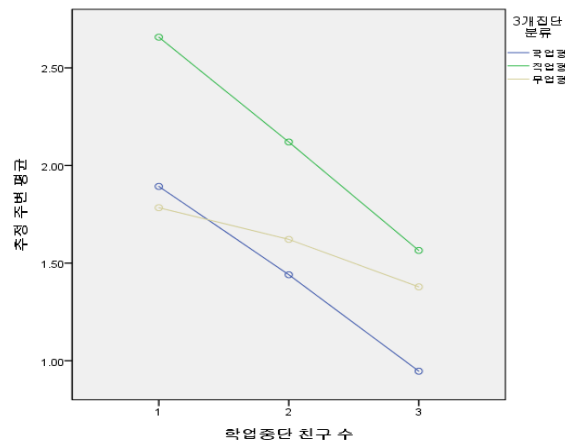
⑦ 학업중단 친구 수

학업중단 친구 수의 경우 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한 친구 수와 마찬가지로 시간 변화에 따라 친구 수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20 학업중단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학업중단 친구 수	70.810	1.702	41.608	6.623	.003
	학업중단 친구 수*이행경로	6.559	3.404	1.927	.307	.845
	오차(학업중단 친구 수)	3314.493	527.567	6.283		
집단 간 효과	절편	1873.079	1	1873.079	176.090	.000
	이행경로	94.246	2	47.123	4.430	.013
	오차	3297.482	310	10.637		

세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중단 친구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업형과 학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친구 수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림 V-22】 이행경로별 학업중단 친구 수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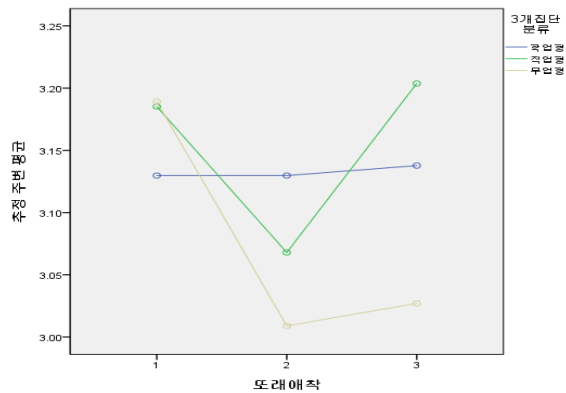
⑧ 또래애착

또래애착의 경우 동일시점에서 세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시간변화에 따른 또래애착의 수준도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고, 집단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1 또래애착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또래애착	1.049	2	.525	2.805	.061
	또래애착*이행경로	1.204	4	.301	1.609	.170
	오차(또래애착)	115.574	618	.187		
집단 간 효과	절편	6216.878	1	6216.878	10830.165	.000
	이행경로	.493	2	.246	.429	.652
	오차	177.376	309	.574		

시간변화에 따른 또래애착의 변화양상을 보면 그 변화폭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폭은 시점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애착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분석한 친구 관련 변수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23】이행경로별 또래애착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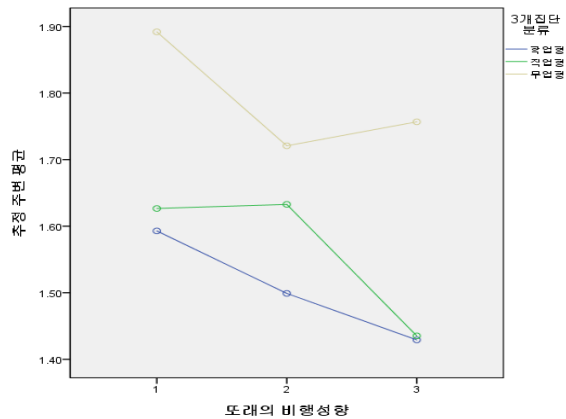
⑨ 친구의 비행성향

또래의 비행성향은 동일 시점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비행성향도 시간 변화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V-22 친구 비행성향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친구 비행성향	2.845	2	1.422	6.310	.002
	친구 비행성향*이행경로	1.021	4	.255	1.132	.340
	오차(친구 비행성향)	139.309	618	.225		
집단 간 효과	절편	1677.264	1	1677.264	3077.568	.000
	이행경로	7.276	2	3.638	6.676	.001
	오차	168.404	309	.545		

또래의 비행성향은 무업형 청소년들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학업형 청소년들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무업형의 경우 3차년도 시점에서 친구의 비행성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 친구의 비행성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V-24】 이행경로별 또래 비행성향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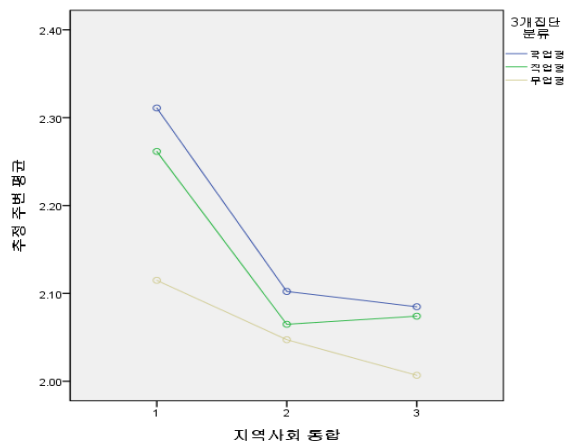
⑩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통합 수준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들이 속한 지역의 사회 통합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지역사회 통합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지역사회통합	3.934	2	1.967	7.521	.001
	지역사회통합*이행경로	.382	4	.095	.365	.834
	오차(지역사회통합)	162.158	620	.262		
집단 간 효과	절편	2869.138	1	2869.138	3825.829	.000
	이행경로	1.129	2	.564	.753	.472
	오차	232.481	310	.750		

지역사회 통합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년도 시점에 비해 2, 3차년도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아졌고, 특히 무업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통합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V-25】 이행경로별 지역사회 통합수준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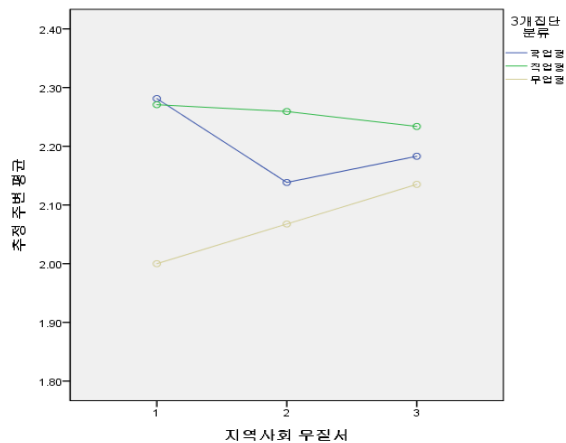
⑪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경우에도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간변화에 따른 무질서 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았고, 집단 간의 차이도 없었다.

표 V-24 지역사회 무질서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지역사회 무질서	.119	2	.059	.231	.794
	지역사회 무질서*이행경로	1.347	4	.337	1.310	.265
	오차(지역사회 무질서)	159.373	620	.257		
집단 간 효과	절편	3022.162	1	3022.162	3787.246	.000
	이행경로	2.901	2	1.451	1.818	.164
	오차	247.375	310	.798		

시간변화에 따른 양상을 보면 세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직업형 청소년과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낮아지지만,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V-26】이행경로별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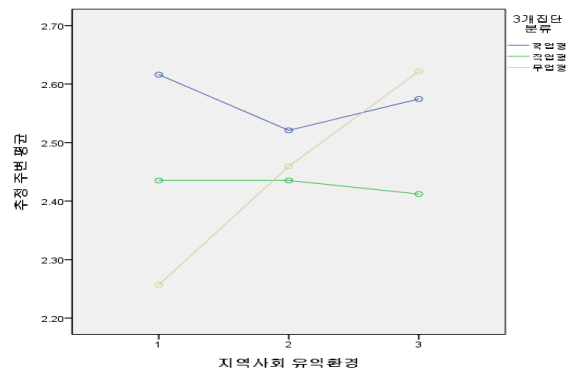
⑫ 지역사회 유익환경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에 대한 인식에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집단 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5 지역사회 유익환경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지역사회 유익환경	1.094	2	.547	1.710	.182
	지역사회 유익환경*이행경로	3.017	4	.754	2.357	.052
	오차(지역사회 유익환경)	198.389	620	.320		
집단 간 효과	절편	3935.559	1	3935.559	5601.473	.000
	이행경로	4.491	2	2.245	3.196	.042
	오차	217.804	310	.703		

시간변화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면 학업형 청소년이 대체로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시간변화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인식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사회 유익환경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V-27】이행경로별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의 변화 추이

(라) 제도적 요인

① 학업중단 시기

이행경로별 학업중단 시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형 청소년들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고 1학년 시점에 학교를 그만 둔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문계고 1학년 시점에 학교를 그만 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V-26

경로유형별 학업중단 시점의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중1	10(6.0)	0(0.0)	0(0.0)	10(3.2)
중2	14(8.3)	1(0.9)	2(5.4)	17(5.4)
중3	5(3.0)	4(3.7)	1(2.7)	10(3.2)
중졸 이후	7(4.2)	2(1.9)	0(0.0)	9(2.9)
일반고1	58(34.5)	30(27.8)	9(24.3)	97(31.0)
일반고2	23(13.7)	17(15.7)	8(21.6)	48(15.3)
일반고3	2(1.2)	2(1.9)	3(8.1)	7(2.2)
전문계고1	36(21.4)	28(25.9)	10(27.0)	74(23.6)
전문계고2	13(7.7)	18(16.7)	4(10.8)	35(11.2)
전문계고3	0(0.0)	6(5.6)	0(0.0)	6(1.9)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chi^2=44.117(p<0.05)$

② 학업중단 당시 성적

학업중단 당시 성적에도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권 성적을 보였던 청소년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이에 속하였고, 다음으로는 직업형, 학업형이었다. 대체로 학업형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당시 학교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고, 반대로 무업형 청소년들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V-27

학업중단 당시 성적의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상	46(27.4)	30(27.8)	4(10.8)	80(25.6)
중	43(25.6)	19(17.6)	6(16.2)	68(21.7)
하	79(47.0)	59(54.6)	27(73.0)	165(52.7)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chi^2=10.087(p<0.05)$

③ 무단결석 여부 및 최초 결석 시기

무단결석 경험과 최초 결석 시기에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업형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재학시절 무단결석 경험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업형, 학업형 청소년들 수준이었다. 최초 무단결석 시기를 살펴보면 학업형과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나,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으로 무단결석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표 V-28 무단결석 경험의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χ^2
무단결석 여부	있다	104(61.9)	76(70.4)	29(78.4)	209(66.8)	4.671
	없다	64(38.1)	32(29.6)	8(21.6)	104(33.2)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최초 결석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5(4.8)	2(2.6)	0(0.0)	7(3.3)	7.225
	초등학교 고학년	18(17.3)	11(14.5)	3(10.3)	32(15.3)	
	중학교	51(49.0)	31(40.8)	18(62.1)	100(47.8)	
	고등학교	30(28.8)	32(42.1)	8(27.6)	70(33.5)	
	전체	104(100.0)	76(100.0)	29(100.0)	209(100.0)	

④ 교사와의 관계

학업중단 학교에서의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관계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형, 무업형 수준이었다.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 수준은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V-29 교사와의 관계의 이행경로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F
학업형	2.5833	.93981	1.086
직업형	2.4877	.87947	
무업형	2.3604	.66378	
전체	2.5240	.89128	

⑤ 친구관계

친구관계에서는 무업형 청소년들의 친구관계가 가장 좋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 순이었다. 하지만 친구관계 역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0 친구관계의 이행경로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F
학업형	3.0655	.73168	.526
직업형	3.0602	.79342	
무업형	3.1959	.59259	
전체	3.0791	.73811	

⑥ 학습부적응

학습부적응의 경우 무업형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학습부적응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직업형, 학업형 청소년 순이었다. 학습부적응 경험의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업형 청소년들이 학업형 혹은 직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학습부적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학습부적응의 이행경로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F	학업	직업	무업
학업형	2.3869	.76720	12.223(p<0.05)			*
직업형	2.5988	.65052				*
무업형	3.0270	.78716				
전체	2.5357	.75736				

⑦ 학교풍토(훈육적/참여적)

학업중단 학교의 학교풍토에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훈육적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은 직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업형, 학업형 청소년 순이었다. 참여적 학교풍토에 대한 인식은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형, 무업형 순이었다.

표 V-32 학교풍토의 이행경로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F
훈육적	학업형	2.4732	.84990	1.054
	직업형	2.6111	.80690	
	무업형	2.5946	.65445	
	전체	2.5351	.81475	
참여적	학업형	2.4762	.76763	.551
	직업형	2.3981	.71290	
	무업형	2.3649	.74208	
	전체	2.4361	.74512	

⑧ 학교규범 위반경험

학업중단 이전 학교규범을 위반한 경험에 대해서는 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무업형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형 청소년들과 학업형 청소년들 간의 학교규범 위반 경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3 학교규범 위반경험의 이행경로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F	학업	직업	무업
학업형	2.1607	.99898	3.343(p<0.05)			*
직업형	2.2963	1.08739				
무업형	2.6486	1.16586				
전체	2.2652	1.05838				

⑨ 학업중단 후 하고 싶었던 일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실컷 놀고 싶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서 생각한 계획에 따라 경험경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V-34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1순위)에 대한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29(17.3)	21(19.4)	2(5.4)	52(16.6)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32(19.0)	19(17.6)	9(24.3)	60(19.2)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15(8.9)	24(22.2)	9(24.3)	48(15.3)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7(4.2)	4(3.7)	1(2.7)	12(3.8)
실컷 놀고 싶었다	31(18.5)	11(10.2)	10(27.0)	52(16.6)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19(11.3)	17(15.7)	2(5.4)	38(12.1)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3(1.8)	4(3.7)	0(0.0)	7(2.2)
전학가고 싶었다	6(3.6)	2(1.9)	1(2.7)	9(2.9)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13(7.7)	2(1.9)	1(2.7)	16(5.1)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3(1.8)	2(1.9)	1(2.7)	6(1.9)
기타	10(6.0)	2(1.9)	1(2.7)	13(4.2)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chi^2=32.696(p<0.05)$

⑩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사유에서도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사유로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도

해당 항목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V-35 학업중단 사유(1순위)에 대한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건강상의 이유로	17(10.1)	3(2.8)	2(5.4)	22(7.0)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7(4.2)	6(5.6)	0(0.0)	13(4.2)
가정불화 때문에	0(0.0)	4(3.7)	0(0.0)	4(1.3)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0(0.0)	3(2.8)	1(2.7)	4(1.3)
공부하기 싫어서	13(7.7)	14(13.0)	9(24.3)	36(11.5)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서	33(19.6)	29(26.9)	8(21.6)	70(22.4)
친구들이 싫어서	11(6.5)	7(6.5)	0(0.0)	18(5.8)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2(1.2)	1(0.9)	2(5.4)	5(1.6)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놓고 싶어서	1(0.6)	1(0.9)	0(0.0)	2(0.6)
선생님이 싫어서	10(6.0)	1(0.9)	4(10.8)	15(4.8)
검정고시를 하려고	21(12.5)	11(10.2)	4(10.8)	36(11.5)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21(12.5)	12(11.1)	2(5.4)	35(11.2)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13(7.7)	10(9.3)	2(5.4)	25(8.0)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1(0.6)	0(0.0)	0(0.0)	1(0.3)
학교가기가 귀찮아서, 잠을 자느라고, 출석이 안좋아서 등	1(0.6)	1(0.9)	2(5.4)	4(1.3)
거리, 내신 성적, 종교, 학교 분위기 등 이유가 있어서	3(1.8)	2(1.9)	1(2.7)	6(1.9)
학교부적응으로	7(4.2)	3(2.8)	0(0.0)	10(3.2)
유학, 이민, 대안학교, 전학 등의 목적으로	6(3.6)	0(0.0)	0(0.0)	6(1.9)
가출, 학교폭력, 임신, 여자친구 등 비행 문제로	1(0.6)	0(0.0)	0(0.0)	1(0.3)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chi^2=32.696(p<0.05)$

⑪ 중단 시 정보제공 받은 경험

학업중단 시 제공받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학업중단 시 적절한 정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6개 항목 모두 학업중단 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V-36 학업중단 시 정보 제공받은 경험의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χ^2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없다	104(61.9)	78(72.2)	27(73.0)	209(66.8)	3.881
	있다	64(38.1)	30(27.8)	10(27.0)	104(33.2)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없다	125(74.4)	84(77.8)	28(75.7)	237(75.7)	.407
	있다	43(25.6)	24(22.2)	9(24.3)	76(24.3)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없다	108(64.3)	65(60.2)	24(64.9)	197(62.9)	.541
	있다	60(35.7)	43(39.8)	13(35.1)	116(37.1)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없다	116(69.0)	75(69.4)	29(78.4)	220(70.3)	1.320
	있다	52(31.0)	33(30.6)	8(21.6)	93(29.7)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없다	142(84.5)	85(78.7)	33(89.2)	260(83.1)	2.701
	있다	26(15.5)	23(21.3)	4(10.8)	53(16.9)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없다	121(72.0)	66(61.1)	23(62.2)	210(67.1)	4.008
	있다	47(28.0)	42(38.9)	14(37.8)	103(32.9)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⑫ 학업중단 학교 특성

학업중단 학교특성(학교유형, 학교지역, 학교규모)에서는 학교유형에만 차이가 있었다. 학업형과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고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계고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V-37

학업중단 학교특성의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χ^2
학교유형	중학교	36 (21.4)	7 (6.5)	3 (8.1)	46 (14.7)	18.174(p<0.05)
	일반고	83 (49.4)	49 (45.4)	20 (54.1)	152 (48.6)	
	전문고	49 (29.2)	52 (48.1)	14 (37.8)	115 (36.7)	
	전체	168 (100.0)	108 (100.0)	37 (100.0)	313 (100.0)	
학교지역	대도시	80 (50.3)	51 (52.6)	18 (48.6)	149 (50.9)	6.668
	중소도시	51 (32.1)	24 (24.7)	12 (32.4)	87 (29.7)	
	읍면지역	23 (14.5)	22 (22.7)	6 (16.2)	51 (17.4)	
	기타	5 (3.1)	0 (0.0)	1 (2.7)	6 (2.0)	
	전체	159 (100.0)	97 (100.0)	37 (100.0)	293 (100.0)	
학교규모	대규모(학생수 1000명 이상)	66 (41.8)	43 (44.3)	15 (40.5)	124 (42.5)	3.670
	중규모(학생수 500~1000명 미만)	55 (34.8)	35 (36.1)	15 (40.5)	105 (36.0)	
	소규모(학생수 500명 미만)	32 (20.3)	19 (19.6)	6 (16.2)	57 (19.5)	
	기타	5 (3.2)	0 (0.0)	1 (2.7)	6 (2.1)	
	전체	158 (100.0)	97 (100.0)	37 (100.0)	2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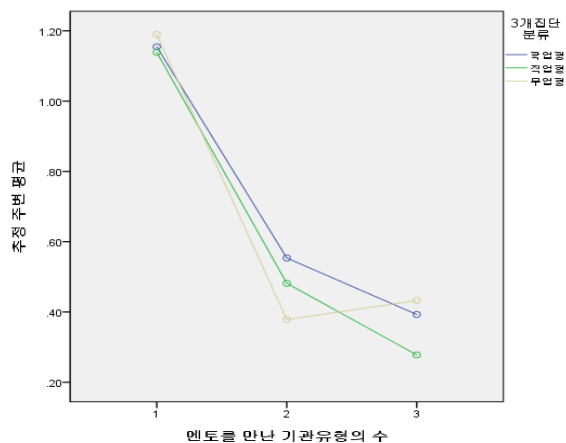
⑬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

도움을 준 성인(성인멘토)을 만난 기관유형의 개수에 대한 일반선형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변화에 따라 성인멘토를 만난 기관유형의 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8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의 수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	79,249	2	39.624	141.041	.000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 *이행경로	1,313	4	.328	1.168	.324
	오차(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	174,185	620	.281		
집단 간 효과	절편	284.037	1	284.037	522.913	.000
	이행경로	.909	2	.454	.836	.434
	오차	168,386	310	.543		

성인멘토를 만난 기관유형의 수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시간 변화에 따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업중단 직후에는 성인멘토를 만나는 경험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8】 이행경로별 멘토와의 만남 기관 수의 변화 추이

⑭ 동아리활동 경험

동아리 경험에 대한 세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었던 사례가 가장 많았고, 특히 무업형 청소년들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동아리활동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동아리 활동을 지속한 경우도 세 집단 모두 매우 적은 사례만이 발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학업형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동아리 경험 유무의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경험없음	94 (56.0)	61 (56.5)	27 (73.0)	182 (58.1)
2차년도 혹은 3차년도 경험	51 (30.4)	33 (30.6)	7 (18.9)	91 (29.1)
2, 3차년도 모두 경험	23 (13.7)	14 (13.0)	3 (8.1)	40 (12.8)
전체	168 (100.0)	108 (100.0)	37 (100.0)	313 (100.0)

$\chi^2=3.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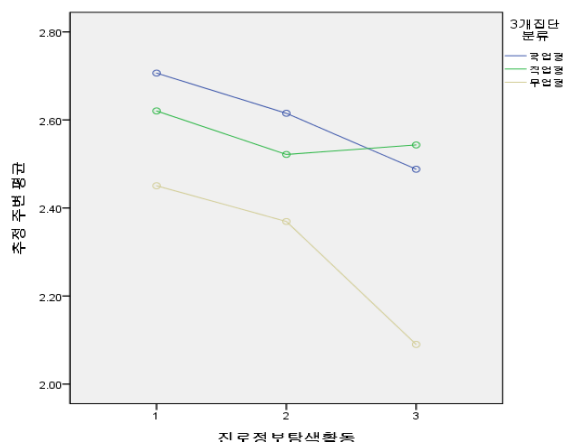
⑮ 진로정보 탐색활동

진로정보 탐색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정보 탐색활동 수준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양상이 집단 간 차이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40 진로정보 탐색활동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진로정보탐색	5.141	2	2.571	11.052	.000
	진로정보탐색*경로유형	1.828	4	.457	1.965	.098
	오차(진로정보탐색)	144.217	620	.233		
집단 간 효과	절편	3961.354	1	3961.354	6465.648	.000
	경로유형	8.214	2	4.107	6.703	.001
	오차	189.930	310	.613		

진로정보 탐색활동은 대체로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차년도 시점에서는 직업형 청소년들의 진로정보 탐색활동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무업형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활동은 시점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폭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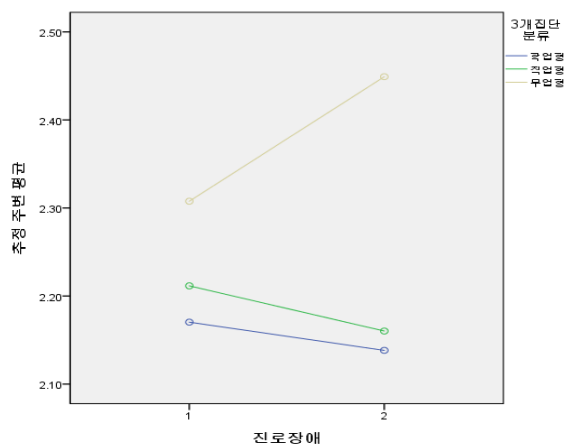
【그림 V-29】 이행경로별 진로정보탐색 활동 수준의 변화 추이

⑯ 진로장애

진로장애의 경우 동일시점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0】을 보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진로장애 수준이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진로장애 수준은 낮은 편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수준의 폭이 작아 시간변화에 따른 진로장애 수준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고, 변화양상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V-41 진로장애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진로장애	.040	1	.040	.279	.598
	진로장애*이행경로	.546	2	.273	1.910	.150
	오차(진로장애)	44.343	310	.143		
집단 간 효과	절편	2137.346	1	2137.346	5306.646	.000
	이행경로	3.056	2	1.528	3.794	.024
	오차	124.858	310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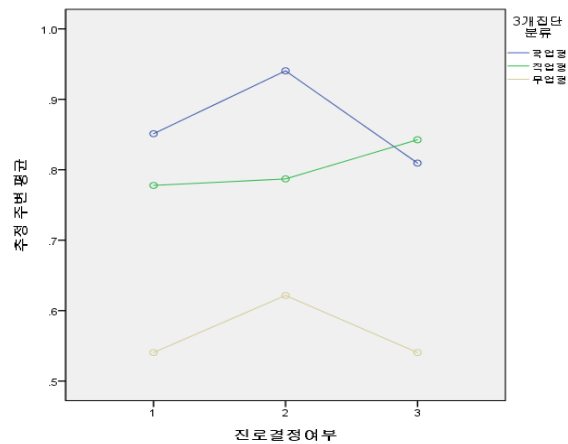
【그림 V-30】이행경로별 진로장애의 변화 추이

⑰ 향후 진로결정 여부

향후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집단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1】을 보면 학업형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사례가 많으나, 3차년도 시점에서는 직업형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업형 청소년들은 세 조사시점 모두에서 진로결정 사례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결정 여부는 시간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집단 간의 차이도 없었다.

표 V-42 진로결정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진로결정	.452	2	.226	1.750	.175
	진로결정*이행경로	1.163	4	.291	2.251	.062
	오차(진로결정)	80.068	620	.129		
집단 간 효과	절편	355.453	1	355.453	2014.651	.000
	이행경로	8.183	2	4.092	23.190	.000
	오차	54.695	310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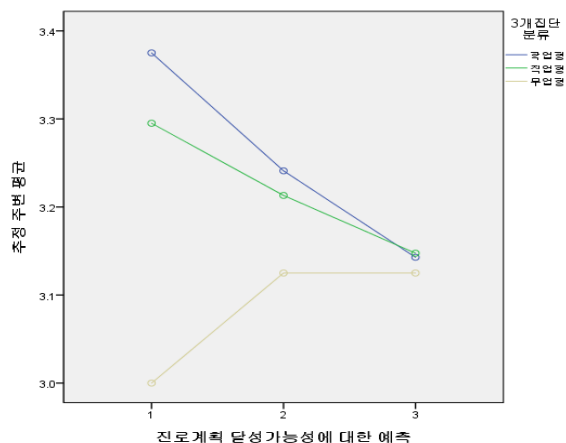
【그림 V-31】이행경로별 진로결정의 변화 추이

⑬ 진로계획 달성예측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32】에서 보면 세 시점에서의 인식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세 집단 간의 점수 차이도 크지 않다. 다만,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진로계획 달성 정도를 낮게 인식하게 되는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은 다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43 진로계획 달성 가능성 예측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진로계획 달성	.222	2	.111	.451	.638
	진로계획 달성*이행경로	.584	4	.146	.593	.668
	오차(진로계획 달성)	87.542	356	.246		
집단 간 효과	절편	1822.007	1	1822.007	3895.521	.000
	이행경로	.709	2	.355	.758	.470
	오차	83.254	178	.468		



【그림 V-32】이행경로별 진로계획 달성가능성 예측 수준의 변화 추이

⑬ 교육기대

어느 수준까지의 교육을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 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개 조사시점 모두 학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대졸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도 대졸까지로 응답한 비율은 높았으나, 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교육포부를 고졸로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표 V-44 교육기대에 대한 경로유형별 차이 단위: 명(%)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전체	χ^2
1차년도	중졸	3(1.8)	2(1.9)	4(10.8)	9(2.9)	41.591 ($p<0.05$)
	고졸	30(17.9)	34(31.5)	20(54.1)	84(26.8)	
	초대졸(2~3년제)	26(15.5)	19(17.6)	4(10.8)	49(15.7)	
	대졸(4년제)	82(48.8)	47(43.5)	9(24.3)	138(44.1)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27(16.1)	6(5.6)	0(0.0)	33(10.5)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2차년도	중졸	0(0.0)	3(2.8)	2(5.4)	5(1.6)	36.198 ($p<0.05$)
	고졸	27(16.1)	31(28.7)	19(51.4)	77(24.6)	
	초대졸(2~3년제)	27(16.1)	17(15.7)	6(16.2)	50(16.0)	
	대졸(4년제)	88(52.4)	49(45.4)	10(27.0)	147(47.0)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26(15.5)	8(7.4)	0(0.0)	34(10.9)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3차년도	중졸	0(0.0)	3(2.8)	2(5.4)	5(1.6)	64.565 ($p<0.05$)
	고졸	26(15.5)	36(33.3)	26(70.3)	88(28.1)	
	초대졸 (2~3년제)	43(25.6)	22(20.4)	6(16.2)	71(22.7)	
	대졸 (4년제)	67(39.9)	40(37.0)	2(5.4)	109(34.8)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32(19.0)	7(6.5)	1(2.7)	40(12.8)	
	전체	168(100.0)	108(100.0)	37(100.0)	31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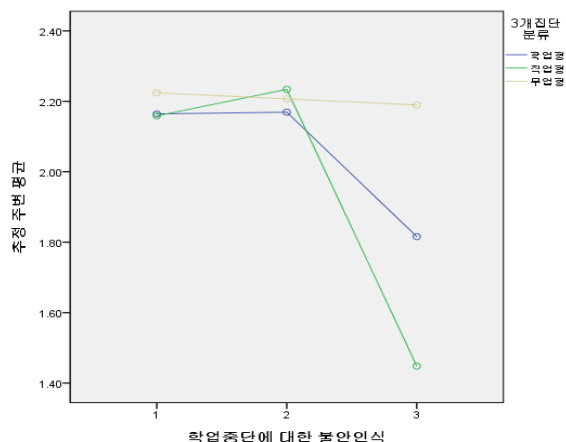
(마) 중단 후 인식 및 가치관

①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세 집단 모두 시간변화에 따라 이러한 불안감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사실에 대해 남에게 말하기 꺼리는 생각이 시간 변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차년도 시점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45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학업중단 불안감	13.785	1,276	10.805	13.066	.000
	학업중단 불안감*이행경로	8.893	2,551	3.485	4.215	.010
	오차(학업중단 불안감)	186.729	225,801	.827		
집단 간 효과	절편	1883.113	1	1883.113	2238.117	.000
	이행경로	4.529	2	2.264	2.691	.071
	오차	148.925	177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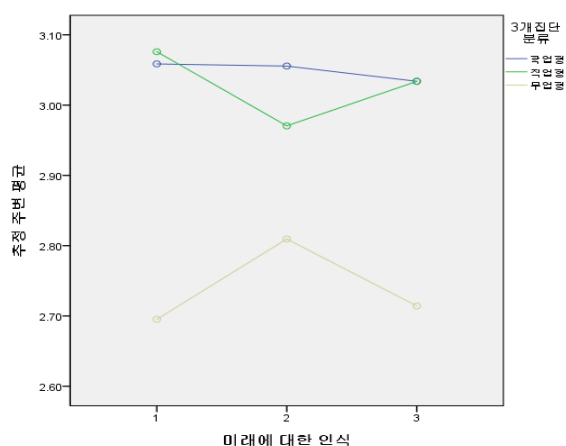
【그림 V-33】 이행경로별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 추이

② 미래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에서도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와 이러한 변화양상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V-34】에서 보면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대체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도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학업형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세 시점 모두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고,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다소 높아졌지만 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다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46 미래에 대한 태도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미래에 대한 태도	.034	1.968	.017	.074	.926
	미래에 대한 태도*이행경로	.671	3.936	.170	.724	.573
	오차(미래에 대한 태도)	101.401	431.011	.235		
집단 간 효과	절편	4617.932	1	4617.932	6154.144	.000
	이행경로	8.037	2	4.019	5.355	.005
	오차	164.333	219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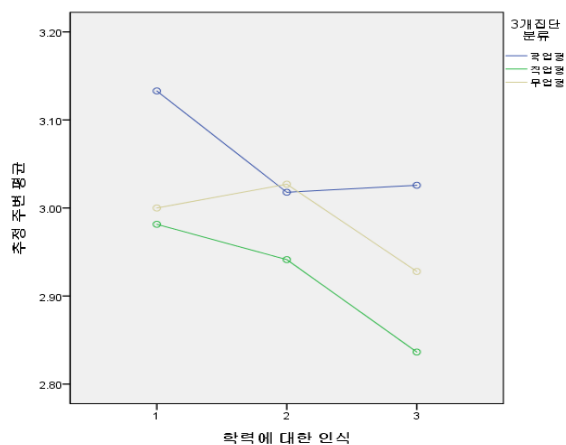
【그림 V-34】이행경로별 미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

③ 학력에 대한 태도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태도 역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변화나 변화양상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V-35】에서 보면 학업형 청소년들이 학력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직업형 청소년들은 학력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47 학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 내/간 차이

효과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집단 내 효과	학력에 대한 태도	1.263	2	.631	2.491	.084
	학력에 대한 태도*이행경로	.642	4	.161	.633	.639
	오차(학력에 대한 태도)	157.206	620	.254		
집단 간 효과	절편	5706.582	1	5706.582	9336.505	.000
	이행경로	3.853	2	1.927	3.152	.044
	오차	189.476	310	.611		



【그림 V-35】이행경로별 학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

3) 학업중단청소년 이행경로 결정요인: 학업중단시점의 특성변수를 중심으로

일반 학업중단청소년의 중단 후 세 개의 이행경로를 결정짓는 설명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 집단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효과를 산출하였다. 한계효과는 설명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몇 %p 증가하는가를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성별, 가구구성 등과 같이 더미변수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수준(reference level)과 대비한 확률을 의미한다. 상수의 한계효과는 설명변수를 투입한 상태의 조건부 확률 값을 나타낸다.

먼저 학업중단 후 무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의 경우,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무질서 수준이 낮을수록 무업형에 속할 확률은 8.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문제보다는 학교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무업형에 속할 확률은 11.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멘토를 만난 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멘토를 만난 경우 무업형에 속할 확률이 64.8%p 높아졌으며, 반대로 직업훈련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경우에는 무업형에 속할 확률이 13.1%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직업형에 속할 확률(21.7%p)이 높았다.

학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은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변수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학업형에 속할 확률(21.4%p)이 낮았다. 반면에 학업중단 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수록 학업형에 속할 확률이 15.8%p 높아졌다. 그리고 중단 후 복지시설에서 성인멘토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은 학업형에 속할 확률(46.1%p)이 낮아지지만 교육기대가 높은 청소년들, 특히 대학원졸(44.7%p)의 교육기대를 지닌 청소년들은 학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표 V-48

학업중단청소년 이행경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배경요인	여자		-0.026 (0.048)	0.057 (0.072)	-0.031 (0.071)
	연령(1차년 조사기준)		-0.009 (0.03)	0.055 (0.039)	-0.046 (0.038)
	가구구성 (ref=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0.012 (0.057)	-0.037 (0.082)	0.025 (0.082)
		부모 모두 안계심	0.006 (0.068)	-0.023 (0.096)	0.016 (0.095)
	가구경제수준		0.015 (0.021)	0.02 (0.031)	-0.034 (0.031)
	생애사건경험(가구구성변화 여부) ²⁾		0.014 (0.055)	0.04 (0.075)	-0.055 (0.074)
개인적 요인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0.003 (0.056)	0.217** (0.075)	-0.214** (0.073)
		자아탄력성	-0.077 (0.053)	0.005 (0.069)	0.072 (0.069)
	문제행동	게임중독	-0.002 (0.033)	-0.004 (0.052)	0.006 (0.051)
	문제행동	문제행동경험(학업중단 전) ³⁾	0.001 (0.012)	0.003 (0.018)	-0.005 (0.018)
환경적 요인	부모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0.063 (0.043)	0.02 (0.064)	-0.083 (0.064)
		부모의 경제적 지원	-0.039 (0.04)	-0.055 (0.053)	0.094 [†] (0.052)
		부모방임	0.047 (0.049)	-0.001 (0.068)	-0.046 (0.068)
		부모학대	-0.044 (0.034)	0.032 (0.05)	0.012 (0.05)
	친구관계	친한 친구 수	-0.001 (0.003)	-0.003 (0.004)	0.004 (0.004)
		학업중단 친구 수	-0.008 (0.009)	0.019 [†] (0.011)	-0.011 (0.012)
		또래애착	0.065 (0.048)	-0.05 (0.058)	-0.015 (0.059)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또래비행	0.057 [†] (0.032)	-0.03 (0.057)	-0.026 (0.058)	
	지역사회특성	지역사회 통합	0.02 (0.033)	-0.035 (0.046)	0.015 (0.047)	
		지역사회 무질서	-0.084 [*] (0.034)	0.015 (0.045)	0.07 (0.046)	
		지역사회 유익환경	-0.021 (0.03)	-0.062 (0.045)	0.083 [†] (0.045)	
제도적 요인	학교생활 특성	학업성적 (ref=상)	중	-0.038 (0.064)	-0.069 (0.088)	0.107 (0.087)
			하	0.024 (0.06)	-0.018 (0.084)	-0.006 (0.082)
		무단결석경험		-0.039 (0.048)	-0.013 (0.068)	0.052 (0.068)
		교사관계		-0.004 (0.031)	0.017 (0.038)	-0.013 (0.037)
		또래관계		-0.006 (0.043)	-0.032 (0.051)	0.038 (0.051)
		학습부적응		0.047 (0.032)	0.019 (0.045)	-0.066 (0.044)
		참여적 학교풍토		-0.012 (0.033)	0.028 (0.046)	-0.016 (0.044)
		훈육적 학교풍토		-0.001 (0.03)	0.029 (0.04)	-0.027 (0.039)
		학교규범위반		-0.009 (0.021)	-0.027 (0.034)	0.036 (0.033)
		학업중단 사유 (ref=개인 사유)	학교 사유	0.111 [*] (0.043)	-0.052 (0.093)	-0.06 (0.091)
			대안교육을 위해서	0.077 (0.056)	-0.092 (0.104)	0.015 (0.101)
			문제행동으로	0.024 (0.057)	-0.081 (0.125)	0.057 (0.125)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학교복학절차	0.007 (0.042)	-0.061 (0.065)	0.054 (0.065)
			대안교육기관	0.034 (0.054)	-0.06 (0.076)	0.025 (0.077)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제공받은 적이 없다=0 / 있다=1)	검정고시준비방법	청소년시설	0.023 (0.051)	0.034 (0.072)	-0.057 (0.071)
			청소년시설	-0.071 (0.046)	-0.086 (0.074)	0.158* (0.073)
			진로, 직업훈련 시설	0.07 (0.079)	0.09 (0.099)	-0.16† (0.089)
			학업중단숙려제	-0.011 (0.049)	0.11 (0.072)	-0.099 (0.071)
		학교 소재지 (ref= 대도시)	중소도시	0.039 (0.052)	-0.043 (0.069)	0.004 (0.068)
			읍면지역	-0.003 (0.062)	0.072 (0.103)	-0.069 (0.1)
		학교규모 (ref= 대규모 (1000명 이상))	중규모 (학생수 500~1000명 미만)	0 (0.052)	0.005 (0.069)	-0.005 (0.068)
			소규모 (학생수 500명 미만)	-0.002 (0.068)	-0.057 (0.093)	0.06 (0.095)
	학교유형 (ref= 중학교)	일반계고	일반계고	0.054 (0.069)	-0.013 (0.125)	-0.04 (0.122)
			전문계고	0.055 (0.075)	0.082 (0.128)	-0.137 (0.125)
중단 후 지역사회 기관경험	성인멘토 기관 (만남적이 없다=0 / 있다=1)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	-0.024 (0.062)	-0.013 (0.092)	0.037 (0.092)
			복지시설	0.648*** (0.131)	-0.187 (0.13)	-0.461*** (0.082)
		보호시설	보호시설	0.343† (0.201)	-0.165 (0.143)	-0.178 (0.193)
			상담기관	-0.052 (0.055)	0.161† (0.088)	-0.11 (0.081)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0.063 (0.108)	-0.123 (0.143)	0.06 (0.158)
			직업훈련기관	-0.131*** (0.016)	0.116 (0.17)	0.014 (0.17)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0.034 (0.165)	-0.056 (0.191)	0.022 (0.198)
			대안교육기관	0.034 (0.165)	-0.056 (0.191)	0.022 (0.198)
진로관련 인식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정보탐색활동	0.029 (0.033)	-0.046 (0.054)	0.017 (0.055)
			진로정보탐색활동	0.029 (0.033)	-0.046 (0.054)	0.017 (0.055)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dy/dx (Delta-method Std. Err.)
		진로결정 ⁴⁾	-0.082 [†] (0.044)	-0.031 (0.071)	0.113 (0.07)
	교육기대 (ref= 중졸)	고졸	-0.089 (0.174)	0.003 (0.208)	0.086 (0.19)
		초대졸 (2-3년제)	-0.227 (0.18)	-0.023 (0.219)	0.25 (0.2)
		대졸 (4년제)	-0.192 (0.18)	-0.042 (0.209)	0.234 (0.191)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0.285 [†] (0.172)	-0.162 (0.229)	0.447 [*] (0.212)
	상수		0.126 ^{***} (0.144)	0.339 ^{***} (0.024)	0.535 ^{***} (0.024)

† p<0.1, *p<0.05, **p<0.01, ***p<0.001

주1) 모든 설명변수는 1차년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투입하였음.

주2) 생애사건경험은 부모님의 사망, 별거, 이혼, 재혼, 가출에 관한 8개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1', 모두 없으면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음.

주3) 문제행동경험은 1차년도 조사 시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 각각에 대해 조사하였음. 여기서는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경험만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음.

주4) 진로결정은 진로를 결정한 경우(예, 진학학업, 취업, 취업과 진학 병행, 가업 도움 등)는 '1',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음.

4)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2013년 1차년도 패널조사에서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조사한 기간(2012년 7월~2013년 7월)에 최초로 학업을 중단(2012년 6월 이후)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333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 경험사건의 시계열 배열 특성인 경험경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집단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33명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총 6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집단은 구성원들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학업지속형, 학업복귀형, 직업형, 학업-직업전환형, 무업형, 비행형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유형별 관련변수 분석에서는 분석의 간명성을 위해 도출된

6개의 유형을 세 개의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여기서는 비행형 집단을 제외하고, 학업지속형과 학업복귀형은 ‘학업형’으로 직업형과 학업-직업전환형은 ‘직업형’으로, 마지막으로 ‘무업형’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 세 유형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변인, 개인적 특성변인, 환경적 특성변인, 제도적 특성 변인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간변화(조사시점 기준)에 따른 특성변인의 차이 혹은 변화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1) 배경변인

이행경로별 집단 간에 성별, 연령별 분포, 가구구성, 가구 경제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은 가구 경제수준이 감소, 다시 증가의 양상이었고 무업형은 3차 조사 시점에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생애사건(가족구성의 변화)에서는 일부 항목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타 집단에 비해 직업형 청소년들 중에 친부모님의 이혼과 친어머니의 재혼 사건 비율이 높았다.

(2) 개인적 특성

표 V-49 분석결과 요약-이행경로별 개인적 특성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		○
사회적 낙인감	○		
게임중독	○		○
스마트폰 중독	○	○	○
비행경험	○		○

주 : 1)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개인의 심리정서 특성변수 중 자아탄력성의 경우 시간변화에 따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변수였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형 청소년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무업형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띠었다.

사회적 낙인감에서도 세 집단 간 수준 차이가 있었다. 무업형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업형, 학업형 청소년 순이었다. 특히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 조사 시점에서의 사회적 낙인감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무업형과 학업형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은 큰 변화가 없었다.

게임중독 역시 조사 시점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한 변수였으며, 무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게임중독 수준을 보였다. 또한 무업형 청소년들은 시간이 흘러도 게임중독 수준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특성도 보였다. 반면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은 게임중독 수준도 낮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수준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도 유사한 특성을 보였는데, 이 역시 무업형 청소년들의 중독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게임중독과 달리 무업형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게임중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 역시 학업형 청소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행경험에서도 무업형 청소년들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낮았다. 특히 비행경험은 학업중단 직후(1차년도)에 학업중단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2, 3차년도 조사시점으로 갈수록 다시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3) 환경적 특성

표 V-50 분석결과 요약 - 이행경로별 환경적 특성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부모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	○	○
	부모 방임	○		○
	부모 학대			○
친구관계	친한 친구 수			○
	새로 사귀 친구 수		○	○
	학업중단 친구 수	○		○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		○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통합			○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유익환경	○		

주 : 1)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부모관계와 관련한 변수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 수준이 가장 높고, 시간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청소년들이 직업형 경로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지원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은 본인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방임에서는 무업형 청소년의 방임수준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직업형과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방임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의 방임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학업형 청소년이었다.

친구관련 변수 중에서는 학업중단 친구 수만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직업형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친구가 가장 많은 집단이었고, 학업형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 세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한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친구의 비행성향에서는 무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 관련 변수 중에서는 지역사회 유익환경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중단 이후 초기에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청소년들 순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유익한 시설이 많다고 인식하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다음으로 학업형, 직업형 청소년 순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4) 제도적 특성

학업중단 이전의 특성 중에서 학습부적응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학업형 및 직업형 청소년에 비해 무업형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전에 학습부적응을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규범 위반경험에서도 무업형 청소년들이 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그 경험빈도가 많았다. 그러나 직업형 청소년과 무업형 청소년 간에는 학교규범 위반 경험 차이가 없었다.

학업중단 후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세 집단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났다. 학업형 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라고 응답하였고, 직업형 청소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그리고 무업형 청소년들은 실컷 놀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 사유에서는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무업형의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 시 제공받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도 없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학업중단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을 위한 충분한 탐색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그만둔 학교유형에서는 학업형과 무업형 청소년들은 일반고에 다니다 그만둔 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계고를 다니다 그만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여러 기관에서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에서는 세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중단 직후에는 평균 1명 이상의 멘토를 만났던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저히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진로정보 탐색 활동은 학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형 청소년들의 탐색활동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학업형과 무업형 청소년들의 탐색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였고, 특히 무업형 청소년의 탐색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진로정보 탐색활동과 관련하여 진로장애의 경우 무업형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또한 진로결정 여부에서도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75% 이상이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무업형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진로결정 사례가 적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업형과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3차년도 시점에서는 진로결정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직업형 청소년들은 진로결정 비율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포부와 관련해서는 학업형 청소년들의 교육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직업형 청소년들이었다.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교육기대를 대졸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반면,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V-51 분석결과 요약 - 이행경로별 제도적 특성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중단 시 학교생활	학업중단 시기	○		
	중단시 성적수준	○		
	무단결석 경험			
	최초결석 시기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습부적응	○		
	학교풍토(훈육적)			
	학교풍토(참여적)			
	학교규범 위반경험	○		
	중단시 하고 싶었던 일	○		
	학업중단 사유	○		
	중단시 정보 경험			
중단학교 특성	학교유형	○		
	학교소재지역			
	학교규모			
지역기관 성인 멘토				○
동아리 활동 경험				
진로관련 경험 및 인식	진로정보탐색활동	○		○
	진로장애	○		
	진로결정 여부	○		
	진로계획 달성 예측			
	교육기대수준	○		

주 : 1)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5) 중단 후 인식 및 가치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은 세 집단 모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사실에 대해 남에게 말하기 꺼리는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차년도 시점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감소했다.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업형 청소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업형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직업형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져 3차년도 시점에서는 학업형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학력에 대한 태도에서도 학업형 청소년들이

학력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직업형 청소년들의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V-52 분석결과 요약-이행경로별 중단 후 인식 및 가치관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학업중단 불안감		○	○
미래에 대한 태도	○		
학력에 대한 태도	○		

주 : 1)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6) 이행경로 결정요인

<표 V-53> 는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의 결정 요인을 요약한 것이다.

표 V-53 분석결과 요약 - 학업중단청소년 이행경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 유무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배경요인	여자		0	0	0
	연령(1차년 조사기준)		0	0	0
	가구구성 (ref=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0	0	0
		부모 모두 안계심	0	0	0
	가구경제수준		0	0	0
	생애사건경험(가구구성변화 여부) ²⁾		0	0	0
개인적 요인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0	+	-
		자아탄력성	0	0	0
	문제행동	게임중독	0	0	0
		문제행동	문제행동경험 (학업중단 전) ³⁾	0	0
환경적 요인	부모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0	0	0
		부모의 경제적 지원	0	0	0
		부모방임	0	0	0
		부모학대	0	0	0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친구관계	친한 친구 수	0	0	0
		학업중단 친구 수	0	0	0
		또래애착	0	0	0
		또래비행	0	0	0
	지역사회특성	지역사회 통합	0	0	0
		지역사회 무질서	-	0	0
		지역사회 유익환경	0	0	0
제도적 요인	학교생활 특성	학업성적 (ref=상)	중	0	0
			하	0	0
		무단결석경험		0	0
		교사관계		0	0
		또래관계		0	0
		학습부적응		0	0
		참여적 학교풍토		0	0
		훈육적 학교풍토		0	0
		학교규범위반		0	0
		학업중단 사유 (ref=개인 사유)	학교 사유	+	0
			대안교육을 위해서	0	0
			문제행동으로	0	0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제공받은 적이 없다=0 / 있다=1)	학교복학절차	0	0
			대안교육기관	0	0
			검정고시준비방법	0	0
			청소년시설	0	0
			진로, 직업훈련 시설	0	0
			학업중단속려제	0	0

구분	변 수 ¹⁾		무업형	직업형	학업형	
		학교소재지 (ref= 대도시)	중소도시	0	0	0
			읍면지역	0	0	0
		학교규모 (ref= 대규모 (1000명 이상))	중규모(학생수 500~1000명 미만)	0	0	0
			소규모(학생수 500명 미만)	0	0	0
		학교유형 (ref= 중학교)	일반계고	0	0	0
			전문계고	0	0	0
	중단 후 지역사회 기관경험	성인멘토 기관 (만남적이 없다=0 / 있다=1)	청소년시설	0	0	0
			복지시설	+	0	-
			보호시설	0	0	0
			상담기관	0	0	0
			보호관찰소	0	0	0
			직업훈련기관	-	0	0
			대안교육기관	0	0	0
	진로관련 인식	진로정보탐색활동		0	0	0
		진로결정 ⁴⁾		0	0	0
		교육기대 (ref= 중졸)	고졸	0	0	0
			초대졸(2~3년제)	0	0	0
			대졸(4년제)	0	0	0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0	0	+

주1) 모든 설명변수는 1차년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투입하였음.

주2) 생애사건경험은 부모님의 사망, 별거, 이혼, 재혼, 가출에 관한 8개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1', 모두 없으면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음.

주3) 문제행동경험은 1차년도 조사 시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 각각에 대해 조사하였음. 여기서는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 경험만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음.

주4) 진로결정은 진로를 결정한 경우(예, 진학·학업, 취업, 취업과 진학 병행, 가업 도움 등)는 '1',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음.

주5)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가) 학업형

학업형 이행경로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학업지속 혹은 학업복귀를 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학업중단 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수록 학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의 유형 중 복지시설이나 상담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청소년들은 오히려 학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성인멘토를 이들 시설에서 만났을 때 학업형보다는 다른 유형의 경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학업과 관련한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여 학업형 경로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형 경로에 속한 청소년들이 대체로 성인멘토의 영향 때문에 학업형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기대 수준이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높은 청소년들이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나) 직업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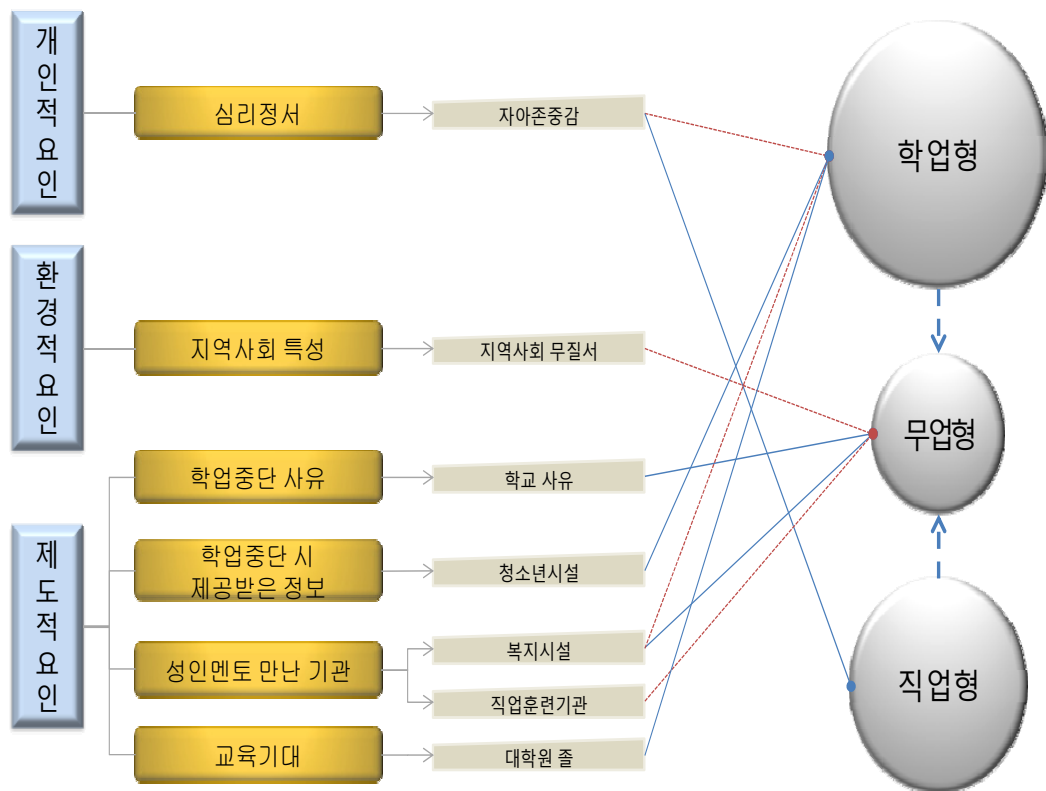
직업형 이행경로의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직업형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 무업형

무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은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그리고 개인사유 보다는 학교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고, 교육기대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복지시설에서 성인멘토를 만났던 청소년들이 무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반대로 직업훈련기관에서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은 무업형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 한편, 진로를 미결정한 청소년들과 학업중단 시 학업보충에 대한 욕구가 적고 또래 비행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무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주요 결과들을 볼 때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공부의 필요성이나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큰 청소년들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무업형 경로로 소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다른 대안(예, 직업훈련)적 진로를 안내해줄 때 무업형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도 가진다.

한편 복지시설에서 성인멘토를 만났던 청소년들이 무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복지시설에서의 성인멘토가 무업형 이행경로로 청소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그 곳에서 성인멘토를 만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각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36】 이다.



【그림 V-36】 중단 후 이행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양상 비교¹²⁵⁾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행 혹은 범죄로 인해 학업중단 당시 장기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1차년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모두 781명이 조사에 참여한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22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494명이었고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167명이었다¹²⁶⁾.

이 장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된 이래 3차년도 조사까지 3년 동안 나타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각각의 집단이 갖고 있는 변화 양상이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집단은 학업중단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동안 심리·정서 상태, 일상생활, 가치관 등에서 나타난 변화의 양상이 이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절에서는 3개년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94명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6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분석 대상 변수에 있어서 지난 3년에 걸쳐 나타난 변화의 양상이며,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그리고 각 집단의 변화 양상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S for Windows(Version 18)의 반복측정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선형모형 분석(GLM(M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의 경우 구형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일변량 또는 다변량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25) 이 부분은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126) 표본 유지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앞의 자료수집과 관련한 장(障)의 내용 참조

(2) 변수 설정

본 장에서 두 집단의 비교를 위해 중점을 둔 영역은 심리·정서 상태, 매체 이용 경험, 환경 요인, 일상생활, 비행 관련 피해 및 가해 경험, 진로, 가치관의 7개 영역이다. 이 가운데 심리·정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우울감, 충동성, 사회적 낙인감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게임 중독, SNS 피해 및 가해 경험, 스마트폰 중독을 중심으로 매체 이용을 살펴보았다. 환경 요인으로 먼저 부모와 관련한 요인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 방임 및 학대 정도를 살펴보았고, 친구와 관련한 요인으로는 친한 친구 수, 또래 애착 정도, 친구의 비행성향을 살펴보았으며, 지역사회와 관련한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통합정도와 무질서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역사회의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영역에서는 평일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수면시간, 학교·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보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나 전일제로 일을 하는 시간, 개인 공부시간, 휴대전화나 컴퓨터 또는 TV 이용 시간, 운동·취미·동아리·종교 활동 등을 하는 시간과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식습관과 관련하여서는 아침, 점심, 저녁식사 부족 여부와 인스턴트식품 섭취 정도를 분석하였고, 아르바이트 경험과 동아리 활동 경험과 관련한 변수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비행 관련 피해 경험으로는 집단 따돌림 당하기, 성적인 놀림 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인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성폭력 당하기를 분석하였고 가해경험으로는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자살 시도, 공공기물 파손 경험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진로 관련 경험과 관련하여 진로정보 탐색을 위한 활동 정도, 진로 장애, 향후 진로결정 여부, 진로달성 예측 정도,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가치관과 관련한 항목으로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 및 학업중단 만족도, 학력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측정 방법은 <표 V-54>에 제시되어 있다.

표 V-54 변수 측정 방법

구분	변 수	측 정 방 법
개 인 적 요 인	자아존중감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자아탄력성	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⑤나는 내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생활만족도	①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②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③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심리 정서 우울감	①기운이 별로 없다,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③걱정이 많다,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울기를 잘한다, ⑥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⑦외롭다, ⑧모든 일이 귀찮고 흥미가 없다,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 모든 일이 힘들다의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충동성	①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②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③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④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⑤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사회적 낙인감	①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②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③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④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⑤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⑥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역코딩), ⑦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⑧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의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문제 행동	게임중독	①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②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③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④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⑤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⑥게임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⑦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⑧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의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구분	변수	측정 방법
환경적 요인	SNS 피해 경험	①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②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③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④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⑤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SNS 가해 경험	①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②SNS를 통해 허락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③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④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⑤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스마트폰 중독	①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②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③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④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⑤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⑥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전부절하고 초조해진다, ⑦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억코딩), ⑧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의 8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①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방임 ①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②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③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고, ④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학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②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에 대한 응답값
	또래 애착	①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②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③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구분	변 수		측 정 방 법
제도적요인		친구의 비행성향	①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②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③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통합	①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②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③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④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지역사회 무질서	①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②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③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④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지역사회 유익환경	①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②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는 2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종교기관, 학원, 치료시설,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은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를 0으로 측정
제도적요인	진로 관련 경험 및 인식	진로정보 탐색 활동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①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②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③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진로 장애	①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②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역코딩), ③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④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⑤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⑥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 할까봐 불안하다, ⑦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⑧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⑨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⑩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⑪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⑫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⑬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1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향후 진로결정 여부		향후 진로에 대하여 진로를 결정한 상태인 경우=1, 결정하지 못한 경우=0로 코딩

구분	변 수	측 정 방 법
일 상 생 활	진로달성 예측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본인의 교육기대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값(1=중졸~5=대학원졸)
	생활시간	평일의 수면시간, 학교·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나 전일 제로 일하는 시간, 개인 공부시간, 휴대전화·컴퓨터·TV 이용 시간, 운동·취미·동아리·종교활동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아침식사 부족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이 먹어야 2번 먹었다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점심식사 부족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이 먹어야 2번 먹었다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저녁식사 부족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이 먹어야 2번 먹었다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인스턴트식품 섭취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비 행 관 련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값(1=예, 0=아니오)
	동아리활동 경험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값(1=예, 0=아니오)
	피해 경험	집단 따돌림 당하기, 성적인 놀림 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인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성폭력 당하기(1=예, 0=아니오)
중 단 후 인 식 및 가 치 관	가해 경험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자살 시도, 공공기물 파손(1=예, 0=아니오)
	학업중단 불안감	①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②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야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③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업중단 만족도	①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②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역코딩), ③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력에 대한 태도	①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②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③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중 단 후 인 식 및 가 치 관	미래에 대한 태도	①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③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3개 문항에 대한 응답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2) 분석 결과

(1) 개인적 요인

(가) 심리·정서

표 V-55 심리·정서 상태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자아존중감	일반	2.96(.54)	2.94(.54)	2.96(.50)	p<.10
	보호	3.01(.56)	3.05(.57)	3.02(.67)	
자아탄력성	일반	2.85(.55)	2.81(.51)	2.79(.53)	p<.001
	보호	2.98(.51)	2.98(.56)	2.97(.64)	
생활만족도	일반	—	2.60(.64)	2.64(.63)	n.s.
	보호	—	2.61(.71)	2.56(.79)	
우울감	일반	2.05(.58)	1.99(.57)	2.03(.57)	n.s.
	보호	2.01(.63)	2.01(.65)	2.03(.67)	
충동성	일반	2.00(.58)	1.93(.60)	1.88(.56)	n.s.
	보호	1.93(.63)	1.88(.61)	1.92(.61)	
사회적 낙인감	일반	—	2.05(.47)	2.02(.48)	n.s.
	보호	—	2.09(.50)	2.03(.52)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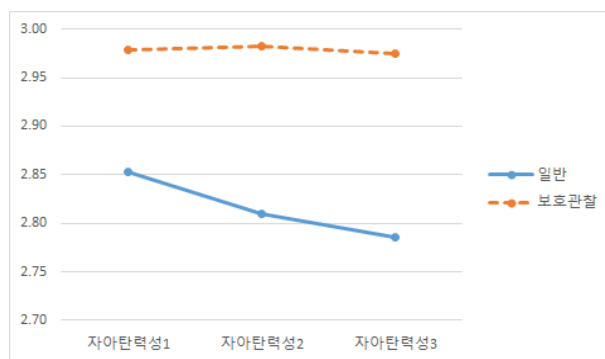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생활만족도, 우울감 및 충동성, 사회적 낙인감에 대하여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5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나 이 차이는 $\alpha=.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간의 조사 기간 동안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6 자아탄력성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2565.446	1	12565.446	22840.951	.000
GROUP	9.864	1	9.864	17.930	.000
오차	361.984	658	.550		

반면에 자아탄력성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56> 참조).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수준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비행 이후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V-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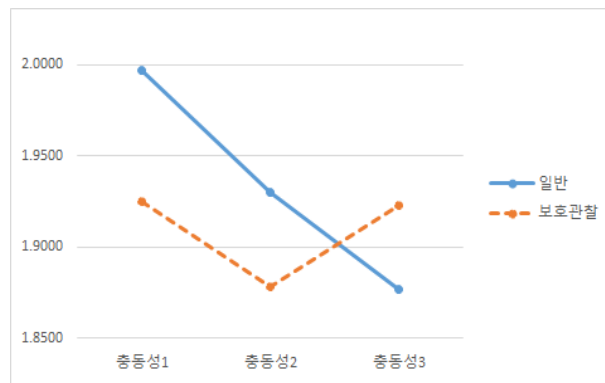
【그림 V-37】 자아탄력성의 집단별 변화 추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우울감에 있어서는 3년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55> 참조). 그러나 충동성의 경우에는 3년간의 변화 양상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는 $\alpha=.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도 $\alpha=.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57> 참조).

표 V-57 총동성의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총동성	1.153	2	.577	2.915	.055
총동성 * GROUP	.980	2	.490	2.478	.084
오차(총동성)	259.956	1314	.198		

【그림 V-38】를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느끼는 총동성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총동성은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3차년도에는 1차년도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어, 두 집단 사이의 변화의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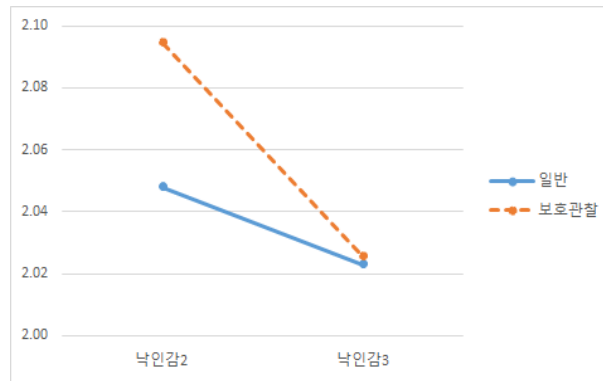


【그림 V-38】 총동성의 집단별 변화 추이

사회적 낙인감의 경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낙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집단 내 변화 양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V-58>과 【그림 V-39】 참조).

표 V-58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낙인감	.548	1	.548	4.314	.038
낙인감 * GROUP	.121	1	.121	.952	.330
오차(낙인감)	83.546	658	.127		



【그림 V-39】 사회적 낙인감의 집단별 변화 추이

(나) 문제 행동

표 V-59 매체 이용 관련 중독 성향 및 경험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게임 중독	일반	1.48(.64)	1.37(.51)	1.35(.50)	p<.05
	보호	1.37(.59)	1.30(.57)	1.27(.54)	
SNS 피해 경험	일반	—	1.21(.36)	1.20(.34)	n.s.
	보호	—	1.25(.36)	1.26(.40)	
SNS 가해 경험	일반	—	1.13(.29)	1.12(.26)	n.s.
	보호	—	1.22(.45)	1.24(.50)	
스마트폰 중독	일반	—	1.71(.52)	1.66(.48)	p<.01
	보호	—	1.54(.55)	1.63(.58)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과 관련한 게임중독 정도, SNS 상에서의 피해 및 가해 경험, 스마트폰 중독 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V-5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두 집단의 게임중독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0> 참조). 그리고 게임 중독 성향과 관련하여 집단별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게임중독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게임중독 성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1> 참조). 구체적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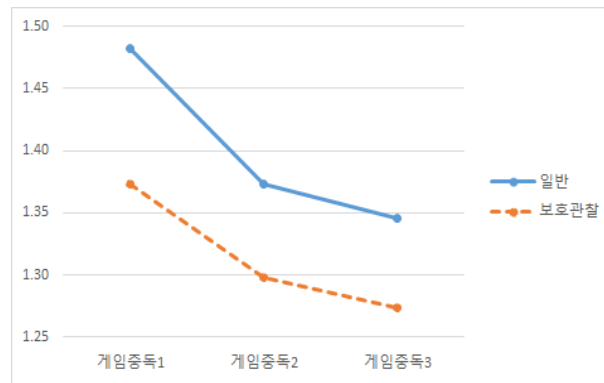
【그림 V-4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수준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으며, 두 집단의 게임 중독 수준의 변화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0 게임중독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2735.931	1	2735.931	4690.800	.000
GROUP	2.717	1	2.717	4.659	.031
오차	383.198	657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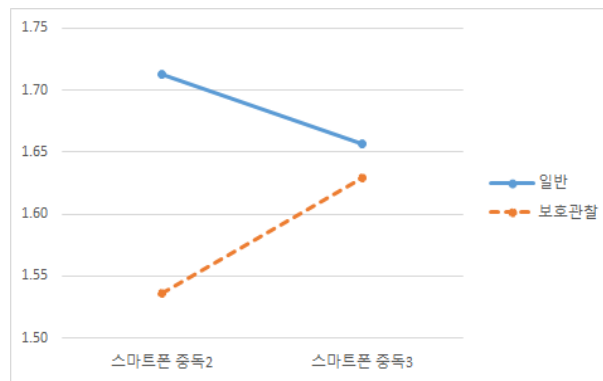
표 V-61 게임중독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게임중독	Pillai의 트레이스	.029	9.653	2.000	656.000	.000
	Wilks의 람다	.971	9.653	2.000	656.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29	9.653	2.000	656.000	.000
	Roy의 최대근	.029	9.653	2.000	656.000	.000
게임중독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1	.281	2.000	656.000	.755
	Wilks의 람다	.999	.281	2.000	656.000	.755
	Hotelling의 트레이스	.001	.281	2.000	656.000	.755
	Roy의 최대근	.001	.281	2.000	656.000	.755



【그림 V-40】 게임중독의 집단별 변화 추이

SNS 상에서의 피해 및 가해 경험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V-59> 참조). 즉 2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3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41】 참조).



【그림 V-41】 스마트폰 중독의 집단별 변화 추이

(2) 환경적 요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관련 요인, 친구 관련 요인, 지역사회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부모 관계

먼저 부모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부모 방임 및 부모 학대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표 V-62>에 제시하였다.

표 V-62 **환경요인 - 부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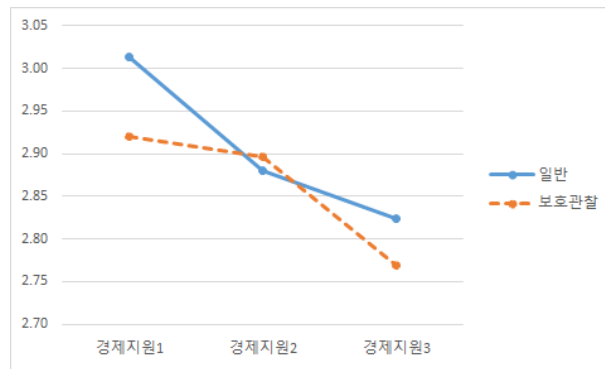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부모의 정서적 지원	일반	3.02(.66)	3.01(.65)	3.00(.63)	n.s.
	보호	3.02(.70)	3.08(.66)	3.08(.66)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일반	3.01(.71)	2.88(.76)	2.82(.77)	n.s.
	보호	2.92(.72)	2.90(.79)	2.77(.85)	
부모 방임	일반	1.98(.44)	1.97(.46)	1.97(.47)	p<.05
	보호	2.06(.55)	2.00(.48)	2.08(.57)	
부모 학대	일반	1.77(.74)	1.53(.66)	1.46(.60)	p<.05
	보호	1.90(.73)	1.61(.61)	1.58(.68)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우선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에 대한 3년간의 변화도 두 집단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변화의 경우 3년의 조사 시기 동안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3>에 나타난 집단 내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V-42】에 나타난 그래프의 변화 양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학업 중단 이후 일반청소년이나 보호관찰 청소년 모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3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경제지원	Pillai의 트레이스	.034	11.471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66	11.471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35	11.471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35	11.471	2,000	658,000	.000
경제지원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4	1.403	2,000	658,000	.247
	Wilks의 람다	.996	1.403	2,000	658,000	.247
	Hotelling의 트레이스	.004	1.403	2,000	658,000	.247
	Roy의 최대근	.004	1.403	2,000	658,000	.247



【그림 V-42】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집단별 변화 추이

표 V-64 부모 방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6043.986	1	6043.986	16972.499	.000
GROUP	1.827	1	1.827	5.130	.024
오차	234.317	658	.356		

부모의 방임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3년의 기간 동안 두 집단 모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부모의 방임 수준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64> 참조). 즉 부모의 방임 정도에 대한 인식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3년 내내 동일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 수준에 대한 인식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표 V-6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학대 수준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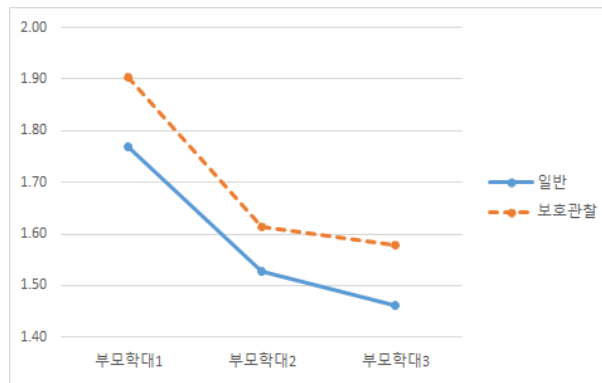
표 V-65 부모 학대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4039.592	1	4039.592	4968.335	.000
GROUP	4.745	1	4.745	5.836	.016
오차	535.812	659	.813		

집단 내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 수준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나, 부모 학대의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66> 참조). 즉 【그림 V-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부모 학대 수준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표 V-66 부모 학대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부모학대	Pillai의 트레이스	.123	46.319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877	46.319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141	46.319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141	46.319	2.000	658.000	.000
부모학대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1	.263	2.000	658.000	.769
	Wilks의 람다	.999	.263	2.000	658.000	.769
	Hotelling의 트레이스	.001	.263	2.000	658.000	.769
	Roy의 최대근	.001	.263	2.000	658.000	.769



【그림 V-43】 부모 학대의 집단별 변화 추이

(나) 친구 관계

환경 요인 가운데 친구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6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V-67 환경요인 - 친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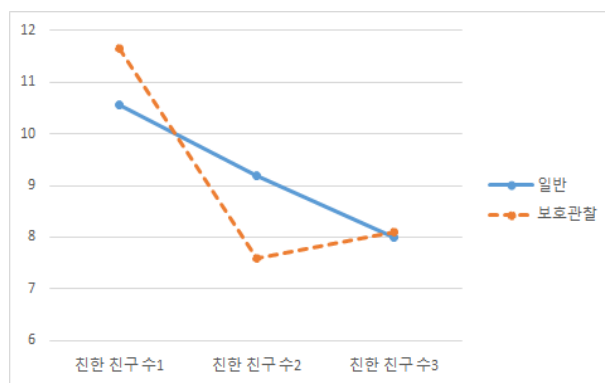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친한 친구 수	일반	10.57(9.48)	9.19(9.87)	7.99(8.73)	n.s.
	보호	11.66(17.65)	7.60(12.32)	8.10(16.44)	
또래 애착	일반	3.14(.59)	3.09(.58)	3.13(.58)	n.s.
	보호	3.22(.53)	3.20(.55)	3.13(.72)	
친구의 비행성향	일반	1.64(.61)	1.57(.60)	1.50(.58)	p<.05
	보호	1.75(.66)	1.65(.68)	1.61(.74)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먼저 친한 친구 수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친한 친구 수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고, 친한 친구 수의 변화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V-68> 참조), 친한 친구 수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표 V-67> 참조). 이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친한 친구 수의 변화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그림 V-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친구 수는 2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3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8 친한 친구 수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친구 수	Pillai의 트레이스	.044	15.187	2.000	655.000	.000
	Wilks의 람다	.956	15.187	2.000	655.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46	15.187	2.000	655.000	.000
	Roy의 최대근	.046	15.187	2.000	655.000	.000
친구 수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0	3.319	2.000	655.000	.037
	Wilks의 람다	.990	3.319	2.000	655.000	.037
	Hotelling의 트레이스	.010	3.319	2.000	655.000	.037
	Roy의 최대근	.010	3.319	2.000	655.000	.037



【그림 V-44】 친한 친구 수의 집단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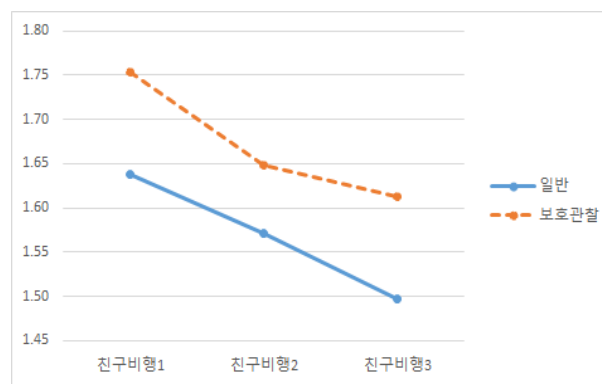
또래 애착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표 V-6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귀고 있는 친구들의 비행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친구의 비행성향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구의 비행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70> 참조).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들이 지니고 있는 비행 성향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보다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V-45】 참조).

표 V-69 친구의 비행성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3911.432	1	3911.432	6058.417	.000
GROUP	3.914	1	3.914	6.063	.014
오차	424.172	657	.646		

표 V-70 친구의 비행성향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친구비행	Pillai의 트레이스	.026	8,663	2,000	656,000	.000
	Wilks의 람다	.974	8,663	2,000	656,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26	8,663	2,000	656,000	.000
	Roy의 최대근	.026	8,663	2,000	656,000	.000
친구비행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1	.246	2,000	656,000	.782
	Wilks의 람다	.999	.246	2,000	656,000	.782
	Hotelling의 트레이스	.001	.246	2,000	656,000	.782
	Roy의 최대근	.001	.246	2,000	656,000	.782



【그림 V-45】 친구 비행성향의 집단별 변화 추이

(다)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특성과 관련된 요인 - 지역사회 통합 정도,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 - 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7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71 **지역사회 특성**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지역사회 통합	일반	2.29(.67)	2.09(.68)	2.09(.67)	p<.001
	보호	2.52(.69)	2.35(.70)	2.32(.72)	
지역사회 무질서	일반	2.26(.65)	2.18(.65)	2.19(.68)	n.s.
	보호	2.21(.71)	2.12(.67)	2.20(.72)	
지역사회 유익환경	일반	2.52(.67)	2.50(.72)	2.56(.72)	n.s.
	보호	2.51(.76)	2.57(.76)	2.56(.79)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먼저 지역의 통합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표 V-7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72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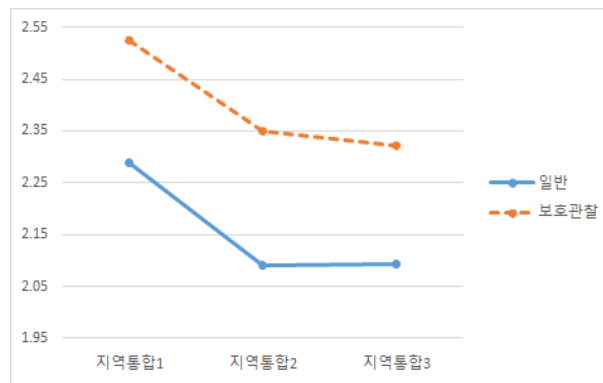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7698.803	1	7698.803	9568.348	.000
GROUP	21.709	1	21.709	26.981	.000
오차	522.193	649	.805		

또한 <표 V-7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변화 양상에 있어서의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화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3 지역사회 통합 인식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통합	Pillai의 트레이스	.054	18.526	2.000	648.000	.000
	Wilks의 람다	.946	18.526	2.000	64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57	18.526	2.000	648.000	.000
	Roy의 최대근	.057	18.526	2.000	648.000	.000
통합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0	.119	2.000	648.000	.888
	Wilks의 람다	1.000	.119	2.000	648.000	.888
	Hotelling의 트레이스	.000	.119	2.000	648.000	.888
	Roy의 최대근	.000	.119	2.000	648.000	.888

【그림 V-46】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 모두 2차년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차년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46】 지역사회 통합 정도의 집단별 변화 추이

지역사회 무질서에 대한 인식 정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나 변화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71> 참조). 이러한 양상은 지역사회의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된 요인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통합 정도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 정도나 지역사회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 내 차이나 집단 간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도적 요인

(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

표 V-74 중단 이후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청소년시설	일반	.12(.32)	.11(.31)	.07(.26)	p<.01
	보호	.07(.25)	.05(.23)	.04(.19)	
복지시설	일반	.02(.16)	.13(.16)	.01(.11)	p<.10
	보호	.07(.25)	.02(.15)	.02(.15)	
보호시설	일반	.02(.15)	.02(.15)	.01(.10)	p<.01
	보호	.07(.26)	.05(.21)	.01(.11)	
상담기관	일반	.20(.40)	.13(.33)	.05(.23)	p<.01
	보호	.09(.29)	.07(.26)	.04(.19)	
보호관찰소	일반	.06(.23)	.04(.19)	.02(.13)	p<.001
	보호	.59(.49)	.48(.50)	.40(.49)	
직업훈련기관	일반	.06(.24)	.03(.18)	.03(.18)	n.s.
	보호	.04(.20)	.05(.23)	.04(.19)	
종교기관	일반	.10(.29)	.06(.24)	.05(.22)	n.s.
	보호	.06(.24)	.05(.21)	.02(.15)	
학원	일반	.12(.33)	.08(.28)	.06(.24)	p<.01
	보호	.04(.20)	.05(.21)	.02(.15)	
치료시설	일반	.04(.20)	.03(.18)	.01(.12)	n.s.
	보호	.02(.13)	.02(.13)	.01(.08)	
대안교육기관	일반	.05(.21)	.02(.15)	.02(.13)	n.s.
	보호	.03(.17)	.00(.00)	.02(.13)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문항에서 우선 청소년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표 V-74> 참조). 조사기간 동안의 변화 유형은 두 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alpha=.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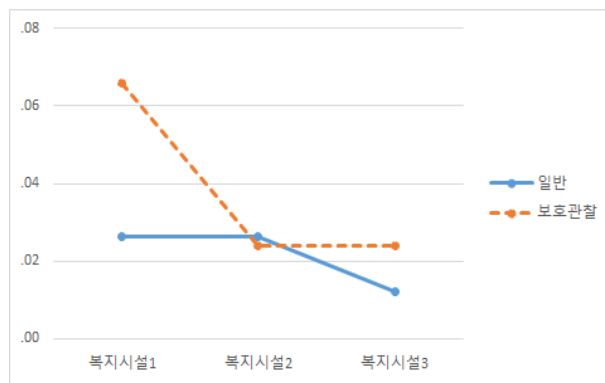
표 V-75 청소년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8.700	1	8.700	75.438	.000
GROUP	.886	1	.886	7.682	.006
오차	76.004	659	.115		

복지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두 집단 간에 나타난 차이는 $\alpha=.10$ 수준에 불과하였다. 3년간의 집단 간 변화 유형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3년 동안 복지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V-75> 및 【그림 V-47】 참조).

표 V-76 복지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복지시설	Pillai의 트레이스	.013	4.207	2,000	658,000	.015
	Wilks의 람다	.987	4.207	2,000	658,000	.015
	Hotelling의 트레이스	.013	4.207	2,000	658,000	.015
	Roy의 최대근	.013	4.207	2,000	658,000	.015
복지시설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8	2.516	2,000	658,000	.082
	Wilks의 람다	.992	2.516	2,000	658,000	.082
	Hotelling의 트레이스	.008	2.516	2,000	658,000	.082
	Roy의 최대근	.008	2.516	2,000	658,000	.082



【그림 V-47】 복지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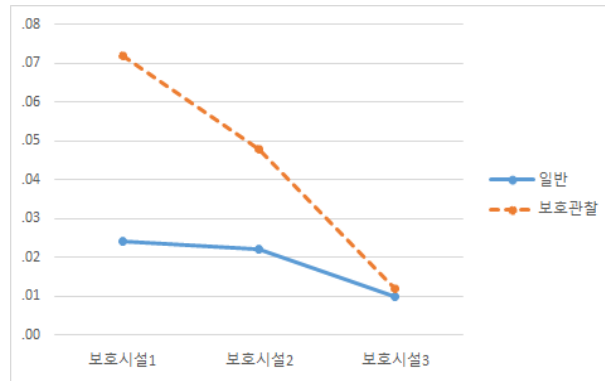
다음으로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율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V-77> 참조).

표 V-77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477	1	1.477	50.768	.000
GROUP	.234	1	.234	8.056	.005
오차	19.172	659	.029		

표 V-78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보호시설	Pillai의 트레이스	.032	10.784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68	10.784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33	10.784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33	10.784	2,000	658,000	.000
보호시설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1	3.615	2,000	658,000	.027
	Wilks의 람다	.989	3.615	2,000	658,000	.027
	Hotelling의 트레이스	.011	3.615	2,000	658,000	.027
	Roy의 최대근	.011	3.615	2,000	658,000	.027



【그림 V-48】 보호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또한 3년간의 변화 추이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의 정도도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78> 및 【그림 V-48】 참조). 특히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감소 정도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에서도 보호시설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상담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비율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V-79> 참조).

표 V-79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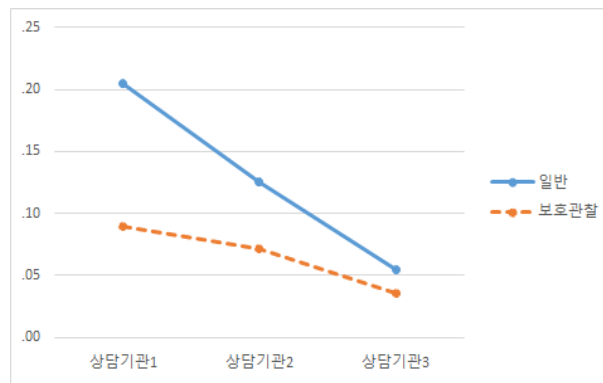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4.102	1	14.102	95.025	.000
GROUP	1.455	1	1.455	9.804	.002
오차	97.801	659	.148		

표 V-80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상담기관	Pillai의 트레이스	.052	18.216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48	18.216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55	18.216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55	18.216	2,000	658,000	.000
상담기관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1	3.807	2,000	658,000	.023
	Wilks의 람다	.989	3.807	2,000	658,000	.023
	Hotelling의 트레이스	.012	3.807	2,000	658,000	.023
	Roy의 최대근	.012	3.807	2,000	658,000	.023

이와 더불어 두 집단 간의 변화 양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담기관에서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감소 정도가 비교적 완만하였으며, 두 집단의 감소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80> 및 【그림 V-49】 참조).



【그림 V-49】 상담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보호관찰소에서 멘토를 만난 경험의 경우에는 자료의 성격 상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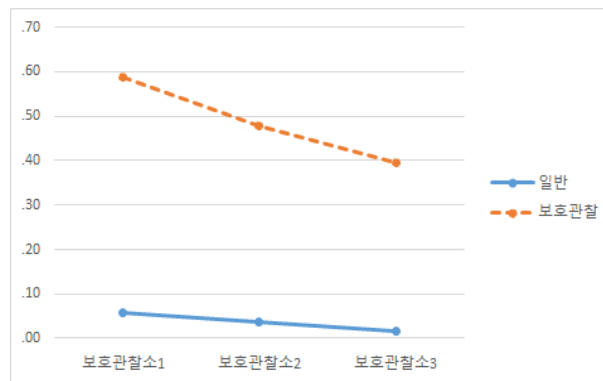
표 V-81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02.597	1	102.597	940.817	.000
GROUP	76.019	1	76.019	697.097	.000
오차	71.865	659	.109		

표 V-82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보호관찰소	3.374	2	1.687	21.830	.000
보호관찰소 * GROUP	1.437	2	.719	9.300	.000
오차	101.847	1318	.077		

두 집단의 3년간의 변화 유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변화의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2> 및 【그림 V-50】 참조).



【그림 V-50】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별 변화 추이

직업훈련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화의 양상이나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종교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경우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화의 양상도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3>). 즉 두 집단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교집단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V-83 종교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종교기관	Pillai의 트레이스	.012	4.082	2.000	658.000	.017
	Wilks의 람다	.988	4.082	2.000	658.000	.017
	Hotelling의 트레이스	.012	4.082	2.000	658.000	.017
	Roy의 최대근	.012	4.082	2.000	658.000	.017
종교기관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2	.535	2.000	658.000	.586
	Wilks의 람다	.998	.535	2.000	658.000	.586
	Hotelling의 트레이스	.002	.535	2.000	658.000	.586
	Roy의 최대근	.002	.535	2.000	658.000	.586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을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율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의 양상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4> 및 <표 V-85> 참조).

표 V-84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5.974	1	5.974	62.461	.000
GROUP	.954	1	.954	9.971	.002
오차	63.033	659	.096		

표 V-85 학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학원	Pillai의 트레이스	.011	3.754	2,000	658,000	.024
	Wilks의 람다	.989	3.754	2,000	658,000	.02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1	3.754	2,000	658,000	.024
	Roy의 최대근	.011	3.754	2,000	658,000	.024
학원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4	1.302	2,000	658,000	.273
	Wilks의 람다	.996	1.302	2,000	658,000	.273
	Hotelling의 트레이스	.004	1.302	2,000	658,000	.273
	Roy의 최대근	.004	1.302	2,000	658,000	.273

치료시설과 대안교육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을 살펴보면, 우선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경험 자체의 비율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변화 유형에서는 치료시설과 대안교육기관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두 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6> 및 <표 V-87> 참조).

표 V-86 치료시설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정)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치료시설	Pillai의 트레이스	.011	3.507	2,000	658,000	.031
	Wilks의 람다	.989	3.507	2,000	658,000	.031
	Hotelling의 트레이스	.011	3.507	2,000	658,000	.031
	Roy의 최대근	.011	3.507	2,000	658,000	.031
치료시설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1	.363	2,000	658,000	.696
	Wilks의 람다	.999	.363	2,000	658,000	.696
	Hotelling의 트레이스	.001	.363	2,000	658,000	.696
	Roy의 최대근	.001	.363	2,000	658,000	.696

표 V-87 대안교육기관에서 멘토를 만난 비율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대안교육기관	Pillai의 트레이스	.016	5.484	2,000	658,000	.004
	Wilks의 람다	.984	5.484	2,000	658,000	.00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7	5.484	2,000	658,000	.004
	Roy의 최대근	.017	5.484	2,000	658,000	.004
대안교육기관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4	1.335	2,000	658,000	.264
	Wilks의 람다	.996	1.335	2,000	658,000	.264
	Hotelling의 트레이스	.004	1.335	2,000	658,000	.264
	Roy의 최대근	.004	1.335	2,000	658,000	.264

(나) 진로 관련 경험 및 인식

진로 관련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진로정보 탐색 활동, 진로 장애, 향후 진로결정 여부, 진로달성 예측,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88>에 제시되어 있다.

표 V-88 진로 관련 경험 및 인식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진로정보 탐색 활동	일반	2.62(.62)	2.55(.60)	2.44(.62)	p<.05
	보호	2.41(.61)	2.49(.61)	2.44(.78)	
진로 장애	일반	—	2.20(.51)	2.19(.56)	n.s.
	보호	—	2.28(.63)	2.22(.65)	
향후 진로결정	일반	—	.87(.34)	.79(.41)	p<.001
	보호	—	.69(.46)	.58(.49)	
진로달성 예측	일반	—	3.19(.60)	3.12(.56)	n.s.
	보호	—	3.24(.63)	3.06(.78)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	일반	—	3.39(1.03)	3.31(1.08)	p<.001
	보호	—	2.74(1.10)	2.56(1.08)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정보 탐색을 위한 활동 정도에 있어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89> 참조). 이러한 진로정보 탐색 활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진로정보 탐색 활동 정보의 변화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보 탐색 활동 정도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변화 양상도 상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9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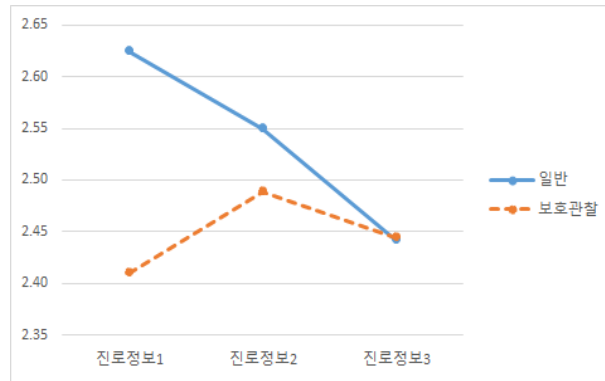
표 V-89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9220.878	1	9220.878	14112.013	.000
GROUP	3.045	1	3.045	4.661	.031
오차	428.635	656	.653		

표 V-90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진로정보 탐색 활동	Pillai의 트레이스	.009	3.112	2,000	655,000	.045
	Wilks의 람다	.991	3.112	2,000	655,000	.045
	Hotelling의 트레이스	.010	3.112	2,000	655,000	.045
	Roy의 최대근	.010	3.112	2,000	655,000	.045
진로정보 탐색 활동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7	5.503	2,000	655,000	.004
	Wilks의 람다	.983	5.503	2,000	655,000	.00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7	5.503	2,000	655,000	.004
	Roy의 최대근	.017	5.503	2,000	655,000	.004

【그림 V-51】을 살펴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정보 탐색 활동 정도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활동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증가하다가 3차년도에 다시 감소하여 두 집단이 매우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51】 진로정보 탐색 활동의 집단별 변화 추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 장애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도 그 정도나 양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V-8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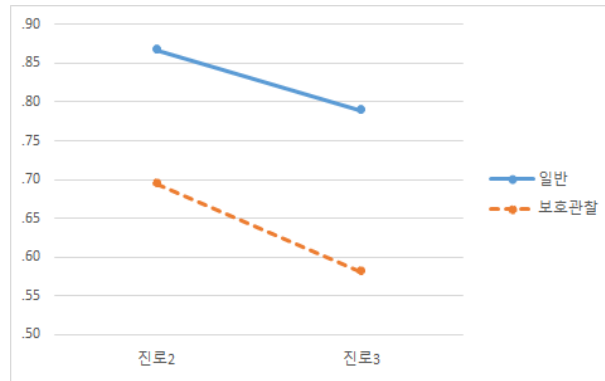
향후 진로 결정 여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향후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V-91> 참조).

표 V-91 향후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519.078	1	519.078	2803.990	.000
GROUP	8.766	1	8.766	47.352	.000
오차	120.699	652	.185		

표 V-92 향후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진로결정	2.168	1	2.168	15.446	.000
진로결정 * GROUP	.076	1	.076	.545	.461
오차(진로결정)	91.526	652	.140		



【그림 V-52】 향후 진로결정 여부의 집단별 변화 추이

향후 진로 결정 여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두 집단 간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V-92>과 【그림 V-52】 참조).

본인이 설정한 진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경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진로 달성에 대한 확신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감소 정도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표 V-88> 및 <표 V-93> 참조).

표 V-93 진로달성 예측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진로달성	1.693	1	1.693	6.120	.014
진로달성 * GROUP	.356	1	.356	1.287	.257
오차(진로달성)	113.661	411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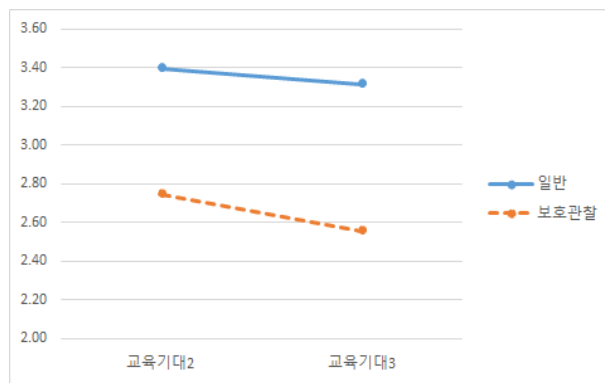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94> 참조). 그러나 이러한 교육 기대 수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V-95> 및 【그림 V-53】 참조).

표 V-94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8991.940	1	8991.940	5166.520	.000
GROUP	123.196	1	123.196	70.785	.000
오차	1146.940	659	1.740		

표 V-95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교육기대	4.435	1	4.435	8.399	.004
교육기대 * GROUP	.684	1	.684	1.294	.256
오차(교육기대)	348.003	659	.528		



【그림 V-53】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의 집단별 변화 추이

(4) 일상생활

(가) 생활시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일 생활시간 양상을 비교하였다(<표 V-96> 참조).

표 V-96 **일상생활 - 평일 생활시간**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수면 시간	일반	7.88(1.84)	7.60(1.88)	7.52(1.79)	p<.001
	보호	8.89(2.18)	8.14(1.73)	7.95(1.75)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간	일반	6.26(3.15)	6.66(3.44)	7.52(3.05)	n.s.
	보호	5.33(2.34)	5.33(3.39)	7.67(1.51)	
일하는 시간	일반	6.45(3.41)	7.38(3.53)	7.75(3.45)	p<.01
	보호	9.16(2.32)	8.58(3.08)	9.32(2.00)	
개인 공부시간	일반	4.29(3.03)	4.26(3.39)	3.82(3.23)	p<.10
	보호	2.63(1.51)	3.13(.99)	1.63(1.06)	
휴대전화, 컴퓨터, TV 이용 시간	일반	4.67(3.30)	4.22(2.96)	3.96(2.67)	n.s.
	보호	3.88(2.43)	4.25(3.44)	3.64(2.16)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활동 시간	일반	1.98(1.77)	1.34(1.33)	1.57(1.64)	n.s.
	보호	1.68(.85)	1.62(.78)	2.12(1.27)	
친구들과 노는 시간	일반	3.58(2.88)	2.86(2.33)	3.10(2.52)	p<.001
	보호	4.92(2.79)	3.94(2.51)	3.75(2.96)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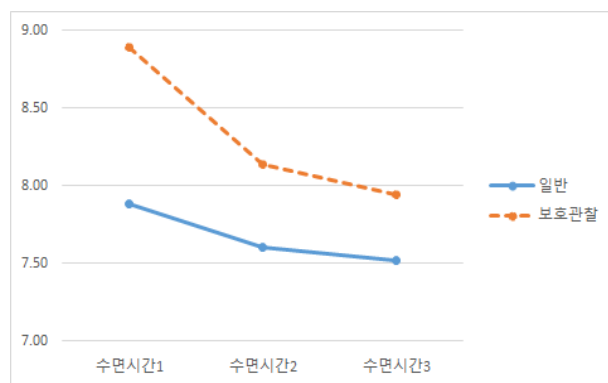
먼저 평일의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표 V-97>에 제시되었듯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V-9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의 변화 양상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수면 시간 변화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일 수면 시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보다 많았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일 수면 시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감소폭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7 평일 수면 시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94896.024	1	94896.024	17504.309	.000
GROUP	159.956	1	159.956	29.505	.000
오차	3561.791	657	5.421		

표 V-98 평일 수면 시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수면 시간	Pillai의 트레이스	.062	21.817	2,000	656,000	.000
	Wilks의 람다	.938	21.817	2,000	656,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67	21.817	2,000	656,000	.000
	Roy의 최대근	.067	21.817	2,000	656,000	.000
수면 시간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3	4.375	2,000	656,000	.013
	Wilks의 람다	.987	4.375	2,000	656,000	.013
	Hotelling의 트레이스	.013	4.375	2,000	656,000	.013
	Roy의 최대근	.013	4.375	2,000	656,000	.013



【그림 V-54】 평일 수면시간의 집단별 변화 추이

학교나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표 V-96> 참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99> 참조). 그러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두 집단 모두 학교나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9 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학교시간	Pillai의 트레이스	.079	3.771	2.000	88.000	.027
	Wilks의 람다	.921	3.771	2.000	88.000	.027
	Hotelling의 트레이스	.086	3.771	2.000	88.000	.027
	Roy의 최대근	.086	3.771	2.000	88.000	.027
학교시간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5	.650	2.000	88.000	.524
	Wilks의 람다	.985	.650	2.000	88.000	.52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5	.650	2.000	88.000	.524
	Roy의 최대근	.015	.650	2.000	88.000	.524

평일에 아르바이트나 전일제로 일을 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0> 참조).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시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사 기간 내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96> 참조).

표 V-100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하는 시간의 집단 간 차이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1028.562	1	11028.562	819.006	.000
GROUP	139.376	1	139.376	10.350	.002
오차	942.605	70	13.466		

평일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 또는 TV 시청 시간, 운동, 취미, 동아리 활동,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집단 간 차이의 경우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 세 가지 활동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도 크게 없었으며, 실제 소비하는 시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V-9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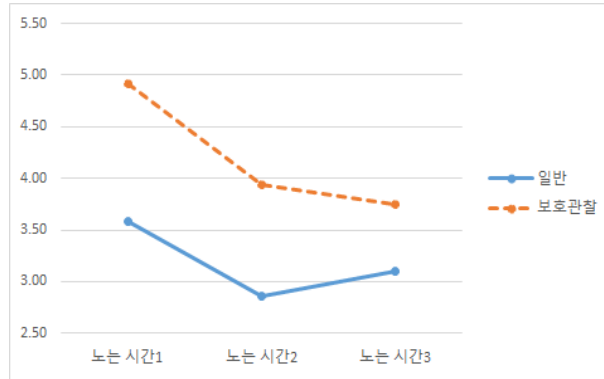
반면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1> 참조). 한편 친구들과 노는 시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변화의 양상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2> 참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사 기간 내내 유지되고 있었다(【그림 V-55】 참조).

표 V-101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9773.105	1	9773.105	933.257	.000
GROUP	187.252	1	187.252	17.881	.000
오차	3853.710	368	10.472		

표 V-102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노는 시간	Pillai의 트레이스	.054	10.397	2,000	367,000	.000
	Wilks의 람다	.946	10.397	2,000	367,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57	10.397	2,000	367,000	.000
	Roy의 최대근	.057	10.397	2,000	367,000	.000
노는 시간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7	1.275	2,000	367,000	.281
	Wilks의 람다	.993	1.275	2,000	367,000	.281
	Hotelling의 트레이스	.007	1.275	2,000	367,000	.281
	Roy의 최대근	.007	1.275	2,000	367,000	.281



【그림 V-55】 평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집단별 변화 추이

(나) 식습관

학업중단 이후 식습관 관련 변수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0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03 식습관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아침식사 부족	일반	1.38(.49)	1.43(.50)	1.56(.50)	p<.01
	보호	1.62(.49)	1.41(.49)	1.57(.50)	
점심식사 부족	일반	1.21(.41)	1.19(.39)	1.79(.41)	p<.001
	보호	1.67(.47)	1.27(.44)	1.73(.45)	
저녁식사 부족	일반	1.18(.38)	1.17(.38)	1.81(.39)	p<.001
	보호	1.73(.45)	1.22(.42)	1.78(.42)	
인스턴트식품 섭취	일반	1.28(.45)	1.32(.47)	1.64(.48)	p<.001
	보호	1.62(.49)	1.34(.47)	1.64(.48)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아침식사 부족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3년간 아침식사를 부족하게 한 정도의 변화 양상의 경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비해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아침식사를 부족하게 한 정도가 감소하다가 3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V-10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침식사 정도에

있어서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집단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변화 양상은 <표 V-105>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침식사 정도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이 상이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침식사 정도의 변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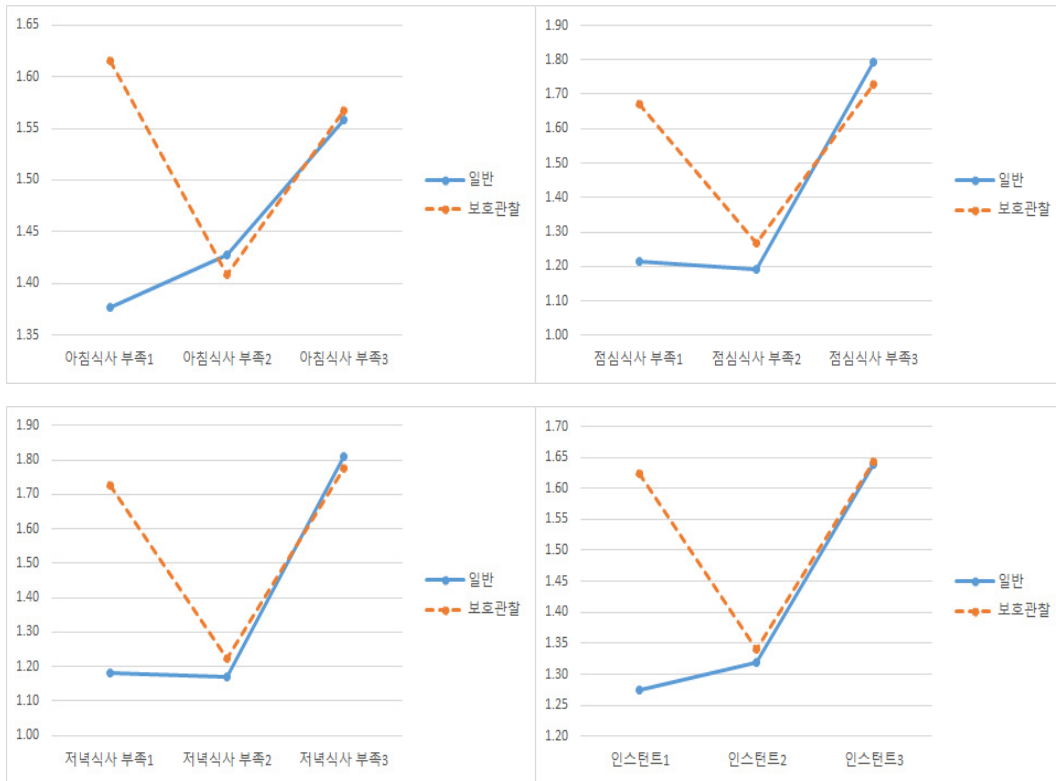
표 V-104 아침식사 부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3290.331	1	3290.331	15725.785	.000
GROUP	2.154	1	2.154	10.297	.001
오차	137.256	656	.209		

표 V-105 아침식사 부족 정도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아침 식사	Pillai의 트레이스	.026	8.914	2,000	655,000	.000
	Wilks의 람다	.974	8.914	2,000	655,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27	8.914	2,000	655,000	.000
	Roy의 최대근	.027	8.914	2,000	655,000	.000
아침 식사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34	11.473	2,000	655,000	.000
	Wilks의 람다	.966	11.473	2,000	655,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35	11.473	2,000	655,000	.000
	Roy의 최대근	.035	11.473	2,000	655,000	.000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표 V-103>에서 볼 수 있듯이 아침식사 부족과 관련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와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 그리고 집단 간 차이가 점심과 저녁 식사, 그리고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경우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점심과 저녁 식사, 그리고 인스턴트식품 섭취 정도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상당히 감소하였다가 3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고, 또한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과 관련한 4가지 변수에서의 집단별 변화는 【그림 V-5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V-56】 식습관 관련 변수들의 집단별 변화 추이

(다)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 경험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등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06>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06 일상생활 - 활동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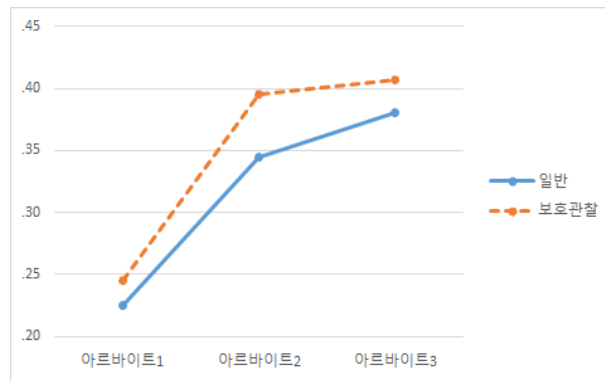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아르바이트 경험	일반	.22(.42)	.34(.48)	.38(.49)	n.s.
	보호	.25(.43)	.40(.49)	.41(.49)	
동아리활동 경험	일반	—	.27(.44)	.24(.43)	p<.001
	보호	—	.05(.21)	.05(.21)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아르바이트 경험의 경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V-106> 참조). 최근 3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경험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집단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7> 참조). 1차 조사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 그 증가폭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57】 참조).

표 V-107 아르바이트 경험의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아르바이트	7.306	2	3.653	23.366	.000
아르바이트 * GROUP	.064	2	.032	.206	.814
오차(아르바이트)	206.055	1318	.156		



【그림 V-57】 아르바이트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동아리나 인터넷 참여 경험의 경우에는 2차년도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동아리 참여율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6> 참조).

(5) 비행 관련 경험

(가) 피해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비행과 관련된 피해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V-108>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08 일상생활 - 피해경험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집단 따돌림 당하기	일반	.01(.09)	.04(.20)	.01(.08)	n.s.
	보호	.00(.00)	.01(.11)	.01(.08)	
성적인 놀림 당하기	일반	.01(.11)	.03(.17)	.01(.09)	n.s.
	보호	.01(.08)	.01(.11)	.01(.11)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인 음란물 받기	일반	.03(.17)	.06(.23)	.02(.13)	p<.01
	보호	.01(.11)	.01(.08)	.01(.08)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일반	.00(.06)	.02(.15)	.01(.08)	n.s.
	보호	.02(.13)	.02(.13)	.02(.13)	
성폭력 당하기	일반	.00(.06)	.01(.10)	.00(.06)	n.s.
	보호	.00(.00)	.01(.11)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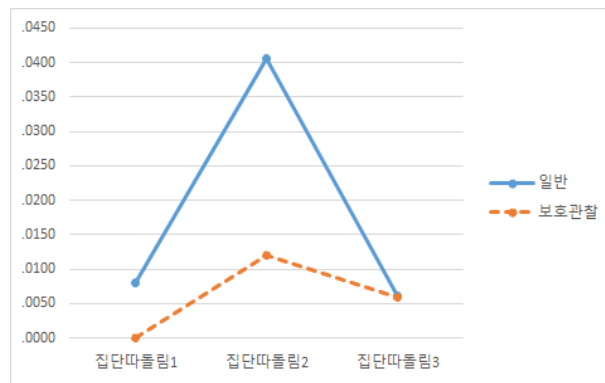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먼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의 경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V-108>) 참조>.

표 V-109 집단 따돌림 당하기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집단 따돌림	Pillai의 트레이스	.011	3.767	2,000	658,000	.024
	Wilks의 람다	.989	3.767	2,000	658,000	.02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1	3.767	2,000	658,000	.024
	Roy의 최대근	.011	3.767	2,000	658,000	.024
집단 따돌림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4	1.317	2,000	658,000	.269
	Wilks의 람다	.996	1.317	2,000	658,000	.269
	Hotelling의 트레이스	.004	1.317	2,000	658,000	.269
	Roy의 최대근	.004	1.317	2,000	658,000	.269

그러나 3년간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 경험과 집단 변수와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집단 간 변화 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따돌림 정도의 3년간의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V-109> 참조). 즉 【그림 V-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2차년도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는 1차년도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2차년도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58】 집단 따돌림 당하기의 집단별 변화 추이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받은 경험의 경우에는 3년간의 변화 정도가 주목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08> 및 <표 V-110> 참조).

표 V-110 음란물 받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652	1	.652	19.277	.000
GROUP	.248	1	.248	7.345	.007
오차	22.281	659	.034		

그러나 성적인 놀림 당하기와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성폭력 당하기의 경우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조사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 양상이나 변화 정도를 보이지 않았다.

(나) 가해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비행 가해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1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111 **일상생활 - 가해경험**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흡연	일반	.54(.50)	.56(.50)	.58(.49)	p<.001
	보호	.78(.42)	.92(.27)	.89(.31)	
음주	일반	.59(.49)	.66(.47)	.76(.43)	p<.001
	보호	.78(.41)	.82(.39)	.87(.34)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일반	.05(.22)	.04(.19)	.02(.15)	p<.001
	보호	.28(.45)	.19(.39)	.02(.1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일반	.06(.25)	.05(.22)	.04(.20)	p<.001
	보호	.20(.40)	.14(.35)	.06(.24)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일반	.05(.22)	.03(.17)	.01(.12)	p<.001
	보호	.20(.40)	.14(.35)	.02(.15)	
음란물 보기	일반	.18(.39)	.21(.41)	.20(.40)	n.s.
	보호	.16(.37)	.17(.38)	.18(.39)	
돈내기 도박 해보기	일반	.11(.31)	.13(.34)	.15(.35)	n.s.
	보호	.11(.32)	.19(.39)	.17(.37)	
자살 시도	일반	.07(.26)	.02(.15)	.03(.16)	n.s.
	보호	.08(.27)	.07(.25)	.05(.21)	
공공기물 파손	일반	.19(.39)	.09(.29)	.05(.22)	p<.05
	보호	.24(.43)	.13(.33)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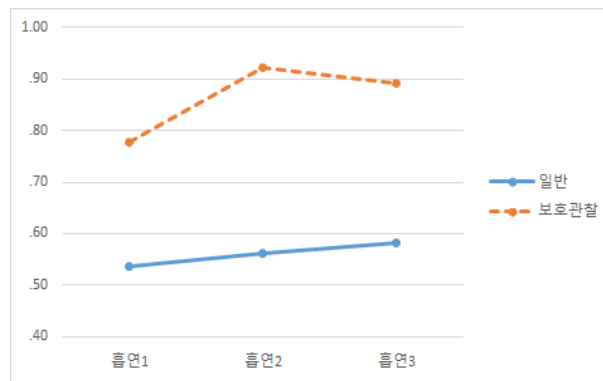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우선 흡연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표 V-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사 기간 내내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3년간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 경험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변화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변화의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도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112> 참조).

표 V-112 흡연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흡연	Pillai의 트레이스	.032	10.970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68	10.970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33	10.970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33	10.970	2,000	658,000	.000
흡연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17	5.577	2,000	658,000	.004
	Wilks의 람다	.983	5.577	2,000	658,000	.00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7	5.577	2,000	658,000	.004
	Roy의 최대근	.017	5.577	2,000	658,000	.004



【그림 V-59】 흡연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그림 V-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 정도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의 경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표 V-111>과 <표 V-1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 응답 비율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사 기간 내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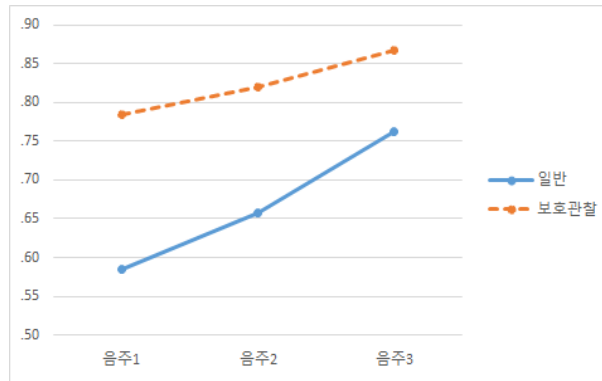
표 V-113 음주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834.656	1	834.656	2175.180	.000
GROUP	9.072	1	9.072	23.643	.000
오차	252.870	659	.384		

그러나 3년간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 경험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alpha=.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음주 경험 비율의 변화 정도는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 경험의 변화 양상은 두 집단 간에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음주 경험의 변화 정도는 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14>와 【그림 V-60】 참조).

표 V-114 음주의 집단 내 차이 검증(다변량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음주	Pillai의 트레이스	.054	18.646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46	18.646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57	18.646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57	18.646	2,000	658,000	.000
음주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7	2.447	2,000	658,000	.087
	Wilks의 람다	.993	2.447	2,000	658,000	.087
	Hotelling의 트레이스	.007	2.447	2,000	658,000	.087
	Roy의 최대근	.007	2.447	2,000	658,000	.087



【그림 V-60】 음주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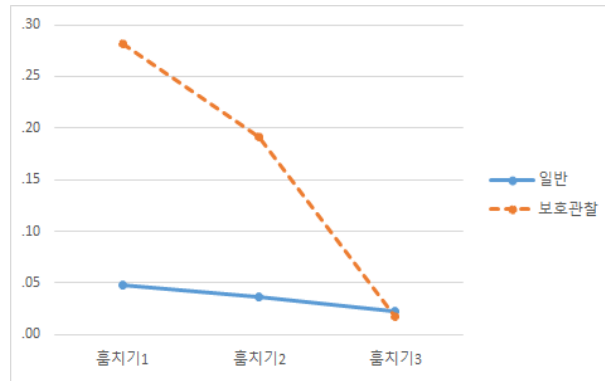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의 경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을 한 비율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표 V-111>와 <표 V-115> 참조). 또한 3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절도 경험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므로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은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절도 관련 경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6> 참조).

표 V-115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4.892	1	14.892	197.533	.000
GROUP	6.126	1	6.126	81.254	.000
오차	49.683	659	.075		

표 V-116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훔치기	5.394	2	2.697	55.682	.000
훔치기 * GROUP	3.649	2	1.825	37.670	.000
오차(훔치기)	63.837	1318	.048		



【그림 V-61】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그림 V-61】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절도 경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3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변화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의 경우에도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매우 비슷한 양상의 차이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폭행 경험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경험 비율은 감소하여 3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17>, <표 V-118> 참조). 또한 이러한 변화 양상과 변화 정도 및 집단 간 차이는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뺨뜯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V-119>, <표 V-120> 및 【그림 V-62】 참조).

표 V-11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3.004	1	13.004	147.923	.000
GROUP	2.463	1	2.463	28.013	.000
오차	57.935	659	.088		

표 V-118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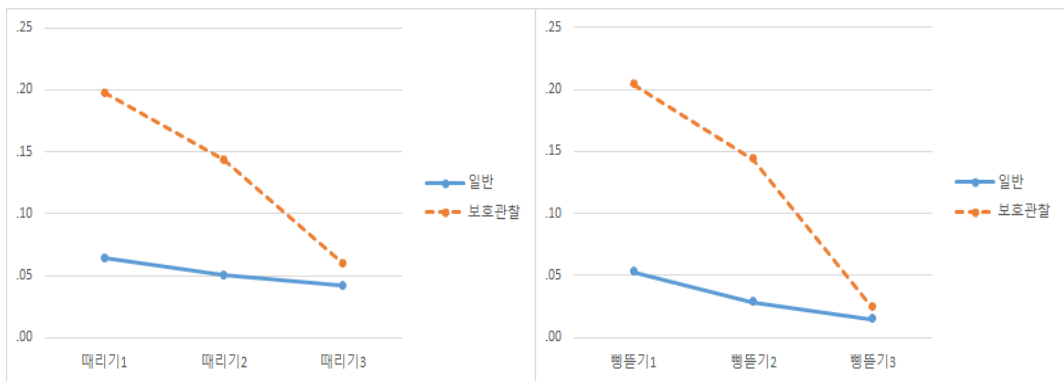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때리기	1.609	2	.805	14.675	.000
때리기 * GROUP	.859	2	.429	7.832	.000
오차(때리기)	72.266	1318	.055		

표 V-119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9.050	1	9.050	144.857	.000
GROUP	3.172	1	3.172	50.770	.000
오차	41.170	659	.062		

표 V-12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뺑뺑기	Pillai의 트레이스	.112	41.394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888	41.394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126	41.394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126	41.394	2,000	658,000	.000
뺑뺑기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57	19.906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43	19.906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61	19.906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61	19.906	2,000	658,000	.000



【그림 V-6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와 뺑뺑기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반면에 돈내기 도박 해보기와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표 V-111 참조>), 각각의 경험의 변화 양상도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121>와 <표 V-122> 참조). 즉 돈내기 도박 해보기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점차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살 시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1 돈내기 도박 해보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도박	Pillai의 트레이스	.015	4.927	2,000	658,000	.008
	Wilks의 람다	.985	4.927	2,000	658,000	.008
	Hotelling의 트레이스	.015	4.927	2,000	658,000	.008
	Roy의 최대근	.015	4.927	2,000	658,000	.008
도박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3	1.061	2,000	658,000	.347
	Wilks의 람다	.997	1.061	2,000	658,000	.347
	Hotelling의 트레이스	.003	1.061	2,000	658,000	.347
	Roy의 최대근	.003	1.061	2,000	658,000	.347

표 V-122 자살 시도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자살 시도	Pillai의 트레이스	.013	4.285	2,000	658,000	.014
	Wilks의 람다	.987	4.285	2,000	658,000	.014
	Hotelling의 트레이스	.013	4.285	2,000	658,000	.014
	Roy의 최대근	.013	4.285	2,000	658,000	.014
자살 시도*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4	1.446	2,000	658,000	.236
	Wilks의 람다	.996	1.446	2,000	658,000	.236
	Hotelling의 트레이스	.004	1.446	2,000	658,000	.236
	Roy의 최대근	.004	1.446	2,000	658,000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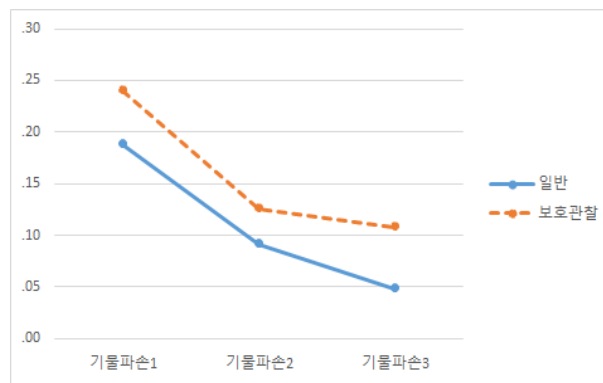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123> 참조). 즉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보다 공공기물 파손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3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26.692	1	26.692	180.406	.000
GROUP	.876	1	.876	5.922	.015
오차	97.501	659	.148		

표 V-124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기물 파손	Pillai의 트레이스	.070	24.904	2,000	658,000	.000
	Wilks의 람다	.930	24.904	2,000	658,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76	24.904	2,000	658,000	.000
	Roy의 최대근	.076	24.904	2,000	658,000	.000
기물 파손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1	.333	2,000	658,000	.717
	Wilks의 람다	.999	.333	2,000	658,000	.717
	Hotelling의 트레이스	.001	.333	2,000	658,000	.717
	Roy의 최대근	.001	.333	2,000	658,000	.717



【그림 V-63】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 경험의 집단별 변화 추이

또한 3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기물파손 경험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변화 양상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년간 기물파손 경험 정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V-124> 참조). 【그림 V-63】를 살펴보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기물 파손 경험 비율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으며, 3년 동안 두 집단에서 해당 경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감소 추세는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중단 후 인식 및 가치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 및 만족도 그리고 학력에 대한 태도와 미래에 대한 태도를 대상으로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표 V-125> 참조).

표 V-125 가치관

변수	집단	평균(표준편차)			집단 간 차이 ¹⁾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	일반	2.33(.61)	2.31(.60)	1.81(1.24)	p<.001
	보호	2.69(.58)	2.64(.69)	2.31(1.00)	
학업중단 만족도	일반	3.00(.71)	2.92(.66)	2.40(1.48)	p<.001
	보호	2.46(.73)	2.63(.74)	2.45(1.10)	
학력에 대한 태도	일반	—	2.99(.64)	2.91(.62)	n.s.
	보호	—	2.93(.79)	2.92(.78)	
미래에 대한 태도	일반	3.03(.61)	2.97(.62)	2.98(.63)	p<.05
	보호	2.87(.74)	2.94(.73)	2.86(.83)	

주: 1) 집단 간 차이는 MANOVA 분석에 따른 개체 간 차이 검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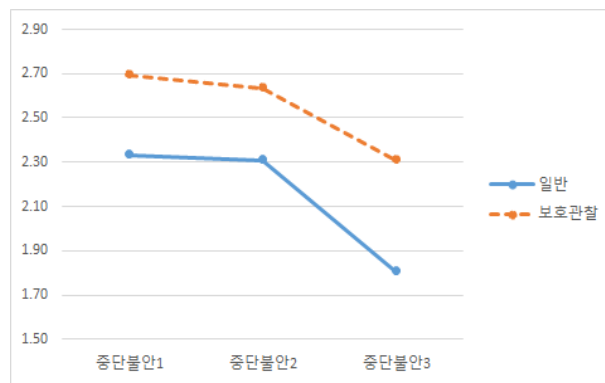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의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 보다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V-126> 참조). 그러나 학업중단 불안감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이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V-127> 참조). 【그림 V-64】은 이러한 감소 경향이 두 집단에서 모두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26 학업중단 불안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6424.525	1	6424.525	6264.436	.000
GROUP	46.015	1	46.015	44.868	.000
오차	492.266	480	1.026		

표 V-127 학업중단 불안감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불안감	Pillai의 트레이스	.105	28.072	2,000	479,000	.000
	Wilks의 람다	.895	28.072	2,000	479,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117	28.072	2,000	479,000	.000
	Roy의 최대근	.117	28.072	2,000	479,000	.000
불안감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04	1.059	2,000	479,000	.348
	Wilks의 람다	.996	1.059	2,000	479,000	.348
	Hotelling의 트레이스	.004	1.059	2,000	479,000	.348
	Roy의 최대근	.004	1.059	2,000	479,000	.348



【그림 V-64】 학업중단 불안감의 집단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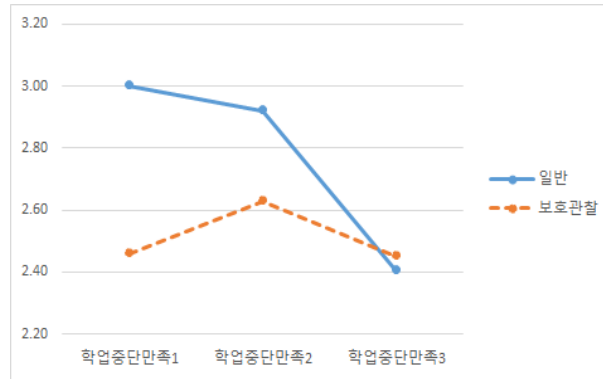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흥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128> 참조).

표 V-128 학업중단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8109.555	1	8109.555	6378.366	.000
GROUP	19.776	1	19.776	15.554	.000
오차	610,280	480	1,271		

표 V-129 학업중단 만족도에 대한 집단 내 차이 검증

효과	값	F	가설자유도	오차자유도	p
만족도	Pillai의 트레이스	.046	11.444	2,000	.000
	Wilks의 람다	.954	11.444	2,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48	11.444	2,000	.000
	Roy의 최대근	.048	11.444	2,000	.000
만족도 * GROUP	Pillai의 트레이스	.037	9.131	2,000	.000
	Wilks의 람다	.963	9.131	2,000	.000
	Hotelling의 트레이스	.038	9.131	2,000	.000
	Roy의 최대근	.038	9.131	2,000	.000



【그림 V-65】 학업중단 불안감의 집단별 변화 추이

학업중단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이 변수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학업중단 만족도 변화 양상은 상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V-129> 참조).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이후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2차년도에

오히려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 다시 1차년도 수준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V-65】 참조).

다음으로 학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력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30> 참조).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정도나 변화의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30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절편	11241.664	1	11241.664	13574.268	.000
GROUP	3.550	1	3.550	4.287	.039
오차	416.564	503	.828		

3)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상태, 환경 요인, 일상생활, 비행 관련 경험, 진로 관련 경험, 가치관에 있어서 조사 기간 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러한 변화 양상과 변화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심리·정서 상태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정서 상태의 경우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정서 상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심리·정서 상태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3년 동안의 기간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 모두 사회적

낙인감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신을 열등한 사회적 존재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측정값에 있어서의 차이는 일부 요인들에서 관찰되었는데, 자아탄력성의 경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게임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2년의 기간 동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131 분석 결과 요약 - 심리·정서 상태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		
생활만족도			
우울감			
충동성		○	○
사회적 낙인감			○
게임중독	○		
SNS 피해 경험			
SNS 가해 경험			
스마트폰 중독	○	○	

주 : 1) p<.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자아탄력성에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수준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달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비행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노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적응 능력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에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과 관련한 접근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한 환경요인은 부모와 관련한 4개의 변수, 친구와 관련한 3개 변수,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한 2개 변수이다. 먼저 부모와 관련한 변수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부모 학대에서 3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즉 3년의 기간 동안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청소년들이 인식한 부모학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부모 방임과 부모 학대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부모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132 분석 결과 요약 - 환경 요인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
부모 방임	○		
부모 학대	○		○
친한 친구 수		○	○
또래 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		○
지역사회 통합	○		○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유익환경			

친구와 관련된 요인 중에서는 친한 친구 수와 친구의 비행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기간 동안 친한 친구 수와 친구의 비행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친한 친구 수의 경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감소 양상은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한 친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차년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차년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친구의 비행성향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고한 친구의 비행성향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보고한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 무질서 정도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내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집단 간이나 집단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지역사회 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및 집단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고한 지역사회 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V-133 분석 결과 요약 - 일상생활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평일-수면시간	○	○	○
평일-학교·학원시간			○
평일-일하는 시간	○		
평일-개인공부시간	○		
평일-매체이용시간			
평일-운동 등 시간			
평일-노는 시간	○		○
아침식사 부족	○	○	○
점심식사 부족	○	○	○
저녁식사 부족	○	○	○
인스턴트 식품 섭취	○	○	○
아르바이트 경험			○
동아리활동 경험	○		

평일의 생활시간 사용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일 수면 시간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적은 반면, 3년 동안 수면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소 경향은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일의 아르바이트나 전일제로 일을 하는 시간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일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한 반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비록 학교를 그만두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노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습관과 관련된 아침식사 부족, 점심식사 부족, 저녁식사 부족, 인스턴트식품 섭취의 경우 1차년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다가 2차년도에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해당 경험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1차년도와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3차년도에는 두 집단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두 집단의 식습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식습관과 관련하여 두 집단이 매우 유사한 양상을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에서 모두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동아리 활동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4 분석 결과 요약 -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청소년시설	○		
복지시설			○
보호시설	○	○	○
상담기관	○	○	○
보호관찰소	○	○	○
직업훈련기관			
종교기관			○
학원	○		○
치료시설			○
대안교육기관			○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학원 등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3년간의 변화 양상은 이 두 집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청소년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성인 멘토를 만난 비율의 감소 정도가 $\alpha=0.10$ 수준에서 유의한 수준을 보임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률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행 관련 피해 경험 중,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 모두 2차년도에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인 음란물을 받은 경험의 경우에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5 분석 결과 요약 - 비행 관련 경험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 정도
집단 따돌림 당하기			○
성적인 놀림 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음란물 받기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성폭력 당하기			
흡연	○	○	○
음주	○	○ ¹⁾	○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	○	○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	○	○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	○	○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
자살 시도			○
공공기물 파손	○		○

주 : 1) $p<0.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흡연율과 음주 경험률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높았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경험을 한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두 집단에서 상이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2차년도에서 3차년도 사이에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음주 경험 비율의 경우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

의 변화 추세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비율은 1차 조사 시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비율은 1차년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의 경우에는 두 집단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감소 추세가 훨씬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 3차년도 시기에는 두 집단의 해당 경험 비율이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에서 관찰된 집단 간 차이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1차년도 해당 경험 비율이 높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돈내기 도박 해보기, 자살 시도, 공공기물 파손의 경우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 모두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공공기물 파손 경험 비율은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과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절도나 폭행 등 중비행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해당 행동에 대한 통제나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져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비행과 관련한 항목에서 나타난 감소 경향을 바탕으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비행 청소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제 그들의 경험과는 상반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V-136 분석 결과 요약 - 진로 관련 경험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진로정보 탐색 활동	○	○	○
진로 장애			
향후 진로결정 여부	○		○
진로달성 예측			○
본인의 교육기대	○		○

진로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정보 탐색활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증가하였다가 3차년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진로 결정 여부, 진로달성 예측,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향후 진로 결정 여부와 본인의 교육기대 수준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낮은 수준의 활동 정도를 보였고 그나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진로와 관련한 경험에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7 분석 결과 요약 - 가치관

변 수	측정값의 집단 간 차이	변화 양상의 집단 간 차이	측정값의 변화정도
학업중단 불안감	○		○
학업중단 만족도	○	○	○
학력에 대한 태도			
미래에 대한 태도	○		

마지막으로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과 학업중단 만족도의 경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에서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만족도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1, 2차년도에는 더 높았으나 3차년도에는 더 낮아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만족도가 혁혁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비행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까지 그만둠으로 인해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시 만족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업중단 당시 갖고 있던 긍정적인 태도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나 변화 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는 집단 간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1) 정책 대상 분석 및 시사점

첫째, 초·중·고 학령기에 학력이 취득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44만 명(2013학년도 기준)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해외체류자를 제외하면 약 37만 명이 학업중단 상태로 있다. 본 연구 패널조사가 당초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를 제외하고 설계되었기에¹²⁸⁾ 귀국자 중 미복교자를 제외한 인원은 약 34만 명이다. 초등학교 연령이 14.1%, 중학교 연령이 20.2%로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자가 약 34.3%이며 고등학교 연령 학업중단자가 65.7%이다. 성별 비율을 볼 때 중학교 단계에서는 성별 비율이 비슷하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은 남자 청소년의 중단율이 7~10%p 가량 높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성별·연령별 집단은 남자 고등학생이다. 이들의 학업 중단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패널조사를 통해 3년간의 이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절반 정도는 학업형, 3명 정도는 직업형, 1명 정도는 무업형, 0.6명 정도는 비행형으로 분류되었다. 10명 중 8명 정도는 학업이든 직업이든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고 있지만 2명 정도는 3년 후에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현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3년 후 경로를 추정하면 학업형 169,621명, 직업형 109,042명, 무업형 37,357명, 비행형 20,193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상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무업형과 비행형 5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장 시급하지만, 학교를 떠나 학업과 직업형 경로를 밟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개발 및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 수가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정책대상에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28) 교육통계에서 해외출국자를 학업중단에 포함시키게 된 것도 2010년부터임.

대한 통계적 소재 파악율은 전체적으로 22% 수준(국내거주 청소년기준)이다. 비행형은 비교적 파악율이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유형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 서비스에 들어 와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별 통계 등이 산출되지 않는 등 정책대상에 대한 조사·행정 통계체계가 취약하다. 정책대상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시 사유, 정보 제공받은 경험, 자아존중감, 중단 후 성인의 도움을 받은 지역기관 등이 이행경로 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무업형으로 이행할 확률은 학업중단 시 사유가 개인 사정보다는 공부하기 싫다거나 학교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거나 친구나 선생님이 싫거나 등 학교를 이유로 중단할수록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형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며 낮을수록 학업형 경로를 밟을 확률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을 중단 후 학습형태를 달리한 채 학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 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청소년시설에서 어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형 경로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직업훈련기관에서 어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직업형 경로로 이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무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중단 시, 또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 지도에 있어 학업중단 사유, 자아존중감 수준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진로를 찾아나가는데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업중단 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연계가 필요한데,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지도할 필요가 있다.

3) 학업중단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및 시사점

첫째, 학업중단자의 학업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후 3년차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취득자는 61.5%이며 미취득자는 23.7%로 보고되었다. 고졸학력 미취득자의 생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이들의 학력취득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학진학자가 27.3%로 상당히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후 대학진학의 루트를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대학생활은 다른 학생과 차별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중단 후 3년 동안 복교율은 34%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복교생 5명 중 1명은 재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후 복교까지는 평균 10개월이 걸리는데 반해 재중단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렸다. 즉, 복교보다는 재중단 결정에 더 신속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복교는 종전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를 촉진하되 무조건적 복교보다는 복교 후 적응과 실패 요인을 파악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교 지도가 필요하며,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교내·외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후 3차년도에 대안교육을 받는 비율은 4% 미만으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안교육 경험자의 70% 이상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다녔다. 발달기의 청소년,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는 학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대안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업중단 후 검정고시 학원에서 또는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면서 학습과 교양,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대안교육의 발달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학업중단자의 직업훈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은 1차 조사 17.6%, 2차 조사 16.0%, 3차 조사 11.3%로 점차 감소하였다. 지난 1년간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자가 60%가 되고 지난 3년간 경험을 통해 직업형 경로로 이행한 청소년이 30% 이상 되지만 직업훈련 경험이 10%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직업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훈련참여자는 대체로 훈련에 만족하고 있었고 공공기관이나 정부부담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 편입을 예방하고 더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중단자의 심리정서 및 일상생활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후 청소년들은 충동성과 사회적 낙인감, 게임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감소하는 등 심리·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제적 지원과 학대만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친구관계이다. 친한 친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미나 동아리활동, 대안교육 등 학교를 대체하여 친구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활동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악화되고 있었다. 아침과 점심, 저녁식사 결식률과 인스턴트식품 섭취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학업중단 후 물건 훔치기나 뺑기, 폭력과 같은 중비행은 감소하였으나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이 증가하였다. 특히 음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식생활 및 흡연, 음주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업중단자의 진로관련 경험을 분석한 결과, 진로관련 경험에 있어 학업중단 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진로정보 탐색 활동이 감소하였고 향후 진로를 결정하였다는 응답도 감소하였다. 학업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은 감소하였지만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아졌다. 진로계획 달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가 강해졌다. 진로에 대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르바이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 중단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늦은 기상과 불규칙한 출결, 학습부적응이 누적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일단 노동시장에 편입된 청소년들은 사후 관리와 지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도와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등교시간이 유연한 대안교육과정이나 위탁교육과정 등과 연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돈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수반한 진로교육,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4) 학업중단자의 이행경로별 특성 분석 및 시사점

학업중단자의 이행경로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업형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이 집단은 개인적 심리정서면에서 자아탄력성이 낮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낮아졌으며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낙인감이, 비행경험이 가장 높았다. 환경적 특성에서도 부모의 방임수준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가하였으며 친구의 비행성향도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은 학업중단 시부터 학습부적응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학교규범 위반경험도 가장 많았다. 진로정보 탐색, 진로결정, 교육기대 수준도 가장 낮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도 가장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 또한 학업중단 후 하고 싶은 일이 ‘실컷 놀고 싶었다.’이며 중단 사유도 ‘공부하기 싫어서’가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 후 3년차에 이러한 이행경로에 속한 인구는 중단자의 10% 수준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무업형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 접근과 더불어 문제행동 지도, 친구관계 지도, 진로지도 등의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형 청소년은 심리·정서적인 면이나 가치관 등에서 상당히 건강하다.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고 게임중독·스마트폰 중독 수준도 낮다. 사회적 낙인감도 감소하였다. 부정적인 지표는 비행경험이 중단 직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들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낮아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고 ‘학교를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 진로정보탐색활동도 타 집단에 비해 왕성하며, 교육기대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직업훈련을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평균 주당 5일, 1일 8.5시간을 일하며 6,200원의 시급을 받는다. 1개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 105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 이들의 근로경험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에 재학 중일 때, 또는 학교 밖에 나와서라도 더 나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주말 뿐 아니라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진로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필요한 직업훈련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당장 소득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학업형 청소년은 자아탄력성이 직업형 청소년보다 낮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 집단 중 모든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이다. 게임중독·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고 비행경험도 낮으며 친구의 비행성향도 가장 낮다. 환경적으로 볼 때 부모의 방임수준도 가장 낮다. 학교규범 위반 수준도

낮고 중단 후 하고 싶은 일이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는 것이며 '학교를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 진로탐색활동도 가장 활발하였고 진로결정 비율, 교육기대수준도 가장 높았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학력이 중요하다는 태도도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이 학업을 하면서도 학교 밖에 나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의 어떤 요인이 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밀어낸 것일까? 이들에게는 학교교육이 학교 밖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하는 것 보다 무가치하다.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 상황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에서 어떤 형태의 학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였거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비행형(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해 심리적으로는 더 건강했다.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이 높고 충동성은 더 낮았다. 게임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수준도 더 낮았다. 하지만 중단 이후 충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높아졌으며 스마트폰 중독 수준도 급증하여 일반청소년과 유사해졌다. 환경적 특성에 있어서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부모의 방임과 학대 수준은 일반청소년보다 높았다. 하지만 중단 이후 부모의 학대가 감소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일반청소년보다 친구 수는 많지만 친구의 비행성향이 높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보면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보다 잠을 더 자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쓰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중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면시간은 급감하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의 결식과 인스턴트식품의 섭취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많아 식습관이 대단히 취약하였다. 이는 2차년도에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나빠졌다. 한편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경험은 낮은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은 더 많았다. 흡연과 음주를 등 지위비행이 중비행보다 더 많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반면, 폭력 등 중비행은 감소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진로 결정율이 더 낮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으며 자신의 진로계획 달성에 대해서도 더 회의적이었다.

비행청소년의 비행중단에는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과 일상생활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개인공부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수록,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생활유형일수록, 비행 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충동성, 가족의 이사 횟수, 친구의 비행성향, 보호관찰관의 변경 등은 중비행과 비행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가족해체사건의 경험율이나 미래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게임중독수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친구들과 몰려다니거나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음주, 흡연, 음란물보기 등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위비행은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전영실 외, 2015: 180-182).

비행청소년의 탈비행을 위해서는 정서적 애착을 강화시키는 것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진로지도와 더불어 수면, 식사지도,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친구관계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부족한 정서적 애착을 강화시키거나 대체·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학업중단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를 이탈하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은 면제, 유예로 행정처리 되고 그 사유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처리 단계에서 중단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이들의 학교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무교육단계에서 이탈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단사유가 파악되고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되어야 함에도 중단자의 50%만이 학교에 돌아오고 있다. 복교, 대안교육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탈하는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학업중단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의 주요 중단 사유는 학업부적응이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이거나 인문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고이거나 학업부적응이 가장 큰 사유가 되고 있다. 학업부적응은 중단하는 청소년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이들에게 필요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문제일 수 있다. 패널조사 결과 가장 주요한 학업중단 사유는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대신 ‘점정고시를 하려고’ 중단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학교는 이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필요에 부합한 동기개발, 진로 교육 및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이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 연령의 학업중단자는 복귀율이 20%수준으로 복교율이 낮다. 이들이 방황하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시장 편입되기 전에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품행문제로 인한 퇴학이 빈발하고 있다. 이는 일반고의 2배 수준이다.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의해 입학하기는 하지만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수준에서 볼 때 특성화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목고나 자율고, 마이스터고와는 달리 특성화고는 실질적으로 학생 선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퇴학은 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지만,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부임한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들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흡연 적발 3회 시 퇴학’이라는 교칙에 근거하여 다량의 퇴학 조치를 실시하였다. 금연 지도나 프로그램 지원 없이 퇴학조치를 감행하고, 벌점제를 통해 벌점이 누적된 학생들에게 자퇴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누적된 벌점을 상쇄할 기회나 프로그램은 적고 여러 교사들로부터 벌점을 받을 기회는 산재해 있다. 퇴학이나 권고 자퇴에 대한 학교(또는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퇴학 또는 자퇴생이 빈발하는 학교에 대한 집중적이 장학이 필요하다. 벌점제의 개선 명령, 퇴학(또는 자퇴)생 사후지도에 대한 결과보고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유예되어 있던 학업 부적응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대상 학교적응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기개발 및 학습지원 등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제언

표 VI-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개요

영역	세부 과제
영역 1.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과제 1.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 안내
	과제 2. 학교-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고용센터와의 연계 강화
	과제 3. 학교-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강화
영역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과제 4.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제 5. 비행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과제 6.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공적 보호와 교육지원
	과제 7.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영역 3. 더 많은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체제 구축	과제 8.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참여율 평가
	과제 9. 지역사회기관의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지원
	과제 10. 커리어넷 기능보완을 통해 청소년이 취득가능한 자격증 정보 통합지원
영역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생활지도	과제 11.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과제 12.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생활지도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영역 5. 학업중단 예방	과제 13.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학교적응 및 대안 프로그램 지원
	과제 14.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영역 6. 정책기반강화	과제 15.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계 구축
	과제 16.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연구

영역 1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과제 1.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 안내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학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법에서 규정한 대중교통수단과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등 청소년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공적 신분증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장). 학교를 떠난 후 연령에 따른 우대를 지속하고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발급을 촉진해야 한다. 발급절차는 청소년이 아닌 법정 대리인이 가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많이 간소화되었다. 청소년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증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동의를 기초로 시·군·구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적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과제 2. 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고용센터 간의 연계 강화

고등학생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핵심적 요구 중의 하나는 진로·직업교육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제¹²⁹⁾ 등 청년층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센터에 따라서는 직업상담사가 직접 학교와 연계망을 갖고 위기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고용센터가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역시 학교와의 연계협력 을 통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이후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학교밖 지원센터는 지역의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고용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에게는 고용센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특성화·차별화 전략이

129)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1년 내에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 전 최대 2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훈련비의 50~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www.hrd.go.kr. 내일배움카드(2015.11.10. 인출)

필요하다. 학교-학교밖지원센터-고용센터의 연계구도를 통해 지역에서 양 기관이 지역청소년에게 필요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필요에 최대한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3 . 학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지역사회기관 간의 연계 강화

학업중단 후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비율이 7% 미만(3차조사)으로 대단히 낮았다. 학업중단 후 어느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을 만나느냐, 학업중단 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학업중단 후 도움을 받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가 이행경로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거기서 성인 멘토의 도움을 받을수록 학업형이나 직업형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사유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학교밖으로 나온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진단하여 이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와의 연계 뿐 아니라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하여 학업중단 시 학교가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이 자신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밖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시급하지만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영역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과제 4 .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무업형 청소년은 중단 후 이행경로 중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 중단사유, 심리·정서상태에 맞추어 자신의 삶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투 트랙의 진로지도 외에도 자기성장과 발전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조규필 외, 2015: 미간행). 학교교육과정에 지친 청소년들이 동기와 의욕을 상실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들의 동기와 의욕을 되살리기에 필요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찾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이 주체가 되어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둔형 학업중단자를 위한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은둔기간이 오래 될수록 외부세계로 이끌어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가정방문 상담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점차적으로 집 밖으로 나오는 외출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활동이나 캠프로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이들의 은둔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문성이 농축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과제 5. 비행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 등 비행 청소년의 담당부처는 법무부이지만 비행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대체로 외부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행청소년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여부보다 지역자원의 제공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다. 학교밖지원센터는 지역사회차원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소나 소년원과 연계를 갖고 비행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들 비행청소년을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여부를 점검하고 탈비행에 효과적인 핵심적인 요소로 구안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비행 청소년의 탈비행(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서적 애착의 강화, 진로지도와 더불어 수면, 식사 지도 등 규칙적인 일상생활 지도와 비행친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친구관계 지도가 필요하다. 보호관찰 청소년 등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요소가 담겨야 한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거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지를 강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6.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공적 보호와 교육 지원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에 대한 공적 보호가 필요하다. 학업유예나 면제 시 세부사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장기간 무단결석 시 전문상담사 파견 등 적극적 개입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의 어린 학생은 어떤 경우라도 또래관계, 선생님과 관계 속에 어울리며 사회관계를 익히는 폭 넓은 학습을 해야 한다. 학교 부적응 사유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개입, 일대일 학습지원, 상담교사 등 전문가의 개입, 학교내 대안교실 등 학교 안에서 보호로 가능한 지, 아니면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통해 보호해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학생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를 중단하더라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또 다른 교육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린 학업중단자를 위해 가장 좋은 교육적 대안은 지역사회에서의 대안교육이다. 한국에서 대안교육에 포섭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4% 미만으로 너무 낮다.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70%이상 되는 덴마크나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해 국가 재정 지원 역시 매우 취약하다.

경제적 이유, 또는 학습능력의 부진으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 대안학교, 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 등 지역사회기관들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으로 쉴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동시에 학습 및 진로를 지도해야 한다.

과제 7.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학교를 그만 둔 후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들은 친구도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검정고시, 대학진학, 복교, 대안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혼자서 학습으로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촉진하며 학습을 지원할 멘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대나 사범대 학생의 교육봉사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일정 시간의 교육봉사 활동에 대해 교원임용고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험성적이라는 일원적 기준의 교원임용체제는 교사집단의

동질성을 강화시켜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비교사, 신입교사들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몰이해가 심하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일정시간 이상의 멘토링 경험 등을 촉진하는 것은 당장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동기 및 학습지원에 도움이 될 뿐 더러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위기학생 지도능력 함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의 다양한 학생 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영역 3

더 많은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 구축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은 대부분 학습부적응으로 인한 진로에 대한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과제 8.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청소년 참여율 평가

학업중단 후 직업형 경로에 있는 청소년들은 중단 후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많은 집단이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업중단 후 3년째에 직업형 경로를 있는 청소년이 30% 수준이나 직업훈련 경험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노동에 의존한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직업훈련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사관학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나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학교, 지역사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학입시에 흥미가 없는 일반고 청소년들, 전공 선택이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특성화고 청소년들, 학업중단 후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청소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센터 등 평가 시 청소년 참여자 수 및 청소년 참여율을 반영하여 고용센터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제 9. 지역사회 기관의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지원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는 제과제빵·바리스타·패션 디자인 등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연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자부담이 있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후 훈련기관을 선정하나 청소년이 원하는 훈련기관이 많지 않고 교육기간이 길고 출결이 중시되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훈련을 지속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취업맞춤형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많지 않고 성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락률이 높다.

취업사관학교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훈련의 강도가 높아 청소년들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다(윤철경, 2014: 219).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 친화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훈련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다른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원하는 직종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훈련반을 구성할 수 없어 일대일 맞춤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관악 청소년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인턴제와 같은 프로그램 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주고 검정고시, 현장 직업체험 후 청소년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을 채용하려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턴채용기관에 지원금을 주고 1인당 40시간의 일자리를 위탁한하고 있다. 해당 청소년은 월 70~80만원의 인턴 장려금을 지급 받으며 근로경험을 축적하게 된다¹³⁰⁾. 이와 같이 지역기관에서 보다 청소년 친화적인 근로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130) 박태진(2015.10.30.).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과제 10. 커리어넷 기능보완을 통해 청소년이 취득가능한 자격증 정보 통합지원

자격증 획득은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에 관심을 갖고 성취감과 동기를 강화하기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국가자격을 관리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선호와 불일치하고 민간자격은 성취감은 주지만 취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효용성이 떨어진다.¹³¹⁾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취득가능한 자격증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커리어넷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역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생활지도

과제 11. 진로교육 담당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2015년 6월 22일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정책대상은 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체제가 강화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 하루하루 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은 매우 절실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진로정보 탐색활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감소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진로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업무협약,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 청소년지도자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131) 허영준(2015.10.30.).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이들이 관심 있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체험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의할 것은 기존의 중·고등학생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하여 중학교에서 진로수업을 받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¹³²⁾. 특별히 고등학생 연령의 욕구를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더 요청된다.

과제 12. 흡연과 음주, 식생활 등 생활지도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음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 흡연 등의 건강교육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식생활이 불규칙하며 인스턴트식품의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여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친구 수가 줄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도 어렵다.

범부처 정책을 분석했을 때 교육부 뿐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가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를 나오는 순간 선생님과 친구라는 인간관계망 뿐 아니라 학업, 스포츠, 문화·예술, 진로교육 등 공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학교밖 청소년은 동아리활동도, 여가생활도, 컴퓨터 사용시간도 적다, 친구도 줄고 인간관계가 협소해진다. 오직 일하는 시간만 증가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전용시설들이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과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문화부의 문화누리카드, 복지부의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 서비스’와 같은 바우처 제도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2) 2015.10.30.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영역 5 학업중단 예방

과제 13.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학교적응 및 대안 프로그램 지원

학업중단이 집중되는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직후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캠프 등 공동체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학 직후 장기 결석자의 등교 지도를 위한 전략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은 학습부적응이다. 일반고에는 특성화고를 탈락하고 입학한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은 의미가 없다. 이들이 입시 외에 다른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을 마련, 제공하여야 한다.

과제 14.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자퇴나 퇴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학업중단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의 학업중단 발생 사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강력한 생활지도와 벌점제를 적용하면서 벌점을 상쇄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벌점 과다 누적으로 자퇴를 권고하는 학교, 장기 결석을 방치하는 학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장학이 필요하며 벌점제의 개선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학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사후지도에 대한 결과보고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영역 6 정책기반 강화

과제 15.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부 통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행정·조사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에 대한 세부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현재 의무교육단계에서는 면제나 유예로 행정처리될 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면제나 유예 시 학업중단 사유를 적시하도록 개선한다. 어린 아동의 장기결석 시 학대나 방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교에서 그 사유를

세밀히 파악·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연령별 학력사항을 산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티지, 내일배움카드제 등의 프로그램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제작 시 정부 각 부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별 통계 및 학력 현황(학업중단 여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양식을 개선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계를 산출하도록 한다.

과제 16.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업형의 경우, 왜 학교 밖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로를 택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 지,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 지, 얻은 것은 무엇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학업의 다양한 경로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편 복교생들의 학교적응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복교를 하는지, 검정고시, 복교, 대안학교, 대학진학 등 다양한 학업형태와 차별성, 성과에 대한 후속연구와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행경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더불어 학업중단 예방,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강호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유형분석과 유형별 분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자료집: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와 변화양상**, 3-22
- 고용노동부 (2015). **2015 한국직업전망**. 서울: 고용노동부.
- 김성식, 남궁지영 (200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V)** (연구보고 PR 2008-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8.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연구총서 11-2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광역시.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 엄명진, 정창삼, 남우성, 정영훈, 허준행 (2011). Dunn 지수를 이용한 최적 강수지역 군집수 분석,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87-91.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윤철경, 김영지, 유성렬, 강명숙 (2013a). **학업중단 학생 중단정책 연구** (연구보고

- 12R-5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b).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4-R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유성렬(2007).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영섭, 안미영(2003). A Comparison of Clustering Algorithm in Data Mining. Journal of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4(4), 725~736.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201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3-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김경희(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길 (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영실, 김지연, 박성훈(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미간행)**.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201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연구보고 13-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규필, 진은설, 현안나, 박현진, 안은민, 김수진 (2015).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미간행)**.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주금옥(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Grasmick, H., C. Tittle, R. Bursik, and B. Arneklev(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rvey, R. D.(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174-189.
- Studer, M. (2013). Weighted Cluster library manual: A practical guide to creating typologies of trajectories in the social sciences with R. *LIVES Working Papers*, 24.
- 교육부(2014). **201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8. 29일자. www.moe.go.kr에서 2015년 4월 20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6-2014). **교육통계연보 2006-2014** (각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5년 4월 20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기본통계 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통계청(2002-2013). **국제인구이동통계**.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5년 4월 20일 인출.

행정자치부(201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현황**. <http://www.elis.go.kr>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행정자치부(2013). **주민등록인구통계(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에서 2015년 10월 26일 인출.

부 록

1. 부록 1(설문지)
2. 부록 2(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결과)
3. 부록 3(부처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관련
현황)

부 록 1

1. 설문지 A형: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1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1. 학업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난 조사(2014년 7월)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확인해주세요. 응답 도중 잘 모르겠는 문항이 있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기타 또는 빈 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 여기에서 학교란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 「문 1-1」로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휴학포함) → 「문 1-2」로
-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 「문 2」로
- ④ 대학 진학 → 「문 2」로
- ⑤ 기타()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

-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 「문 2」로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 「문 2」로

문 1-2.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현재 어느 기간입니까?**

- ① 학기 중 ② 방학 중 ③ 휴학 중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복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으로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1.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학교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방통중
 ⑦ 방통고 ⑧ 대안학교 ⑨ 기타(_____)

문 2-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제** 학교에 **복학**했습니까?

※ 예: 2015년 3월에 복학한 경우, 2015년 03월로 기입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복학한 때

201□년 □□월

문 2-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⑤ 부모님이 원해서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돼서
 ⑧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이 끝나서
 ⑨ 기타(_____)

문 2-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전에 다녔던 학교 → 「문 2-6」으로
② 다른 학교 → 「문 2-5」로

문 2-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⑥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
⑧ 학비가 비싸서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
⑩ 계열을 바꾸려고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⑫ 기타()

문 2-6.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읍/면/동을 모를 때에는 최대한 아는 데까지 기재

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문 2-7.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대학교를 중단한 경우, 「문 4」로 이동

-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문 4」로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 「문 3-1」로

문 3-1.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면 **그만 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중학교에 표시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방통중
⑦ 방통고	⑧ 대안학교	⑨ 기타(_____)

문 3-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언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예: 2014년 10월에 그만둔 경우, 2014년 10월로 기입
 ※ 학교를 그만둔 때는 자신이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지난번 조사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학교를 그만둔 때

201□년 □□월

문 3-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가정불화 때문에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친구들이 싫어서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⑨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⑩ 선생님이 싫어서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	⑯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	⑰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⑱ 이성문제로 인해	⑲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㉑ 전학이 안 돼서	㉑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	
㉓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㉓ 성적이 안 나와서	
㉕ 기타(_____)		

문 3-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 둘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학교교사	④ 학교 내 상담교사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⑥ 친구나 선후배
⑦ 없음	⑧ 기타(_____)

문 3-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제공 받은 경험...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3-6.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② 심리상담
③ 진로상담	④ 대안교육
⑤ 직업기술훈련	⑥ 일자리 소개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⑧ 경제적 지원
⑨ 진학정보 제공	⑩ 진학상담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⑬ 없음	⑭ 기타()

문 3-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학업중단숙려제)**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3-8」로
② 아니오 → 「문 4」로

문 3-8.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학업중단숙려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II. 생활 경험과 인식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b)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2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4년 7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2014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5년 3월 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 2월~3월은 집 앞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의 보기 ⑧ 2015년 3월 ~ ⑪ 2015년 6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② 2014년 9월과 ③ 2014년 10월, ⑦ 2015년 2월과 ⑧ 2015년 3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의 보기 ① 2014년 8월, ④ 2014년 11월 ~ ⑥ 2015년 1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4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시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2014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4)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1) 대학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문 4-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닌 적이 있는(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 있는 곳(학교 소재지)은 어디입니까?

대안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문 4-1-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에 다니셨습니까(또는 다닙니까)?

-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학력 인정이 됨)
- ② 미인가 대안학교(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함)
- ③ 위탁교육기관(종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자격을 줌)
- ④ 잘 모르겠음

문 4-2. 「문 4」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5」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

문 4-2-1. **검정고시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응시한 적 있다 → 「문 4-2-2」로
- ② 없다 → 「문 4-3」으로

문 4-2-2. (응시한 적이 있다면) 합격하셨습니까?

- ① 전과목 합격
- ② 부분 합격
- ③ 불합격

문 4-3. 「문 4」에서 “4) 직업기술을 배우”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주로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습니까(또는 하고 계십니까)?

-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고용정보센터, 공립 직업전문학교 등)
- ②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 청소년기관 등)
- ③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 ④ 자기가 학원비를 내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 ⑤ 기타 ()

문 4-3-1. 거기에서 **배운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또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요.

()

문 4-3-2. 귀하가 배우셨던 또는 현재 배우고 계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강사의 질, 프로그램 운영 시설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만족
- ④ 매우 만족

문 4-3-3. 「문 4-3-2」에서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요.

()

(총 번) → 0번인 경우 문 4-5로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를 여러 번 그만두었다면,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 ②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 ③ 만사가 귀찮아서
- ④ 노는 것이 좋아서
- ⑤ 기타()

문 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해당 없음 ” 에 표시

	2014년					2015년						해당 없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패와 함께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문 5-1.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보호관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날이 없는 경우는 「문 6」으로

① 없다 → 「문 5-3」으로

② 있다 → 「문 5-2」로

문 5-2. 「문 5-1」에서 “2)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몇 번 바뀌었나요?

보호관찰관이 바뀐 수

번

문 5-3.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나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①	②	③	④

문 5-4.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귀하가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지 이용여부를 체크하고, 만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용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경제적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2) 학습 · 진로 지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4) 숙소정보 제공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5)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6)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7) 심리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8)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6.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6-1」로
② 아니오 → 「문 7」로

문 6-1.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②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④ 일반상점 판매원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고객(삐까), 서빙 및 접대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⑫ 주유소 주유원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⑭ 건설현장 노동
⑮ 공장노동	⑯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⑰ 아기, 노인 돌보기	⑱ 킥서비스 배달
⑲ 택배기사	⑳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
㉑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㉔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
㉕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㉗ 패션, 광고 모델	㉘ 배우
㉙ 가수	㉚ 콜센터 안내직원
㉛ 일반 사무직	㉜ 기타()

문 6-2.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일(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
※ 최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3.5일, 5.5시간 등)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원

※ 다음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⑤ 보호관찰소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⑨ 병원 등 치료시설
⑧ 학원	⑪ 직장
⑩ 대안교육기관	⑬ 기타(_____)
⑫ 없음	

※ 다음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8.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오" 에 기재
 ※ 지난 조사 전부터 가입해서 계속 참여한 경우는 "① 예" 에 기재

- ① 예 → 「문 8-1」로
 ② 아니오 → 「문 9」로

문 8-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재미를 위해	② 자아계발	
③ 평소의 흥미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⑦ 취미생활 공유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⑪ 복학에 도움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⑮ 학과 공부에 도움	
⑯ 특별한 이유 없음	⑯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8-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⑩ 대입학원 동아리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⑭ 대학교 동아리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⑮ 인터넷 홈페이지
⑯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⑯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⑰ 기타()	

문 8-3. 귀하가 참여하는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을 써 주십시오.

※ 예: 힙합, 야구, 댄스, 기타 동아리 등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진학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9.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3」으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문 12」로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또는 창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2.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14. [지난 조사 (2014년 7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에만 응답]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만 「문 15」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Ⅲ.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5.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6.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7.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17-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7-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7-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I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보호자), 친구관계, 동네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18.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0.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 수 ※	() 명

문 20-1. 「문 20」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0」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0」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 수 ※	() 명

문 20-2. 「문 20」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학교를 그만 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0」에서 말한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0」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 수 ※	() 명

문 21.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2.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 일상생활 및 가치관

※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3.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
-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 앞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할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 시간이다.	()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합계			평일 합계 () 시간	휴일 합계 () 시간

문 23-1. 귀하는 **보통 밤(또는 새벽)에 몇 시에 잡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밤(또는 새벽)에 자는 시간	()시 ()분	()시 ()분

문 24.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는 경우는 포함합니다.

	예	아니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5.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26.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27」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7.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28.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VI.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해 주세요.

문 29.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0.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뚫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Ⅶ. 배경요인

문 3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⑤ 혼자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형제, 자매	⑧ 친척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⑩ 동성 친구, 선후배
⑪ 이성 친구, 선후배	⑫ 남편, 아내
⑬ 자녀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32. 귀하는 **지난번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지난번 조사이후 이사 ^{ES}	() 번

문 33.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34.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문 35. 귀하의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장래 희망 직업 ^{ES}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패널 정보 기록지 및 상품권 수령증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참여해 주신 조사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조사를 위해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자 하오며, 이 정보는 본 조사 연구진을 제외한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부모님(보호자)께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귀하께 안부전화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귀하와 계속 연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내용	위 사항을 모두 읽었고,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사는 곳 또는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주소를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전화번호를 기록				
가족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친한 친구	성명	
	휴대전화번호	아버지 · 어머니 · 남형제 · 여형제 · 친척		휴대전화번호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5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서명(싸인): _____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설문조사지 B형: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5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소년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5년 6월

조사주관기관

조사수행기관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복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으로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1.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학교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방통중
⑦ 방통고 ⑧ 대안학교 ⑨ 기타(_____)

문 2-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제 학교에 복학했습니까?

※ 예: 2015년 3월에 복학한 경우, 2015년 03월로 기입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복학한 때

201□년 □□월

문 2-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⑤ 부모님이 원해서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돼서
⑧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이 끝나서
⑨ 기타(_____)

문 2-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전에 다녔던 학교 → 「문 2-6」으로
② 다른 학교 → 「문 2-5」로

문 2-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⑥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
⑧ 학비가 비싸서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
⑩ 계열을 바꾸려고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⑫ 기타(_____)

문 2-6.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읍/면/동을 모를 때에는 최대한 아는 데까지 기재

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문 2-7.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대학교를 중단한 경우, 「문 4」로 이동

-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문 4」로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 「문 3-1」로

문 3-1.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면 그만 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중학교에 표시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방통중
⑦ 방통고	⑧ 대안학교	⑨ 기타(_____)

문 3-2.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언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예: 2014년 10월에 그만둔 경우, 2014년 10월로 기입
※ 학교를 그만둔 때는 자신이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지난번 조사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학교를 그만둔 때

201□년 □□월

문 3-3.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가정불화 때문에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친구들이 싫어서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⑨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⑩ 선생님이 싫어서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	⑯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	⑱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⑲ 이성문제로 인해	㉑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㉒ 전학이 안 돼서	㉒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
㉓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㉔ 성적이 안 나와서
㉕ 기타(_____)	

문 3-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 둔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학교교사	④ 학교 내 상담교사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⑥ 친구나 선후배
⑦ 없음	⑧ 기타(_____)

문 3-5.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제공 받은 경험...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3-6.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② 심리상담
③ 진로상담	④ 대안교육
⑤ 직업기술훈련	⑥ 일자리 소개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⑧ 경제적 지원
⑨ 진학정보 제공	⑩ 진학상담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⑬ 없음	⑭ 기타()

문 3-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학업중단숙려제)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3-8」로
② 아니오 → 「문 4」로

문 3-8.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학업중단숙려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Ⅱ. 생활 경험과 인식

※ 다음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4.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b)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2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4년 7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2014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5년 2월~3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의 보기 ⑧ 2015년 3월 ~ ⑪ 2015년 6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② 2014년 9월과 ③ 2014년 10월, ⑦ 2015년 2월과 ⑧ 2015년 3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의 보기 ① 2014년 8월, ④ 2014년 11월 ~ ⑥ 2015년 1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4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시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2014년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대안학교에 다님 (인가/미인가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4)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1) 대학에 다님(휴학/방학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문 4-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닌 적이 있는(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 이름은 무엇이며, 학교 있는 곳(학교 소재지)은 어디입니까?

대안학교 이름: _____ 학교

학교소재지: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문 4-1-1. 「문 4」에서 “2) 대안학교에 다님”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에 다니셨습니까(또는 다닙니까)?

- ① 공립 또는 사립 인가 대안학교(학력 인정이 됨)
- ② 미인가 대안학교(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해야 함)
- ③ 위탁교육기관(종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자격을 줌)
- ④ 잘 모르겠음

문 4-2. 「문 4」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에 응답한 경우 **주로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4-3」으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

문 4-2-1. **검정고시에 응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응시한 적 있다 → 「문 4-2-2」로
- ② 없다 → 「문 4-3」으로

문 4-2-2. (응시한 적이 있다면) 합격하셨습니까?

- ① 전과목 합격
- ② 부분 합격
- ③ 불합격

문 4-3. 「문 4」에서 “4) 직업기술을 배우”에 응답한 경우, 다음 중 **주로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습니까(또는 하고 계십니까)?

- 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고용정보센터, 공립 직업전문학교 등)
- ② 지역사회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사회복지관, 자활지원관, 청소년기관 등)
- ③ 정부가 학원비를 지원하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 ④ 자기가 학원비를 내는 민간 사설학원 프로그램
- ⑤ 기타 ()

문 4-3-1. 거기에서 **배운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또는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문 4-3-2. 귀하가 배우셨던 또는 현재 배우고 계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강사의 질, 프로그램 운영 시설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만족
- ④ 매우 만족

문 4-3-3. 「문 4-3-2」에서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 **불만족스럽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문 4-4. 「문 4」에서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또는 취업)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 둔 경험은 모두 몇 번 입니까?

(총 번) → 0번인 경우 문 4-5로

문 4-4-1. 「문 4」에서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에
응답한 경우, 그 일을 그만 두었다면, 그 일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를 여러 번 그만두었다면,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보수가 적어서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④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로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⑥ 집안의 반대로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⑨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⑩ 기타()

문 4-5. 「문 4」에서 “6) 아무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에
응답한 경우,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하고 싶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② 하고 싶은 것이 있으나 배울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③ 만사가 귀찮아서
④ 노는 것이 좋아서
⑤ 기타()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해당 없음 ” 에 표시

문 5-1. 「문 5」에서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팜과 함께 생활할* 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가출했을 때, 주로 거주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친구나 아는 형(오빠)/누나(언니) 집 ② PC방
③ 찜질방 ④ 모텔, 여관
⑤ 원룸, 고시원 ⑥ 지하철이나 기차역, 공원 등 거리
⑦ 기타 ()

※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없는 경우는 「문 6」으로

- ① 없다 → 「문 5-4」로
② 있다 → 「문 5-3」으로

보호관찰관이 바뀔 수 

384

문 5-4. 「문 5」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셨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셨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나의 문제를 의논하였다.	①	②	③	④

문 5-5. 지난 조사(2014년 7월)이후 귀하가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는지 이용여부를 체크하고, 만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용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경제적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2) 학습 · 진로 지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4) 숙소정보 제공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5)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6)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7) 심리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8)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6.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6-1」로
② 아니오 → 「문 7」로

문 6-1.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②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④ 일반상점 판매원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⑨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⑩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⑫ 주유소 주유원
⑬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⑭ 건설현장 노동
⑮ 공장노동	⑯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⑰ 아기, 노인 돌보기	⑱ 퀵서비스 배달
⑲ 택배기사	㉑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
㉒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㉔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
㉕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㉗ 패션, 광고 모델	㉘ 배우
㉙ 가수	㉚ 콜센터 안내직원
㉛ 일반 사무직	㉜ 기타()

문 6-2. 「문 6-1」에서 응답한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일(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
※ 최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3.5일, 5.5시간 등)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원

※ 다음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7.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⑤ 보호관찰소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⑨ 병원 등 치료시설
⑧ 학원	⑪ 직장
⑩ 대안교육기관	⑬ 기타(_____)
⑫ 없음	

※ 다음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8.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요”에 기재
※ 지난 조사 전부터 가입해서 계속 참여한 경우는 “① 예”에 기재

- ① 예 → 「문 8-1」로
② 아니요 → 「문 9」로

문 8-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재미를 위해	② 자아개발
③ 평소의 흥미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⑦ 취미생활 공유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⑪ 복학에 도움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⑮ 학과 공부에 도움
⑯ 특별한 이유 없음	⑯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8-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⑩ 대입학원 동아리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⑭ 대학교 동아리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⑯ 인터넷 홈페이지
⑰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⑲ 기타()	

문 8-3. 귀하가 참여하는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 내용을 써 주십시오.

※ 예: 힙합, 야구, 댄스, 기타 동아리 등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진학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9.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1.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3」으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문 12」로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또는 창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2.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문 14. **(지난 조사 (2014년 7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그만 둔 경우에만 응답)**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만 「문 15」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①	②	③	④

III.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15.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6.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율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7.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17-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7-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7-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I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보호자), 친구관계, 동네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 18.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0.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 수 KIC	() 명

문 20-1. 「문 20」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0」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0」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 수 KIC	() 명

문 20-2. 「문 20」에서 응답한 '현재 친한 친구' 중 **학교를 그만 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0」에서 말한 친구 중에서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0」의 친구 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 수 KIC	() 명

문 21.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2.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흔내고 말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 일상생활 및 가치관

※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 23.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이하가 되어야 함
-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 알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합계			평일 합계 ()시간	휴일 합계 ()시간

문 23-1. 귀하는 **보통 몇 시에 잠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시 ()분	()시 ()분

문 24.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예	아니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5.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26.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27」로 이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7.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28.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VI.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문 29.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0.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문 31. 귀하는 지난 조사(2014년 7월) 이후 문제행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1」로
② 아니오 → 「문 32」로

문 31-1. 만일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갔습니까?

경찰서에 갔던 경험 회	() 번

문 31-2. 만일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두 번 이상일 경우 그 때마다 받았던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각각 응답해 주세요.

※ 세 번 이상일 경우, 세 번째까지만 적어주세요.

순서	처분유형	
첫 번째	① 아무 혐의가 없어서 그냥 풀려남 ②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풀려남 ③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남 ④ 기타()	※ <u>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u>이란, 경찰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 <u>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u>란, 검사가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① 아무 혐의가 없어서 그냥 풀려남 ②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풀려남 ③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남 ④ 기타()	
세 번째	① 아무 혐의가 없어서 그냥 풀려남 ②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으로 풀려남 ③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남 ④ 기타()	

VII. 배경요인

문 32.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혼자
- | | |
|---------------|-------------------|
|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 ③ 새아버지 | ④ 새어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 ⑦ 형제, 자매 | ⑧ 친척 |
|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 ⑩ 동성 친구, 선후배 |
| ⑪ 이성 친구, 선후배 | ⑫ 남편, 아내 |
| ⑬ 자녀 | ⑭ 기타(구체적으로:_____) |

문 33. 귀하는 지난번 조사(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지난번 조사이후 이사 ES () 번

문 34.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35.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문 36. 귀하가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장래 희망 직업 ¹³⁾	()

부 록 2

(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결과)

부록 2에서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총 3개년에 걸친 조사 중 조사 내용의 특성상 1차년도에서는 조사하였지만, 2차년도와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부록 2-1), 2차년도만 조사 후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부록 2-2) 그리고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는 조사하였지만,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부록 2-3)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본문에서의 분석대상과 마찬가지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모두 참여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총 49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에 제시된 문항의 번호는 각 해당년도 설문지의 설문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부록 1차년도 혹은 2차년도 조사 후 삭제된 문항

구분		문항번호
부록 2-1	1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	1차년도 설문지 기준: I 장(2, 2-1, 5, 6, 7, 8-1, 8-2, 12, 13), 1차년도 설문지 기준: II 장 전체(15, 15-1, 15-2, 16, 17, 18), 1차년도 설문지 기준: IX 장(44, 45, 46)
부록 2-2	2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	2차년도 설문지 기준: II 장 전체(4, 5, 6, 7, 7-1, 7-2), 2차년도 설문지 기준: III 장(9-5, 10-1)
부록 2-3	1~2차년도 조사 후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	1차년도 설문지 기준: VII 장 40, 2차 년도 기준 VIII 장 36

【부록 2-1】 1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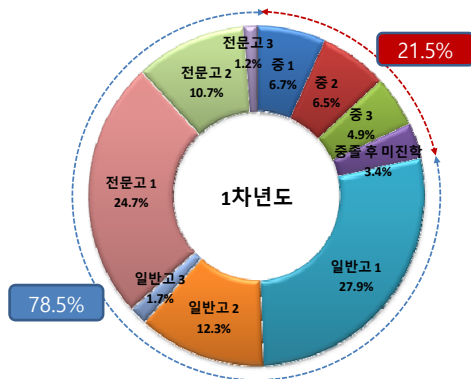
Ⅰ. 학업중단 현황

문 2~문 2-1. 최근 학업중단 시기 및 학년

최근 학업중단 시기에 대해 ‘일반계고 1학년(2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문계고 1학년(24.7%)’, ‘일반계고 2학년(12.3%)’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학업중단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 21.5%, 고등학교 78.5%로 나타났다. 그 중 ‘일반계고 1학년’과 ‘전문계고 1학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27.9%와 24.7%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가 52.6%를 차지하였다.

1차년도 결과



【그림 부록 2-1-1】 최근 학업중단 시기(N=494)

표 부록 2-1-1 최근 학업중단 시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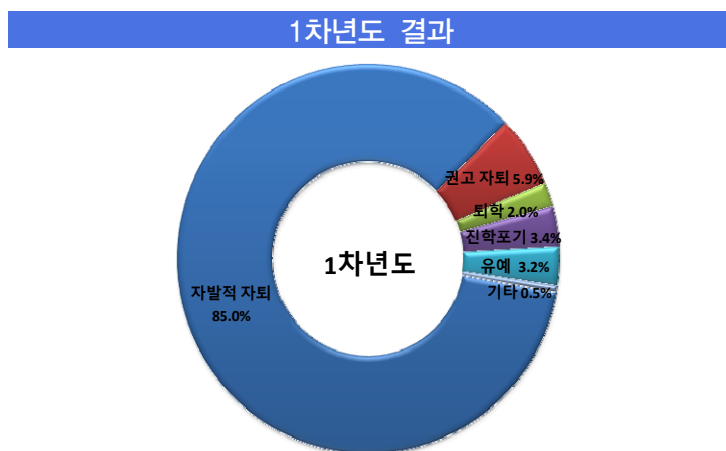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중학교 1학년	33	6.7
중학교 2학년	32	6.5
중학교 3학년	24	4.9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하지 않음	17	3.4
일반계고 1학년	138	27.9
일반계고 2학년	61	12.3
일반계고 3학년	8	1.7
전문계고 1학년	122	24.7
전문계고 2학년	53	10.7
전문계고 3학년	6	1.2
계	494	100.0

133) 해당 내용은 2013년 조사 당시의 설문지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문 5.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에 대해 ‘자발적 자퇴(8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권고 자퇴(5.9%)’, ‘진학포기(3.4%)’, ‘유예(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발적 자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0%로 가장 높았으며, ‘권고 자퇴(5.9%)’,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3.4%)’, ‘유예(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2】 학업 중단 시 행정처리 형태(N=494)

표 부록2-1-2 학업 중단 당시 처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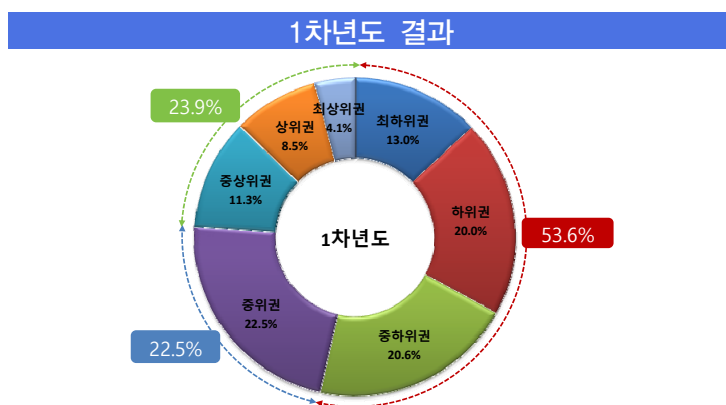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자발적 자퇴(내가 그만 둔 것)	420	85.0
② 권고 자퇴(내 생각보다는 학교의 권고로 자퇴)	29	5.9
③ 징계로서의 퇴학	10	2.0
④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17	3.4
⑤ 유예	16	3.2
⑥ 면제	0	0.0
⑦ 기타	2	0.5
계	494	100.0

문 6. 학교성적수준

학교성적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3.6%가 '하위권'이라고 응답함

- 학교성적수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3.6%가 '하위권'이라고 응답하였고, 23.9%는 '상위권', 22.5%는 '중위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 2-1-3】 학교성적수준(N=494)

표 부록2-1-3 학교성적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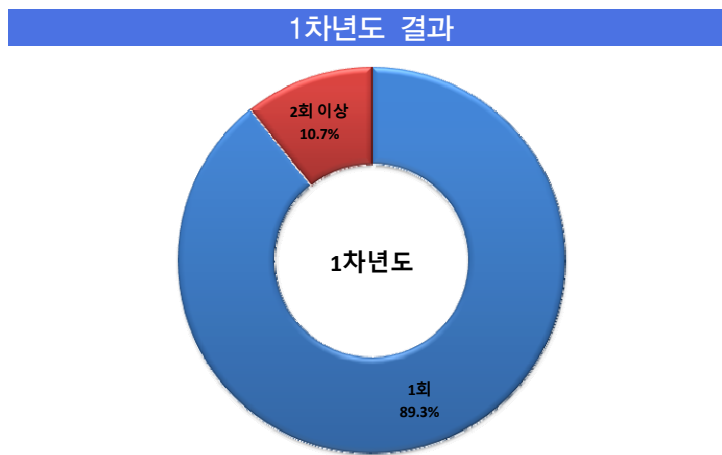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최하위권	64	13.0
하위권	99	20.0
중하위권	102	20.6
중위권	111	22.5
중상위권	56	11.3
상위권	42	8.5
최상위권	20	4.1
계	494	100.0

문 7. 학업중단 횟수¹³⁴⁾

학업중단 횟수에 대해
‘1회(89.3%)’, ‘2회 이상(10.7%)’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횟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9.3%가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10.7%가 ‘2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 2-1-4】 학업중단 횟수(N=494)

표 부록2-1-4 학업중단 횟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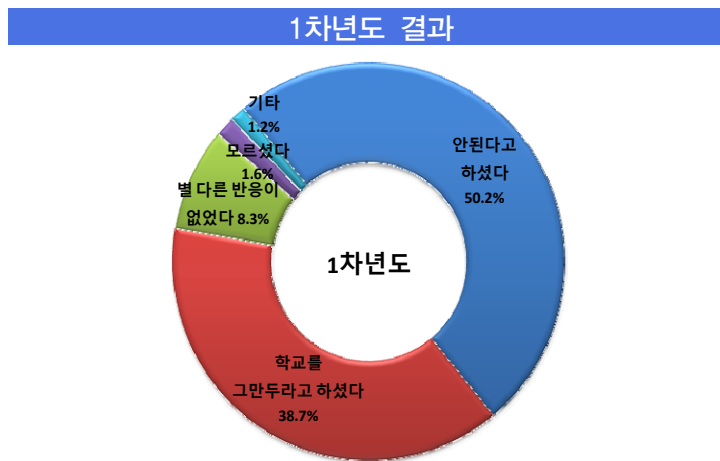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1회	441	89.3
2회 이상	53	10.7
계	494	100.0

134) 문 8-1(최초 학업중단 시기)은 문 2와 중복되는 문항이며, 문 8-2(최초 학업중단 후 복고소요기간)는 수록이 불필요하여 응답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문 12.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에 대해 ‘안된다고 하셨다(50.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38.7%)’,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된다고 하셨다(50.2%)’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38.7%)’,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8.3%)’,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5】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N=494)

표 부록2-1-5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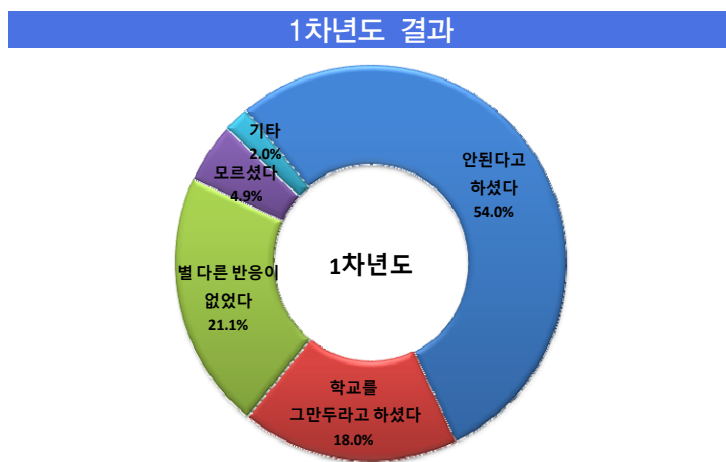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안된다고 하셨다	248	50.2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191	38.7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41	8.3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	8	1.6
기타	6	1.2
계	494	100.0

문 13.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에 대해 ‘안된다고 하셨다(54.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21.1%)’,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된다고 하셨다(54.0%)’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21.1%)’,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18.0%)’,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6】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N=494)

표 부록2-1-6 학업중단 시 학교 선생님 태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안된다고 하셨다	267	54.0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89	18.0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104	21.1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모르셨다	24	4.9
기타	10	2.0
계	4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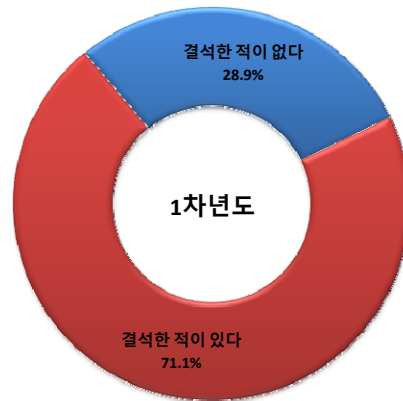
II.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문 15. 무단결석 여부

**무단결석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1.1% '있다'고 응답함**

- 무단결석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8.9%가 '무단결석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71.1%는 '무단결석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 결과



【그림 부록 2-1-7】 무단 결석 여부(N=494)

표 부록2-1-7 무단결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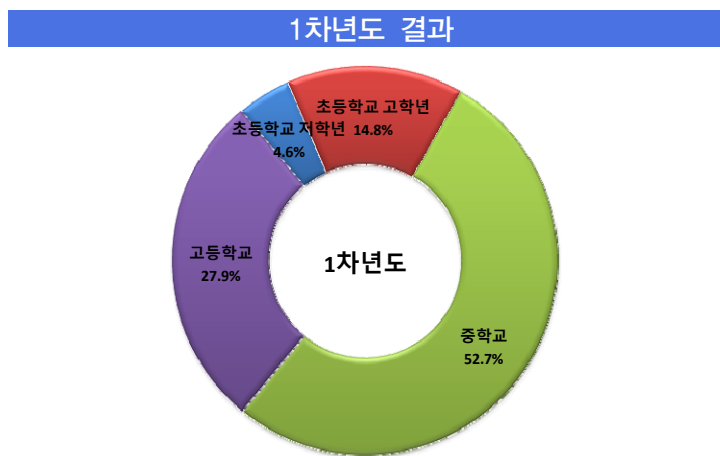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결석한 적이 없다	143	28.9
결석한 적이 있다	351	71.1
계	494	100.0

문 15-1. 최초 결석 시기¹³⁵⁾

최초 결석 시기에 대해 ‘중학교(5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27.9%)’, ‘초등학교 고학년(14.8%)’, ‘초등학교 저학년(4.6%)’의 순으로 나타남

- 최초 결석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학교(52.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27.9%)’, ‘초등학교 고학년(14.8%)’, ‘초등학교 저학년(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8】 최초 결석 시기(N=351)

표 부록2-1-8 최초 결석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초등학교 저학년	16	4.6
초등학교 고학년	52	14.8
중학교	185	52.7
고등학교	98	27.9
계	3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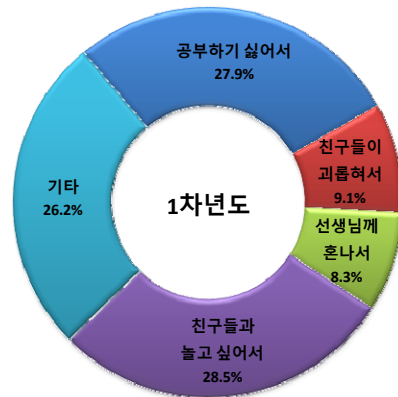
135) 문 15-1~문 15-2는 문 15(무단 결석 여부)의 ①번 ‘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15-2. 최초 결석 이유

최초 결석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28.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부하기 싫어서(27.9%)’, ‘기타(26.2%)’, ‘친구들이 괴롭혀서(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초 결석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28.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부하기 싫어서(27.9%)’, ‘기타(26.2%)’, ‘친구들이 괴롭혀서(9.1%)’, ‘선생님께 혼나서(8.3%)’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



【그림 부록 2-1-9】 최초 결석 이유(N=351)

표 부록2-1-9 최초 결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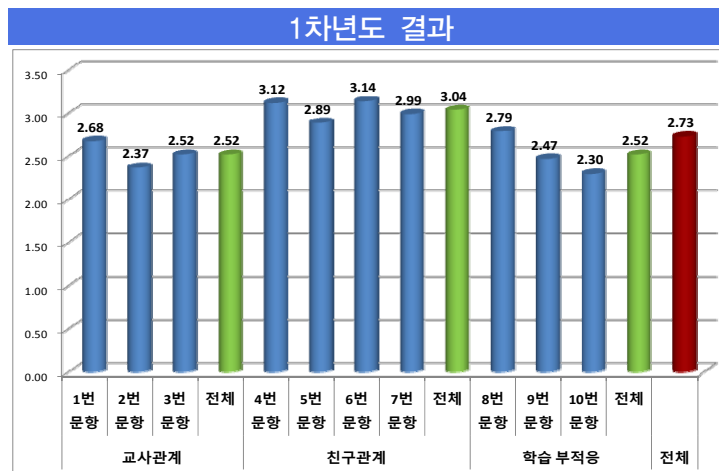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공부하기 싫어서	98	27.9
② 친구들이 괴롭혀서	32	9.1
③ 선생님께 혼나서	29	8.3
④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100	28.5
⑤ 기타(검정고시, 개인사정, 재미가 없어서 등)	92	26.2
계	351	100.0

문 16.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에 대한 평균에서
'친구관계(M=3.04)', '학습 부적응(M=2.52)', '교사관계(M=2.52)'로 나타남

-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친구관계(M=3.04)'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 부적응(M=2.52)', '교사관계(M=2.52)'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에서는 '6번 문항(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이 가장 높았으며(M=3.14), '10번 문항(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M=2.30).



【그림 부록 2-1-10】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N=494,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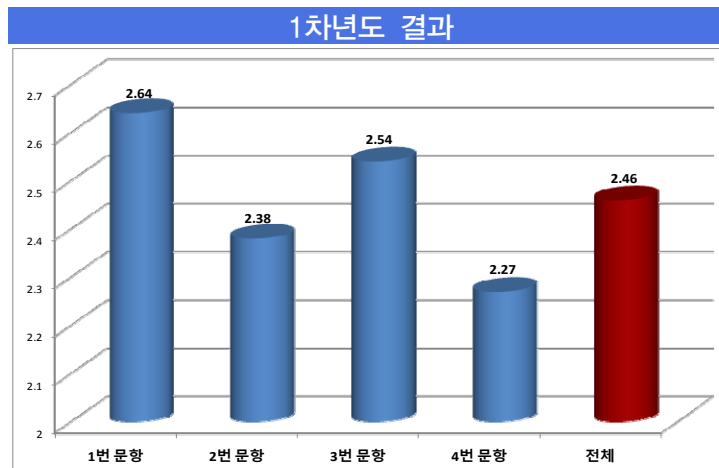
표 부록2-1-10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교사관계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68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2.37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2.52
소계		2.52
친구관계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3.12
	5)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2.89
	6)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3.14
	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2.99
소계		3.04
학습 부적응	8)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2.79
	9)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2.47
	10)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2.30
소계		2.52
전체		2.73

문 17.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에 대한 문항별 평균에서 '1번 문항($M=2.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번 문항($M=2.54$)', '2번 문항($M=2.38$)', '4번 문항($M=2.27$)'의 순이었음

-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1번 문항(학교 규칙이 엄격했다)'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M=2.64$), '3번 문항(학교에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2번 문항(잘못에 비해 벌을 심하게 줬다)', '4번 문항(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활발하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M=2.54$, $M=2.38$, $M=2.27$).



【그림 부록 2-1-Ⅱ】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N=494$, 단위: 점)

표 부록2-1-Ⅱ 학업중단 전 학교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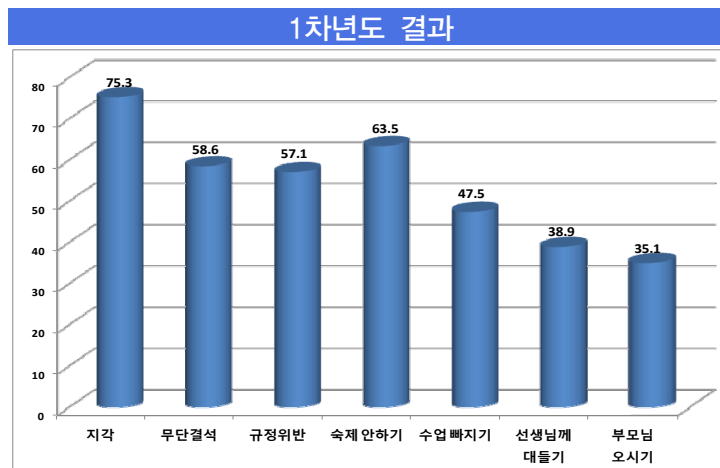
($N=494$, 단위: 점)

문항	평균
1) 학교 규칙이 엄격했다	2.64
2) 잘못에 비해 벌을 심하게 줬다	2.38
3) 학교에 문화예술행사나 동아리활동 등이 활발하였다	2.54
4)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활발하였다	2.27
전체	2.46

문 18. 학교규범 위반 경험¹³⁶⁾

학교규범 위반 경험 중 ‘지각(75.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숙제 안하기(63.5%)’, ‘무단결석(58.6%)’, ‘규정위반(57.1%)’ 등의 순이었음

- 학교규범 위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각(75.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숙제 안하기(63.5%)’, ‘무단결석(58.6%)’, ‘규정위반(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N=494, 단위: %)

표 부록2-1-12 학교규범 위반 경험 (N=494, 단위: 명, %)

문항	사례수	비율
1) 지각	372	75.3
2) 무단결석	290	58.6
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282	57.2
4) 숙제를 하지 않음	314	63.5
5) 수업을 몰래 빼 먹음	235	47.5
6)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192	38.9
7)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174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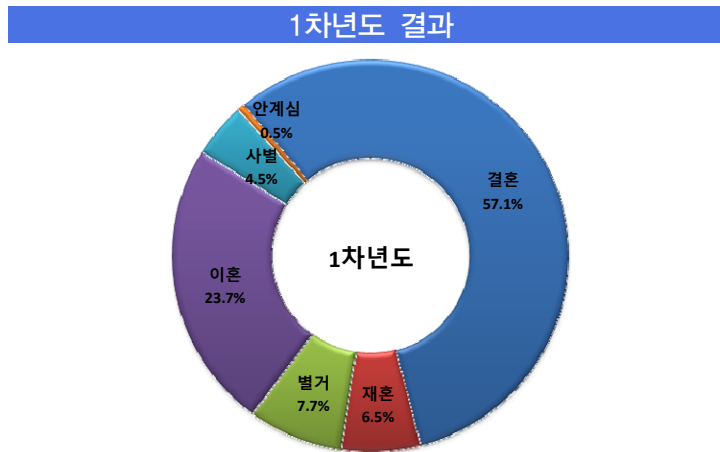
136) 문항은 5점 척도(① 전혀 없었다 ② 연 1-2회 ③ 월 1-2회 ④ 주 1-2회 ⑤ 거의 매일)로 제시되었으며, 사례수와 비율은 ②번~⑤번을 합산한 결과임.

IX. 배경요인

문 44. 부모 결혼상태

부모 결혼상태에 대해 '결혼(57.1%)'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혼(23.7%)', '별거(7.7%)', '재혼(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 결혼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57.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혼(23.7%)', '별거(7.7%)', '재혼(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13】 부모 결혼상태(N=494)

표 부록2-1-13 부모 결혼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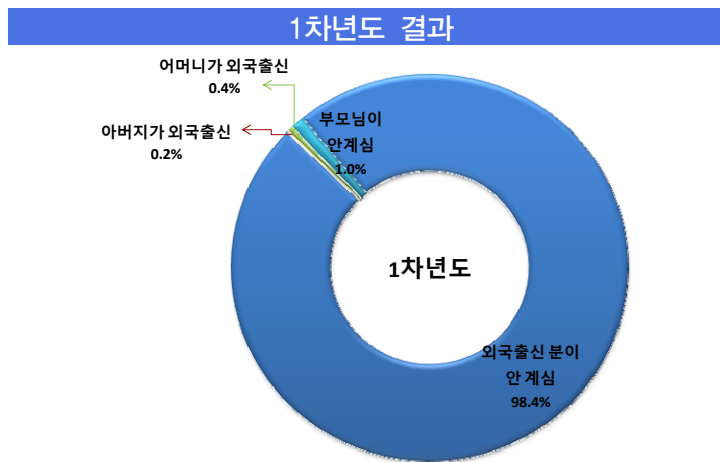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결혼	282	57.1
② 재혼	32	6.5
③ 별거	38	7.7
④ 이혼	117	23.7
⑤ 사별	22	4.5
⑥ 부모님이 안계심	3	0.5
계	494	100.0

문 45. 다문화가정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에 대해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98.4%)'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안 계심(1.0%)', '어머니가 외국출신(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98.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이 안 계심(1.0%)', '어머니가 외국출신(0.4%)', '아버지가 외국출신(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14】 다문화가정 여부(N=494)

표 부록2-1-14 다문화가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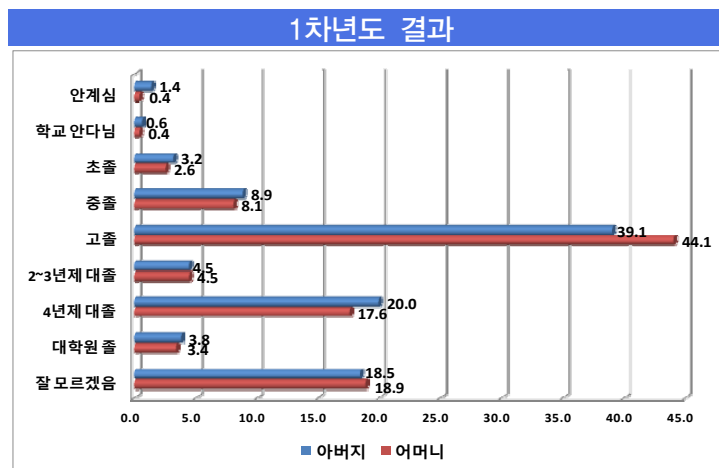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	486	98.4
② 아버지가 외국출신	1	0.2
③ 어머니가 외국출신	2	0.4
④ 두 분 모두 외국출신	0	0.0
⑤ 부모님이 안 계심	5	1.0
계	494	100.0

문 46. 부모 학력

**부모 학력 중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9.1%),
‘어머니’의 경우 역시 ‘고등학교 졸업(44.1%)’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모 학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39.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20.0%)’, ‘잘 모르겠음(18.5%)’, ‘중학교 졸업(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44.1%)’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르겠음(18.9%)’, ‘4년제 대학 졸업(17.6%)’, ‘중학교 졸업(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1-15】 부모 학력(N=494, 단위: %)

표 부록2-1-15 부모 학력

(N=494, 단위: %)

문항	안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1.4	0.6	3.2	8.9	39.1	4.5	20.0	3.8	18.5
2) 어머니	0.4	0.4	2.6	8.1	44.1	4.5	17.6	3.4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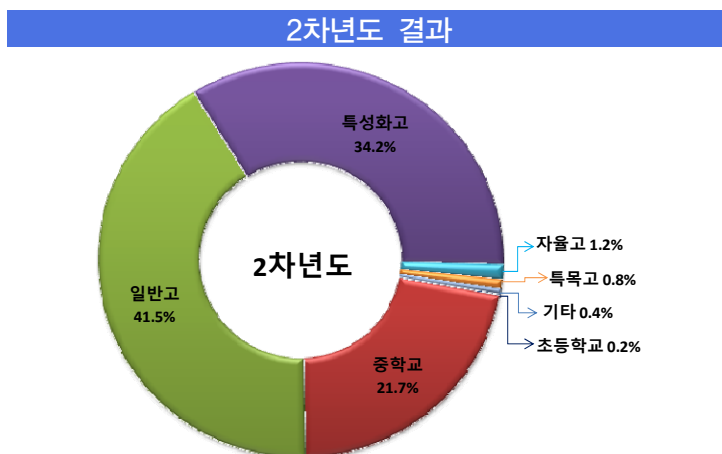
【부록 2-2】 2차년도에서만 조사 후 삭제된 문항¹³⁷⁾

II. 최초 학업중단 당시의 회고와 현재

문 4.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2차년도 추가)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은 ‘일반고(41.5%)’가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34.2%)’, ‘중학교(21.7%)’, ‘자율고(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고(41.5%)’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34.2%)’, ‘중학교(21.7%)’, ‘자율고(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N=494)

표 부록2-2-1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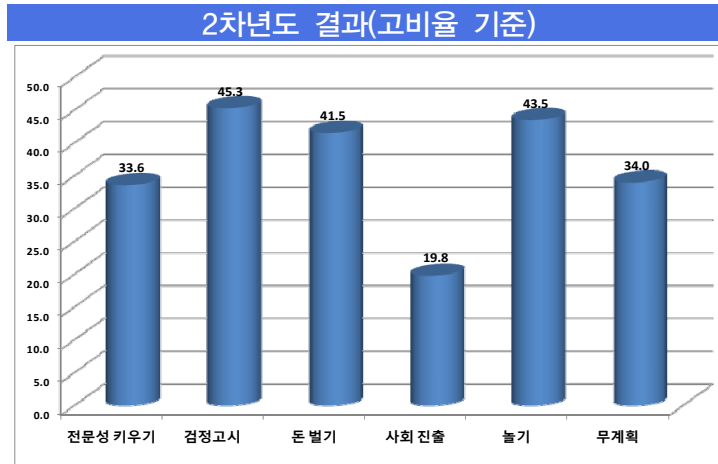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초등학교	1	0.2
② 중학교	107	21.7
③ 일반고	205	41.5
④ 특성화고	169	34.2
⑤ 자율고	6	1.2
⑥ 특목고	4	0.8
⑦ 기타	2	0.4
계	494	100.0

137) 해당 내용은 2014년 조사 당시의 설문지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문 6.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2차년도 추가-복수 응답)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은 '검정고시(45.3%)'가 가장 높았고,
'놀이(43.5%)', '돈 벌기(41.5%)', '무계획(3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45.3%)'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컷 놀고 싶었다(43.5%)',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41.5%)', '별 다른 계획이 없었다(3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2】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N=494, 단위: %)

표 부록2-2-2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¹³⁸⁾

(N=49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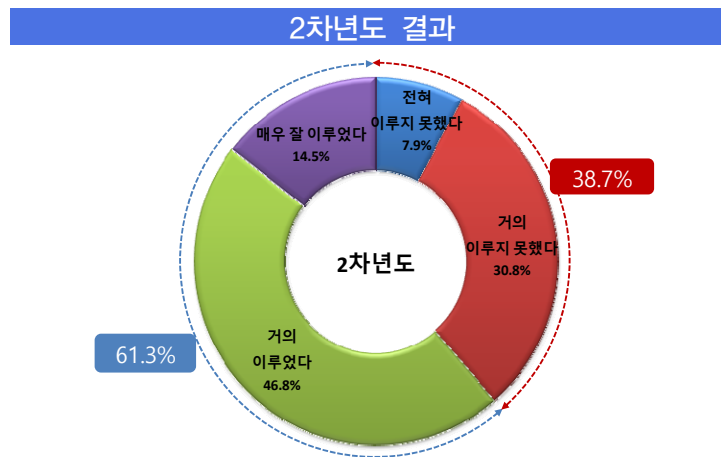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비율
①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166	33.6
②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224	45.3
③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205	41.5
④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98	19.8
⑤ 실컷 놀고 싶었다	215	43.5
⑥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168	34.0
⑦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45	9.1
⑧ 전학가고 싶었다	29	5.9
⑨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77	15.6
⑩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27	5.5
⑪ 대안학교에 가고 싶었다	14	2.8
⑫ 기타	24	4.9

138) 1~3순위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7.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2차년도 추가)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1.3%가 '이루었다'고 응답함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61.3%가 '이루었다'고 응답하였고, 38.7%는 '이루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부록 2-2-3】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N=494)

표 부록2-2-3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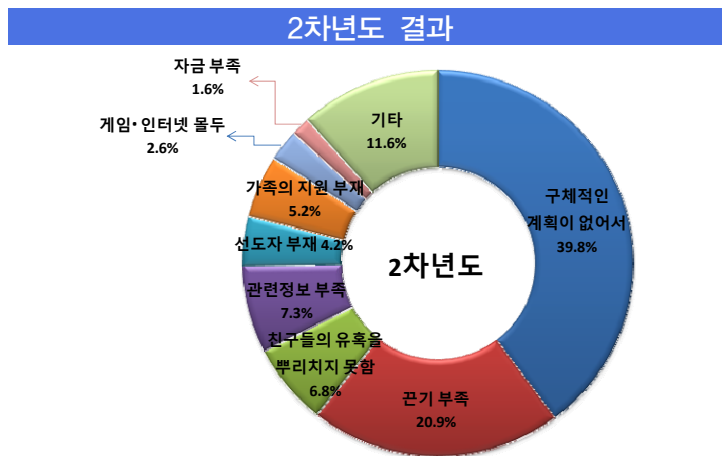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비율	M(SD)
전혀 이루지 못했다	39	7.9	2.68 (0.82)
거의 이루지 못했다	152	30.8	
거의 이루었다	231	46.8	
매우 잘 이루었다	72	14.5	
계	494	100.0	

문 7-1.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¹³⁹⁾(2차년도 추가)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39.8%)’가 가장 많았고, ‘끈기 부족(20.9%)’, ‘기타(11.6%)’, ‘관련정보 부족(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39.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끈기 부족(20.9%)’, ‘기타(11.6%)’, ‘관련정보 부족(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N=191)

표 부록2-2-4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76	39.8
② 끈기 부족	40	20.9
③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13	6.8
④ 관련정보 부족	14	7.3
⑤ 이끌어주는 사람 부재	8	4.2
⑥ 가족의 지원 부재	10	5.2
⑦ 게임이나 인터넷 몰두	5	2.6
⑧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음	3	1.6
⑨ 기타	22	11.6
계	1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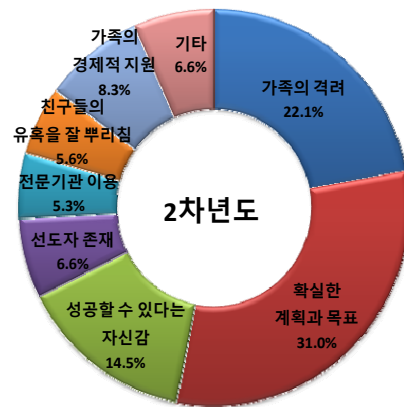
139) 문 7-1은 문 7(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의 ①번 ‘전혀 이루지 못했다’ 또는 ②번 ‘거의 이루지 못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문 7-2.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¹⁴⁰⁾(2차년도 추가)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는 ‘확실한 계획과 목표(31.0%)’가 가장 많았고, ‘가족의 격려(22.1%)’,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계획과 목표와 확실(31.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22.1%)’,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14.5%)’, ‘가족(보호자)의 경제적 지원(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



【그림 부록 2-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N=303)

표 부록2-2-5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	67	22.1
②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계획과 목표가 확실	94	31.0
③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44	14.5
④ 지속적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존재	20	6.6
⑤ 전문기관을 이용	16	5.3
⑥ 유혹을 잘 뿌리침	17	5.6
⑦ 가족(보호자)의 경제적 지원	25	8.3
⑧ 기타	20	6.6
계	3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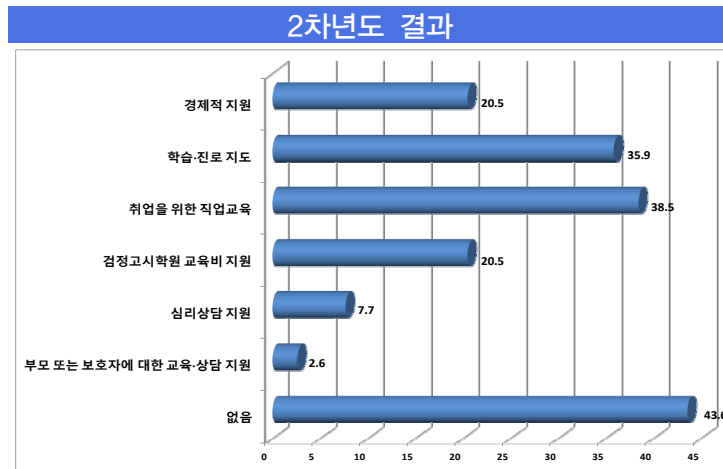
140) 문 7-2은 문 7(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의 ③번 ‘거의 이루었다’ 또는 ④번 ‘매우 잘 이루었다’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Ⅲ. 생활 경험과 인식

문 9-5.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¹⁴¹⁾(2차년도 추가-복수응답)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없음(43.6%)’이 가장 높았고,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38.5%)’, ‘학습·진로 지도(3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음(43.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38.5%)’, ‘학습·진로 지도(35.9%)’, ‘경제적 지원(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6】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N=39, 단위: %)

표 부록2-2-6 지원받고 싶은 보호관찰 프로그램¹⁴²⁾

(N=3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경제적 지원	8	20.5
② 학습·진로 지도	14	35.9
③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15	38.5
④ 숙소정보 제공	0	0.0
⑤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8	20.5
⑥ 의료 지원	0	0.0
⑦ 심리상담 지원	3	7.7
⑧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1	2.6
⑨ 없음	17	43.6
⑩ 기타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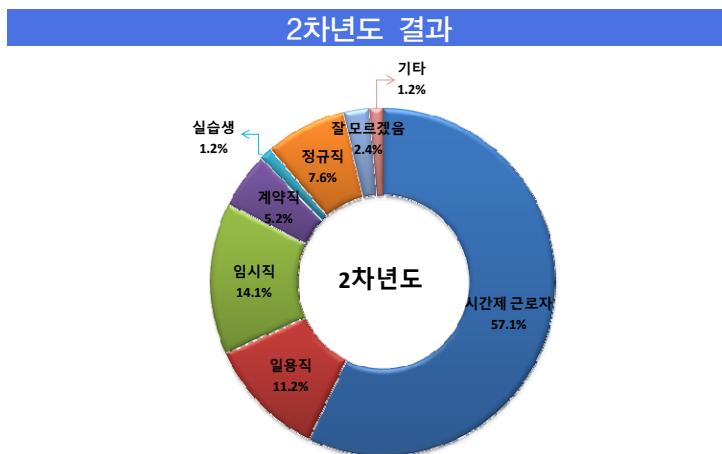
141) 문 9-5는 문 9의 “(3) 보호관찰을 받음”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142) 1~3순위 기입 방식이었으며, 비율은 다중응답 처리된 케이스 퍼센트를 반영하였음.

문 10-1.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¹⁴³⁾(2차년도 추가)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는 ‘시간제 근로자(57.1%)’가 가장 많았고,
‘임시직(14.1%)’, ‘일용직(11.2%)’, ‘정규직(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간제 근로자(57.1%)’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14.1%)’, ‘일용직(11.2%)’, ‘정규직(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록 2-2-7】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N=170)

표 부록2-2-7 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시간제 근로자	97	57.1
② 일용직	19	11.2
③ 임시직	24	14.1
④ 계약직	9	5.2
⑤ 실습생	2	1.2
⑥ 정규직	13	7.6
⑦ 잘 모르겠음	4	2.4
⑧ 기타	2	1.2
계	170	100.0

143) 문 10-1은 문 10(아르바이트 경험)의 ①번 '예'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 결과임.

【부록 2-3】 1~2차년도 조사 후 3차년도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¹⁴⁴⁾

Ⅶ. 생애사건 경험¹⁴⁵⁾(1차년도)

문 40. 생애사건 경험

생애사건 경험에 관한 질문에 ‘전학(46.6%)’이 가장 많았고
‘친부모님의 싸움(44.7%)’, ‘친부모님의 이혼(3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애사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사 등으로 전학함(46.6%)’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억에 남을 만큼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44.7%)’, ‘친부모님의 이혼(3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2-3-1 생애사건 경험¹⁴⁶⁾

[N=494, 단위: 명(%), %]

문 항	사례수(비율)	처음 경험한 시기				
		취학 전	초	중	고	무응답
1)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26(5.3)	26.9	42.3	19.2	11.6	0.0
2)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10(2.0)	40.0	20.0	30.0	10.0	0.0
3) 친부모님의 별거	123(24.9)	35.0	35.8	20.3	8.1	0.8
4) 친부모님의 이혼	153(31.0)	43.8	37.9	13.1	5.2	0.0
5) 친아버지의 재혼(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23(4.7)	26.1	34.8	13.0	21.7	4.4
6) 친어머니의 재혼(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41(8.3)	12.2	51.2	22.0	14.6	0.0
7) 친아버지의 가출	26(5.3)	34.6	38.5	15.4	11.5	0.0
8) 친어머니의 가출	47(9.5)	34.0	48.9	12.8	4.3	0.0
9)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87(17.6)	40.2	40.2	13.8	5.8	0.0
10)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11(2.2)	36.4	9.1	36.4	18.1	0.0
11) 친아버지의 실직	89(18.0)	21.3	28.1	37.1	13.5	0.0
12) 친어머니의 실직	29(5.9)	27.6	20.7	27.6	24.1	0.0
13)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63(12.8)	17.5	41.3	17.5	23.7	0.0
14)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39(7.9)	10.3	46.2	25.6	17.9	0.0
15) 기억에 남을 만큼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221(44.7)	30.8	45.2	20.4	3.6	0.0
16)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85(17.2)	38.8	43.5	12.9	4.8	0.0
17)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120(24.3)	20.8	30.8	37.5	10.9	0.0
18)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57(11.5)	19.3	45.6	29.8	5.3	0.0
19)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97(19.6)	0.0	25.8	48.4	25.8	0.0
20) 이사 등으로 전학함	230(46.6)	10.4	66.1	20.9	2.2	0.4

144) 해당 내용은 해당년도 조사 당시의 설문지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145) 1차년도 문 40과 2차년도 문 36은 동일한 내용이나 조사방식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제시되었음.

146) 사례수와 비율은 해당 경험의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②번 ‘있음’에 응답한 경우를 합산한 결과임.

Ⅷ. 배경요인(2차년도)

문 36. 생애사건 경험

생애사건 경험에는 ‘없음(55.5%)’이 가장 많았고,
‘자격증 취득(11.7%)’,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애사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음(55.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취득(11.7%)’,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8.1%)’, ‘(내가) 친가족으로부터 독립(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부록2-3-2 생애사건 경험

(N=494,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① (내가) 친가족으로부터 독립	33	6.7
② (내가) 시설 및 기관 퇴소	9	1.8
③ (내가) 떨어져 살던 친가족과 생활	6	1.2
④ (내가)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	7	1.4
⑤ (내가) 종교를 갖게 됨	11	2.2
⑥ (내가) 자격증 취득	58	11.7
⑦ (내가) 건강이 좋아짐	29	5.9
⑧ (내가) 건강이 나빠짐	32	6.5
⑨ (내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	40	8.1
⑩ (내가)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짐	3	0.6
⑪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대학 진학	18	3.6
⑫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취업	17	3.4
⑬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결혼	5	1.0
⑭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건강이 나빠짐	4	0.8
⑮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사망	1	0.2
⑯ (함께 살던 외조부모 중) 한 명 이상 사망	6	1.2
⑰ (친부모님 중) 한 분 이상 건강이 좋아지심	2	0.4
⑱ (친부모님 중) 한 분 이상 건강이 나빠지심	24	4.9
⑲ (친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지심	6	1.2
⑳ (친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심	8	1.6
㉑ (친부모님이) 별거	10	2.0
㉒ (친부모님이) 이혼	7	1.4
㉓ (친부모님이) 취업 또는 창업	8	1.6
㉔ (친부모님이) 재혼	2	0.4
㉕ (친부모님이) 돌아가심	2	0.4
㉖ (친부모님이) 사망	11	2.2
㉗ 없음	274	55.5
㉘ 기타	16	3.2

부 록 3

표 부록 3-1 부처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현황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비학생	위 기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수(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18 세 이 하			
1	학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등 복지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85,850	-
2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기능 강화	전국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18,356	8,091명
3	소속감/ 유대 관계	도래활동 활성화	도래활동(도래조정, 도래상담) 및 학생모니터링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9,207	6,506개교
4		학교폭력 예방 도래상담 사업	도래상담 운영학교에 도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500	104,650명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 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수(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비학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5	예 방 (계속)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진로설계 지원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21,361	30,000건 (상담서비스 제공건수)
6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중·고교 단계 각 1회 이상 진로체험 운영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11,801	2,004,312명
7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 직업체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8,300	-
8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384	-
9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사업	지자체(센터) 및 대학(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여대생 커리어 개발 비용 지원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856	60,780명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비학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수(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10	고용 훈련/ 근로 보호	청년취업진로사업/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113개 대학에 취업지원과 채용, 46개 대학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해외 취업을 위해 현지 일자리를 발굴, K-move센터 설치/인턴기간 동안 월 6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224,423	39,010
11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 지원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455	4,719명
12		건강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방학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 점검단	-	-
13	문화/ 여가 (계속)	교육지원청스포츠리그	교육지원청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				교육부 인성체육 예술교육과	9,900	422,753명
14		토요문화학교 운영/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토요휴업일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101,353	79,680명
15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 배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61,722	2,911학교
16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토요휴업일 스포츠 강사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22,191	4,381학교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비학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17	문화/ 여가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학교 안·밖 종목별 스포츠 교실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7,864	271,097명
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참여봉사활동사업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등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172	3,180,000명
19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지원/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 운영	○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1,880	770,029명
20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960	4573명
21	문제 행동 치료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집중지원학교와 전문기관 연계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4,810	2,049,307명
22		국립정신병원 중심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확대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와 학업 병행 지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비예산	127명
23		유해약물피해 청소년 재활지원	한의원 995개소 지정을 통하여 금연침 시술, 술·담배 예방 교육 실시	○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240	20,566명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비학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24	문제 행동 예방 교육	기술 청소년 가정 복귀 등 보호 지원	청소년쉼터와 지역 내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가출 예방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770	915,074명
25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선도학교 및 운영학교 지정하여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등 운영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부모지원팀	3,530	502개교
26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 예방교육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비예산	4,111명
27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전국 초·중학교 게임과몰입 예방교육(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사업폐지	195,847명
28		청소년 미디어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미디어교육 전문강사가 미디어교육 수업 실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900	11,973명
29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치료협력병원 연계를 통한 상담, 치료 연계 서비스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 환경과	4,917	624명
30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768	-
31		음주폐해 예방 관리	음주 예방 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563	-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비학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수혜자 (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32	학업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미혼모에게 검정고시 교육비, 고교생 학비 지원			○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31	-
33	소속감/ 유대 관계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구축: 휴먼네트워크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멘토 발굴, 멘토-멘티 연계 및 멘토링 교육·연구사업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1,067	756기관
34	진로 교육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취약 위기 청소년에게 자립 동기 강화 및 자립기술 습득 과정, 사회진출 도약 과정 프로그램 제공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1,316)	(14,953)명
35	고용/ 훈련/ 근로 보호 (계속)	내일 배움 카드제/취업사관 학교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직업훈련, 훈련지원금 제공/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게 무료 직업훈련 제공			○	○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300,654	17,174명
36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법무부 보호관찰과	비예산	613명
37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직업훈련, 경제구호, 복학주선 등 지원					○		법무부 보호관찰과	비예산	6,110명
38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소년원학생에게 취업알선 및 장학금지급					○		법무부 소년과	비예산	1,147명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수(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비학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39	고용 훈련/ 근로 보호	직업체험활동	소년원생에게 통근 취업, 현장훈련 등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법무부 소년과	비예산	423명
40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강화	보호 종결 아동에게 주거미련 지원, 취업 훈련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상담, 모니터링, 학업지원 후원금 모금 등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021	1,595명
41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소년원 출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1,316)	1675명
42	문화/ 여가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청소년에게 일지리 제공, 직업 체험 확대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11,316)	-
4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감독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및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	○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657	-
44		청소년근로보호사업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점검	○	○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145	-
45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업제도 구축	비행청소년에게 문화예술·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비예산	-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 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비학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46	지 원 계 (계속)	입소한 비행소년 대상 성비행예방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남자 소년원생에게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진행 및 성폭력 피해 여자소년원생에게 치유프로그램 진행				○	법무부 소년과	141	650명
47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지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피해 아동 전용 심리치료 · 보호시설 인프라 확대 및 가족상담 · 치료 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5,247	-
48		음주문제 청소년 등록관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음주 청소년 조기 치료 및 재활관련 서비스 제공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3,040	250명
49		이동청소년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위기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3,250	71,850명
50		청소년 간접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치료협력병원 연계 통한 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료 연계 서비스	○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 환경과	200	106명
51		정서적 · 행동적 장애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정서적 · 행동적 장애청소년에게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치료 · 재활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6,215	1,074명

단 계	대 상 서비스 영역	사업명	사업내용	학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비학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52	문제 행동 예방 교육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시법제도 구축	비행 청소년에게 인성교육, 공동통제 훈련, 사회기술 훈련, 명상, 미술치료, 정신건강 교육 실시				○	법무부 보훈청과	비예산	13,324명
53		소년보호기관 성교육 담당자 전문교육	성교육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보호기관 성비행예방 전문지도자 양성				○	법무부 소년과	20	-
5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할 보건소에서 올바른 식생활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 교육·홍보	○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00	-
55	주거 지원	이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이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0,710	367명
56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지 지원 강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	무의탁 출원생을 위한 자립생활관 및 사회정착지원센터 운영				○	법무부 소년과	2,803	22,143명
57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기출 청소년의 비행·탈선 예방 및 청소년 쉼터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10,002	543,000명
58	경제적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을 위한 비용 지원				○	여성가족부 학교박청소년 지원과	1,415	5,251건 (지원건수)

단 계	대 상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학 생			비 학 생	위 기 청 소 년	담당부처	2015 예산 (단위: 백만원)	2014 수혜자 (기관)수
				초 중 고	대 학 생	18 세 이 하	18 세 초 과				
59	gate way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학업중단 학생에게 상담, 진로 탐색, 체험 활동 등 숙려제 프로그램 제공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9,975	-
6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지원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 원과	11,316	14,953명
61		CYS-Net을 통한 건강지원 체계 구축	자살위험, 우울증 등 고위기 청소년 대상 심층상담 및 지역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청소 년지원지원과	19,470	1,936,071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and life course of teenagers who drop out of school through a panel survey of their post-school lives and their changed value systems,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is purpose, existing literature was reviewed, including materials pertaining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dropouts, measures both in and outside of Korea to prevent teens from dropping out, and existing public policy designed to help those who are not attending school. A cooperative study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the findings. This study is also based on a three-year panel survey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policy-makers in the relevant area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study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dropouts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shows that 267 (54.0%) were still out of school, 68 (13.8%) were currently in school, 19 (3.8%) had graduated from school, and 135 (27.3%) went on to college. During this three-year period, the school reinstatement and repeat-dropout rates were 34.4% and 20.0%, respectively. Over time, a smaller number of teenagers studied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r took vocational training, while a larger number were working eight hours or more per day. Second, a study of the course of their lives and their characteristics shows that 50.4% returned to study in the third year after dropping out of school, 32.4% took a job, 11.1% had neither returned to study nor taken a job, and 6.0% had become delinquents. Factors that influenced what course they took were self-esteem, their reason for dropping out, the information they had received, the institutions where they were matched with an adult mentor, and their educational aspirations. Third, a comparison of general dropouts and those who were placed on probation reveals that impulsivity among general dropouts declined continuously over three years, while those on probation had a slightly declining impulsivity in the second year, which then rose again, ending up with a higher impulsivity than the other group. Those on probation had a higher sense of stigma than general dropouts, but this sense converged in both groups in the third year. The two groups experienced a decline

in economic assistance and abuse from their parents over three years, as well as a decline in delinquent behaviors among their friends. As for eating habits, both groups converged to similar, rapidly deteriorating levels in the third year. Less serious delinquencies were found in both groups, but a more noticeable reduction was observed in the probation group. General dropouts showed a higher rate of career decision-making than the other group.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a total 16 tasks in six areas—identifying and establishing stronger ties with public policy beneficiaries, developing and funding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for teenage school dropouts, building a system to enable a larger number of teenagers to benefit from vocational training, providing day-to-day guidance for dropouts, preventing teenagers from dropping out of school, and reinforcing the public policy base.

Keywords: junior high and high school dropouts,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policy support for school dropouts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 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5-31-01
연구보고 15-R17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85-4 94330

979-11-5654-065-6 (세트)